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 경 학 석 사 학 위 논 문

# 문학작품을 통한 1930년대 경성중심부의 장소성 해석

: 박태원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바탕으로

(The) Analysis of Placeness in 1930s Kyungsung Center  
through Literary Works

: Based on Tae-won Park's novel, 「A Day of the Novelist Gubo」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전 정 은




문학작품을 통한 1930년대  
경성중심부의 장소성 해석  
: 박태원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바탕으로

지도교수 황 기 원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4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전 정 은

전 정 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6월

위 원 장	조 경 진	
부 위 원 장	서 b 홍 사 남	(인) 
위원(지도교수)	황 기 원	(인) 

# 문학작품을 통한 1930년대 경성중심부의 장소성 해석

: 박태원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전 정 은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학위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및 초빙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8월

위 원 장 조 경 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부 위 원 장 노 정 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위원(지도교수) 홍 이 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초빙심사위원 김 영 제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문학작품을 통한 1930년대 경성중심부의 장소성해석

: 박태원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바탕으로

전 정 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지도교수 : 황 기 원

---

현재 서울의 많은 근대건축물들이 단지 ‘일제강점기 잔재의 흔적’이라는 이유로 무관심 속에 하나 둘 사라져가고 있으며 그나마 문화재로 지정되어 남은 건축물들 역시 그 장소성을 잃어가고 있다. 500년 역사를 이어온 조선의 ‘한양’과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서울’ 사이의 일제강점기의 ‘경성’은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을 읽기 위해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고리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일제강점기 근대유산에 관한 연구는 주로 건축분야에서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민시대의 잔재로써 부정적으로 인식되거나 자꾸만 철거되는 근대유산의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단순히 ‘건축물’이 존재했었던 건축적, 물리적인 기표 등 ‘건축물’ 그 하나만 고려하여 접근하기보다는 그 건축물 주변 영역까지 확대하여 주변의 요소들까지 유기적으로 바라보고 그 공간이 담고 있는 기억을 재생하여 ‘장소성’을 찾는 것이다.

즉 무조건적인 근대건축물 보전을 주장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 건축물이 있었던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을 했고, 어떠한 활동을 했었는지 등 집단기억을 바탕으로 장소성을 회복해야 한다.

도시 내 파편적인 장소에는 개인적 기억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애환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듯이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작가들이 기록한 개인적인 장소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문학작품을 통해 당시 서울이 담고 있던

기억을 재생하여 그 장소성을 해석하고자 한다. 문학작품 속에 기술된 장소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의 장소에 대해 이해하는 데 문학작품에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30년대 서울도시경관에 대한 묘사와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는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장소성 해석을 위한 연구대상은 근대도시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백화점, 경성역, 다방 및 카페, 공원, 가로”로 다섯 개의 항목으로 하였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만으로 부족한 내용은 박태원의 다른 문학작품들과 1930년대에 활발히 활동했던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도 함께 연구대상으로 하여 보완하였다. 그 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는 당시 발행되었던 대중매체들을 참고하여 장소성을 해석하였다.

문학작품을 통한 1930년대 경성중심부의 장소성 해석을, P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도시공간은 복잡한 매카니즘이 있는 이중성을 띠고 있었고

둘째, 근대화로 인해 발달한 도시여가와 소비문화는 현재 형성된 도시문화의 시초가 되었으며

셋째, 근대도시가 만들어내는 스펙터클(spectacle)은 구경꾼과 산책자를 만들어 냈고

넷째, 이 모든 것들은 가로건축물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1930년대의 도시인들은 이러한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근대적 삶을 누렸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0년대 경성의 도시경관은 ‘생산하는 도시’가 아닌 ‘소비하는 도시’의 결과로 형성되었으며 현재 서울의 도시경관 형성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

■ 주요어 : 1930년대 경성, 장소성, 문학작품,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 학 번 : 2010-22366

# 목 차

■ 국문초록 .....	iv
■ 목 차 .....	vi
■ 그림목차 .....	ix
■ 표 목 차 .....	xiii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01
제2절. 연구의 범위 .....	06
1. 공간적 범위 .....	06
2. 내용적 범위 .....	06
제3절. 연구사 .....	07
1. 문학작품을 활용한 장소와 공간 연구 .....	07
2. 소결 .....	12
제4절. 연구의 방법 .....	13
제5절. 대상지 개관 .....	14
1. 조선시대 .....	14
2. 개항기 .....	15
3. 일제강점기 .....	16

## 제2장 문학작품과 장소성의 관계 이해

제1절. 장소성 .....	18
1. 장소, 장소성의 의미 .....	18
2. 현대도시에서의 장소성 상실 .....	19
제2절. 문학작품과 장소성 .....	21
1. 문학작품과 장소의 관계 .....	21
2. 문학작품 속 장소성 해석을 위한 장소성 형성구조 .....	22
제3절.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이해 .....	25
1. 왜 박태원의 작품인가? .....	25
2. 작가 ‘박태원’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	26
3.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현 위치 .....	28
제4절. 문학작품 속 장소 선정 및 해석의 틀 .....	29
1. 문학작품 선정 방법 .....	29
2. 문학작품 속 장소 선정 결과 및 분류 .....	30
3. 문학작품 속 장소성 해석을 위한 틀 .....	33

## 제3장 1930년대의 경성과 문학작품을 통한 장소성 해석

제1절. 1930년대 경성의 시대적 상황과 모더니스트들 .....	34
--------------------------------------	----

제2절. 문학작품 속의 경성의 장소성 해석 .....	36
1. 백화점 .....	37
1) 화신백화점 .....	38
2) 미쓰코시백화점 .....	57
2. 경성역 .....	72
3. 다방과 카페 .....	85
1) 낙랑파라와 제비다방 .....	85
2) 엔젤카페 .....	111
4. 탑골공원 .....	126
5. 가로 .....	135
1) 종로 .....	135
2) 남대문통 .....	163

## 제4장 결론

제1절. 1930년대 경성중심부의 공간적 의미 .....	178
제2절. 경성중심부 도시경관의 1930년대와 현재 .....	181
1. 종로 가로경관의 1930년대와 현재 .....	182
2. 남대문통 가로경관의 1930년대와 현재 .....	183
3. 소결 .....	188

## 참고문헌

## 부록

## ■ 그림 목차

[그림 1-1]	서울 신역사와 구역사 .....	01
[그림 1-2]	서울신청사와 옛 서울시청 .....	01
[그림 1-3]	많은 논란 속에서 1987년 철거된 화신백화점 .....	02
[그림 1-4]	화신백화점 터 표지석 .....	02
[그림 1-5]	서울역사의 레이어 .....	03
[그림 1-6]	1930년대 경성전기주식회사 .....	04
[그림 1-7]	현재 한국전력 사옥 .....	04
[그림 1-8]	대상지의 공간적 범위 .....	06
[그림 1-9]	수선전도(首善全圖), 1840 .....	14
[그림 1-10]	최신경성전도, 1907 .....	15
[그림 1-11]	대경성전도, 1936 .....	16
[그림 1-12]	연구의 흐름 .....	17
[그림 2-1]	E.Relph의 장소성 형성구조 .....	22
[그림 2-2]	Steele의 장소성 형성구조 .....	22
[그림 2-3]	Greene의 장소성 형성구조 .....	23
[그림 2-4]	이석환의 장소성 형성구조 .....	23
[그림 2-5]	백선희의 장소성 형성구조 .....	24
[그림 2-6]	본 연구의 장소성 형성구조 .....	24
[그림 2-7]	경성의 산책자들 .....	25
[그림 2-8]	구보 박태원 .....	27
[그림 2-9]	모던보이 박태원과 그의 친구들 .....	27
[그림 3-1]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오는 구보의 동선 .....	36
[그림 3-2]	화신백화점 입지 .....	38
[그림 3-3]	초기의 화신상회 .....	39
[그림 3-4]	1932년 개업한 화신백화점 .....	39
[그림 3-5]	동아백화점 .....	40
[그림 3-6]	화재가 나기 전 구름다리로 이은 화신백화점 .....	40
[그림 3-7]	화재가 난 화신백화점 .....	41
[그림 3-8]	화재 후 다시 지은 화신백화점 .....	41
[그림 3-9]	1930년대 화신상회 포장지 .....	42
[그림 3-10]	1930년대 화신백화점 진열장 .....	44
[그림 3-11]	미쓰코시백화점 4층 식당 .....	46
[그림 3-12]	정자옥백화점 식당 .....	46
[그림 3-13]	백화점 견학 .....	47
[그림 3-14]	여러분의 화신 .....	50
[그림 3-15]	여성들만 보이는 백화점 풍경 .....	52

[그림 3-16]	백화점 진열 .....	53
[그림 3-17]	만추가두풍경 .....	53
[그림 3-18]	백화점 내부 1 .....	53
[그림 3-19]	백화점 내부 2 .....	53
[그림 3-20]	승강기를 탔을 때.. .....	56
[그림 3-21]	승강기의 매력 .....	56
[그림 3-22]	미쓰코시 백화점 입지 .....	57
[그림 3-23]	미쓰코시 백화점 온실 .....	61
[그림 3-24]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도면 .....	63
[그림 3-25]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에서 바라본 전경 .....	64
[그림 3-26]	1930년대 미쓰코시백화점 옥상 .....	65
[그림 3-27]	1930년대 미쓰코시백화점 갤러리 .....	65
[그림 3-28]	폭로주의의 상매가 .....	69
[그림 3-29]	진열창에 오는 여름 .....	70
[그림 3-30]	맥고모자-쇼윈도에 가두로 탈출했다 .....	71
[그림 3-31]	동아일보에서 연재한 쇼윈도우 특집기사 .....	72
[그림 3-32]	남대문역 .....	73
[그림 3-33]	증축 한 남대문역 .....	73
[그림 3-34]	경성도 KEIJO, 1913 .....	73
[그림 3-35]	경성역 귀빈실 .....	77
[그림 3-36]	경성역 양식당 그릴 .....	77
[그림 3-37]	경성역 평면도 .....	78
[그림 3-38]	1930년대 경성역 .....	79
[그림 3-39]	경성역 3등 대합실 .....	79
[그림 3-40]	경성역 1,2등 대합실 .....	79
[그림 3-41]	경성역에 걸린 시계 .....	81
[그림 3-42]	시(時)의 기념일에 시계 수선 광경 .....	81
[그림 3-43]	경성역에 내린 사건관계자들 .....	84
[그림 3-44]	낙랑파라 입지 .....	87
[그림 3-45]	제비다방을 테마로 한 이상 100주년 기념 전시회 .....	88
[그림 3-46]	제비다방 입지 .....	89
[그림 3-47]	1931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한 이상의 ‘자화상’ .....	90
[그림 3-48]	1935년 친구 구본웅이 그려준 ‘우인의 초상’ .....	90
[그림 3-49]	낙랑파라 외관 .....	93
[그림 3-50]	낙랑파라 맞은 편의 고야제작소 .....	93
[그림 3-51]	깍다점 입구 1 .....	94
[그림 3-52]	깍다점 입구 2 .....	94
[그림 3-53]	깍다점 입구 3 .....	94
[그림 3-54]	명동 <다이나> .....	94

[그림 3-55]	깍다점 내부 .....	96
[그림 3-56]	낙랑파라 내부 모습 .....	97
[그림 3-57]	깍다점 내 급사인 남자아이 .....	98
[그림 3-58]	도회점경 .....	100
[그림 3-59]	낙랑파라에 대한 동아일보 신문기사 .....	102
[그림 3-60]	낙랑파라에서 찍은 사진 .....	104
[그림 3-61]	공트 「제비」 삽화 .....	107
[그림 3-62]	엔젤카페 입지 .....	113
[그림 3-63]	엔젤카페 1 .....	114
[그림 3-64]	본정카페 긴자 .....	114
[그림 3-65]	엔젤카페 2 .....	115
[그림 3-66]	관철정카페 왕관 .....	115
[그림 3-67]	오늘날의 클럽에서 주최한 가면무도회 .....	117
[그림 3-68]	1933년 여성노동군의 일당과 근무시간 .....	122
[그림 3-69]	탑골공원 팔각정 위 풍경 .....	128
[그림 3-70]	공사중인 탑골공원 .....	131
[그림 3-71]	탑골공원 안 그네 .....	131
[그림 3-72]	조선명소 탑골공원 .....	132
[그림 3-73]	1930년 탑골공원 .....	135
[그림 3-74]	오늘날 탑골공원 .....	135
[그림 3-75]	경성거리의 다양한 사람들 .....	137
[그림 3-76]	1934년경 종로거리 .....	142
[그림 3-77]	보신각과 근대건물들 .....	143
[그림 3-78]	1930년대 활동한 작가 주경의 표현과 그림 ‘파란’ .....	144
[그림 3-79]	1937년의 종로네거리의 주요건축물들 .....	145
[그림 3-80]	한미전기회사(1901)와 YMCA(1908) .....	147
[그림 3-81]	1928~1930년경 종로네거리 .....	148
[그림 3-82]	1938년 종로네거리 .....	148
[그림 3-83]	종로 한경선양화점 .....	151
[그림 3-84]	종로 조선축음기상회 .....	151
[그림 3-85]	종로의 걸인들 .....	153
[그림 3-86]	선술집 시대 .....	154
[그림 3-87]	종로 야시장 1 .....	156
[그림 3-88]	종로 야시장 2 .....	156
[그림 3-89]	종로 야시장 3 .....	156
[그림 3-90]	종로 야시장 4 .....	156
[그림 3-91]	종로 야시장 5 .....	156
[그림 3-92]	종로 야시장 6 .....	156



[그림 3-93]	종로 야시장 풍경 .....	157
[그림 3-94]	물건사실 때... ..	161
[그림 3-95]	키타무라 모자점(본점) .....	162
[그림 3-96]	미노야 오복점(본점) .....	162
[그림 3-97]	조효순 상점(종로 1-52) .....	162
[그림 3-98]	구정상회(종로 1-54) .....	162
[그림 3-99]	가가(假家)를 정비하기 전(1898년)과 정비한 후(1904년)의 남대문로 ...	164
[그림 3-100]	김남천의 「가로」에서 등장인물들의 가상 동선 .....	166
[그림 3-101]	경성우편국 .....	167
[그림 3-102]	조선은행 .....	167
[그림 3-103]	미쓰코시백화점,저축은행 .....	167
[그림 3-104]	상업은행 .....	167
[그림 3-105]	본정 입구 .....	168
[그림 3-106]	경성의 지게꾼들 .....	170
[그림 3-107]	조선은행, 미쓰코시 백화점, 히라타 백화점 .....	170
[그림 3-108]	히라타 백화점과 미쓰코시 백화점 .....	171
[그림 3-109]	미쓰코시백화점 앞 좌우 시선 .....	172
[그림 3-110]	미쓰코시백화점 오른쪽 광고탑 .....	172
[그림 3-111]	미쓰코시백화점 왼쪽 가게 청목당 .....	172
[그림 3-112]	조선은행 앞 광장 야경 .....	173
[그림 3-113]	조선은행 앞 광장 로타리 설계도 .....	174
[그림 3-114]	조선은행 앞 광장 로타리 .....	175
[그림 3-115]	조선은행 앞 광장 로타리의 분수탑 .....	175
[그림 3-116]	구보가 장곡천정을 걸어가며 경성우편국을 바라보았을 시점	176
[그림 3-117]	구보가 장곡천정을 걸어가며 바라보았을 경성우편국 .....	176
[그림 3-118]	남대문통 1정목 .....	177
[그림 4-1]	1930년대 종로 2정목 .....	182
[그림 4-2]	현재 종로 2정목 .....	182
[그림 4-3]	1930년 말 종로네거리 .....	182
[그림 4-4]	현재 종로네거리 .....	182
[그림 4-5]	1930년대 남대문통 1정목 입구 .....	183
[그림 4-6]	현재 남대문통 1정목 입구 .....	183
[그림 4-7]	1930년대 남대문통 1정목(1) .....	183
[그림 4-8]	현재 남대문통 1정목(2) .....	183
[그림 4-9]	1930년대 남대문통 1정목(2) .....	184
[그림 4-10]	현재 남대문통 1정목(2) .....	184
[그림 4-11]	1930년대 남대문통 2정목(1) .....	184
[그림 4-12]	현재 남대문통 2정목(2) .....	184
[그림 4-13]	1930년대 조선은행 앞 광장 .....	185

[그림 4-14] 현재 조선은행 앞 광장 .....	185
[그림 4-15] 1930년대 경성우편국 .....	185
[그림 4-16] 현재 경성우편국 .....	185
[그림 4-17] 1930년대 미쓰코시백화점, 저축은행 .....	186
[그림 4-18] 현재 미쓰코시백화점, 저축은행 .....	186
[그림 4-19] 1930년대 남대문통 5정목 .....	186
[그림 4-20] 현재 남대문통 5정목 .....	186
[그림 4-21] 1930년대 경성역 전경 .....	187
[그림 4-22] 현재 경성역 전경 .....	187
[그림 4-23] 조지야백화점 .....	189
[그림 4-24] 롯데 영플라자 .....	189

## ■ 표 목차

[표 1-1] 문학작품을 활용한 장소와 공간에 대한 연구사 .....	07
[표 2-1] 연구의 흐름 .....	18
[표 2-2] 시대에 따른 장소의 특성변화 .....	20
[표 2-3]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파생된 문화컨텐츠와 행사 .....	28
[표 2-4] 문학작품 속 장소성 연구를 위한 문학작품 및 작가 .....	31
[표 2-5] 문학작품 속 장소성 해석의 틀 .....	33
[표 3-1] 구보의 동선 .....	37
[표 3-2] 1938년 현재 경성부 내 백화점 현황 .....	38
[표 3-3] 1930년대 문학작품 속의 화신백화점 .....	41
[표 3-4] 1930년대 문학작품 속의 미쓰코시 백화점 .....	58
[표 3-5] 1930년대 백화점의 층별 매장 구성 .....	62
[표 3-6] 1930년대 문학작품 속의 경성역 .....	74
[표 3-7] 1930년대 문학작품 속의 낙랑파라 .....	86
[표 3-8] 1930년대 문학작품 속의 제비다방 .....	86
[표 3-9] 본정과 종로의 깃다점 .....	91
[표 3-10] 1930년대 문학작품 속의 엔젤카페 및 카페 .....	112
[표 3-11] 1930년 경성부 건축물 일람표 .....	113
[표 3-12] 1936년 경성부 내 각 지역별 업소의 여급 수 .....	121
[표 3-13] 1930년대 문학작품 속의 탑골공원 .....	126
[표 3-14] 탑골공원의 물리적 변화과정 .....	132
[표 3-15] 1930년대 문학작품 속의 종로 .....	136
[표 3-16] 종로네거리의 주요건축물들 .....	146
[표 3-17] 1930년대 문학작품 속의 남대문통 .....	164
[표 4-1] 종로와 남대문통의 주요 건축물들 현황 .....	188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옛 서울역사(사적 제284호)인 경성역이 ‘문화역 서울284’로 돌아왔다. 1925년 준공되었던 경성역은 식민시대의 아픔과 근대문화의 기억이 중첩되는 곳이기도 하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이상의 ‘날개’에 묘사되기도 한 이곳은 문화로 표현된 또 다른 모습이었다. 이러한 옛 서울역은 2004년 KTX개통과 함께 새로 지은 역사를 사용하게 되면서 더 이상 기차역으로 기능은 상실하고 폐쇄된 채 여러 해 방치한 결과 역사적 건축물로서의 가치도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2007년부터 역사성과 장소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역 서울284’란 복원작업이 시작되어 오늘날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그러나 애초에 옛 서울역이 ‘기차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는 지금 이미 기차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新)역사와 복원된 구역사가 물리적으로 단절됨으로써 퇴색해버렸고 이는 나아가 세대 간에 ‘기억의 단절’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그림 1-1〉) 즉 옛 서울역을 이용했던 세대는 옛 서울역이 진짜 서울역이고 새로 지은 서울역은 증축된 대합실이라면, ‘문화역 서울284’를 이용할 다음 세대에게는 새로 지은 서울역이 진짜 서울역이고 옛 서울역은 박물관으로써 인식될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곧 완공될 예정인 ‘서울신청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옛 서울시청은 문화재로서, 일부는 헐렸지만 명목상 그 얼굴만 유지하여 남겨둔 채 옛 서울시청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새로운 서울시청이 그 뒤에 덧붙여 신축되면서 어색한 장소를 만들어내고 있다.(〈그림 1-2〉)



[그림 1-1] 서울 신역사와 구역사



[그림 1-2] 서울신청사와 옛 서울시청

이렇듯 어떤 장소를 기념한다는 것, 특정 공간을 역사기념물로 만든다는 것이 그 공간에 담긴 모든 역사의 재현을 의미할 수는 없다. 기억은 선택적인 것이므로 ‘기억’ 과 ‘망각’ 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역사적 공간의 ‘복원’ 을 위해서는 언제나 특정 시기에 대한 선택과 배제의 문제가 선결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일제강점기에서 연원한 공간적 유산을 대할 때 지나치게 반일 민족주의적인 집합 정서에 휩싸여 상식과 균형 감각을 상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sup>1)</sup> 특히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서구와 다르게 외세에 의해 이루어져 현재의 서울 도심지는 1900년대 초 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성공한 일제가 조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도심지에 대대적인 도시구획과 공간구조를 실시하여 형성된 곳이다. 그 결과 ‘식민지 근대’ 라는 굴절된 통로를 거쳐 현재 서울도심지 곳곳에는 식민지 근대도시화 과정의 역사적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경성역, 경성부청, 조선은행 등 일제강점기에 지어져 한국 건축사를 대표하는 근대건축물로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긴 하지만 점차 그 정체성을 잃어가는 건축물들, 일제강점기의 잔재 청산과 개발주의적 논리에 의해 아무런 보호나 규제 없이 철거된 조선총독부, 화신백화점, 동대문운동장, 증권거래소 등 근대의 흔적들, 그리고 급격한 개발로 인해 하나 둘 사라진 수많은 일상생활의 공간까지 소설가 김영하가 서울을 “알츠하이머병 환자” 라 비유할만큼 먼 과거의 기억은 간직한 채 가까운 과거의 기억을 지우기에 급급한 도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다.



[그림 1-3] 많은 논란 속에서 1987년  
철거된 화신백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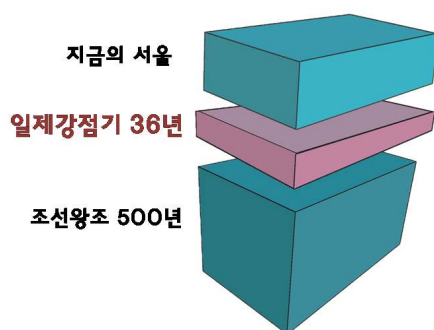
[그림 1-4] 화신백화점 터 표지석

1) 김백영, 『지배와 공간』,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9), p.526

물론 공간은 언제나 썩어지고 덧썩어진다. 이질적인 역사적 시간의 축적물인 공간은 언제나 중첩된 장소성을 띠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특정 공간의 지배적 장소성은 언제나 복수적 담론 간의 경합의 소산 또는 동시대 커뮤니티의 정치적·사회적 선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의 형성사에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산출된 다양한 방식의 공간 생산전략과 공간 운용 기법들이 복수적인 역사적 장소성의 지층간에 켜켜이 투입되어 있다. 우리가 한 시대의 대중적이고 통념적인 공간인식의 한계와 가림막을 넘어서 공간과 장소의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고 창출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공간의 역사성 속에 잠재된 비가시적 시간층에 대한 분석적 독해의 필요성이 재기된다. 장소가 개인사적 의미에 한정된 공간이 아닌한, 장소적 담론의 정립은 장소에 대한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의 문제와 집결된다.<sup>2)</sup>

정기용(2006)은 집단기억을 “우리가 다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문화적 가치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를 수선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행위 이전에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즉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산물-건축물, 가로, 공간 등-을 무조건 일제의 잔재라는 오명보다는 근대 유산이자 식민시절의 애환과 아픔의 ‘기억을 가직한 공간’으로서 ‘장소성’에 대한 의식이 있었더라면, 지금의 서울역과 서울신청사는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에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흔적들=부끄러운 역사의 잔재’라고만 여기고 그 공간에 내재된 근대 식민지 시절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단절하기에 급급한 서울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출발하게 되었다.



[그림 1-5] 서울역사의 레이어

2011년, 경성을 보여주는 첫 전시였던 <이방인의 순간포착 1930경성>에서 1930년대 종로와 혼마치의 가로도면을 제작한 도미이 마사노리(한양대 건축학부 교수)는 “서울의 역사를 600년이라고 하면, 500년은 조선의 한양시대, 36년은 일제 경성 시대, 그리고 해방 이후 현대까지 특성이 있다. 그리고 서울의 컨텍스트를 볼 때는 이 세 장의 레이어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지

2) 상계서, p.526

금의 서울 모습이 언제부터 비롯된 것인지 보는게 중요하다. 그 때문에 이런 연구와 전시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듯이 비록 시기는 짧지만 현재의 서울을 읽기 위해서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일제강점기는 조선왕조와 현재 서울 사이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고리이다.

지금까지의 일제강점기 근대유산에 관한 연구는 건축분야에서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속에서 자꾸만 사라지거나 식민시대의 잔재로써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근대건축물을 다르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단순히 ‘건축물’이 존재했었던 건축적, 물리적인 기표 등 ‘건축물’ 그 하나만 고려하여 접근하기보다는 그 건축물 주변 영역까지 확대하여 주변의 것들까지 유기적으로 바라보고 그 공간이 담고 있는 기억을 재생하여 장소성을 찾는 것이다. 즉 무조건적인 근대건축물 보존을 외치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 건축물이 있었던 공간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소통을 했는지,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등 집단기억을 바탕으로 장소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공간은 생명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진정성으로 자연스럽게 일반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나아가 도시재생활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6] 1930년대 경성전기주식회사



[그림 1-7] 현재 한국전력 사옥

도시 내 파편적인 장소에는 개인적 기억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애환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sup>3)</sup>고 했듯이 본고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작가들이 들려주는 개인적인 장소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문학작품을 통해 당시 서울이 공유하던 기억을 재생하여 그 장소성을 읽어보고자 한다.

3) 조경진, “기억하는 도시, 사랑하는 도시-용산의 기억과 장소성”, 『보이지 않는 용산, 보이는 용산』, (서울: 마티, 2009), p.142



문학작품 속에 기술된 장소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등장인물과 화자를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기술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서부터 장소에 대한 해석에 이르기까지 장소에 대해 이해하는 데 문학작품은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sup>4)</sup>

문학작품의 기능은 ‘장소의 경험을 포함해서’ 친밀한 경험에 가시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문학작품은 우리가 그 작품을 접하지 않았더라면 알지 못했을 경험지역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sup>5)</sup> 이에 본 연구에서 공간영역 설정을 위한 바탕으로 활용되는 박태원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1930년대의 서울도시경관에 대한 묘사와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고 있어 당시의 서울공간을 소설 속 주인공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또 다른 문학작품의 기능으로는, 그 당시 도시공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체험되고 의식 속에 각인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예술적 매개가 된다. 그리고 문학작품은 살아 움직이는 사람과 사회적 공간을 다루면서 그 공간에 대한 관념과 이미지, 상징적 서사 등을 생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공간의 사회적 생산에 동참한다. 또한 문학작품은 그 속에 현실의 권력들이 침투하고 새겨지는 양상들을 다층적으로 형상화하면서, 그 공간을 실천의 장으로 기능하게 한다.<sup>6)</sup> 이는 1930년대 박태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작가들이 쓴 문학작품들을 살펴보면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이중적인 식민지 도시 경성에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도시공간을 바라보고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1930년대의 서울도시공간을 당대에 쓰인 문학작품을 통해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그 시대의 기억들과 흔적들을 찾아내어 장소성을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도시경관의 재구성과 공간적 의미를 밝혀줌으로써 서울이라는 도시의 역사성 재창출에 기반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4) 김진영, 인간주의 지리학 관점에서의 장소성 프로세스를 적용한 문학지리학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1,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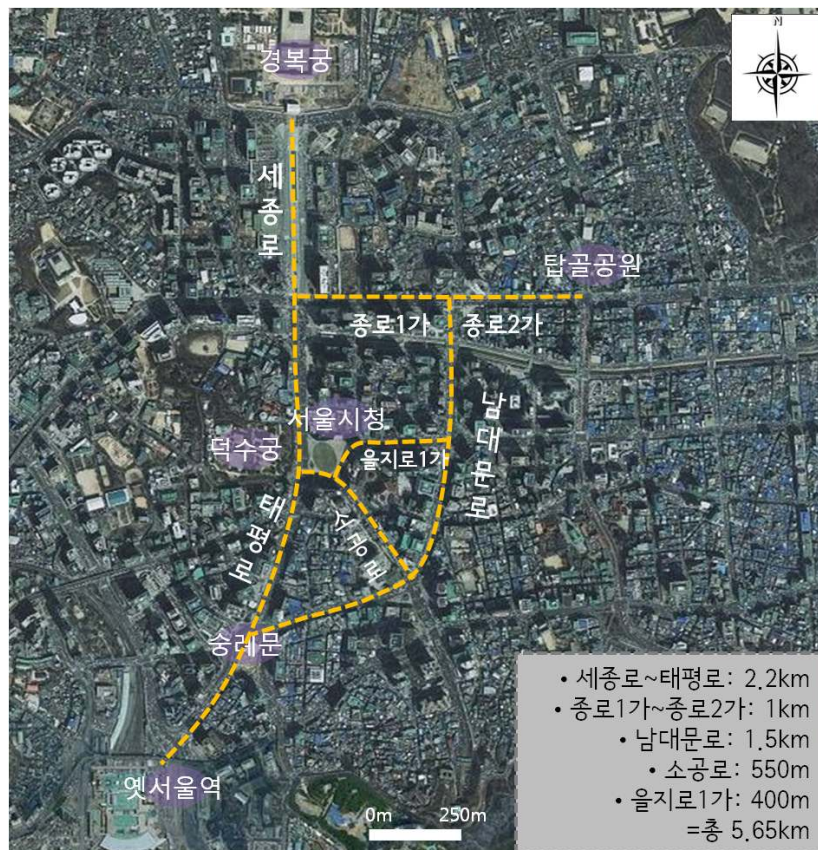
5) Yi-Fu Tuan, *Space and Place*(1977), 구동희, 심승희(공역), 『공간과 장소』, 개정판, (서울: 대운, 2011), pp.262-3

6) 송은영, 현대도시 서울의 형성과 1960-70년대 소설의 문화지리학,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8, p.12

## 제2절. 연구의 범위

###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그림 1-8>과 같다.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오는 주인공 구보의 동선을 중심으로 서울시 종로구·중구의 세종로, 태평로, 남대문로, 소공로, 종로1,2가 일대로 한다.



[그림 1-8] 대상지의 공간적 범위

### 2.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1930년대 경성의 경관 및 장소를 도시경관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여 장소성을 찾고자 한다. 분석의 자료로서는 고현학 기법으로써 당시 경성의 종로구 및 중구의 도시경관을 상세히 묘사한 1934년에 쓰인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바탕으로 하되 그 외의 박태원의 소설 및 다른 작가의 문학작품



을 함께 살펴보고, 문학작품 속에 묘사된 텍스트로는 부족한 점은 그 시대에 발간된 잡지, 신문, 사진첩, 영화 등을 함께 살펴본다.

## 제3절. 연구사

### 1. 문학작품을 활용한 장소와 공간 연구

문학작품을 활용한 장소와 공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문학작품을 활용한 장소와 공간에 대한 연구사

No.	출판 년도	논문명	발행처
1	1997	· 근대문학작품의 자연묘사에 나타난 시,공간의 체험적 인식에 관한 연구(김기범,김태영)	대한건축학회
2	2000	· 근대문학작품의 도시풍경구도에 나타난 시,공간적 체험적 인식에 관한 연구: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중심으로(김기범,김태영)	청주대 도시지역 개발연구소
3		· 문학적 표현으로 묘사된 주거의 건축적 공간 연구 - 문학 「토지」를 통해서 본 주거공간을 중심으로(서귀숙)	대한건축학회
4		· 이상의 「날개」에 나타난 건축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1930년대 경성거리를 중심으로(김정동)	목원대 건축도시 연구센터
5	2004	· 소설에 나타난 부산항의 장소 이미지 연구(하미혜)	부산대 석사논문
6		· 박태원의 「천변풍경」과 근대도시경성(김외곤)	성심어문학회
7	2006	·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난 도시공간연구 : 「날개」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대상으로(이유님)	한양대 석사논문
8		· 1930년대 도시공간과 박태원 소설(정현숙)	한국현대소설연구
9		· 1960년대 이후 대중소설에 나타난 아파트 이미지에 관한 연구(이성임)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10	2007	· 소설 천변풍경 속에 나타난 1930년대 청계천 주변 서민생활공간(김정현,김태영)	대한건축학회
11		· 문학적 알레고리를 통한 도시의 장소성 발견에 관한 연구(이승연,구영민)	대한건축학회
12	2008	· 염상섭 장편소설의 도시공간연구: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중심으로(이주연)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13		· 1950년대 명동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이봉구의 수필 「명동백작」을 기초로 하여(민도정)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14		· 1950년 이후 도시소설에 투영된 수도권의 도시화에 의한 공간변화(이은숙, 정희선, 김희순)	국토지리학회
15	2009	· 요산소설에 나타난 장소성(문재원)	현대문학이론학회
16	2010	· 김광균 시에 나타난 장소성 연구(김경은)	용인대 인문 사회과학연구소
17		· 대중소설에 묘사된 아파트의 부정적속성에 대한 건축학적 해석(박철수)	대한건축학회
18	2011	· 「모란봉」에 나타난 근대도시의 표상(엄숙희)	국어문학회
19		· 인간주의 지리학관점에서의 장소성프로세스를 적용한 문학지리학 연구 :소설 「토지」 속 평사리의 장소성을 중심으로(김진영)	서울대 석사논문
20		· 이상 소설의 인문지리학적 연구: 장소를 중심으로(차지언)	한양대 석사논문
21		· 소설에 나타난 피난지 부산의 다방 : 장소성고찰을 중심으로(이상원)	동남어문학회
22		· 편혜영 소설에 나타난 장소상실과 그 의미 - 집,일터,길의 공간구조 및 인문지리학적 인식을 중심으로(신성환)	한국문학 어문학회

문학작품을 통한 작품 속 공간 및 장소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 건축학, 어문학, 도시지역연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되어왔다.

김기범, 김태영(1997, 2000)은 「근대문학작품의 자연묘사에 나타난 시·공간의 체험적 인식에 관한 연구: ‘메밀 꽃 필 무렵’을 중심으로」와 「근대문학작품의 도시풍경구도에 나타난 시·공간적 체험적 인식에 관한연구: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중심’으로」에서 문학작품을 통하여 시대적 사상과 정서를 읽어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도시·건축에 있어서 문화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연구내용에 대한 뒷받침할만 사료가 신문삽화에 그친 점, 그리고 소설 속 인물이 관찰한 등장인물들이 공간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등에 대한 행태를 보기보다는 작가의 내면의식세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귀숙(2000)은 「문학적 표현으로 묘사된 주거의 건축적 공간연구: 문학 ‘토지’를 통해서 본 주거공간을 중심으로」에서 문학과 건축은 공간에 대한 개념, 소재, 구성이라는 공통된 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는 현실적 건축이 아닌 문학이라는 간접적인 고찰을 통해서 객관적인 건축공간의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고, 문학으로부터 건축에 대한 인식과 재평가를 제시할 수 있으며, 건축 영역만이 아닌 보다 폭넓은 사회영역과의 연계와 교류를 이루게 함으로써 앞으로 새로운 건축

공간상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토대가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서귀숙(2000)은 이 연구에서 인간이 보고 체험하며 경험된 공간이, 언어로 표현되는 문학적 텍스트에 반영되고 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주목하며 박경리 소설 《토지》에 그려진 주거건축공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연구방법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김정동(2000)은 「이상의 ‘날개’에 나타난 건축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1930년대 경성 거리를 중심으로」에서 작가 ‘이상’의 일대기에 비추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도시, 건축물 이미지를 재해석하였는데, 실제 건축가이기도 했던 작가의 시선을 건축학문에서 재조명한 점이 의의가 있다.

하미혜(2004)의 「소설에 나타난 부산항의 장소 이미지 연구」에서는 문학작품이 장소의 이미지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문학과 지리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부산이 대도시로 성장하게 된 근원지였던 부산항 지역을 몇 개의 장소로 나누어 각각의 장소 이미지를 일반 시민들이 인지하는 대중적 이미지와 관련하여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에서 작가가 인지한 이미지를 파악하여 부산항의 장소이미지를 고찰하였다.

김외곤(2004)과 김정현, 김태영(2007)은 박태원의 《천변풍경》을 통해 1930년대의 근대도시경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외곤(2004)은 「박태원의 ‘천변풍경’과 근대도시경성」에서 《천변풍경》속에 등장하는 경성사람들의 삶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근대화 정책이 식민지 조선의 사회와 문화에 끼친 영향을 연구하여 근대도시 경성의 변화과정을 도시문화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김정현, 김태영(2007)은 「소설 ‘천변풍경’ 속에 나타난 1930년대 청계천 주변 서민생활공간」에서 《천변풍경》에 묘사된 텍스트를 통해 당시 청계천을 주변으로 서민들의 생활상 및 생활공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유님(2006)과 이주연(2008)은 1930년대 소설을 통해 도시공간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유님(2006)은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난 도시공간연구: ‘날개’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대상으로」에서 1930년대 도시공간 연구에 있어서 〈날개〉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한 틀에 묶어 ‘공간(거리)’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유님(2006)은 방법론으로 작품에 나타난 현실과 실제의 현실이 맺고 있는 관련성에 초점에 맞추어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인 ‘반영론’과 도시 산책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발터 벤야민’의 이론을 사용하여 도시공간을 이해하려 하였다. 즉, 모든 예술창작은 작가가 아무런 실제적 목적을 가지지 않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인과관계의 표현이고 그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하우저의 말에 따라, 문학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할 때는 쓰여진 당시의 사회적·문화적 상황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주연(2008)은 「염상섭 장편소설의 도시공간연구: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중심으로」에서 염상섭이 식민지 시기에 발표한 장편소설에 그려진 도시공간의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고, 작품 속에 재현된 도시공간을 통해 작가가 식민치하의 조선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현숙(2006)은 「1930년대 도시공간과 박태원 소설」에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천변풍경》을 중심으로 관찰자가 경성에 내밀하게 얹혀있는 사회정치적 관계망과 그 공간에 존재하는 인물들의 일상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고유한 성과가 무엇인지를 연구하여 가시적인 도시경관 이면에 자리잡은 당시의 식민자본주의의 강력한 통제체제에 대한 부정의식을 읽어냈다.

이성임(2006)과 박철수(2010)는 대중소설을 통한 아파트의 이미지를 건축학적 관점으로 보았다. 먼저 이성임(2006)은 「1960년대 이후 대중소설에 나타난 아파트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소설에 나타난 아파트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현재의 아파트의 이미지가 갖는 이중적 가치의 시대적 변모과정을 도출하였고, 박철수(2010)는 「대중소설에 묘사된 아파트의 부정적 속성에 대한 건축학적 해석」에서 그동안 긍정적 사회가치와 거주 취향과 물리적 실체의 일치 과정 등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 주택유형으로 자리한 아파트라는 보편적이며 일상적인 공간환경을 향해 투사한 대중소설 속의 부정적 시선과 묘사를 통해 심상공간 이미지를 건축학적 관점으로 변환하고자 하였다. 방법론으로는 건축학 분야에서 ‘문학지리학적 방법론’과 ‘고현학(考現學)’을 적극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하였다.

이승연, 구영민(2007)은 「문학적 알레고리를 통한 도시의 장소성 발견에 관한 연구」에서 복합적인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시인 ‘이상’의 텍스트를 통해 재해석하여 실체화되지 못한 한국근대화를 재발견하는 소급적실험을 꼭지로 삼았는데, 인간의 관념이 주어진 환경을 장소화한다는 가설에 주목하여 통의동을 바탕으로 쓰여진 ‘이상’의 시(詩) 〈오감도〉를 탈코드화(decode)함으로써 통의동의 장소성을 고찰하는 독특한 시도를 하였다.

민도정(2008)은 「1950년대 명동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이봉구의 수필 “명동백작”을 기초로 하여」라는 연구에서 이봉구의 수필을 기초로 문학지리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1950년대 명동의 장소성을 규명하여 명동지역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찰하였으나, 뒷받침할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과 《명동백

작》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당시 활동하던 ‘문화예술인’이라는 특정인들에게만 치중하여 장소성을 규명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이은숙, 정희선, 김희순(2008)은 「1950년 이후 도시소설에 투영된 수도권의 도시화에 의한 공간변화」에서 소설 속 도시성의 재현에 초점을 두고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시대별로 소설 속에 투영된 수도권 도시화에 의한 도시공간의 변화를 고찰하여, 소설 속 공간의 변화와 그 의미가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문재원(2009)은 「요산소설에 나타난 장소성」에서 요산소설의 서사적 무대가 되는 부산-경남의 현장이 소설 작품 안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문학과 장소의 관계에서 지역성과 장소애착의 상관성을 연구하였다.

김경은(2010)은 「김광균 시에 나타난 장소성 연구」에서 김광균 시(詩)에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장소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하여 시인의 시적 자의식이 어떻게 특징적으로 발화되는지를 고찰하여, 장소를 시적공간으로 보는 것으로 그쳤다.

엄숙희(2011)는 「‘모란봉’에 나타난 근대도시의 표상」에서 소설 《모란봉》속 개화공간에 나타난 근대도시의 표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특히 소설 속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의 궤적에 주목하여 근대도시공간의 표상을 연구하였다.

김진영(2011)은 「인간주의 지리학 관점에서의 장소성 프로세스를 적용한 문학지리학 연구」에서 인간주의 관점에서의 장소성 연구를 적용하여 장소성 프로세스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박경리의 소설 《토지》속 평사리에 적용시켜 평사리의 장소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장소성 프로세스에서 인간중심적 분석(감정/애착/의례)에 무게를 뒀다. ‘문학 속 장소’를 이해할 때만 유효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차지언(2011)은 「이상 소설의 인문지리학적 연구」에서 도시공간과 개인공간,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가족관계의 세 가지 관점을 통해 ‘이상’의 소설에 나타난 장소성을 고찰하여 그가 직시한 근대공간의 본질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상원(2011)은 「소설에 나타난 피난지 부산의 다방: 장소성 고찰을 중심으로」에서 장소 개념과 이론을 원용하여 6.25 전쟁시 피난지 부산을 다룬 문학텍스트에서 다방이라는 장소를 특히 그 정체성과 장소 애착이라는 면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다방의 문화적 의미까지 고찰하였다.

신성환(2011)은 「편혜영 소설에 나타난 장소상실과 그 의미」에서 소설에 반영된 ‘장소’에 대한 체험과 인식 및 의미체계를 분석하여 지리적 능력의 계발을 통한 ‘장소성의 복원’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2. 소결

연구사를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문학분야에서 사용되는 ‘공간’ 과 ‘장소’ 는 주로 사회적, 심리적 현상을 작가의 내면의식 측면에서 공간적 은유로 해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김경은(2010)은 「김광균 시에 나타난 장소성 연구」에서 ‘항구’ 는 애상감을 지닌 시적 자아의 내부와 동일시되며 이미지의 확장을 따라 심리적 공간, 쓸쓸한 장소라고 해석하였듯이 문학작품 속 공간이나 장소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살펴보기보다는 문학작품 그 자체로써 공간이나 장소를 해석한다.

둘째, 문학분야에서는 공간(space)과 장소(place), 경관(landscape)의 개념을 한데 묶어서 대부분 공간(space)이란 용어로 통합해서 사용하거나 공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sup>7)</sup> 예를 들어, 국어교육 전공의 이유님(2006)의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난 도시공간연구」를 살펴보면 소설 속 도시공간을 설명할 때 소설 속 인물이 그 대상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공간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서술하면서도 ‘공간’ 과 ‘장소’ 를 혼용하여 구분 없이 사용하였다.

셋째, 지리학 분야에서는 주로 ‘문학지리학’ 이라는 범주에서 다양한 지리적 개념을 이용하여 문학작품 속 장소를 분석하였으나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문학작품 속 장소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되 그 중 한 가지 특성이 도출되기까지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찾기 어려웠고, 단순한 텍스트 나열방식은 입체적으로 그 장소를 이해하는 데 문학분야와 차별성을 찾기 어려웠다.<sup>8)</sup>

---

7) 김진영, 전계서, p.18 참조

8) 상계서, p.18 참조

## 제4절. 연구의 방법

연구를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고려한 점은 문학 텍스트에서의 장소성 구현은 작가만의 장소에 대한 시선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박태원은 실제로 대학노트를 들고 다니며 당시 경성의 경관, 근대의 건축물, 군중의 모습들에 대해 기록하며 경성의 도시공간에 대해 세밀하게 관찰하여 쓴 작품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지만, 당시의 도시 현실에 대해 냉정한 시선을 가진 산보자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고독한 산보자의 기억을 돕는 도시는 작가의 유년기와 청년기, 즉 작가 자신의 과거를 넘어 그 이상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하였다. 산보객은 사소한 매개물을 통해 과거를 기억하지만, 이 기억은 산보객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집단 전체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벤야민이 떠올린 기억은 사적인 과거가 아니라 ‘집단의 과거’가 되고 ‘집단의 기억’이 된다. 도시 산보객이 찾아야 할 도시의 기억과 흔적은 개인의 차원이 아닌 것이다.<sup>9)</sup> 이러한 점에서 구보에게 도시의 자극들은 개인적인 차원의 회상과 기억을 촉발하지만, 그것이 벤야민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라 평가했던 ‘집단적 기억’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sup>10)</sup>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등장하는 구보씨의 산책에 따른 경성의 물리적환경(경관) 및 장소를 기초로 하되 소설 속 주인공의 개인적인 시선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박태원의 다른 문학작품들 외에도 경성을 배경으로 한 다른 작가의 문학작품들을 함께 고찰하고, 당시의 사회·문화적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발행된 대중매체, 사진엽서, 지도 등을 참고하도록 한다. 또한 소설 속에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주인공 구보의 동선에서 그가 보고 지나쳤을 장소들도 포함한다.

본격적인 장소성 해석에 앞서, 장소·장소성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장소성 해석의 틀’을 정립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써 장소가 가지고 있는 다층적·다의적 성격을 해석하여 장소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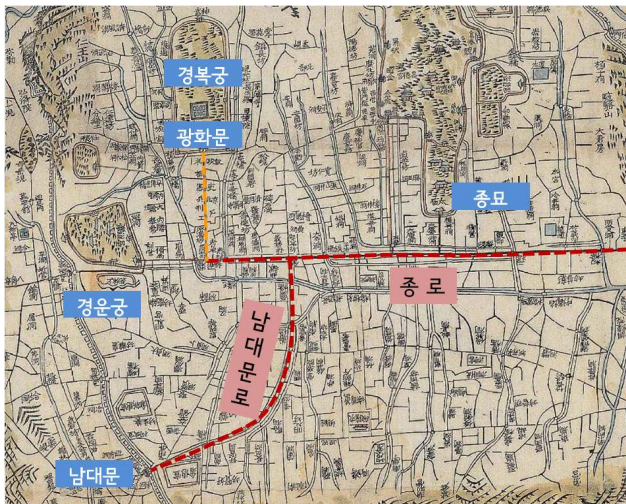
9) 장희권, “근대의 도시공간과 사유방식”, 『로컬의 문화지형』, 오일주, (서울: 혜안, 2010), p.140 재구성

10) 상계서, p.157

## 제5절. 대상지 개관

### 1. 조선시대

조선왕조가 한양을 수도로 정한 후 행정의 중심지로 삼은 곳이 지금의 세종로 일대였다면, 경제의 중심지로 삼은 곳은 종로거리였다. 조선왕조의 정부는 이 종로 거리에 거대한 상가-이른바 시전(市廛)-를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날이면 날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이 거리에 구름처럼 모였다가 흩어졌다고 하여, 운종가(雲從街)라는 이름이 이 거리의 별칭이 되었다. 조선시대 초기에 확립된 이 운종가의 명성은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서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다.<sup>11)</sup>



[그림 1-9] 수선전도(首善全圖), 1840 (서울시 GIS 포털)

남대문통<sup>12)</sup>은 조선시대 한성부의 도성계획에 따라 종로와 함께 주 간선도로로 계획되었다. 1840년대에 제작된 수선전도(首善全圖)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丁자형을 이루는 이 두 도로는 조선시대의 도심을 관통하는 가장 넓은 도로였으며, 한성부의 도시 공간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또한 이들 가로에는 궁궐건축과 함께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인 시전(市廛)이 조성되어 조선시대 서울의 전통적인 상업 지역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sup>13)</sup>

11) 이동하,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종로의 모습”, 『종로: 시간, 장소, 사람』, 홍대형,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2002), p.63

12) 현재의 남대문로.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남대문통으로 지정된 뒤 1946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현재의 남대문로는 보신각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길이 2km, 너비 40-50m의 도로를 말하나 1946년까지는 화신백화점에서 남대문까지 길이 1.5km를 가리켰다.

13) 조은주, “경성부 남대문통과 태평통의 이중한옥상가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 1(30), 2008, p.103



## 2. 개항기 : 1876-1909

도로정비사업 이전에는 치도사업(治道事業)이 있었다. 치도사업은 주로 위생상태와 가로경관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치도를 통하여 도로의 불결과 무질서를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적 주요과제로 정도 초기부터 넓게 확보되었던 종로나 남대문로 등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가가(假家)의 정비를 통해 본래 도로 폭을 회복하며 가로변의 경관 및 청결을 개선하는 것을 꼽고 있다. 그러나 당시 치도사업에 의한 도시개조는 주로 종로 이남으로서 남대문로 주변을 포함한 서측지역과 도성 밖으로 이 지역의 연장이라 할 남대문과 서대문 밖 지역에서 이루어졌다.<sup>14)</sup>



[그림 1-10] 최신경성전도, 1907(서울시 GIS 포털)

이에 따라 경운궁을 도시구조상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개조가 시작되었다. 경운궁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현재의 태평로~세종로로 이어져 광화문까지의 길, 동쪽으로는 현재의 을지로, 동남쪽으로는 현재의 소공로, 남쪽으로는 남대문까지의 길들로서 방사형 도로망이 만들어졌다. (<그림 1-10> 참조) 이는 고종이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로 즉위하면서 새로운 정부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서울 도심의 근대 도로 조성계획은 1896년 9월 대한제국 정부가 한성내 도로폭을 규정하는 내부령<sup>15)</sup>을 낸 데서 비롯된 것이다. 사대문내의 종로와 정동 일대의 큰 길가에 들어섰던 임시가게들을 철거한 것은 근대적인 도시가로 닦기의 시발이 되었다. 고종은 유럽 왕정의 사례를 본 떠 프랑스 개선문이나 샹젤리제 거리처럼 경운궁(지금의 덕수궁)을 중심으로 왕궁의 권위를 드러내는 방사형 중심 도로망을 꿈꾸었다.<sup>16)</sup>

이에 따라 경운궁을 도시구조상 중

14) 김기호, “일제시대 초기의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서울학연구』, -(6), 1995, p.48

15) 내부령 제9호는 ‘현재의 광화문 사거리에서 동대문까지의 종로와 광교에서 남대문까지의 남대문로의 길 폭을 55척으로 새로 정하고 가가(假家)를 정비’ 하는 내용이었다.

16) 노형석, 『한국 근대사의 풍경』, (서울: 생각의 나무, 2005), p.78

### 3. 일제강점기 : 1910-1945

1910년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한 후 서울은 독립된 국가의 수도가 아니라 경기도의 한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일제 식민지 지배의 거점 ‘경성’으로 전락하였다. 일제는 대한제국시절의 기존 구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경성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편익에 따라 격자형 도시가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이 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일제가 식민통치의 편익을 위해 경운궁의 일부를 잘라 세종로~남대문까지 남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만든 태평로의 개설이다.(〈그림 1-11〉 일제강점기 태평로는 도성 안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새로운 도심 축으로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종로-남대문로 중심에서 종로-남대문로-태평로의 삼각구도로 새롭게 재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sup>17)</sup>



[그림 1-11] 대경성전도, 1936 (서울시 GIS 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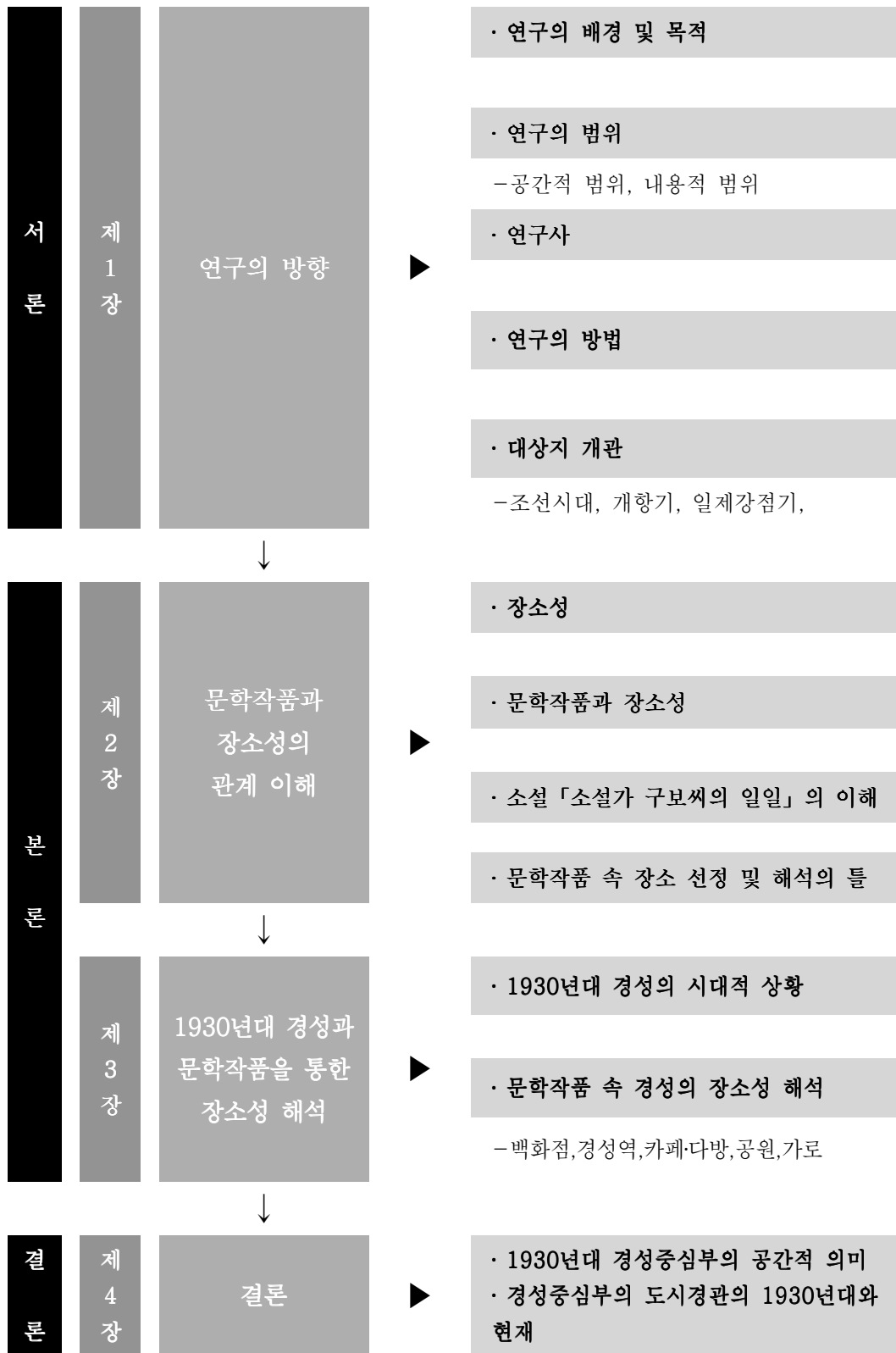
을지로·남대문로 일대에는 조선은행을 필두로 동일은행, 한성은행, 신팔은행, 식산은행, 일본 제일은행 지점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들어서면서 남대문로는 조선 제일의 상업 금융 중심지로 자리를 굳히게 된다.<sup>18)</sup>

이렇게 일제 강점지배의 거점들이 서울의 남북으로 펼쳐져 있는 가운데 서대문과 동대문을 잇는, 종로를 가로지르는 공간은 식민지 조선인의 고단한 일상이 배어 있는 곳이자, 민족의 해방을 추구하는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공간이었고, 문화 예술의 공간이었다. 또한 민족적 차별과 생활고의 시름을 술과 여자로 배설하는

환락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종로의 이 같은 모습은 과거 ‘수도’로서 서울의 상징성과 관련하여 식민지 조선인 전체의 생활 일반을 집약해서 보여주는데, 침략과 저항, 전통과 근대, 일상과 일탈, 창조와 배설이라는 맥락에서 당시 경성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17) 조은주, 전계서, pp.106-9 재구성

18) 노형석, 전계서, pp.79-80



[그림 1-12] 연구의 흐름

## 제2장 문학작품과 장소성의 관계 이해

### 제1절. 장소성

#### 1. 장소, 장소성의 의미

장소(place)라는 용어는 매우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모호하게 사용되기도 하며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자가 풀어낸 장소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장소의 개념

연구자	장소의 개념
Lukermann 1964	장소는 자신만의 질서, 즉 고유한 양상불을 이루는데 이를 통해 다른 장소와 구별된다.
Relph 1976	장소는 의도적으로 정의된 사물 또는 사물이나 사건들의 집합에 대한 맥락이나 배경이다.
Tuan 1977	장소는 정지(멈춤)이며,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들의 안식처이자, 안전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중심이다.
Shulz 1980	장소는 삶이 일어나는 공간을 의미하며,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Giddens 1986	장소는 지리적으로 위치된 사회적 활동의 물리적인 장을 의미하여, 지역이라는 관념이 그것을 가장 적절히 개념화해 준다.
Canter 1997	장소란 개인이나 단체의 경험이 투영되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인식되는 공간이다.
이석환 · 황기원 1997	장소는 양기에 의해 열려진 즉 환경적으로 양호한 땅 위에 어떤 활동을 수용하거나 들어가 머무를 수 있도록 인간에 의해 구획되고 한정된 곳이다.
Harvey 2000	장소는 사회적 담론의 구성물(social construct)이다.
최막중 · 김미옥 2001	장소는 보다 관념론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인식체계를 통해 특정한 이미지와 가치를 지니고 인지되는 공간이다.
최병두 2002	장소는 일정한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한정된 범위의 공간이다.
백선헌 2004	장소는 체험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의 기반이 되면서 맥락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와 관련된다.
이기봉 2005	주변의 다른 곳과 구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자연적이거나 인문적인 지표이며 여기에는 차이성이 강조된다.

장소(place)는 물리적인 의미로 설명되는 공간(space)의 개념과 달리 시간의 축적에 의한 '기억'을 매개로 삼는다. 즉, 장소는 의미가 부여된 공간으로 장소의 체험은 인간 활동과 공간 한정간의 관계를 통해 구축되며, 의미 부여의 동기가 된다.<sup>19)</sup> 이러한 점에서, 장소는 인간과 분리되어 설명될 수 없는 개념이다. 즉, 장소는 이미 '체험된 대상'을 전제하며 엄격한 의미에서 '체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인바, 인간의 의식이 물질적 존재와 맺는 관계의 총합체"라고 주장될 수 있다.<sup>20)</sup> 정리하자면, '장소'란 인간의 활동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가치가 부여되어 형성된 의미있는 공간이자 사회적 담론의 구성물(social construct)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도시는 다양한 공간들과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공간들이 자신의 환경으로 기억되고 진정한 의미의 장소성이 형성된다. 이와 같이 공간을 장소로 만들고 특정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끔 하는 총체적인 특징을 '장소성(Placeness)'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장소의 정체성과 장소에 대한 애착등을 토대로 형성된다.<sup>21)</sup>

## 2. 현대도시에서의 장소성 상실

오늘날 '장소의 소멸' 또는 '장소성의 상실'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물질적 풍요로움과는 달리, 현대인들은 상실감에 빠져있으며, 이러한 상실감에 관한 논의는 흔히 장소와 관련된 의미의 상실 즉 무장소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sup>22)</sup>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정치적 체계공간의 세계적 팽창에 의한 일상적 생활공간에서의 신뢰성 부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적 이윤추구와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조직의 힘은 대면적 관계속에서 이루어져 왔던 정체성과 안전감을 와해시키고, 장소성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사회가 왜 장소성을 상실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보다 철저히 분석하고 비판해 볼 필요가 있다.<sup>23)</sup>

19) 최병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도시연구』, - (8), 2002, p.256

20) 이석환, 도시가로의 장소성 연구: 대학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상계서, p.256에서 재인용

21) 최막중, 김미옥, "장소성의 형성요인과 경제적 가치에 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36(2), 2001, p.155

22) M. Arefi, *Non-place and placelessness as narratives of loss: rethinking the notion of place*, Journal of Urban Design, 4(2), 1999, pp.179-193, 최병두, "장소의 역사와 비판적 공간이론", 『로컬의 문화지형』, (서울: 혜안, 2010), p.101에서 재인용

장소성의 상실은 근대성의 발달과도 관련된다. 근대성<sup>24)</sup>의 출현과 발달은 자본에 의한 공간 정복과 생산을 촉진시켰으며, 공간의 합리적 재조직화와 통합성(예를 들면 생산 체계의 내적 연계성, 기능의 사회 공간적 분업의 체계화,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관계)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의 발달은 전통적 공간, 즉 그동안 구체적 경험과 실천의 공간이었으며 의사소통의 맥락이자 통로로서 이제까지 일상적 담론 속에 간직되어 왔던 장소로서의 공간을 해체시켰다.<sup>25)</sup>

최병두(2002)는 시대에 따른 장소의 특성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2] 시대에 따른 장소의 특성변화

구분		전근대적	근대적	탈근대적
장소 (정체성 확보)	정체성의 정도	출현 가능성이 높음 (낮은 시·공간적 거 리화)	시공간 압축에 의한 무장소감 확대	무장소감 심화
	제공방식	자연적·전통적으로 주어짐	장소 해체를 촉진시 키는 과정들	경제·정치적 조작 및 공동체적 실천
	인식, 충족 정도	높은(비의도적) 장 소정체성	장소 정체성의 상실 또는 약화	장소 정체성 교란과 의사적 정체화

전근대 사회에서는 공간과 장소가 대부분 일치되어 있었다. 사회 생활의 공간적 차원들은 대부분의 거주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점에서 ‘현재’-지역화된 활동들-에 의해서 지배되어졌기 때문이다. 근대성이 출현하면서 공간은 점차 장소로부터 분리되었는데, 이것은 대면적 상호작용을 하기에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가능해짐으로써 이루어졌다. 근대성의 조건에서 장소는 점점 더 환영(幻影)처럼 되어간다. 다시 말해서 지리적 장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회적 영향력 하에 철저히 놓이게 되고, 그것에 의해 형성된다. 장소를 구성하는 것은 단순히 눈 앞에 보이는 장면이 아니다. 장소의 ‘가시적 형태’는 그 본질을 결정하는 원격적인 관계들을 감추고 있다.<sup>26)</sup>

23) 상계서, p.101

24) 근대성(modernity)은 “자본주의의 출현과 함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총체적 사회과정 속에서 형성된 생활경험과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Mike Savage, *Urban sociology, Capitalism and Modernity*, 김왕배, 박세훈(공역),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서울: 한울, 1996), 역자 서문

25) 최병두, 『근대적 공간의 한계』, (서울: 삼인, 2002), pp.18-9

26) A.Giddens,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이윤희, 이현희(공역), 『포스트 모더니티』, (서울: 민영사, 1991), p.33

서울이 과거와 현재의 사이에서 독특한 위상과 특징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일제강점기로 굴절된 ‘近代’ 라는 역사의 한 단면에 대해 무관심했던 지금까지의 태도로부터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근대는 서구와 다르다. 먼저 근대화를 경험한 서구세계의 문화가 이입된 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경험한 근대였다면, 여기에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이 더해짐으로써, 서구세계에 의한 직접적 전달보다 일본이라는 제3자를 통해 나름의 해석을 거쳐 유입된 ‘舶來品’ 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근대가 가지는 독특한 성격은 근대기 서울-당시의 京城府-의 도시화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sup>27)</sup>

## 제2절. 문학작품과 장소성

### 1. 문학작품과 장소의 관계

문학작품 속 장소성 해석의 틀을 설정하기에 앞서 문학작품과 장소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현대문학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들의 이야기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체의 발달과 맞물려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된 작품은 년·월·일까지 정확히 알 수 있어 작품이 쓰인 사회적 상황은 어땠는지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도시가 근대화가 되면서 작가는 작품 속에 근대문명의 산물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반영하고 독자는 작가가 굳이 상세하게 장소 명칭을 말하지 않아도 유추할 수 있다.

문학작품 속의 장소성을 살펴보는 것은 작가가 제시하는 그 시대의 다양한 사람들의 체험을 나누어 갖는 것과 같다. 물론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장소의 의미는 작가 자신의 고유한 체험이며, 그 자신의 정서적 범위 내에 제한되지만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소유한 어떤 특정 장소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이를 통해 특정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학작품은 장소와 개인이 이미지를 교감하는데 있어서 매개적 구실을 하기도 하다.<sup>28)</sup> 아일랜드의 ‘더블린’ 이

27) 조은주, 전제서, p.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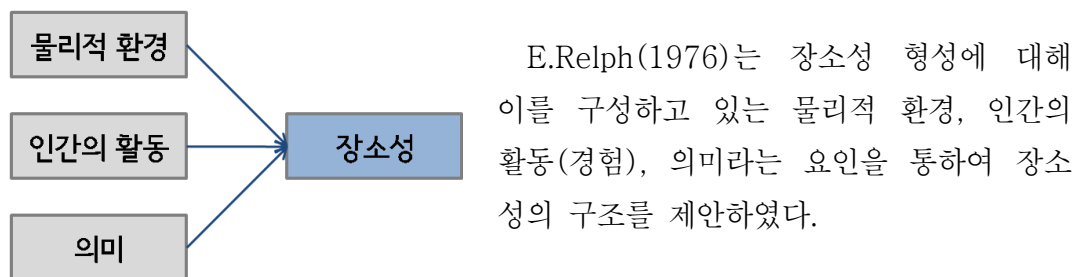
28) 이은숙, 정희선, 장은미, “문학공간을 활용한 장소마케팅 방안: 종로지역을 사례로”, 『지리학연구』, 41(1), 2007, pp.56-7 참조

제임스 조이스 작가의 소설 속 주인공 따라 걷기가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것이 그러한 예를 보여준다.

즉, 문학작품 속 장소는 작가의 개인적 경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시선과 함께 그 시대의 경제·사회·역사·문화공간의 시선체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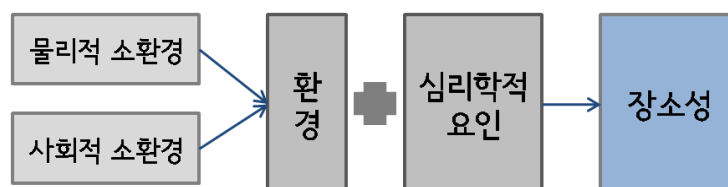
## 2. 문학작품 속 장소성 해석을 위한 장소성 형성구조

문학작품 속 장소성 해석을 위한 장소성 형성구조를 만들기 전 먼저 선행연구자들이 제안한 장소성 형성구조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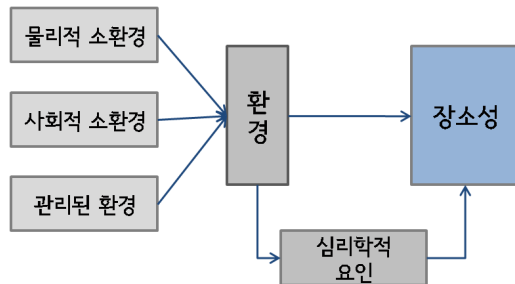
[그림 2-1] E.Relph의 장소성 형성구조

Steele (1981)은 장소성의 두 가지 요소로 물리적·사회적(Surrounding·Context)인 환경과 인간의 심리학적 요인(Psychological Factor)과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장소성이 형성됨을 설명하였다. Relph와 마찬가지로 장소성을 환경에 대한 반응에 의해 형성된다고 언급하였는데, 장소성은 인간의 환경에 대한 자극적 반응의 일련의 패턴과 같으며, 이런 반응들은 환경 경험자의 의식적지각이 아닌 무의식적 반응에 의해 생겨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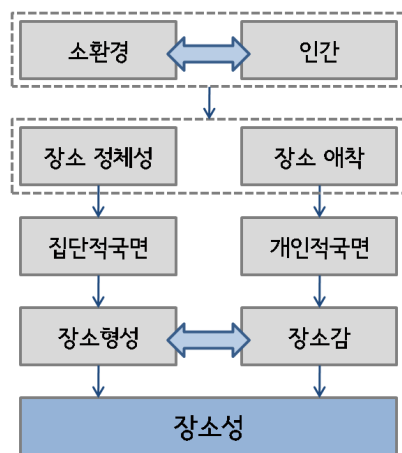


[그림 2-2] Steele의 장소성 형성구조





[그림 2-3] Greene의 장소성 형성구조



[그림 2-4] 이석환의 장소성 형성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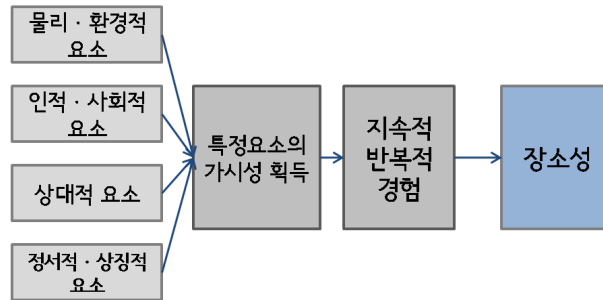
Greene(1996) 역시 장소성 형성에 대해 다른 연구자들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장소성을 형성하게 하는 환경은 물리적·사회적 소환경과 더불어 관리되어진 환경에서 형성됨을 언급하였다.

이석환(1998)은 장소와 인간은 분리될 수 없으며, 장소의 의미는 일상생활의 틀로서 사용되는 특별한 환경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만 드러난다고 하였다. 그는 장소성의 형성과정에 대해 장소를 외적장소와 내적장소로 구분하여 장소성 형성과정을 밝히고 있다. 소환경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외적인 장소가 형성되며, 이러한 외적인 장소를 인간이 경험하게 되면서 내적인 장소, 즉 장소정체성과 장소애착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장소감과 장소정신을 낳는다고 하였다. 그는 장소감을 개인적

국면, 장소정신을 집단적 국면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소성이 형성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백선헌(2004)는 지리학적인 관점으로 장소는 인간의 인지 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특정한 공간적 규모의 범위내에서 자연적, 인문적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종합적 실체라고 하였으며, 장소성은 인간이 장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특성을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장소성은 가시성과 반복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기존의 장소성은 인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되는 정태적인 것이라 하였다.<sup>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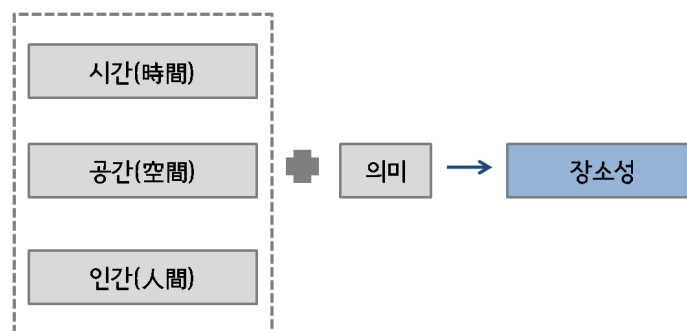
29) 권운구,정윤희,임승빈, “인사동 가로의 장소성 구조모형”, 『국토계획』, 46(2), 2011, pp.142-3  
참조 및 그림 연구자 재구성



[그림 2-5] 백선희의 장소성 형성구조

이상 선행연구를 살펴봤을 때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소들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으나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물리적 환경(경관)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활동적 요소’, 이 환경들의 기반이 되는 ‘인적 요소’,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인문적·행태적 요소들이 긴 시간동안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의미적 요소’와 ‘상징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의 장소성 형성구조로는 ‘공간’, ‘시간’, ‘인간’으로 설정하려 한다. 거시적으로는 1930년대라는 근대기면서 일제 식민지배하의 특수한 시대와 식민지배의 중심지 경성이라는 공간, 그리고 그 경성이라는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혹은 방문한 인간들이며, 이 세 가지 요소에 연구자가 의미해석을 하여 장소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림 2-6] 본 연구의 장소성 형성구조

### 제3절.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이해

#### 1. 왜 박태원의 작품인가?

박태원의 소설들은 1930년대 경성이라는 도시를 산책하며 구체적인 일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당시 도시가 지닌 현상과 본질을 밝혀내는 태도에 있어서 보기 드문 면을 지니고 있다. 그는 ‘고현학(考現學)’<sup>30)</sup> 기법으로 근대도시 경성의 모습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산책자 모티프’로도 설명되어 왔다. 이때 ‘산책자’란 군중도 무위도식자도 아닌 중간자 marginal man의 관점에서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근대적 도시의 새로운 경험을 하는 인물을 가리킨다.<sup>31)</sup>



[그림 2-7] 경성의 산책자들

1930년대 박태원 같은 모더니스트들의 일상을 통하여 드러나는 ‘산책’을 들여다보는 일은 벤야민(Benjamin)에게서 빌려온 개념인데, 그는 “산책자(Flaneur)는 근대세계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을 때 이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존재”라고 하였다. 산책자는 시각적인 존재이며, 근대도시가 제공하는 시각적인 즐거움을 알아차리고 누구보다 거기에 빠져든다. 무엇보다 산책자에게 도시는 거대한 경관(spectacle)이며, 주위의 경관과 더불어 그 자신의 상점이며, 거울이며, 쇼윈도우이며, 디스플레이 된 백화점이다.<sup>32)</sup>

30) ‘고현학’이란 1924년 일본의 학자 곤 와지로에 의해 제창되었다. 고현학은 고고학(考古學)과 대비되는 용어로서, 고고학이 과거의 유물과 유적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면, 고현학은 현대 문화인의 일상적 풍속과 세태와 유행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고현학은 대도시의 급격하게 변화하는 풍속의 변화를 연구하는 도시풍속의 학(學)이라고 할 수 있다. 박태원은 일본 유학 시절 고현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태원의 고현학은 곤 와지로의 고현학과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곤 와지로의 고현학이 사회과학 또는 민속학 연구의 범주에 드는 것이라면, 박태원이 표방하는 고현학은 문학적 기법이나 태도로서 원용된 고현학이기 때문이다. 박태원의 고현학은 경성이라는 근대적 도시의 풍속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기법이었던 것이다. 그의 고현학의 특징은 관찰자가 공간을 이동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도시적 삶과 풍속을 기록한다는 점이다. 김동식, “도시의 감수성과 모더니즘 문학”, 『박태원 단편선』 (글누림; 2008), pp.483-4

31) 장수익, “근대적 일상성의 부정과 자립적 공간”, 『박태원의 천변풍경』,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p.425

32) 이순이, 박태원 소설의 근대성 고찰, 선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30

박태원은 이와 같이 ‘경성 산책자’ 혹은 ‘경성 만보객’ 으로서 자신이 겪은 도시의 구체적인 일상을 소설화하였다. 그는 경성을 주의 깊게 ‘보고’ ‘읽고’ ‘생각하고’ ‘기록’ 하는 것을 자신의 문학적 주제로 삼은 작가로<sup>33)</sup>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박태원 소설에 기초하여 1930년대 경성이라는 도시의 장소성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여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로서 도시의 장소성을 회복하고자 박태원의 문학작품을 본 연구의 기본 바탕으로써 택하였다.

## 2. 작가 ‘박태원’ 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09년 서울에서 태어난 구보(仇甫) 박태원(1909-1986)은 결혼해 분가할 때까지 줄곧 청계천변에서 살았다. 이상, 정지용, 김기림 등과 구인회<sup>34)</sup> (九人會) 멤버였던 박태원은 서울토박이의 장점을 살려 고현학(考現學) 기법을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도시소설<sup>35)</sup>’ 가’ 혹은 ‘세태소설<sup>36)</sup>’ 가’ 로 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30년대 도시 풍속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소설화한 작가로도 평가 받고 있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과 같은 도시소설에는 필연적으로 도시성이 재현되고, 도시소설 속의 재현된 도시성과 도시화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정성적 정보는 지리적 통계나 계량적 분석으로 제시할 수 없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며, 장소를 점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장소감과 경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Jeans, 1979; Pocock, 1994)<sup>37)</sup>

박태원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을 썼던 1930년대 근대도시 경성에는 ‘산책자들’ 이 나타나는데, 바로 구보 박태원과 ‘모던뽀이’ 들이다. 경성에 나타난 ‘모던뽀이’ 들은 박태원, 이상, 김기림, 이태준, 구본웅, 김유정, 조용만, 정인택 등으로 모더니즘 영향을 받은 작가나 예술가들이었다.

33) 정현숙, “1930년대 도시 공간과 박태원 소설”, 『현대소설연구』, -(31), 2006, p.55

34) 1933년 서울에서 문학인들끼리 조직되었던 단체이다.

35) 겔판트(Gelfant)에 의하면 도시소설이란 “도시를 단순한 소재로 삼는 데 머물지 않고 도시 자체의 특성이나 그것이 그 도시의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소설” 이고 “도시가 무엇이며 도시가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하였다.

36) 세태소설은 주어진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집합적인 삶의 양식을 치밀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물질 토대, 돈에 의해 인간의 행위가 영향을 받는 것이 강조된다.

37) 이은숙, 정희선, 김희순, “1950년 이후 도시소설에 투영된 수도권 도시화에 의한 공간변화”, 『지리학연구』, 42(4), 2008, p.606



[그림 2-8] 구보 박태원



[그림 2-9] 모던보이 박태원과 그의 친구들

1934년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연재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직업과 아내를 갖지 않은 소설가 구보가 청계천변의 다옥정 7번지에 위치한 집을 나와 경성 도심을 오후 12시부터 새벽2시까지 산책하는 이야기이다. 구보가 배회하면서 들린 화신백화점, 조선은행, 경성역, 종로네거리 등 당시의 지명이 고루 등장한 이 소설은 당시의 소설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기법이였다.

구보의 감정과 사유에 의하여 경성이란 도시공간은 식민지 도회인들이 살아가는 수도로서의 장소가 된다. 이-푸 투안은 무차별적 공간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고 말한다. 구보의 거리경험에 의해 경성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장소가 된다. 구보의 시선이 결국 그 장소감을 생성한 것이라 할 터인데, 구보의 도시풍경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느낌과 생각이 담겨있다. 결국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비롯한 박태원의 도시소설은 구보가 어떻게 도시를 경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근대화된 도시 한복판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구보이기에 도시생활에 젖은 경성인들이 읽기에 적합한 도시소설<sup>38)</sup>의 시선을 경험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터였다.

구보가 경성에서 보고자 한 것은 부러움과 환희를 자아내는 도시공간이 아니라 상처와 갈등을 야기하는 도시의 그늘이다. 구보는 서구식 상점가와 유흥가가 불야성을 이루는 경성 도심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 그것이 분명히 매혹으로 다가왔다면, 식민제국이 거대한 도시공간의 스펙터클로서 통치효과를 극대화<sup>39)</sup>하고자 한

38) 조이담, 『구보씨와 더불어 경성을 가다』, (서울: 바람구두, 2009), p.95

39) 김백영, 『지배와 공간』,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9), p.81, 상계서, p.429에서 재인용

전략에 순치되어 피식민 대중 속에 끼어든 한 사람의 구경꾼에 불과했을 것이다. 구보는 단순한 구경꾼으로 혼부라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민한 산책자가 되어 번잡한 도시의 내면 풍경을 읽어내고자 한다. 도시에서 구보가 만나는 것은 도시의 외적 풍광이 아니다. 구보는 근대도시를 표상하는 건물, 전차, 상점 등에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에 시선을 집중한다.<sup>40)</sup>

구보가 산책했던 경성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때문에 암흑적인 도시공간으로만 기억하기 쉬우나 거기에도 청춘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가가 ‘모던뽀-이’ 박태원이다. 일제강점기를 탄압과 저항이란 이분법으로 식민지 콤플렉스만을 표출하기 보다는 그 시대를 살아가던 서울사람들의 일상적 삶과 도시공간을 구보의 시선으로 되돌아보는 것도 의의가 클 것이다.

### 3.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현 위치

[표 2-3]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파생된 문화컨텐츠와 행사

연도	분류	컨텐츠	내용
2005	학회	구보학회	·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박태원의 문학작품을 입체적으로 조명할 학회를 결성
2006	번역	일본어	· 일본 도쿄의 출판사 헤이본샤(平凡社)에서 출간
2007	연극	소설가 구보씨와 경성사람들	· 연출가 성기웅이 박태원의 단편소설들을 활용하여 구보의 일상을 6개의 에피소드로 재현한 연극
2008	연극	깃븐 우리 절문날	· 권영희를 사이에 둔 구보,이상,정인택 간의 연애사
2008	번역	폴란드어	· 경희대 대학원 국문학박사과정의 폴란드인 유스트나 나이바르가 한국문학전달을 위해 번역, 폴란드에 출간
2009	전시	청계천에서 만난 사람, 구보 박태원	· 청계천문화관에서 구보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특별전
2009	행사	구보 따라걷기	·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구보학회와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한 구보 박태원 탄생 100주년을 기념으로 한 시민 참여 행사로, 그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담긴 서울 시내를 산책

40) 아마무라 히토시, 이수정(역), 『근대성의 구조』, (서울: 민음사, 1999), p.176, 상계서, p.431에서 재인용

41) 교학사, 대한교과서, 천재교육, 형설출판사, 중앙교육 등 총 5개 출판사의 교과서에 주요텍스트로 수록

2009	전시	구보, 다시 청계천을 읽다	· 화가 8명이 박태원의 대표작들을 회화적 상상력으로 형상화한 그림 30여점을 청계천 광장에서 전시
2010	연극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 연출가 성기웅이 영상을 적극적으로 무대 위에 반영하여 연극무대라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자 원작을 그대로 재현
2011	연극	소설가 구보씨의 자전거	· 연출가 장한섬
-	교육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sup>41)</sup> 에 실렸을 뿐만 아니라 수능에도 제출

이와 같이 박태원 소설은 단순히 책 속의 텍스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컨텐츠와 행사로 파생되어 다양한 연령의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성이나 대중성을 검증 받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폭넓은 독자층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의 활용으로써 나아가 다양한 문화컨텐츠 사업 시 좋은 성과를 얻으리라 기대된다.

## 제4절. 문학작품 속 장소 선정 및 해석의 틀

### 1. 박태원과 다른 작가의 문학작품 선정 방법

본 연구의 대상지 영역 설정 및 연구 바탕으로 선택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나타난 1930년대 경성중심부의 공간들은 이 한편만의 소설로만 장소성을 고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점으로는 첫째, 박태원의 분신인 구보가 관찰하고 생각한 경성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과, 둘째, 각 장소마다 묘사한 구체성이 작가의 관점에 따라 다르며, 셋째, 소설 속에서는 몇 번이나 지나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언급하지 않은 곳도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1934년에 단지 30회에 걸쳐 신문에 연재한 작품이기 때문에 ‘1930년대’의 경성을 대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연구자는 1930년대에 연재하거나 발표한 박태원의 다른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작가의 문학작품들을 함께 확장하여 ‘1930년대’ 경성중심부의 장소성을 해석하고자 한다. 작가 한 개인의 관점이라 장소의 대표성의 한계를 느

끼면서도 박태원의 작품을 우선으로 하는 이유는 그가 당시 작가들 중 ‘고현학’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한 대표적인 작가이기 때문이다. 박태원 외 작가 선정 기준은 ① 박태원이 활동했던 구인회(九人會)의 구성원, ② 1930년대 활동하며 경성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을 쓴 작가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들의 문학작품 선정기준에 있어서 연구자가 우선적으로 중점을 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자가 설정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대상지 내의 구체적 지명이 나오거나 추측 가능한 묘사가 있는가?

② 작품이 쓰인 당시의 도시경관 또는 물리적 환경을 읽어낼 수 있는가?

③ 1930년대 경성이라는 도시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 등을 잘 나타낸 세태 및 통속적 성격으로써 도시문화를 읽어낼 수 있는가?

이상 세 가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좀 더 생생한 시대상을 반영했을 당시 신문 및 잡지에 연재하거나 출판된 작품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2. 문학작품 속 장소 선정 결과 및 분류

박태원 외 작가 선정 기준 중 하나인 구인회(九人會)는 1933년 8월 서울에서 조직되었는데 이때 9명의 구성원은 이종명, 김유영, 이효석, 이무영, 유치진, 이태준, 조용만, 김기림, 정지용 등 9명이었으나 발족한지 얼마 안되어 발기인인 이종명, 김유영, 이효석이 탈퇴하고 그 대신 박태원, 이상, 박팔양이 가입하였고, 그 뒤 또 유치진, 조용만 대신 김유정, 김환태가 보충되었다.<sup>42)</sup>

이때, 탈퇴한 인원인 조용만을 포함하여 김기림, 박팔양, 이무영, 이상, 이태준 등 6명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구인회 구성원을 포함한 1930년대에 활동한 작가 및 문학작품 선정결과는 다음 <표 2-4>와 같다.

---

42) 네이버 백과사전



[표 2-4] 문학작품 속 장소성 연구를 위한 문학작품 및 작가

장르	작가	작품명	발표지	연재일(발표일)
소설	박태원	피로-어느 반일의 기록	여명	1933.7
수필		6월의 우울	중앙	1934.6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조선중앙일보	1934.8.1~9.19
소설		애욕	조선일보	1934.10.16~23
소설		청춘송	조선중앙일보	1935.2.7~5.18
소설		전말	조광	1935.12
소설		천변풍경	조광	1936.8~10
수필		故유정과 나	조광	1935.7
소설		우맹	조선일보	1938.4.7~1939.2.14
풍트		제비 上,下	조선중앙일보	1939.2.22~23
소설		명량한 전망	매일신보	1939.4.5~5.21
수필		결혼 5년	여성	1939.12
수필	김기림	바다의 유혹 上,中,下	동아일보	1931.8.27~29
수필		진달래 참회	—	1934
수필		바다의 환상	—	—
수필		그봄의 전리품	조선일보	1935년 3월 17일
시		바다의 향수	—	1935
시		옥상정원	태양의 풍속	1939
시		파고다공원	태양의 풍속	1939
시	박팔양	도회정조	여수시초	1940.3
소설	이무영	지축을 돌리는 사람들	동아일보	1933.8.5~9.22
소설		먼동이 틀 때	동아일보	1935.8.6~12.30
소설		명일의 포도	동아일보	1937.12.17~1938.4.5
소설	이상	날개	조광	1936.9
소설	이태준	고향	동아일보	1931.4.21~29
소설		점경	중앙	1934.9
소설		애욕의 금렵구	중앙	1935.3
소설		장마	조광	1936.10
수필	조용만	구인회 만들무렵	단행본	1984
수필		경성야화	단행본	1992

소설	김남천	T일보사	인문평론	1939.11
수필		가로	조선일보	1938.5.10
소설	김말봉	밀림	동아일보	1935.9.26~1938.2.7
소설		찔레꽃	조선일보	1937.3.31~10.3
소설	김소엽	서울	조선문단	1936.8
소설	방인근	마도의 향불	동아일보	1932.11.5~1933.6.12
소설	염상섭	백구	조선중앙일보	1932.10.31~1933.6.13
소설	유진오	김강사와 T교수	인문평론	1935.11
산문		현대적 다방이란	조광	1938.6
소설		화상보	동아일보	1938.12.8~1940.5.3
소설	이광수	흙	동아일보	1932.4.12~1933.7.10
수필	이선희	다당여인	별건곤	1934.1
소설		여인명령	조선일보	1937.12.17~1938.4.5
시	이용악	다방	조선중앙일보	1936
시	임화	다시 네거리에서	조선중앙일보	1935.7.27
산문	채만식	여름도시밤 ETC	중앙	1934.7
소설		그뒤로	별건곤	1930.1
소설		레디메이드 인생	신동아	1934.5~7
소설		탁류	조선일보	1937.10.12~1938.5.17
산문		봄의 현미경적 검사	조광	1938.4
소설		금의 정열	매일신보	1939.6.19~11.19
소설		인형의 집을 나와서	조선일보	1933.7.25~11.14
소설		명일	조광	1936.10~12
산문		다방찬	조광	1939.7
수필	추풍연	야시부근 종로야화	여성	1938.10
소설	한설야	황혼	조선일보	1936.2.5~10.28
소설		마음의 향촌	동아일보	1939.7.19~12.7
소설	현경준	마음의 태양	조선일보	1934.5.28~9.15

본 연구에서 고찰할 장소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구보가 다닌 동선을 바탕으로 백화점은 화신 백화점과 미쓰코시 백화점, 역(驛)은 경성역, 다방 및 카페는 낙랑파라 및 제비다방, 엔젤카페, 공원은 탑골공원 및 덕수궁, 그리고 가로

(街路)로는 종로 및 남대문통이다. 이때, 이 소설 속에서는 미쓰코시 백화점을 방문하지 않고 단지 지나치기만 하였으나 1930년대 경성에 있어서 화신백화점과 함께 중요한 공간이자 비교대상이라 생각하여 연구대상으로 넣었으며, 이는 박태원의 다른 작품인 청춘송(1935)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구보와 이상(李箱)이 함께 방문하는 엔젤카페 역시 탑골공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언급하지 않는다. 이때 박태원의 다른 문학작품 속에서도 탑골공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한 작품을 발견하지 못한바, 다른 작가의 문학작품을 통해 고찰하려고 한다.

### 3. 문학작품 속 장소성 해석을 위한 틀

[표 2-5] 장소성 해석의 틀

구성요소			내용
시 간	연도		작품 속 나타난 연도 신문 및 잡지에 연재(발표)한 작품은 작품 속에서 구체적인 연도를 언급하지 않았을 시 실제 연재한 연도 기준
	계절, 월(月)		작품 속 나타난 계절 혹은 월(月) 알 수 없을 때는 신문은 연재한 월(月)로, 잡지는 출간한 월(月)로 한다.
	시(時)		시각 새벽/오전/정오/오후/해질 녘/저녁/밤
공 간	백화점	화신 미쓰코시	내부(내관), 외관, 쇼윈도우, 옥상, 식당, 승강기 등
	역(驛)	경성역	일·이등 대합실, 티룸, 경성역 앞, 식당 등
	다방 · 카페	낙랑파라 제비다방 엔젤카페	다방/카페의 내부(내관) 및 외관
	공원	탑골공원	공원 안
	가로	종로	상점, 종로네거리, 상점거리, 야시장 등
		남대문통	광장, 경성우편국, 조선·저축은행, 거리 등
인 간	등장인물		1인칭 시점이거나 수필일 경우 작가를 포함하여 작가가 관찰한 공간을 소비하는 사람들 그 외 작품은 등장인물들
	행태		작품 속 인물(들)이 공간을 소비하는 방식

## 제3장 1930년대의 경성과 문학작품을 통한 장소성 해석

### 제1절. 1930년대 경성의 시대적 상황과 모더니스트들

1910년대부터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 경성은 1930년대에는 근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정치,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선의 핵심을 담당하는 곳으로 위치한다. 특히 이 시기에 이르러 경성은 백화점, 영화관 등이 들어선 자본주의와 소비의 중심지로 자리하면서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일상의 영역에 편입되고, 소비와 여가 등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그에 따른 시설의 확충으로 근대 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된다.<sup>43)</sup> 그리고 당대의 지식인과 작가들, 예술인들 또한 이런 경성의 거리를 활보하며 그들의 사유를 작품 속에 본격적으로 투영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 한 명이 박태원이다.

모-던 생활이란 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그것은 도시의 산출이다...서울로 말하면 종로 네거리라든지 진고개라든지의 포도<sup>44)</sup> 위에 또는 카페, 레스토랑, 영화관, 음악회 등의 의자 위에서 영위되는 생활이다...전기의 각 장소에서 살며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아니오, 그 지점에 모여드는 탄탄의 사람들이 그 지역과 장소를 빌어서 영위하는 생활이란 말이다...모던 생활은 가두의 생활이다. 말하자면 이런‘거리’를 만들어내어서 그 것을 길러가는 근대적 대도시라는 괴물의 소산이다.<sup>45)</sup>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30년대 모더니즘은 도시공간과 밀착되어 있다. 이른바 ‘도회의 아들’ 이고자 하였던 모더니스트들은 도시화에 능동적인 수용자이자 동시에 적극적인 비판자였다. 이들은 새로운 도시공간을 경험하면서 근대화에 대한 열정을 피워내는 한편, 도시화에 대한 경계심도 늦추지 않았다. 도시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정신적인 빈곤은 필연적으로 양가적인 감정을 초래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도시화의 주체가 식민주의라는 점에서 1930년대가 내제한 문제는 한결 복잡적이다. 즉 도시화에 대한 동경과 동시에 식민 자본이 초래하는 모순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중성 속에서 당대 모더니스트들의 의식은 본질적으로 균열될 수 밖에 없

43) 정영호, “김기림의 ‘광화문통’ ,소멸과 신생의 거리”, 『한국어문학회』, 111(-), 2011, p.389

44) 포도는 ‘포장도로’ 를 말한다.

45) 『신념』 1930년 7월호에 실린 기고글 「모던 수제」의 일부분, 김진송,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9)에서 재인용

있던 것이다. 그들의 ‘모방’과 ‘비판’, 근대화에 의한 이중적인 의식은 ‘양가성’과 ‘혼종성’의 개념으로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sup>46)</sup>

이러한 1930년대 도시공간은 식민지 지배 매커니즘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공간은 독립된 물리적 실체로서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객체들과의 관계에서, 즉 사회현상들과의 관계에서 이해되는 ‘사회적 개념’<sup>47)</sup>이기 때문이다. 특히 1930년대 경성은 식민지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피지배민족으로서 식민정책을 수용해야 하는 조선인의 위치가 어느 지역보다 선명하게 부각되면서, 식민지 근대와 탈식민주의가 은밀하고 강력하게 상충하는 공간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생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형태로 변형된다. 자본주의 발달은 ‘자본의 도시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sup>48)</sup> 1930년대 경성은 식민자본주의가 급속도로 팽창하는 현상이었다. 특히 당시는 일제가 전시 경제 체제를 강화하고 중공업을 국책산업으로 확정함에 따라, 일본의 독점 자본들이 본격적으로 경성에 진출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sup>49)</sup>

경성이란 도시는 박태원의 초기소설을 가능하게 만든 작가의 경험공간으로 작품의 표현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된다. 그것이 식민지의 수도라 하더라도 경성은, 본정(本町)만을 들여다 본다면 “유행의 시대라 부를만한 매혹적인 문화풍경”<sup>50)</sup>이 펼쳐지고 있었고, 특히 일본인에 점유당한 혼마치, 황금정, 명치정은 경성 부인들에게 정신적 상처와 부러움, 환희와 갈등을 안겨준 다중적 이미지의 공간들<sup>51)</sup>이었다.

---

46) 정현숙, 전제서, p.55

47) 김왕배, "공간정치경제학의 기본개념과 분석틀", 『공간의 정치경제학』, 한국공간환경학회, (서울: 아카넷, 2000), p.59, 상계서, p.54에서 재인용

48) 최병두, 『근대적 공간의 한계』, (서울: 삼인, 2002), pp.48-9, 상계서, p.54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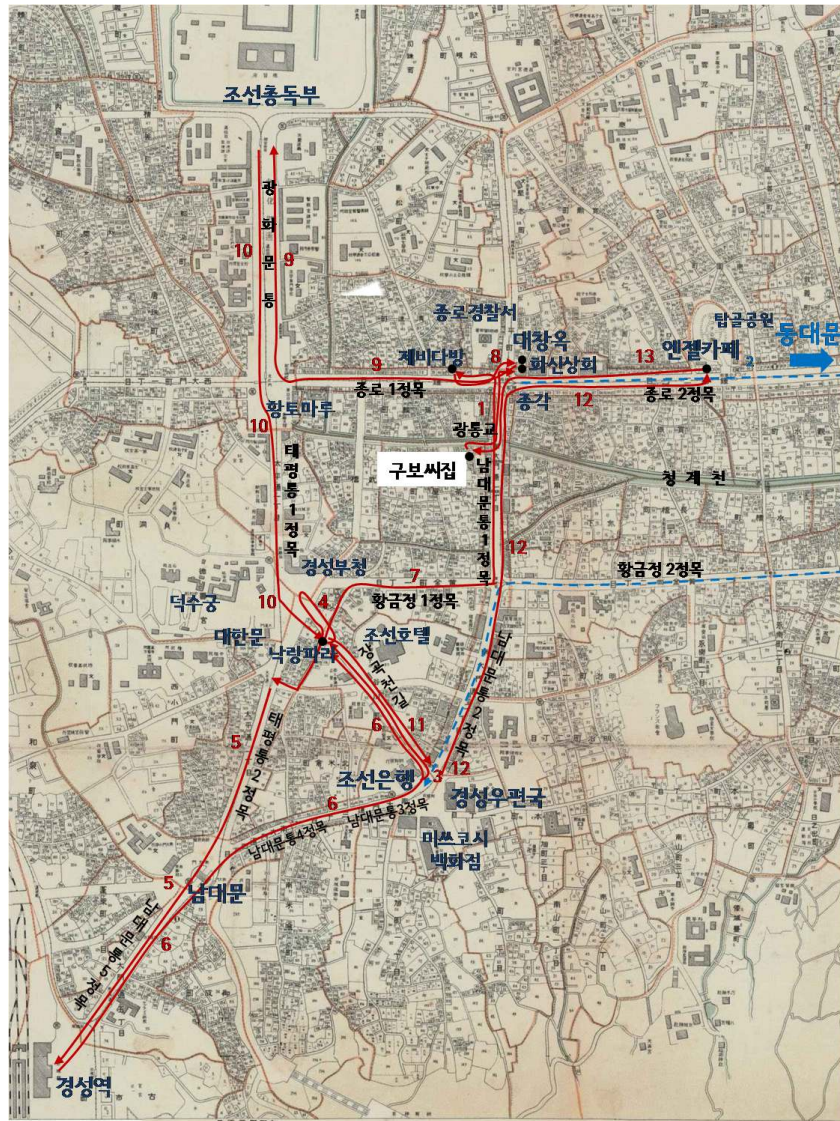
49) 양옥희, 서울의 인구 및 거주지 변화: 1394-1945,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49-56, 상계서, p.54에서 재인용

50) 최병택, 예지숙, 『경성리포트』, (서울: 시공사, 2009), p.143

51) 노형석, 『한국근대사의 풍경』, (서울: 생각의 나무, 2006), p.230

## 제2절. 문학작품 속의 경성중심부의 장소성 해석

본 연구의 기본 바탕으로 활용할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주인공 구보가 하루동안 다닌 여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오는 구보의 동선

그림 속 동선 순서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구보의 동선

순서	동선
1	다옥정 7번지(구보씨 집) → 광고 → 종로네거리 → 화신상회
2	전차이동(화신 → 동대문 → 조선은행)
3	조선은행 → 낙랑파라
4	낙랑파라 → 경성부청 → 낙랑파라 → 태평통 2정목 쪽
5	태평통 2정목 → 남대문 → 경성역
6	경성역 → 남대문 → 조선은행 → 양복점 → 낙랑파라
7	낙랑파라 → 종로네거리 → 제비다방
8	제비다방 → 대창옥
9	대창옥 → 황토마루 → 조선총독부 앞
10	조선총독부 앞 → 황토마루 → 경성부청 → 낙랑파라
11	낙랑파라 → 조선호텔 → 경성우편국
12	경성우편국 → 종각 → 엔젤카페
13	엔젤카페 → 종로네거리 → 다옥정 7번지

## 1. 백화점

<표 3-2>와 같이 1930년대 당시 경성에는 5개의 백화점이 있었는데 그 중 화신백화점만이 조선인들의 중심지, 북촌에 있었고 나머지 네 개는 일본인들의 근거지인 남촌에 있었다. 본고에서는 민족자본으로 조선인이 세운 대표적인 북촌의 백화점 화신백화점과 일본인들이 세운 대표적인 백화점인 미쓰코시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두 개의 백화점을 선택한 이유는 소설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각각 조선인과 일본인이 세운 백화점이라는 민족적 의식을 바탕으로 비교 대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쓰코시백화점은 실제로도 당시 화신백화점과 종종 비교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화제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인이 세운 다른 4개의 백화점 중에서도 특히 미쓰코시백화점은 옥상정원으로 대표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고 현재 유일하게 백화점의 원형이 크게 변형되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적으로 연구하는데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표 3-2] 1938년 현재 경성부 내 백화점 현황

백화점명	설립연도	신축확장연도	자본금	총 면적(평)	종업원수
조지야(丁子屋)	1921	1939	150	2,000	405
미나카이(三井)	1922	1932	500	2,500	350
미쓰코시(三越)	1906	1934	미상	2,300	미상
히라다(平田)	1926	-	20	700	200
화신(和信)	1931	1937	100	2,034	500

출처: 日本百貨店通信社, 『百貨店年鑑昭和十三年版』, 東京, 1938, pp.1055~78,  
김백영, 『지배와공간』, p503에서 재인용

## 1) 화신백화점

먼저 소설 속 구보를 따라 화신백화점의 위치부터 다시 되짚어보겠다.

구보는 집을 나와 천변 길을 광고로 향하여 걸어가며 . . . 그는 종로 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구보는 종로네거리에 아무런 사무(事務)도 갖지 않는다.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 . . 전차 선로를 두 번 횡단하여 화신상회 앞으로 간다.<sup>52)</sup>



[그림 3-2] 화신백화점 입지

여기서 주인공 구보는 작가 박태원의 분신이기 때문에 소설 속 구보의 집은 실제 박태원이 살던 집일 것이다. 박태원의 생가는 다옥정(다동) 7번지로 광통교(광교)부근의 청계천 남쪽에 있었다. 집을 나온 구보가 천변 길을 따라 광고로 가 잠시 서 있다가 ‘왼편으로 쏠려’ 종로네거리를 바라보고 걸은 다음 전차선로를 두 번 횡단하여 화신상회로 가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당시 입지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3-2>와 같다. 즉 화신백화점은

52)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34), 『박태원 단편선』, (서울: 글누림, 2008), pp.1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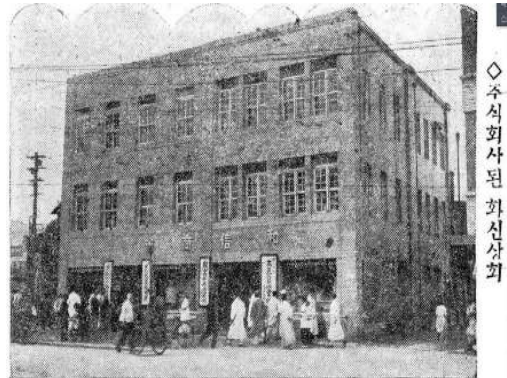
당시 조선인들의 근거지였던 북촌 종로에서도 그 중심지였던 종로네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종로상점가의 중심역할을 하였다.

1931년 설립된 화신백화점은 1937년 지하 1층 지상 6층이라는 당시로서는 압도적인 높이로 신축되기까지 “설립→신축→인수 및 합병→화재→신축”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다양한 모습을 거친다. 이 모든 과정은 식민지라는 환경 속에서, 근대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종로 한복판에서 불과 6년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특히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화신백화점은 겉에서 그 변천사를 지켜본 조선인들에게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1930년대 경성의 5대 백화점 중 유일하게 북촌에 있었던 화신백화점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90년대 신태화(申泰和)에 의해 설립된 화신상회는 본래 귀금속품 전문점으로 혼마치에 사는 일본인들조차 탄복하여 단골로 드나들 정도로 당시 종로에서는 가장 명성을 떨치던 상점 중 하나였었다. (<그림 3-3>)



[그림 3-3] 초기의 화신상회



[그림 3-4] 1932년 개업한 화신백화점  
(동아일보 1932년 5월 10일)

그러한 명성에 힘입어 1922년에는 화신상회 안에 양복점을 새로 들이고 다양한 잡화도 취급할 정도의 대형 잡화점으로서 한창 전성기를 누렸으나 1930년 남촌 혼마치에 미쓰코시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경영은 어려워지게 된다. 1931년 선일지물주식회사(鮮一紙物株式會社)의 사장 박흥식이 29살의 나이로 35만원(지금 돈 420억)에 매수한다. 화신상회를 인수한 박흥식은 곧바로 기와집이던 낡은 건물부터 헐어냈다. 그런 다음 1932년 5월, 혼마치의 미쓰코시백화점과 같은 높이인 3층 콘크리트 대형건물을 산뜻하게 지어올려 마침내 개업한다.<sup>53)</sup> (<그림 3-4>)

그러나 박흥식(朴興植)이 화신상회를 설립한 다음 해인 1932년 1월, 신축 중인 화신상회 옆에 ‘동아백화점’이 <그림 3-5>와 같이 문을 열게 된다. 일찍부터 종로 2가에서 ‘동아부인상회’를 경영하던 최남(崔楠)이 화신상회와 동일한 형태의 백화점을 개설한 것이다. 동아백화점이 들어선 4층 건물은 민규식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그의 친족들이 1층에 시계포와 금은상을 차려놓고 있었으므로, 동아백화점은 부득이 2층 이상만 임대해 사용하였다. 따라서 동아백화점은 1층 일부에 가까스로 쇼윈도를 설치하는 약점이 있었지만, 새로운 근대식 빌딩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규모도 만만치 않았다.



[그림 3-5] 동아백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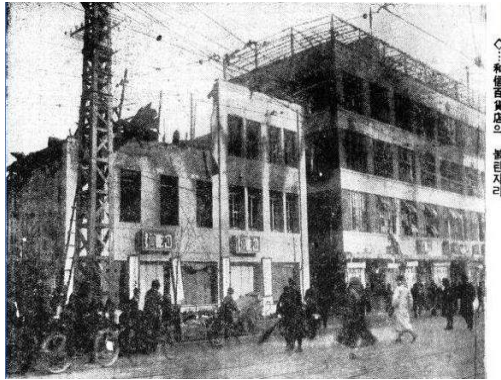


[그림 3-6] 화재가 나기 전 구름다리로  
이은 화신백화점

이렇게 조선인 경영의 양대 백화점으로 동아백화점과 화신백화점이 종로사거리  
에 나란히 위치하여 한국인들을 주요고객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지  
만, 동아백화점이 개업한지 6개월 만인 1932년 7월 수완이 좋았던 박흥식에게 견  
디지 못한 최남이 동아백화점을 넘기게 된다. 화신백화점은 동아백화점 사이에 <그  
림 3-6>과 같이 구름다리를 만들어 더 많은 쇼핑객들을 끌어모으는 데 힘썼다.

그러나 화신상회는 1935년 1월 27일 화재로(<그림 3-7>) 건물을 다시 짓게  
되는데, 1936년에는 동관이, 1937년에는 서관이 완공된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  
일」이 쓰인 시기는 1934년이므로 구보가 들어갔을 화신백화점은 <그림 3-6>일  
것이다.

53) 박상하, 『경성상계』, (서울: 생각의 나무, 2008), pp.220-4 참조



[그림 3-7] 화재가 난 화신백화점  
(동아일보 1935년 1월 29일)



[그림 3-8] 화재 후 다시 지은 화신백화점  
(경성엽서 사진첩)

화재 후 다시 지은 화신백화점은 <그림 3-8>과 같이 지하 1층 지상 6층이라는 당시로서는 압도적인 높이의 건물로 종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한편, 조선인들의 상징적 자긍심이자 경성의 명물거리였다.

1930년대 문학작품 속에서 나타난 화신백화점은 <표 3-3>과 같다.

[표 3-3] 1930년대 문학작품 속의 화신백화점

장르	작가	작품명	시간	공간	인간
소설	이태준	모던걸의 만찬	1929년	백화점 안	모던 걸
소설	염상섭	백구	1932년 저녁	백화점 안	마님
소설	-	소대가리 경성 시골 학생이 처음 본 서울	1932년 4월	백화점 안	시골에서 온 중학생
소설	박태원	오월의 훈풍	1933년	백화점	철수
수필	김기림	봄의 전령	1933년	백화점 안	여성들
수필	김기림	진달래 참회	1934년	백화점 안	시골사람
소설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34년 8월 1일 낮 12시경	승강기 앞	구보,가족
소설	이태준	점경	1934년 9월	백화점 앞 진열창	어린걸인, 게이트 보이
수필	김기림	그 봄의 전리품	1935년	백화점 안	여성들
소설	박태원	천변풍경	1936년	백화점 식당	카페 여급들
				백화점 앞	시골아이,아빠
소설	김말봉	찢레꽃	1937년	백화점 앞	가난한 민수

수필	추풍연	야시부근 종로야화	1938년 여름	백화점 안	나
소설	박태원	명량한 전망	1939년 저녁	백화점 앞/안	허재
소설	채만식	금의 정열	1939년 밤	백화점 앞	순범
			1939년 저녁	식당	상문,봉아,순범
수필	김기림	바다의 환상	-	백화점 식당	나, 친구

## ■ 경성도시민들의 일상공간

다음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34)에서 점심을 먹고 집을 나온 구보가 14시간동안 경성을 배회하기 전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화신백화점이다. 이는 광고 근처에 있었던 그의 집과 종로네거리에 위치한 화신백화점이 단지 가까워서라기보다는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할만큼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심지어 아무 것도 사지 않고 그저 승강기 앞에까지만 갔다가 한 가족을 슬쩍 보고만 바로 나올 뿐이다. ‘백화점’은 실제 소비력과 구매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당시 경성인들에게는 일상적으로 드나들었던 공간이었다. 당시 종로는—특히 화신백화점이 있었던 종로네거리 근처는—많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던 곳이지만 무엇보다 화신백화점으로 그의 발길을 끈 것은 근대도시의 생활이 그의 일상을 지배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3-9] 1930년대 화신상회 포장지

또한 박태원의 「오월의 훈풍」(1933)에서 주인공 철수는 단지 양말 두 켤레를 사기 위해 화신백화점에 들르기도 한다. 당시 백화점은 술, 식료품, 과자, 심지어 군고구마까지 판매할 정도로 도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그림 3-9>는 당시 화신백화점의 포장지인데 양말뿐만 아니라 손거울, 우산, 부채 등 일상 속의 다양한 생활물품들이 포장지의 반이상 채워져 있는 것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박태원의 다른 중편소설 「명량한 전망」(1939)에서는 다른 면모의 일상공간으로서의 백화점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허재는 종로네거리에 이르러 화신상회 정문을 바라보았다. 문 위에 걸린 시계는 여섯시 이십분을 가리치고 있다. 허재는 잠깐 다방편을 바라보다가 생각을 돌려 백화점으로 향하였다. 이제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혜경이는 그와 약속한 장소에 결코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나타나는 일이 없다 그러한 것을 지금부터 들어가 기다리기도 무었하였거니와 그보다도 오래간만에 만나는 애인에게 어찌 빈손으로 대하여 마땅하라-하는 생각이 든 까닭이다.<sup>54)</sup>

데이트를 앞둔 한 남자가 늦는 연인을 다방에서 마냥 기다리는 시간보다 화신백화점에서 보내는 시간을 선택하는 장면이다. 비록 연인의 선물을 사기위한 핑계로 백화점에 들어서지만 일종의 킬링타임(killing time) 목적임을 시사한다. 백화점이 도시인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남자가 약속시간을 확인하는 화신백화점의 “문 위에 걸린 시계”는 채만식의 장편소설 『금의 정열』(1939)에서도 등장한다.

자동차는 종로 네거리를 커다랗게 동쪽으로 커브를 돌고, 순범은 아홉 시 십오분 전인 화신의 시계를 흘끗 쳐다본다.<sup>55)</sup>

종로네거리를 지나칠 때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자연스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화신백화점은 근대도시인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간확인’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종로네거리 일대에서는 도시일상생활의 지표 역할을 하였다.

## ■ 차별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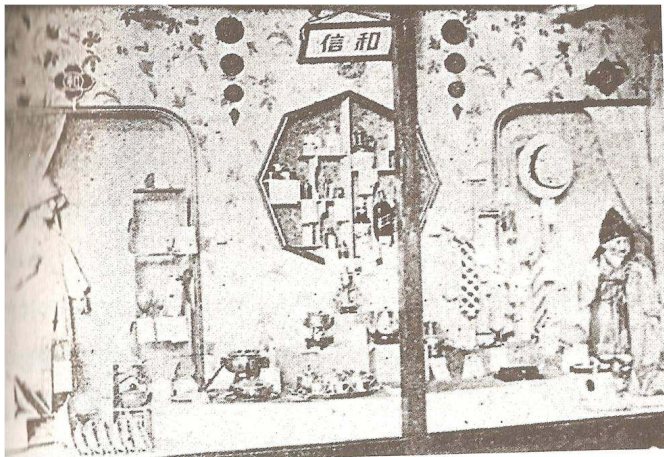
당시 서울에는 마음껏 사용할 돈을 가지고 있는, 신남성, 신여성처럼 수시로 백화점을 들락거리는 계층과 함께, 소비력이 없는 구보조차 개방되어 있는 백화점을 그저 도시생활의 일부분으로서 ‘자유롭게’ 드나든 일상공간이었지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었던 도시빈민에게는 차별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54) 박태원, “명량한 전망” (1939), 『原本 新聞連載小説全集』 5, (서울: 깊은샘, 1987), p.264

55) 채만식, 『금의 정열』 (上) (1939), (서울: 인크리션, 2005), p.36



불그스름한 황토는 미어진 고무신에만 묻은 것이 아니라 새까맣게 탄 종아리에도 더러 튀었던 자국이 있다. 바지는 어른이 입다가 무릎이 나가니까 물려준 듯 아랫도리는 끊어져 달아난 고구라 양복인데. 거기 입은 저고리는 조선적삼이다. 이러한 옷매무시에 깎은지 오랜 텃수룩한 머리를 쓴 것뿐인 한 사내아이, 그는 화신백화점 진열창 앞에 서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데 골똘했다. “웬 자식야?” 욕설을 던지되 . . . 게이트보이는 발길로 저보다 어려보이는 이 아이의 정강이를 찼다.<sup>56)</sup>



[그림 3-10] 1930년대 화신백화점 진열장

화신백화점 진열창 앞 (<그림 3-10> 참조)에서 단지 ‘구경’ 만 하고 있다는 이유로 남루한 형상을 하고 있는 아이는 게이트보이에게 정강이까지 걷어차이며 쫓겨나는 장면이다. 여기서 아이는 이른바 도시빈민의 계층으로 보인다.

도시빈민은 이른바 토막민, 행랑살이, 부랑민, 걸인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며 실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근대적 소비문화에서 소외,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계층이었다. 이들은 인간으로서 최저의 생활수준도 보장받지 못한, 가난과 배고픔으로 점철된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그러한 일상은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이어지고 부유층에 대한 적대의식으로 연결되고 있었다.<sup>57)</sup>

이처럼 아예 백화점 문턱도 못넘어보고 쫓겨나며 절대적 차별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구보처럼 또 다른 차별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었다.

젊은 내외가, 너댓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흘깃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하려 주려 하였다. 사

56) 이태준, “점경” (1934), 『이태준 단편전집』, (서울: 가람기획, 2005), pp.363-4

57) 오진석, 전계서, p.187

실, 4,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sup>58)</sup>

아내가 없는 구보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는 부부를 보며 업신여겨 주려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축복해준다. 굳이 ‘돈’이 있고 없음을 떠나 구보에게 없는 ‘가정’을 자각시켜줌과 동시에 아이와 함께 백화점식당으로 가족외식을 하러 온 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도 한다. 즉 도시빈민과 달리 백화점의 자유로운 출입은 허락되지만 가난한 룸펜—혹은 최소한 빈민은 아니지만 출입은 가능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문화적인 차별화를 제공하는 곳이 백화점이기도 하였다.

김말봉의 장편소설 『찔레꽃』(1937)에서는 가난한 민수가 지갑 속에 남아있는 오십 전 짜리 한뼉을 떠올리고 화신백화점으로 향한다. 그러나 막상 화신백화점 앞에 도착했을 때 “화신백화점의 새로 확장된 지붕을 바라보는순간 주머니에서 외롭게 있는 오십 전을 생각하고 쓸쓸히 웃는다.”<sup>59)</sup> 이 소설이 쓰여진 1937년은 화신백화점이 화재 후 6층 건물로 신축했을 때이다. 오십 전으로 백화점에서 무언가를 사기 위해 왔지만 막상 육중한 백화점 앞에서는 위축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민수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그 위압적인 외관만으로 보이지 않은 소외감과 차별을 느끼고 들어가지 못하고 웃기만 한다.

## ■ ‘있는 자’ 들을 위한 가족 나들이 장소, 서양식 백화점 식당

다시 구보가 보았던 백화점 승강기 앞 가족을 보자. 이 때, 구보가 한 가족을 보며 그들이 “승강기”를 타고 “식당”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걸 봐서 당시 백화점 안에는 승강기를 타고 갈만큼의 높이에—즉 전망이 좋은— ‘식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화신백화점에 들어간 구보가 아이가 있는 가족이 식당으로 가 오찬을 즐길 것이라고 지레짐작부터 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 백화점의 식당으로 가족끼리 외식을 가는 문화가 다소 일반화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신백화점은 처음에는 동관 4층 일부를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4층 전체로 확장

58)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pp.163-7

59) 김말봉, 『찔레꽃』(1937), (서울: 대일출판사, 1978), p.242

했는데 갖가지 양식, 일식, 한식요리와 음료 등을 판매하여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고 가족 동반으로도 자주 찾는 곳이었어서 식사시간에는 초만원에 이르렀다.<sup>60)</sup> 화신에서는 식당영업을 매우 중시하여 식당권(2원, 5원권)을 따로 팔고 있었으며 스스로 “일반 신사숙녀들의 유일한 사교장”이며 “경성의 명물”이라고 자부할 정도였다.<sup>61)</sup> 이러한 현상은 화신백화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성 내의 5개 백화점 식당 역시 가족 나들이 문화로서 이용되었으며 문학작품 속에 주로 나오는 백화점 식당은 미쓰코시백화점과 화신백화점, 그리고 정자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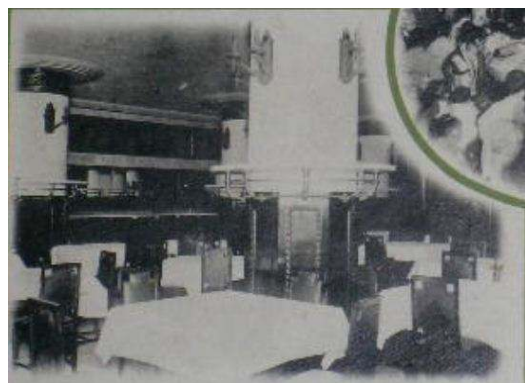
이러한 백화점의 식당을 찾는 이들을 박태원의 시선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백화점식당. 그곳은 원래, 그리 불행하다거나, 슬프다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평온무사하게 보낼 수 있었던 사람, 얼마간이라도 행복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던 사람, 그러한 이들이, 더러는 아내를 동반하고, 또는 친구와 모여서,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자녀들을 이끌고, 결코 오랜시간을 유난스럽게 즐기기에 적당치 않은 이곳을 찾아온다.<sup>62)</sup>

일정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는 도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혹은 친구와 함께 백화점 식당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또 다른 차별을 낳았다.



[그림 3-11] 미쓰코시백화점 식당(조선과 건축)



[그림 3-12] 정자옥백화점 식당(경성엽서 사진첩)

시골에서 올라 온 한 학생은 백화점 식당 앞에서 “식당 앞에 늘어놓은 음식 먹고 싶기는 하나 이름도 모르거니와 첫째 값을 몰라 겁이 나서 못 들어가 먹겠

60) 오진석, “일제하 백화점업계의 동향과 관계인들의 생활양식”,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서울: 해안, 2004), p.170

61) 「京城和信食堂」, 『和信』, 1934, 상계서, p.170에서 재인용

62) 박태원, 『천변풍경』(1936), (과주: 열림원, 2009), pp.320, 328



다”<sup>63)</sup>라며 발길을 돌린다. 일단 개방된 백화점 안에 ‘자유롭게’ 들어와 승강기도 타보고 여기저기 구경도 했지만 처음보는 모조음식이 진열되어 있는 백화점 식당 안에는 차마 들어가지 못한다. 음식값부터 걱정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없고 근대문화에 익숙치 못한 이들에게 서양식 음식을 주로 판매했던 백화점 안의 식당은 신기하면서도 출입조차 두려운 장소였다.



[그림 3-13] “백화점 견학”  
(별건곤 1932년 11월)

1932년 발행된 『별건곤』에는 <그림 3-13>과 같은 삽화와 함께 “하 이것이 가쓰레쓰, 야사이사라다, 라이스카레…잠시 기록해두자”<sup>64)</sup>라고 혼잣말을 하는 백화점에 견학하러 온 학생의 모습에서도 당시 백화점 식당은 어떤 장소였는지 짐작케 한다.

다음은 큰 병을 앓다 석 달 만에 병원에서 퇴원한 한 모던보이가 백화점 안 식당을 찾은 풍경이다.

그는 백화점 식당에 앉아서 『런취-』를 시켰다 ... 그는 이 백화점 식당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웬나. 나도 저들과 같이 이곳에서 밥을 먹게 되었구나 하였다. 조그만 에프롱을 두른 음식나르는 여자들, 노랑게 머리를 지진...전문학교 학생 비슷한 여자들! 말속히 말속히 새 양복들을 입은 청년들, 몽실몽실한 어린애들—그들이 사물을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무슨 이론 같은 데는 어떠한지 모르나 음식을 함부로 목이 메이게 집어넣으며 쟁되다 할까봐서 그러한지 주위를 살피고 먹는 것이 전에는 썩 우스웠으나 지금에 그는 마땅한 일이라고 하였다.<sup>65)</sup>

글 속의 모던보이가 관찰한 백화점 식당 안의 사람들은 일정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는 이들로 보인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음식을 먹을 때 함부로 먹지 않는 것은 이제 “마땅한 일” 이라고 여길 만큼 교양있고 격식있는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63) “소대거리 경성 시골학생이 처음 본 서울, 재경초읽기”, 『별건곤』, 1932년 4월

64) “백화점 견학”, 『별건곤』, 1932년 11월

65) 안석영, “병실에서 병실에(上)”, 『조선일보』, 1934년 7월 26일

백화점 식당이었다. 모던보이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화점 식당은 일종의 고급스러운 취향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1937년에 발행된 잡지『조광』에 실린 「백화점 풍경」에서는 백화점 식당을 찾는 한 가족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곳은 W백화점 입구이다. 유선형 ‘시브레’ 차 한 대가 동대문 방면에서 쏜살같이 달려와 스프르 스톱을 한다. 곧 문을 열고 나오는 주인공은 ‘샤리 템플’ 같이 귀여운 소녀 두 명과 젊은 부부 두 사람이다. 그들은 모두 가슴에 진달래를 꽃았다. 아마 정릉이나 성북동에서 꽃 구경을 하고 오는 모양이다. 젊은 부부는 각각 어린애를 하나씩 손에 잡고 백화점으로 들어선다 . . .

“꽃구경도 잘했으니 저녁이나 먹고가지” 부인이 대답을 하기 전에 피꼬리 같은 목소리로, “아버지 난 양요리가 좋아” 이렇게 말을 가로채는 분은 큰 따님이다.

“아네요. 난 닭고기 탕반이 좋아요” 이것은 작은 따님의 말이다.

... 네 사람은 일제히 히히하고 극히 만족한 웃음을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간다. 5층 식당에 올라가니 입구에는 진달래와 사쿠라가 어저맏겨 홍여를 틀고 저쪽에서는 재즈가 요란한 음조를 날리고 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누구나 먹으라는 듯이 잠깐 보아도 비위가 동하는 온갖 산해진찬이 보기 좋게 별려있다. 양식, 중국식, 조선식 그리고 한번 마시면 가슴이 시원할 듯한 온갖 음료수...기자는 겨우 비빔밥 한그릇을 시켜가지고 식당으로 들어갔다.<sup>66)</sup> [밑줄 연구자]

기자가 관찰한 가족은 당시 부의 상징인 자동차(Chevrolet)를 타고 교외에서 꽃놀이 후 백화점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왔다. ‘양요리’와 ‘닭고기 탕반’을 아무렇지 않게 저녁메뉴로 정하는 아직 ‘어린애’들과 ‘겨우 비빔밥 한 그릇’을 주문하는 기자의 모습은 매우 대비된다. 즉, 앞서 살펴본 구로나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과 달리 기자와 같이 백화점 식당을 이용하여도 ‘무엇을 주문하는가’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주로 서양식 음식을 판매했던 백화점 식당의 메뉴는 종종 문학작품 속에서도 등장한다. 채만식의 장편소설 『금의 정열』(1939)에서는 백화점 식

66) “백화점 풍경”, 『조광』, 1937년 4월, 김진송,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2), pp.287-9에서 재인용

당에서 등장인물들이 저녁밥과 함께 ‘날맥주(生麥酒)’와 ‘아이스크림’을 곁들여 주문<sup>67)</sup>하는데 반해, 김말봉의 『절레꽃』(1937)에서는 저녁식사로 아예 ‘멜론 삼인분’<sup>68)</sup>이라는 특이한 메뉴를 주문하기도 한다. 지금도 일반적인 한국인의 습성과 맞지 않는 저녁식사로서의 ‘멜론’과 후식으로 ‘소다수와 아이스크림’을 주문하여 배를 채우는 이들은 백화점 식당에 들어오기 전 양복과 구두, 값비싼 화장품 등을 쇼핑하고 온 부유층에 속한다. 즉, 이러한 상류층에게는 백화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이전과 다른 세련된 소비문화를 고급스러운 취향인 것처럼 포장<sup>69)</sup>하였고, 이러한 허황된 인식은 백화점 식당에서 먹는 음식 주문에서도 나타났다.

김기림은 수필 「바다의 환상」에서 백화점 식당에서의 이러한 허영심으로만 가득찬 세태를 이름만 그럴듯하게 영어로 붙여진 ‘아이스 스트로베리 밀크’의 형편 없는 모양새에 빗대어 비판하였다.

‘아이스 스트로베리 밀크’, 그 중에는 동뜨게 기다란 이런 종잇장이 있었다.우리는 그 이름이 오만하고 화사한 데 끌려서 밀크라는 성을 가진 ‘아이스 스트로베리’ 양(嬢)을 시식하기로 하고 푸른 잉크빛 스커트를 입은 귀여운 소녀에게 그것을 명하였다 ... 그러나 소녀는 알루미늄 쟁반 위에 두 개의 ‘아이스 스트로베리 밀크’ 담은 배를 싣고 와서 흰 사기 테이블 위에 부려 놓았다. 그렇지만 어쩌면 그렇게 빈약한 접시일까, 대여섯 개의 딸기와 역시 두어 조각의 얼음과, 그것을 덮은 흰 우유—그것의 콤비네이션으로 된 이 음악은 여학교의 음악회에 나오는 대담한 합창대보다도 더 조화되지 않는다. 불유쾌한 미각 때문에 바다에의 환상조차 다 부서져 버리고만 우리는 ‘아이스 스트로베리 밀크’의 갇은 허영심에 경멸과 분노를 느끼면서 승강기에 달려 올라가서 속히 지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랐다.<sup>70)</sup>

## ■ 조선인들의 자랑, 경성의 관광명소 화신백화점

이러한 백화점은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이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는 관광명소 중 하나이기도 하였다. 박태원의 『천변풍경』(1936)에서도 지방사람들에게 화신백화점이란 어떤 대상인지 엿볼 수 있다.

67) 채만식, 『금의 정열』(上), pp.163-7

68) 김말봉, 『절레꽃』(1937), (서울: 대일출판사, 1978), p.37

69) 한금운, 『모던의 욕망, 일상의 비애』, (파주: 웅진씽크빅, 2011), p.46

70) 김기림, “바다의 환상”, 『김기림』, (파주: 돌베개, 2004), pp.13,16

몇 번인가 아버지의 모양을 군중 속에 잃어버릴 뻔하다가는 찾아내고, 찾아내고 한 소년은, 종로네거리 광대한 건물 앞에 이르러, 마침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예가 무슨 집이에요, 아버지.”

“저, 화신상....., 화신상이란 데야.”

“화신상요? 그래, 아무나 들어가요?”

“그럼, 아무나 들어가지.”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갈 것을 허락지 않았다 ... 지난번 올라왔을 때 들리지 못한 화신상회에, 자기 자신 오래간만이니 잠깐 들어가 보고도 싶었으나 ...<sup>71)</sup> [밑줄 연구자]



[그림 3-14] 여러분의 화신  
(동아일보 1939년 7월 20일)

『천변풍경』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의 아버지는 지난 번에도 들어가지 못한 화신백화점을 또 다시 들르지 못한 상황을 무척 아쉬워한다. 마치 1980년대에 지방사람들이 서울로 놀러오면 “서울=63빌딩”의 인식처럼 1930년대 서울로 온 지방사람들에게는 “서울=백화점”이라는 인식이 엇보인다. 특히 일본자본으로 설립된 남촌의 미쓰코시백화점을 비롯한 4대 백화점보다 가난한 식민지 현실에서 조선인인 박흥식이 민족자본으로 설립한 ‘화신백화점’은 그들에게 관광명소지로서의 의미보다 민족적 자부심이라는 더 큰의미를 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관점은 다음 글에서 엿볼 수 있다.

세면 후 삼월식당에 올라 아침을 치룬 뒤 백화점 견학을 나서다. 삼월, 평전, 정자옥을 거쳐 내 가장 친애하는 화신으로 가다. 이는 최초 개점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올적마다 아닌 들린 때가 없었고 다른 곳보다 더 유의하여 보는 내 집 같이 여기는 우리의 자랑거리 백화점이다.<sup>72)</sup>

71) 박태원, 『천변풍경』, pp.53-4

72) 무영당主 이근무, “젊은 상가일지”. 『三千里』, 1933년 10월

특히 박흥식은 <그림 3-14>처럼 식민지 조선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광고에 있어서도 ‘민족성’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천변풍경』에서 엿볼 수 없었던 시골사람이 직접 백화점에 들어간 풍경을 김기림의 수필 「진달래 참회」(1934)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묘사하였다.

함경선 1천 5백리를 온 내 친척을 안내하여 나는 어떤 백화점에 들어갔다. 양복쟁이 한 사람이 조선 천을 파는 곳에서 한 자에 30전짜리 인조견을 여섯 자를 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철이 되지도 아니하였는데 당황하게도 때묻은 맥고모자를 쓴 것을 보면 결코 서울 사는 사람은 아니다 . . . 이튿날 또 다른 시골손님을 안내해 가지고 같은 백화점으로 갔더니 공교롭게도 나는 형견 등속 진열장 앞에서 그 전날의 사나이와 마주쳤다. 그는 얼른 지갑 속에서 5원짜리 지전 한 장에 백동전 한푼을 내던지고는 여점원에게 향하여 본견(本絹) 치마 한감을 청했다. 오늘은 무슨 까닭인지 그 사나이의 왼 팔뚝에 전일(前日)의 시계가 감겨 있지 않다.<sup>73)</sup>

김기림이 백화점에서 본 사나이는 양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차림으로 서울 사람이 아님을 알아본다. 시골에서 기다릴 아내에게 선물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옷감을 사는 것 같은 사나이는 다음 날 시계까지 팔아가며 다시 와서 옷감을 산다. 시골 사람들에게 경성의 백화점에서 파는 물품은 질(quality)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김기림이 사나이가 사는 물품들을 지켜보며 속으로 시골에 있는 아내에게 선물하면 실망할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골 사나이는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 ■ 조선여성들의 해방구(解放區)

원래 ‘해방구(解放區)’란 ‘한 국가 안에서 저항세력이 중앙권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저항의 근거지로 지배하는 지역’을 뜻하지만 1930년대의 백화점은 근대화 속에서 여전히 가부장제와 현모양처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조선사회의 여성들에게 허락된 일종의 해방공간이었다.

73) 김기림, “진달래참회”, 『김기림』, (과주: 돌베개, 2004), pp.90-1

다음은 이태준의 단편소설 「모던걸의 만찬」 (1929)부터 살펴보자.

바람을 등지고 들어오니 몸은 그리 춥지 않아도 종아리와 귀는 얼음이 닿는 것처럼 차갑다 못해 쓰라렸다. 그리고 집으로 바로 돌아왔으면 어머니가 잡숫는 찬밥 끓인 것이라도 한술 먹었을 것을 공연히 마음은 그대로 달려 C백화점으로 갔다. 그리고 몸이 훈훈히 녹도록 한 시간 동안이나 백화점의 층층을 오르내렸다. 그러나 추운 몸은 녹였으나 고픈 배는 돈 없이 채울 재주가 없었다.<sup>74)</sup>



[그림 3-15] 여성들만 보이는 백화점 풍경  
(조선일보 1930년 7월 19일)

어머니가 먹는 찬밥 끓인 것을 먹을 정도로 가난한 소설 속 여성은 추운 날씨에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백화점으로 가서 한 시간동안이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몸을 녹인다. 그러나 과연 소설 속 여성은 서술 그대로 계단만 오르내렸을까? 그림의 띄어나 마찬가지로였던 백화점에 진열된 근대물품들은 살 수 없어도 시각적 즐거움을 주었고 여성들은 소비목적이 아닌 일종의 유희목적으로 백화점을 드나들었다.

1929년에 쓰인 이태준의 「모던걸의 만찬」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1930년대에 본격적인 백화점 붐(boom)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러한 여성들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모던걸이라고도 불린 이들은 1930년대에는 그들만의 문화로 정착시키기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을 전근대와 근대의 과도기에 놓인 남성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문학, 영화, 노래 등 다양한 매체에서 비판하였다.

김기림은 수필 「봄의 전령」 (1933)에서 “피녀(彼女)들의 푸른 치마폭은 아침의 아스팔트 위에서, 백화점의 층층계 위에서 깃발과 같이 발랄하게 팔락거리지 않는가.”<sup>75)</sup> 라며 백화점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구경하는 여성들을 비교적 담담하게 묘사하였다. 그러나 2년 후 쓴 「그 봄의 戰利品」 (1935)에서는 그러한 여성들은 평화로운 가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고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조롱하고

74) 이태준, “모던걸의 만찬” (1929), 『이태준 단편전집』, (서울: 가람기획, 2005), p.62

75) 김기림, “봄의 전령”, 『김기림』, (과주: 돌베개, 2004), pp.30-1

있다. 근대화로 인해 나타난 일종의 ‘사회현상’ 이 ‘사회문제’ 가 된 것이다.

사실 오늘의 백화점을 번영하게 만든 유력한 지지자(支持者)는 그 절대다수가 마나님들이나 아가씨들일 것이다. 그들은 실로 현대문명의 모든 소비면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물도 새지 아니할 듯한 그들의 ‘가정의 평화’ 조차를 용감하게 깨트리기도 한다.<sup>76)</sup>



[그림 3-16] 백화점 진열 (영화 ‘미몽’ ,1936) [그림 3-17] 만추가두풍경 (여성, 1936년 11월)

1936년에 제작된 영화 《미몽》에서도 백화점에 드나들기 좋아하고 허영심에 가득찬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한 가족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 여성은 백화점에서 만난 사기꾼과 눈이 맞아 집을 나가버린다. 가정을 깨고 돈과 남자를 쫓다가 결국 극단적인 비극을 맞이하는 영화 속 여성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이 영화는 당시 많은 여성들이 가정을 등한시하고 백화점에 드나드는 풍토가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3-18] 백화점 내부 1  
(영화 ‘미몽’ 1936)



[그림 3-19] 백화점 내부 2  
(영화 ‘미몽’ 1936)

76) 김기림, “그 봄의 戰利品”, 『조선일보』, 1935년 3월 17일



박태원의 『천변풍경』(1936)에서도 여성들의 백화점 쇼핑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좀처럼 또 맛보기 어려운 쾌락을 즐기느라, 그들은 좀 이름났다는 포목전과 네 군데 백화점을 차례로 돌기에 꼬박이 네 시간 반을 소비하였다 ... 웬만한 것은, 나 중에 배달을 시켜도 좋을 것을, 그것도 이르면 ‘멋’이라고, 사는 족족 한두 가지씩 나누어 들고 다닌 것이, 마침 손님이 많지 않은 식당 안 옆 테이블에다 쌓아 놓으니, 그 안에 시중드는 어린 계집들이 눈을 둥그렇게 뜬 것도 무리가 아닐 만치 그것도 참말 어지간한 짐이었다. 77) [밑줄 연구자]

소설 속 3명의 여성들(하나꼬, 기미꼬, 금순)은 하나꼬의 결혼식 때의 입을 옷감을 사기 위해 함께 이름났다는 포목전 외에도 무려 네 군데의 백화점을 순회하다 마지막으로 화신백화점 식당으로 온다. 옷을 사는 사람은 하나꼬 한 사람이지만 기미꼬와 금순은 기꺼이 네 시간 반의 백화점 쇼핑시간을 할애한다. 박태원은 이러한 여성들의 행태를 이렇게 말한다.

하기야 무엇을 사러 나간다는 것이 아낙네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사무가 아니다. 더구나 옷감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흥정할 때, 이미 그전에 그들은 그렇게도 흥분되고 또 열정적이기조차 하다 ... 물론 돈이 있다고 함부로 아무것이나 살 것은 아니로되, 사려면 들면 무엇이든 얼마든 살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질 수 있는 하나꼬를 따라, 같이서 백화점을 휘돌 때에 비록 그 돈이 제것이 아니요, 그래 산 물건이 제 것일 수 없더라도, 두 사람의 마음은 역시 그만큼 부요할 수 있을 것이 아니랴?78)

그녀들에게 백화점은 단순히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가는 소비공간’이 아니다. 배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멋으로 들고 다닌 테이블에 쌓을 정도의 백화점 쇼핑물품은 그들의 허영심과 과시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그러한 소비행태는 그들에게 행복감을 주었고, 주목받을 정도의 쇼핑물품들은 그들에게 존재감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성들의 쇼핑행태는 사그라들지 않고 1930년대 후반까지 지속된다. 1938년에 나온 가요 「똥단지 서울」에서 “모던걸 아가씨들 둥근 종아리/테파트 출입에 굽어만 가고...”로 노래가 시작될 정도로 여성들이 백화점에서 아이쇼핑

---

77) 박태원, 『천변풍경』, p.320

78) 상계서, p.319



(window-shopping)을 즐기는 것은 근대사회의 대표적인 현상으로서 자리매김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 ■ 근대문명 체험의 장소

먼저 염상섭의 장편소설 『백구(白鳩)』(1933)의 일부분을 살펴보자.

마님은 종로에서 버스를 내려서 백화점으로 들어갔다. 딸은 이층에 있으나, 이왕이면 엘리베-타를 타고 올라가려고 승강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 . .<sup>79)</sup>

소설 속 마님은 3층도 아닌 겨우 2층까지 가기 위해 일부러 복잡한 승강기를 탄다. 당시 경성에는 조선은행(1910)과 조선호텔(1914)에 각각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이 사무없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승강기를 타본 사람은 극히 드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화신백화점에 승강기가 설치되자 사람들은 ‘근대식 기계’를 몸소 체험하기 위해 백화점 승강기 앞은 늘 붐볐고, 경성사람 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꼭 한번은 타야 할 일종의 ‘근대적 삶의 통과 의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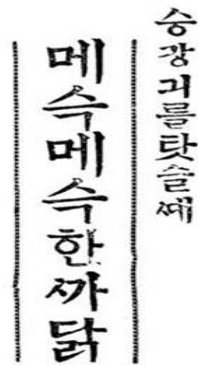
남타는 승강기니 나도 한번 타볼까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표 찍으시오” 소리가 날까봐 미리부터 조끼 봉창에 손을 넣고 돈 한푼을 꼭 쥐었다. 땅속으로 몇 만 길이나 떨어지는지 현기증이 난다. 급행차가 시골정거장 지나듯이 4층 3층 2층 그 다음에 가서 승강기는 딱 선다.<sup>80)</sup> [밑줄 연구자]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이 처음 승강기를 타는 모습을 묘사한 소설이다. 4층 높이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현기증이 날만큼 수평적 움직임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상하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승강기는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근대경험이었다. 승강기는 다른 근대문명의 산물인 기차, 전차 등 수평적 이동 도구와는 차원이 다른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박태원의 『천변풍경』(1936)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소년을 통해 읽을 수 있다.

79) 염상섭, “백구” (1932-3), 『염상섭 전집』, (서울: 민음사, 1987), p.18

80) “소대거리 경성 시골학생이 처음 본 서울, 재경초읽기”, 『별건곤』, 1932년 4월

이제 창수는 ‘화신상’ 도 가볼 수 있고, ‘전차’ 도 탈 수 있고, 읊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층 꼭대기, 사층 꼭대기로 데려다 준다는 ‘승강기’ 라는 것이 있다지 않나. 수길이가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하게 현기증이 나더라지만,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81)



[그림 3-20] 승강기를 탔을 때..  
(동아일보, 1933년 1월 20일)



[그림 3-21] 승강기의 매력  
(조선일보, 1933년 10월 29일)

소설 속 창수가 승강기를 타보기도 전에 현기증이 날까봐 걱정하듯이 당시에는 승강기를 타면 왜 현기증이 나는지를 설명하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대중적인 이슈였다. 만문만화가 안석영은 “승강기의 매력” 82)이라는 만문만화에서 승강기를 타기 위해 ‘백화점으로 출근’ 하여 문 밖까지 기다리는 이들을 풍자하여 그려 비판하기도 하였다.

화재 후, 새로 단장한 화신백화점을 취재한 한 기자의 글에서도 승강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백화점을 찾아와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도 알 수 있다.

문안을 찍 들어서니 문밖에만 사람들이 밀리는 것이 아니고 점내는 더욱 사람들로 꽉 채워져 있다. 어린 아이들과 늙은 노인들이 많음을 볼 수 있다 ... 벌써 2층 ‘엘레페다’ 앞에는 한 번 보아 시골풍의 아낙네들이 어린 아해를 등에 업고 한손에는 아이들 손목을 잡고 서있는가 하면 중학생 급의 학생들이며, 점원보이급의 사람들이 몰려서서 ... 허나 처음부터 이 점내에 들어와서 인상되는 것은 손님은 그렇게 많은데

81) 박태원, 『천변풍경』, p.57

82) 안석영, “승강기의 매력”, 『조선일보』, 1933년 10월 29일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일없이 지나가는 서울 장안사람, 구경 좋아하는 시정인들의 심심소일로 들어온 무리가 대부분인 것을 즉각 알 수가 있다.<sup>83)</sup>

당시 서울은 도시 중산층이 형성될 만큼 경제여건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고, 당연히 백화점에서 제대로 된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소수였다. 무엇보다 백화점과 같은 서구 양식의 상업문화는 이 나라 소비자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식민지 시기 백화점은 물건을 구매하는 곳이기보다는 전시하고 구경하고 새로운 문물을 접하는 첨단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더 큰 상징적인 공간이었<sup>84)</sup> 기 때문에 구매력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의 소시민들에게 백화점은 일상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근대체험의 장소’였다.

## 2) 미쓰코시 백화점

1930년에 준공된 미쓰코시백화점은 규모로 볼 때 대지 739평, 연건평 2300평, 종업원 360명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조선과 만주 최대의 대형백화점이었다.

1926년 경성부청이 태평통의 옛 경성일보 사옥자리로 이전함으로써 그 이전에 본정이 누렸던 행정적·경제적으로 독점적인 도심지로서의 기능은 약화되었지만,



[그림 3-22] 미쓰코시 백화점 입지

이후 그 일대가 백화점을 비롯한 상업·금융 시설들로 밀집하게 되면서 상업·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은 오히려 더욱 강화된다. 미쓰코시 백화점이 들어선 이후 본정 일대에는 미나카이(三井) 백화점, 히로다(平田) 백화점이 잇따라 신축·증축되고, 남대문로에는 조지야(丁字屋) 백화점이 신축되어 남대문로~본정 1정목은 경성을 대표하는 백화점거리로 조성되었다.<sup>85)</sup>

83) “새로 낙성된 오층루 화신백화점 구경기”. 『三千里』, 1935년 10월

84) 김용희, 『근대소설의 도시공간』,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5), p.325

<그림 3-22>에서 보면 미쓰코시 백화점의 입지는 당시 최적의 입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리틀 도쿄’ 라고 불리던 남촌의 혼마치에 위치한 미쓰코시 백화점은 명지청(명동)의 입구에 있었는데 양옆으로 경성우편국, 조선저축은행, 맞은편에는 조선은행과 상업은행 등 각종기관들이 집중되어 있는 경성의 상업과 정치의 중심지에 있었다.

1930년대 문학작품 속에서 나타난 미쓰코시백화점은 <표 3-4>과 같다.

[표 3-4] 1930년대 문학작품 속의 미쓰코시백화점

장르	작가	작품명	시간	공간	인간
수필	김기림	바다의 유혹 上	1931년 8월 오후 4시경	백화점 옥상	나
시	김기림	바다의 향수	1935년	옥상	나
소설	박태원	청춘송	1935년 4월 오전 11시 30분	백화점 옥상	향훈, 옥녀
소설	박태원	전말	1935년 12월	백화점 옥상	구보
소설	이상	날개	1936년 9월 정오	백화점 옥상	나
소설	김말봉	찔레꽃	1937년 8월 밤	백화점 안/옥상	경애, 정순,
소설	채만식	탁류	1937년 아침 9시	백화점 화장품매장	계봉, 여드름, 여점원들
소설	이선희	여인명령	1937년	백화점 매장	여점원들
수필	이선희	다당여인	1937년	백화점 쇼윈도	나
시	김기림	옥상정원	(1939년)	백화점 옥상	나

## ■ 입장료 없는 도심 속 유원지, 옥상정원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정원이 마지막 장면으로 나오는 이상(李箱)의 소설 「날개」(1936)부터 살펴보자.

다만 몇 시간후에 내가 미쓰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또 회탄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sup>85)</sup>

85) 전우용, 「일제하 서울 남촌 상가의 형성과 변천」, 『서울 남촌: 시간, 장소, 사람』, p.192, 김백영, 전게서, p.493에서 재인용

이상(李箱)의 소설 「날개」(1936)에서 이상이 거리를 헤매다 미쓰코시 백화점의 옥상으로 올라가는 장면은 백화점의 옥상은 누구에게나 개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물건을 사지 않아도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옥상정원’은 1930년대에도 이미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일종의 ‘도시의 휴게소’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상이 회택의 거리를 내려다보는 것은 옥상정원은 일종의 ‘도시전망대’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허리를 굽혀 ‘금붕어’를 들여다봤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옥상에는 ‘금붕어’를 관찰할 수 있는 수족관 혹은 연못이 있었던 것 같다.

김기림은 수필 「바다의 유혹」 上(1931)에서 미쓰코시백화점 옥상정원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층상정원의 한 모퉁이에 벌리워 있는 벤치에 나의 시드러진 몸등아리는 쓰러졌다. 분수의 빗발아래에서는 빨간 등덜미에 햇별을 반사 시키면서 부르조아와 같이 배가 볼록한 금붕어 떼들이 얹은 꼬리를 휘휘 내저으며 싸다닌다. 양철로 만든 바위 위를 폭포가 굴러 떨어진다. 온실 속에서는 올리브의 잎사귀가 두텁게 푸르다. 사람들은 분수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얼굴의 땀을 식히면서 놀라웁게 활발한 금붕어들의 “에네르기”를 부러워한다. 그리고 온실의 문어귀에 서서 식물들의 배설하는 산소의 한모금을 나눠 가지고는 “엘리베이트 케빈” 속에 총총하게 모양을 감춘다.<sup>86)</sup> [밀줄 연구자]

사람들이 분수가에 앉아서 땀을 식힐 정도면 온실 밖에 조성된 연못이었을 것이다. 옥상정원을 찾은 사람들은 햇별을 반사시키는 빨간 금붕어를 바라보며 분수대에서 땀을 식히기도 하고, 답답한 도시공기를 온실 속에 조성된 식물들로 조금이나마 달래기도 하였다. 금붕어 뿐만 아니라 조류(鳥類)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시가 김기림의 시 「옥상정원」(『기상도』, 1939)이다. 그는 첫 행에서 “백화점의 옥상정원의 우리속의 날개를 드리운 카나리아는 니힐리스트처럼 눈을 감는다[밀줄 연구자]”라고 하였다.

박태원의 연재소설 『청춘송(靑春頌)』(1935)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이 묘사되어 있다.

승강기를 타고 이층-삼층-사층-. 그리고 옥상- 향훈이는 다른 이들 틈에 끼어 밖으로 나서며 ‘지금이 오정- 아직도 삼십분이나 남았지만 ... 옥상정원을 둘러보았으나

86) 이상, “날개”, 『날개』,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7), pp.298-9

87) 김기림, “바다의 유혹(上)”, 『동아일보』, 1931년 8월 27일

남자의 모양은 보이지 않았다 ... 문득 눈을 들어 한층 더 높은 지붕 위를 보자, ‘혹은 저 위에라도 올라가 있는지...’ 그것도 모를 일이라고 그는 층계를 올라가 보았으나 그곳에는 비록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일이 없는듯 싶은 사나이 두 세명과, 이번에 옷학교에 입학하려 올라온 몇 명의 시골생도와 또 그들의 부형인듯 싶은 사람들 외에는, 일본 「오까미상」이 한명, 오마니에게 아이를 업히가지고 철책 앞에 서서 멀리 조선신궁편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 ‘예서 만나잔 약속은 제가 하여놓구...’ ... ‘그럼 잠시 화초구경이나 할까?’ 저편 유리지붕한 방으로 발을 옮기어 정작 화초보다도, 우선 탐스러운 유리 양자 속에, 탐스럽게 꾸며놓은 돌과 꽃사이로, 역시 그렇게도 탐스럽게 크고 아름다운 금붕어를 보고 그 앞에, 발을 멈추어 ‘어이구 이게 이십이원 오십 전이구면...’ 그러한 것에 새삼스러이 놀라니까 ....<sup>88)</sup>

박태원의 연재소설에는 ‘연못 속 금붕어’와 카나리아뿐만 아니라 ‘유리지붕한 방’ 안의 ‘화초’와 ‘수족관 속 금붕어’가 나온다. 즉, 옥상정원의 온실 안에는 금붕어를 볼 수 있는 수족관과 화초가 진열되어 있었다. 지금도 금붕어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대상이듯이 당시 관상용의 금붕어를 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sup>89)</sup> 다만,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는 금붕어와 다른 점이라면, ‘이십이원 오십 전’이라는 금붕어의 가격일 것이다. 비록 입장료 없이 누구나 백화점 옥상으로 올라와서 구경할 수는 있지만 결국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금붕어는 일종의 백화점의 ‘전시상품’이었고, 향훈이 가격을 확인하고 놀라는 것으로 보아 그녀의 형편으로는 선뜻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본래 약속시간을 기다리며 구경할 목적이었던 화초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말봉의 장편소설 『찔레꽃』(1937)에서 화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식탁에서 일어선 그들은 화초와 화분이 진열되어 있는 맨 윗층으로 올라갔다. 정순은 경애와 나란히 마지막 층계를 밟고 올라서는 순간 시원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밀물처럼 그의 몸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물방울에 젖은 꽃, 꽃, 꽃—위에는 가없는 창공

88) 박태원, “청춘송(45)”, 『조선중앙일보』, 1935년 4월 13일

89) 당시 금붕어는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길렀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1934년 3월 28일자에는 “금붕어를 오래 살게 하는 법”이라는 기사가 실렸었고 동신문 1935년 3월 19일에는 “꽃과 같은 금붕어 지금부터 기릅시다”라는 기사에서 ‘겨울이나 여름이나 책상에 웅집실에 없지 못할 것이 금붕어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금붕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물과 그릇, 장소라는 3가지 환경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소설 속 등장인물이 “그렇게도 크고 아름다운 금붕어”의 “이십이원 오십전”이라는 가격에 놀라는 것으로 보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금붕어종류가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있고, 아래는 화초의 무르 녹는 향기—모든 소음과 티끌이 소용돌이치는 대경성 안에 오직 이곳만이 오아시스인 듯하다 . . . 경애는 바로 자기의 발아래 너울너울 수평의 깃 같은 잎사귀 사이로 그윽한 향기를 흘트리고 있는 후리지아 화분을 들여다본다. 경애는 자기 힘에 부치는 후리지아 화분을 들어 안아 보고, ‘이 원 이십 전’ 이라는 정가표대로 점원에게 값을 지불한 다음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고 배달을 청하였다.<sup>90)</sup>

아래층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올라온 정순, 경애가 옥상으로 계단으로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꽃내음이었다. 더운 여름 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 불빛과 소음으로 가득 찬 불야성 거리를 잠시 잊을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벤치가 있고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화초들이 있는 백화점 5층의 옥상정원은 작가가 언급한 것처럼 여름철 경성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도심 속의 오아시스였을 것이다. 또한 김말봉은 시각적 즐거움으로써 ‘화초구경’ 으로서 화초를 언급한 박태원과 달리 후각적 감각을 더해 조금 더 섬세하고 깊이 있게 다루었는데, 옥상 ‘정원’에 있어서 화초의 ‘향기’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여(女)작가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감각이 적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장의 딸인 경애는 충동적으로 자기의 발 아래 놓여있는 화분을 하나 골라 그 자리에서 지금 돈으로 약 25여만원의 값<sup>91)</sup>을 그 자리에서 정가표대로 지불한다. 누구나 입장료 없이 올라와 도시전망과 온실 속 화초, 수족관 속 금붕어를 즐길 수 있었던 일종의 ‘도심 속 유원지’ 이자 ‘공원’ 이었지만 경애 같은 상류층의 소비행동은 경애 집에서 가정교사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정순 같은 이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감을 주기도 하였다.



[그림 3-23] 미쓰코시 백화점 온실 (<좌> 동아일보 1933년 2월 16일, <우> 박태원 “청춘송46” 조선중앙일보 1935년 4월 13일)

90) 김말봉, 『절레꽃』 (1937), (서울: 대일출판사, 1978), pp.39-41

91) 1930년대에 1원은 약 12만원이었다.

<표 3-5>는 1930년대 백화점의 층별매장구성<sup>92)</sup>을 나타난 것으로 화재 후 신축 후 1937년에 새롭게 개장한 화신백화점의 옥상정원에 비해서 미쓰코시백화점이 훨씬 더 다양한 ‘문화공간’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는 가족단위의 방문객을 유도하는 ‘attraction’ 요소로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터뿐만 아니라 화신백화점과는 차별적인 요소인 온실, 카페, 갤러리 등으로 미루어 보아 옥상정원은 미쓰코시백화점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인기는 문학작품에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 연구자가 조사한 ‘백화점 옥상정원’이 나오는 작품 대부분이 그 배경이 미쓰코시백화점이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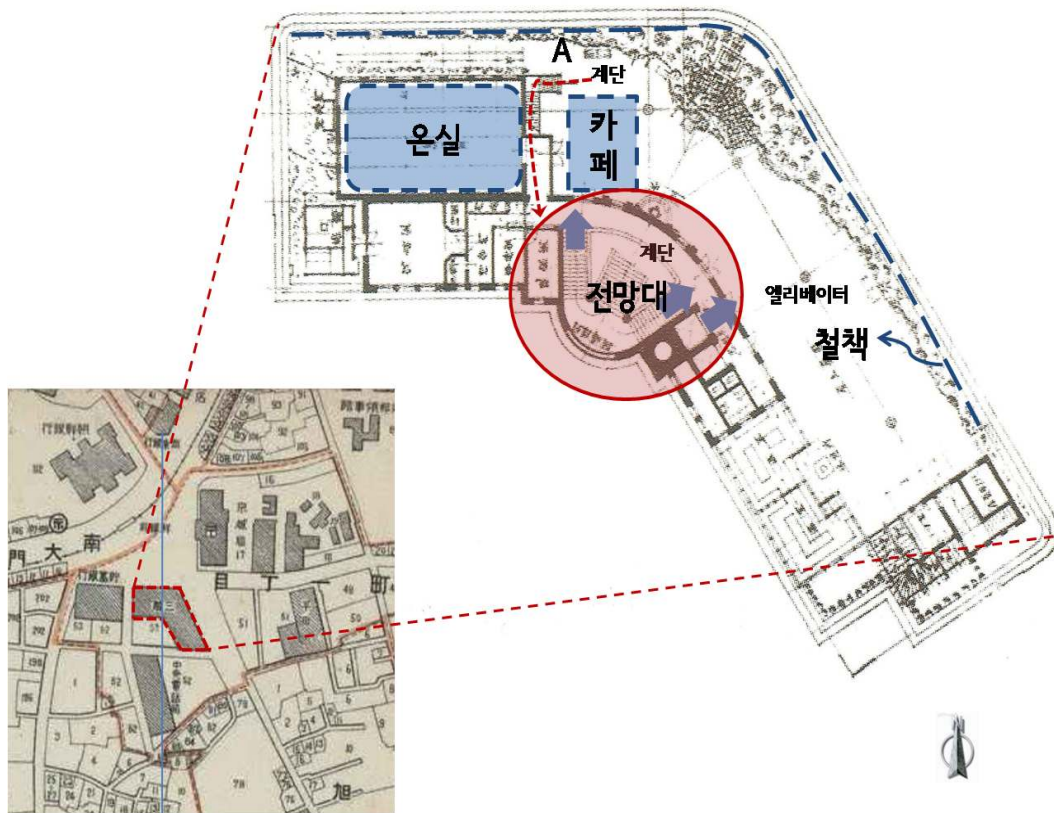
[표 3-5] 1930년대 백화점의 층별 매장 구성

순서	미쓰코시(1930)	화신(1937)
지하 1층	주방용품, 식료품 매장, 일반잡화, 간이식당, 이발소	식료품, 식기
1층	약국, 여행안내소, 조선물산진열소, 일본신발코너, 단체주문 상담실, 상품권매장, 화장품코너, 단체주문상담실	안내계, 양품잡화, 화장품, 여행안내계, 상품권매장
2층	오복 코너, 미용실, 드레싱룸	신사양품, 침구, 주단포복, 미술품, 시계, 귀금속, 안경, 견본실
3층	신사양복, 신사용모자, 구두, 숙녀양장, 응접실, 부인사교실, 가봉실	양품잡화, 부인아동복, 가봉실, 완구, 수예
4층	귀금속, 가구, 대형 홀, 커피숍을 겸한 대식당	서적, 문방구, 신사복, 가봉실, 이발부
5층	옥상정원, 어린이 놀이터, 온실, 카페, 갤러리, 사진실, 대합실, 원예용구매장	대식당, 조선물산, 악기, 사진기
6층		그랜드 홀, 스포츠라운드, 전기기구, 가구, 가구 모델룸
7층		옥상정원, 상설화랑, 사진부, 미용실

다시 박태원의 연재소설 『청춘송(靑春頌)』을 살펴보자. 소설 속 여인 향훈은 일요일 정오에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옥상정원으로 왔다. 향훈은 약속시간 보다 30분이나 먼저 와 오지않는 남자를 찾기 위해 “한층 더 높은 지붕 위”에 올라 가는데, 그곳에서는 무직자로 보이는 사나이 두세명과 시골에서 올라온듯한 몇 명의 시골학생,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들, 일본인인 포주집 여주인, 아이를 업은 여인을 발견하는데 모두 전혀 연관성이 없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이상(李箱)처럼 옥상 철책 너머 도시—조선신궁편이므로 남산 쪽이었을 것이다—를 바라보고 있다.

92) 김소연, 전계서, p.137 참조





[그림 3-24]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도면 (조선과 건축, 1930년 1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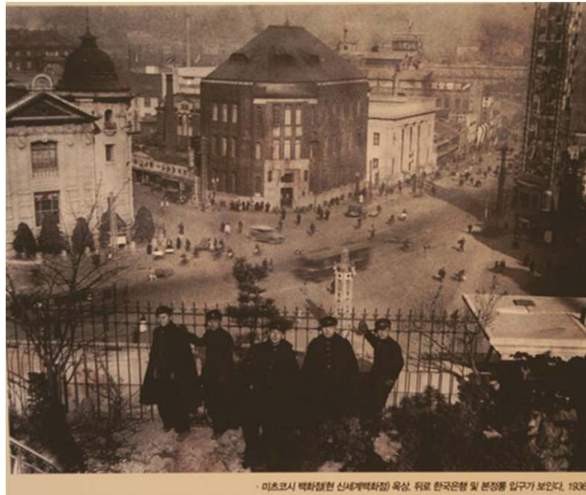
옥상보다 “한층 더 높은 지붕 위” 는 <그림 3-24><sup>93)</sup>에서 ‘전망대’ 로 지칭한 곳으로 생각되는데, 온실 앞에 계단이 있다.

다시 이상의 「날개」 (1936)에서 관찰한 회택의 거리를 살펴보겠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택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 이때 뚜우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sup>94)</sup> [밑줄 연구자]

93) 다음 <그림 3-24>는 『조선과 건축』 1930년 11월호에 게재된 미쓰코시 백화점 도면으로 구체적인 공간 명칭은 판독할 수 없었고, 그 외 다른 연구에서도 당시의 미쓰코시 백화점의 도면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연구자가 임의로 소설 속 묘사 내용과 사진 등을 바탕으로 공간 명칭을 정하였다는 것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94) 이상, “날개” , pp.298-9



[그림 3-25]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에서 바라본 전경 (1936)

다음 <그림 3-25>는 현재 역사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재학당 동관에 전시된 사진으로 바로 이상의 「날개」가 쓰인 1936년에 찍은 사진이다.

<그림 3-25>를 보면 학생들 뒤로 조선은행의 일부분과 상업은행, 그리고 장곡천정의 초입부와 남대문통이 보이는데, 상업은행이 정면을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진을 찍은 각도가 위에서 아래라는 점을 보아 <그림 3-24>에서 'A'에 학생들이 서 있었던 것 같다. 학생들 뒤를 보면 남대문통의 중심인 조선은행—상업은행—경성우편국—미쓰코시백화점이 둘러싼 광장과 함께 금융기관들이 가장 많이 들어선 남대문통 2정목 쪽을 관망하기 좋은 지점으로 보인다. 이상이 회택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라고 한 부분에서,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은 근대 건축물의 상징, ‘지폐와 잉크’는 근대 문명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이상이 내려다 본 남대문통은 근대건축물(유리,강철,대리석)이 가장 많이 들어선 곳인 동시에 조선은행, 상업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지폐,잉크)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던 곳으로 이상이 거리를 내려다본 지점은 <그림 3-25> 속 학생들이 서있는 ‘A’ 지점으로 사료된다.

백화점 옥상에서 고뇌하는 이상처럼 박태원 역시 연재소설 『전말(顛末)』(1935)에서 비슷한 양상을 띤다.

옥상정원, 그중 구석진 벤치에는 요전 순간까지 누가 앉아 있었던듯 싶어, 그 위에 깔린 어느 서점의 책 싸주는 종이에 역력히 체중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위에 앉아, 문득 집을 나간 아내란 반드시 한번은 옥상정원의 이러한 위치의 벤치에 몸을 의지하고, 자기의 현재와 장래에 대하여 신중히 또 외로이 고찰하여 보는 것이나 아닐까 생각하였다.<sup>95)</sup>

당시 고층이었던 백화점 옥상은 홀로 사색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백화점의 구성 공간은 단순한 상업시설에 그치지 않고 도시민에게 윤택한 생활을 제공해주는 문화시설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백화점은 그 외양에서부터 기존의 상점과 구별되었는데, 매장 확대를 위해 고층 건물로 건축되었고, 대개 화려한 외양을 갖춘 르네상스식 건물로서 그 자체가 조형미를 갖춘 도시의 명물로 기능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내부에는 극장과 홀, 갤러리 등을 갖추고 있어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열렸다. 즉 백화점의 옥상은 가족들을 위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유람장이자,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이기도 한 일종의 ‘도시의 공원’이었던 셈이다.



[그림 3-26] 1930년대 미쓰코시백화점 옥상



[그림 3-27] 1930년대 미쓰코시백화점 갤러리

## ■ 여성들의 신분상승을 위한 결혼시장

근대화한 도시는 봉건적 제도의 틀에 갇혀 살던 여성들에게 사회적 진출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교육의 혜택으로 ‘고급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취업시장으로 뛰어들었고, 그중 여성들이 선호하던 자리가 ‘백화점 여점원’이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문학작품을 통해 그들의 일상을 들여다보자.

채만식의 『탁류』(1938)는 백화점 내 연애평경을 가장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해주는 작품이었다.

95) 박태원, “전말” (1935), 『박태원 소설집』, (서울: 깊은샘, 1994), p.155

OO백화점 맨 아래층의 화장품 매장이다 . . . 두 평은 뒹직한 진열장 둘레 안에는 그들이 팔고 있는 화장품 못지 않게 맵시 말쑥말쑥한 솜결이 넷, 모두 고 또래고 또래들이다 . . . 아닌게 아니라 여드름 바가지가 어릿어릿 이편으로 걸어오고 있다. 얼굴에 여드름이 다닥다닥 솟았대서 생긴 별명이다. 모표를 보면 OO고보 학생인데 학교 갈 시간에 백화점으로 연애(?)를 하러 오는 걸 보면 온전치 못한 것은 분명하다. 나이는 다직해야 열아홉 아니면 그 아래다. 그는 지난 삼월에 ‘아몬 파파야’를 한번 사 가더니 그 날부터 아침 아홉 시 반을 정각 삼아 이내 일침을 해내려 왔다. . . . 그는 화장품 매장 앞에 서서 얼썩거리다가 계봉이가 대응을 해 주면 무엇이고 한 가지 사 가지고 가되, 혹시 다른 여자가 나서면 이것저것 뒤지다가는 그냥 돌아서 버리곤 하던 것이다.

"어서 오십시오!"

여드름바가지는 아까 들어올 때 벌써 반은 붉었던 얼굴을 드디어 완전히 빨갭게 달궂어가고 힐금 계봉이를 올려다보더니 이내 도로 숙인다. 여기까지는 그새와 같이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다음 그는 양복 포켓 속에다가 한 손을 넣고서 이상스럽게 전보다 더 어물어물한다 . . . 여드름바가지는 이 귀퉁이까지 한 바퀴를 다아 돌고 나더니 되집어 가운데게로 올 듯하다가 말고서 손가락으로 진열장 유리 위를 집어보인다. 으레 입 대신 손가락질을 하는 게 맨 처음 오던 날부터 하던 버릇이다. 계봉이가, 그가 짚은 대로 들여다보니, 이십오 원이나 하는 코티의 향수다 . . . 여드름 바가지는 먼저보다 더 떨리는 손을 내밀어 덩쩍 받아들고 이내 돌아선다 ... 마침 단발쟁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오르르 달려오더니 여드름바가지가 서서 있는 진열장 위로 또 한층 올려놓 진열대 밑에서 조그마해도 불룩한 꽃봉투 하나를 쑥 뽑아들고 돌아선다. 계봉이는 그것이 여드름 바가지가 저한테 주는 양으로 거기다가 놓고 간 편지줄을 생각할 것도 없이 대번 알아챘다.<sup>96)</sup>

언니 채봉과 다르게 똑똑하고 진취적 여성이었던 계봉은 백화점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계봉을 보기 위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여드름’ 과 계봉을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백화점은 젊은 여성들에게 봉건적인 틀에서 벗어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직장을 제공하는 공간이자, 낭만적인 만남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백화점에는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의 소극적인 마음을 조심스럽게 표현하게 도와주는 좋은 매개물이 많았다. 백화점은 근대의 상징인 자유연애를 가능하게 했고, 개방적인 공간에서 여성을 만나게 해주었다. 근대적인

96) 채만식, 『탁류』 (1937), (서울: 신원문화사, 2006), pp.577-89

화려한 상품과 자연스럽게 있는 세련된 근대여성에 대한 동경과 선망은, 신교육을 받는 남학생마저도 소비라는 위장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은근히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근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근대사회의 한 일면을 반영한 현대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sup>97)</sup>

즉, 근대사회가 되면서 거리에는 모던 보이, 모던 걸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성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백화점에 가서 여점원들을 ‘구경’ 하며 짝을 찾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세대 속에 여성들도 ‘시집을 잘 가기 위해’ 백화점에 점원으로 취업하는 일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좋은 신랑감을 구하려고”, “좋은 신부감을 구하려고”

이리하여 문이 메여지게 모여드는 곳이 백화점이다. 누구든지 종로네거리 화신백화점의 출입구나 정자옥, 미쓰코시, 히라타, 미나카이 같은 큰 백화점으로 다리를 옮겨보면 도색의 꿈을 가슴 속 깊이 감춘 스마트한 청년들이 물건보기보다 거기서 나비 같이 경쾌하게 서비스하는 솜씨를 바라보기에 정신없는 광경을 본다. 아침부터 밤까지 수천수만으로 해는 손님 그 중에도 이십 이삼세-학교를 갓 마쳤거나 겨우 직업을 얻어 샐러리맨이 된 젊은 청년들이 모여들어 은근히 제 배필을 구하는 이 광경! 이것이야말로 남녀교제의 관문이 딱 막힌 밀폐된 결혼시장의 문을 열어주는 귀여운 존재라 아니할 수 없다.<sup>98)</sup>

그러나 백화점에 취업하는 것은 쉽지않았다. 가장 결혼률이 높았다는 미쓰코시 백화점 같은 경우 인물선택을 가장 엄격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력도 높아야했고 집안도 좋아야했다. 나이는 보통 15,6세~22,3세가 많았다. 이러한 여점원들 채용은 일종의 미인계작전으로 남자손님을 더 많이 끌어들이었지만 대개 “2,3월만에 결혼하여”<sup>99)</sup>나갔다.

이선희의 『여인명령』(1937)에서 여점원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백화점이 여점원들에게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곳이기 보다는 자신의 외모를 이용하여 신분상승을 꿈꾸는 공간이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97) 한금윤, 전계서, p.52

98) “결혼시장을 찾아서, 백화점의 미인시장”, 『三千里』, 1934년 5월

99) “아아, 청춘이 가까워라!”, 『三千里』, 1933년 10월

대개 여점원의 첫째 조건은 얼굴에 있으므로 여기 채용된 여점원은 거의 다 자기얼굴에 대하여만은 자부심과 교만을 가졌다. 그런 까닭에 이 얼굴을 밑천으로 해서 그들은 이 백화점에 드나드는 가장 호화로운 부인들과 같은데 시집을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또 그렇게 훌륭한 자리에 시집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영애도 순이도 죄다 그런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시집간 몇 달 후에 이 백화점을 다시 찾을 때는 가느다란 금시계줄을 저고리 밑에 늘리고 값비싼 여우목도리 속에서 보얀 얼굴을 활짝 웃어만 보이는 것이다. 이 안에 여점원들은 누구나 그러한 시집에 꿈꾼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남자점원들이야 그 쓰메에리 검은복장이 그리 좋은 것도 없고 월급 이십원에서 이십오원으로 올라가자면 까-맣게 쳐다보이는 몇 해의 세월이 흘러야 하니 . . . 100)

여기서 여자점원과 남자점원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보통 백화점 안에서는 남자점원과 여자점원의 연애는 금지되었으며 적발 되었을시 남자점원은 호된 기합을 받았다. 그러나 소설 속에도 나오지만, 여자점원들은 대개 신분상승을 꿈꾸기 때문에 가난한 남자점원은 남자로 보지 않았다. 대부분의 여점원들은 같이 일하던 여점원 ‘영애’와 ‘순이’가 결혼 후 다시 매장을 찾아왔을 때 착용한 부의 상징인 금시계줄과 여우 목도리, 바로 그런 것을 사줄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하기를 꿈꿨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여성들에게 백화점은 소비공간이 아니라 노동공간이었고, 미모를 이용하여 손님을 끌어들이던 여점원들에게는 자신의 노동력 뿐만 아니라 성(性)을 전시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백화점을 자신의 성(性)을 이용하여 신분상승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여점원들의 불순한 의도는 사회적으로도 종종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근대도시의 대표적 소비공간인 백화점에서 판매할 물건만 진열한 것이 아니라 여점원, 일명 ‘숍걸’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진열한 백화점 측 역시 비난과 조롱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당시 한 잡지에서는 백화점의 여점원들을 “결혼적령기의 아름다운 쇼걸(shop girl) 몇 백 명이, 조명이 밝은 매장에 싱싱한 과일 같은 신선함으로 발랄하게 상품 곁을 비집고 다닌다. 언덕처럼 쌓이고 잘 장식된 상품의 모드(mode)가 각각 요염한 포즈로 연출하는 데몬스트레이션.” (『경성 로컬』)<sup>101)</sup> 라고 철저히 여점원들을 ‘상품’으로 보고 조롱하였다.

100) 이선희, “여인명령” (1937-8), 『原本 新聞連載小説全集』 4, (서울: 깊은샘, 1987), p.343

101) 가와무라 미나토, 요시카와 나기(역), 『한양·경성·서울을 걷다』, (인천: 다인아트, 2004), p.98





[그림 3-28] 폭로주의의 상매가 (조선일보 1934년 5월 14일)

<그림 3-28> 역시 그러한 풍속을 비꼬은 만문만화인데, 투명한 백화점 쇼윈도우를 통해 건물 안에서 일하는 여점원들의 모습이 훤히 보인다. 이 만문만화의 작가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현대의 건축은 철골과 유리로 더구나 백화점은 선전으로 상품이 바깥으로 보여야만 되도록 되어간다. 그리고 될 수 있는대로 솥걸을 유리벽 앞에 세운다.<sup>102)</sup>

작가는 여점원들을 밖에서도 잘 관찰할 수 있는 쇼윈도우에 ‘진열’ 함으로써 거리의 남성들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계절과 유행을 보여주는 거리의 무대, 쇼윈도우

당시 백화점의 화려한 쇼윈도우는 거리의 사람들의 시선을 확실히 끌었다. 사람들은 백화점 쇼윈도우를 통해 시각적으로 계절감을 느꼈고, 유행도 알 수 있었다.

김기림의 수필 「바다의 유혹」 上(1931)부터 살펴보자.

백화점의 “쇼—윈도” 속에서는 빨강고 까만 강렬한 원색의 해수욕복을 감은 음분한 “세루로이드”의 “마네킹” 인형의 아가씨들이 선풍기가 부채질하는 바람에 “케이프”를 날리면서 마분지의 바다에 육감적인 다리를 찢고 있다. “아—바다 바다 시

102) 안석영, “폭로주의의 상가가”, 『조선일보』, 1934년 5월 14일

원한 바다” 그것은 단순한 속이 빈 인형이 아니었다. 동해의 그끝이 없이 푸른 바다 속에서 건져온 인어다.<sup>103)</sup>



[그림 3-29] “진열장에 오는 여름”  
(동아일보 1933년 6월 1일)

김기림은 쇼윈도 속의 해수욕복을 입은 마네킹을 보며 시원한 바다를 떠올리며 마치 쇼윈도우 안에 바다가 펼쳐진 것처럼 이야기한다. 백화점 쇼윈도우 뿐만 아니라 거리의 쇼윈도우는 소비심리를 부추기기도 하였다.

김말봉의 『찔레꽃』(1937)에서의 쇼윈도우는 유행을 예고한다.

채색 안개처럼 나부끼는 여름 옷감들이 선전용 인형의 몸에 걸쳐진 채 손님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가 하면, 벌써 금년 가을의 유행이 되리라는 으젓한 색깔의 옷감들이 진열장 유리문 속에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sup>104)</sup>

아직 여름이 다 가기도 전에 쇼윈도우 속 마네킹은 이미 가을 옷을 입고 있으며 옷감 색은 곧 다가올 가을에 유행할 색을 예고하고 있다. 거리의 ‘패션잡지’ 인 셈이다. 유행에 민감한 모던 보이, 모던 걸들은 더욱 더 이러한 쇼윈도우에 시선을 빼앗겼을 것이다.

이선희는 수필 「다당여인」(1934)에서는 “데파트 쇼-윈도의 황홀한 색채가 나를 유혹하고 울트라 모-더니즘을 숭배하는 젊은 남녀의 야릇한 차림새가 내 호기심을 끈다.”<sup>105)</sup>고 하였다. 자신은 모던 걸이 아니지만 쇼윈도우의 화려함에 어쩔 수 없이 시선을 뺏겨버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채만식의 수필 「봄의 현미경적 검사」(1938)에서는 쇼윈도우 속에 봄이 있으며

103) 김기림, “바다의 유혹(上)”, 『동아일보』, 1931년 8월 27일

104) 김말봉, 『찔레꽃』(1937), (서울: 대일출판사, 1978), 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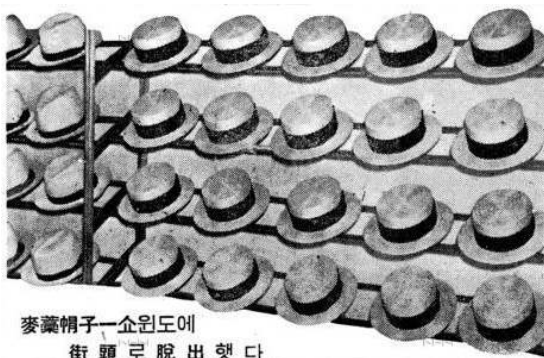
105) 이선희, “다당여인”, 『별건곤』, 1934년 1월



점두의 장식미술로서 즐겁게 구경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쇼윈도 속에 봄의 모형이 들어있다. 감도 빗갈도 얇은 여인네의 옷감이 봄의 의장(意匠)을 배경삼아 맵시있게 널려있다. 남정네 춘복감이야 넥타이도 거기에 벌써 봄이 깃들 인성 싹다. 점두의 장식미술도 우리의 눈을 즐겁게는 해주는 것이구나 생각했다.<sup>106)</sup>

여기서 묘사되는 쇼윈도우는 백화점의 그것을 뜻하는게 아닌 것 같지만 채만식 역시 쇼윈도우에서 김기림처럼 봄을 느낀다.



麥高帽子-쇼윈도에

街頭로 脫出했다

여느듯 九十里(春光)도. 공갈이 흐르고 생경한눈(春風)이 만경(萬景)이다. 「쇼윈도」 속에 말속(馬蹄)처럼 맥고모가 후조(後照)처럼 남다름이여 여름은 내세상이라는 드시 마소(馬蹄)까지 만히 「내로」 같은 일제(異種)가 슬레하야 호랑(虎)이라고 맥고모는 신성한 양귀(羊귀)하고 소리(소리)에 속한다. 이서 우중충한 증언(증언)한게진후 나(나)같이 한여름(한여름)을 살자고. 여름의 여름은 확실히 맥고모를 매려준다. 멀리한 맥고모(맥고모)가 쇼윈도(쇼윈도)를 뛰어넘어 거리(거리)에 등장(등장)하고(등장)한다. 「맥고모」가 「맥고모」다.

[그림 3-30] 맥고모자-쇼윈도에 가두로 탈출했다 (동아일보 1939년 5월 18일)

다음 동아일보 기사 사진인 <그림 3-30>에서는 “맥고모자 쇼윈도에 가두로 탈출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날짜가 5월 18일인데도 “맥고모가 여름은 내 세상이라는 듯이 미소한다”, “이땅의 여름은 확실히 맥고모를 따러온다<sup>107)</sup>”라며 쇼윈도우를 통해 다가올 여름을 알림과 동시에 유행을 선동하고 있다.

백화점을 비롯한 거리의 쇼윈도우들은 일종의 ‘거리의 무대’였고 거리의 사람들은 관객들이었다. 사람들은 근대도시의 상징인 쇼윈도우에게 시선을 뺏기기도 하고, 사고 싶은 소비욕망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쇼윈도우 속에 진열된 신기하고 다양한 근대물품들은 관람객인 거리의 사람들의 발목을 잡기에 충분했다.

쇼윈도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동아일보에서는 1938년 “상공 쇼윈도 순례”라는 특집 기사를 23회에 걸쳐 연재하기도 하였다.(<그림 3-31>)

그러나 쇼윈도우가 근대도시거리에 진열된 스펙터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도 하고 소외감을 느끼게도 하는 부정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었다.

106) 채만식, “봄의 현미경적 검사(早春의 街頭에서)”, 『조광』, 1938년 4월, p.29

107) “맥고모자-쇼윈도에 가두로 탈출했다”, 『동아일보』, 1939년 5월 18일



[그림 3-31] 동아일보에서 연재한 쇼윈도우 특집기사  
(동아일보 1938년 4월 24일~5월 5일)

## 2. 경성역

경성역이 세워진 것은 1925년으로 이 역은 1923년 1월 1일까지 ‘남대문역’이라 불리던, 경성에서도 작은 역에 지나지 않았다. 새로운 경성역은 1922년 6월에 기공, 당시의 돈으로 194만엔의 거액을 투입해서 조선신궁 진좌(鎮坐) 날에 맞추어 1925년 10월 15일에 완공되었다. 총 면적 9,269평방미터로 석재와 벽돌을 병용한 르네상스식 철근콘크리트 건축으로 서울역 건립 사업은 도쿄역에 육박하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였다.<sup>108)</sup>

당초 남대문역이라 불린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성역은 건축 당시에는 경성 시내(성내)가 아니라 남대문 밖, 즉 성 밖이라고 인식되고 있었다. 경성~부산을

108) 가와무라 미나토, 요시카와 나기(역), 『한양·경성·서울을 걷다』, (인천: 다인아트, 2004), p.91

연결하는 철도(경부선)는 1901년 기공하여 1904년에 완공되었다. ‘경성역’의 역사는 경부선이 완공된 그 시점에서 시작되는데<sup>109)</sup> 경부선 개통식을 1905년 5월 25일 남대문역에서 거행된다.



[그림 3-32] 남대문역 (한국철도 80년약사(略史), 철도청)

당시 한강 이북 지역에 있었던 역은 용산역, 남대문역, 서대문역이었는데, 이 때 남대문역은 ‘역’ 이라기보다는 종착지인 서대문역까지 가는 노선의 중간역의 개념이었으나 1915년 남대문 밖의 상권이 확대되면서 남대문역의 역할도 커짐에 따라 기존의 건물을 증축하게 된다.(〈그림 3-33〉)

또한 〈그림 3-34〉와 같이 서대문역은 남대문역보다 북측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919년 서대문역이 폐지되면서 그 기능이 남대문역으로 통합되고 1923년 1월 1일부터 경성역으로 공식명칭을 바꾸게 된다.



[그림 3-33] 증축 한 남대문역  
(경성정차장 신축기념사진첩,1925)



[그림 3-34] 경성도 KEIJO, 1913  
(서울시 GIS 포털)

109) 상계서, p.92

경성역은 암스테르담 중앙역, 헬싱키 중앙역과 외관과 기능이 유사하게 설계되었다. 영국의 후기 빅토리아 고딕양식 건축가였던 리처드 노먼쇼가 평소 쓰던 이른바 프리 클래식 수법을 채택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외벽은 벽돌모양의 붉은색 타일과 화강석, 인조석 등으로 마감했다. 르네상스풍의 외관으로 건물 중앙부에는 돔을 올리고 엄격한 좌우대칭의 권위적 평면과 외관을 지니고 있다.<sup>110)</sup> 이러한 경성역은 조선인들에게 유례없던 대형 서구식 건축물로 역사의 엄청난 규모와 호사스런 외관에 놀라워했다. 경성역은 조선총독부건물과 함께 경성도심의 근대경관을 대표하는 공간적 좌표구실을 했다.

연구자가 찾은 문학작품 속의 나타난 경성역은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6] 1930년대 문학작품 속의 경성역

장르	작가	작품명	시간	공간	인간
소설	이광수	흙	*1932년	경성역 앞	송
소설	방인근	마도의 향불	*1933년 1월	경성역	-
소설	채만식	인형의 집을 나와서	*1933년 밤 9시 반경	경성역 앞	옥순,노라,혜경
소설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34년 8월 1일 오후	경성역 대합실	구보, 역안 사람들
소설	이상	날개	1936년 5월	경성역 티룸	나
수필	추풍연	야시부근 종로야화	1938년 여름	대합실/그릴	구보,그의친구
소설	유진오	화상보	*1939년 12월 오후 4시경	경성역 안	역안 사람들

## ■ 도회의 항구

다음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34)에서 경성역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람들을 관찰한 대목이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의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낯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하여야 한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서리 사람들

110) 박천홍,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 (서울: 산치럼, 2010), p.249

은 그곳에 뻑뻑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 . . .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집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 . .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게다 . . .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않으면 안되었다. 40여세의 노동자 ... 뿐만 아니라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가 ...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린네르 쓰메에리 양복 입은 사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했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 . .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브로커에 틀림없었다 . . .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sup>111)</sup>

고독을 느낀 구보는, ‘약동하는 무리들’ 로 인해 ‘인생과 감정’ 이 경성역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람’ 이 느껴지는 어떤 인간적인 정취를 기대하며 일부러 뻑뻑하게 모여든 역안 삼등 대합실로 간다. 그러나 군중 속에서 고독을 피할줄 알았던 구보는 오히려 더욱 더 고독을 느끼게 된다.

항구(港口)란 온갖 계층의 사람이 몰려들어 군중으로 채워진 일종의 익명의 공간이다. 소설가인 지식인 구보가 관찰한 노파, 중년의 시골 신사, 병자로 보이는 40여세의 노동자,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 금광브로커로 보이는 사내들 등 어느 누구도 구보와 비슷한 부류는 느껴지지 않는다.

변잡한 항구에는 또 관리자나 경비자가 있기 마련이다. 구보는 대합실 안 사람들을 관찰하던 중 문 옆의 ‘캡 쓰고 린네르 쓰메에리 양복 입은 사내’ 의 의혹에 가득 찬 눈을 발견하고 우울해하며 떠나려고 한다. 아마 묘사된 사내는 사복을 입고 잠복하는 일본경찰로 보인다. 고현학을 위해 항상 대학노트를 들고 다녔다는 구보는 노트를 들고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모습이 충분히 수상해보였을 것이다. 식민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익명의 군중 속에서조차 구보는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

구보는 도회의 소설가는 도회의 항구, 즉 경성역과 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어떤 장소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들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보통 ‘역’ 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타러 가거나 또는 누군가를 위해 배웅·마중을 나

111)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pp.182-6

가는 곳이다. 여기서 소설가이자 지식인인 구보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李箱) 역시 「날개」(1936)에서 그러한 양상을 보여준다.

경성역 일이등 대합실 한결 티룸에를 들렀다. 그것은 내게는 큰 발견이었다. 거기  
는 우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안 온다. 설사 왔다가도 곧들 가니까 좋다. 나는 날마  
다 여기와서 시간을 보내리라 속으로 생각하여 두었다 ... 나는 한 복스에 아무 것도  
없는 것과 마주 앉아서 잘 끓은 커피를 마셨다. 총총한 가운데 여객들은 그래도 한잔  
커피가 즐거운가 보다. 얼른얼른 마시고 무얼 좀 생각하는 것 같이 담벼락도 좀 쳐다  
보고 하다가 곧 나가버린다 . . .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대로 경성  
역을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그것을 깜박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sup>112)</sup>

이상(李箱)은 처음 경성역의 티룸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큰 발견’ 이라고 하였다. 이상은 박태원처럼 경성 시내 다방과 카  
페를 자주 찾아가던 소설가이자 예술인이었다. 아마 활동반경이 제한된 그에게는  
자주 가던 다방에 들어가면 최소한 안면이라도 있는 이들을 종종 마주쳤을 것이  
다. 그러나 도회의 항구인 경성역 내의 티룸(다방)은 아는 이가 없기 때문에 익명  
의 군중 속에 숨어 혼자 차를 마시며 사색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었을 것이다.

여객들이 티룸에 들어와도 이상처럼 커피 맛을 음미하지도 않고 얼른 마시고 나  
가버린다는 것은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 아마 경성역 내 티룸은  
본래 여객들이 기차시간을 기다리며 잠시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경성역에 마중을  
나온 이들이 상대방을 기다리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즉, ‘경성역’ 을 ‘역’ 이라는  
본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이들을 겨냥하여 만든 공간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일 와서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한다. 이  
상에게는 다른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었던 것이다. 아내가 그동안 아스피린이라고  
준 것이 수면제라는 사실을 안 날, 다시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까지 굳이 경  
성역 티룸으로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다.  
그러나 이상은 경성역에 들어서자마자 돈이 없음을 깨닫고 바로 발을 돌리게 되는  
데, ‘항구’ 라는 경성역에서조차 그는 ‘돈’ 에 의해 차별된다.

---

112) 이상, “날개”, pp.290-1

소설 속 구보 박태원과 이상이 그랬듯, 경성역사에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반응했던 것은 당대의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은 ‘모던’ 한 경관을 지닌 경성역으로 몰려가 근대적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다독이곤 했다. 경성역 1,2등 대합실이나 그 옆의 ‘티룸’, 2층의 귀빈실과 양식당은 서구 부르주아 문화와 모더니즘의 향기를 간신히 빨아들일 수 있었던 몇 안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양식당인 경성역 그릴은 근대물을 먹은 경성 유한 계층이 즐겨 이용했던 명소이기도 했다.<sup>113)</sup>

고독을 피해, 혹은 도회의 소설가이기 때문에 도회의 향구인 경성역으로 갔다는 구보는 경성역을 데이트 코스에 넣기도 하였다.

그 친구(박태원을 말한다 - 연구자 주)가 한 가지 일러준 것은 “서울안에서 어디가 제일 좋은 란데브 코오스(데이트 코스를 말한다 - 연구자 주)이냐” 하는 것인데 그 방면에 조예가 깊은 독자 중에는 이미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는 이가 있을 것이나 나로서는 신기이 느낀 것이므로 피로(披露)하는 바인데 즉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시간약조를 하여 장소는 경성역 이등대합실로 정한다.(대합실이란 반드시 기차를 기다리기만 하는데가 아님을 가히 알일) 그리고 둘이 만나서는 이층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다소 선전의 혐의가 없지않으나 거기는 요리가 일류에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만 모이기로도 그만이라 한다) 그 러고는 경성역을 나와서(잠시 여행 갔다온 기분을 맛보고) 거기서 똑바로 . . . <sup>114)</sup>



[그림 3-35] 경성역 귀빈실  
(경성정차장 신축기념사진첩)



[그림 3-36] 경성역 양식당 그릴  
(경성정차장 신축기념사진첩)

박태원에게 들은 ‘서울 내에서 가장 좋은 데이트 코스’가 글쓴이도 신기하여 독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상세히 그 과정과 이유를 적은 글이다. 경성역 이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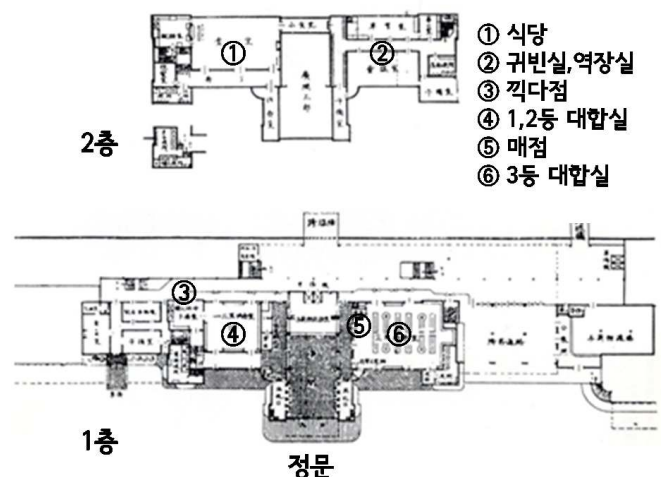
113) 노형석, 이종학, 전계서, p.44

114) 추풍연, “야시부근-종로야화”, 『女性』, 1938년 10월



대합실에서 데이트 상대와 만나는 장소로 정하라는 부분에서 글쓴이는 대합실이 반드시 기차를 기다리는 데가 아님을 ‘마땅히’ 알라고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역으로 그 자신도 대합실이 데이트 상대와 만난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리고 이층 식당, 즉 양식당 그릴에서 분위기 있게 식사를 하고 경성역을 나옴으로써 ‘잠시 여행 갔다 온 기분을 맛’ 볼 수 있는 것은 ‘경성역’이 가지는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도로측은 2층, 승강장측은 지하 1층을 포함한 총 3층짜리 역사로, 중앙의 현관 위에는 동그란 시계가 있었다. <그림 3-37>을 보면 정면은 승강객용 통로, 오른쪽은 하차객용 통로, 왼쪽 현관은 특별출입구, 2층 오른쪽이 귀빈실·역장실, 왼쪽이 식당(그릴)으로 플랫폼은 지하 1층으로 내려가야 했었다. 객다점, 1,2등 대합실과 3등 대합실, 그리고 매점이 있었는데 ‘구보’가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한 곳이 3등 대합실이다.



[그림 3-37] 경성역 평면도

그러나 ‘조선에서 만주로 들어가는 식민지 경영의 통과 거점’이란 위상이 덧씌워진 채 건립된 경성역사는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 시기에 식민통치권력의 기반을 다지려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sup>115)</sup> 이러한 경성역은 지금은 철거되어 볼 수 없게 된 조선총독부 청사와 함께 일제가 조선을 착취하기 위하여 건립한 대표적 건축물이라는 의미가 있다.<sup>116)</sup>

115) 노형석,이종학, 『모던의 유혹, 모던의 눈물』, (서울: 생각의 나무, 2004), pp.43-4 참조





01-0298 아름다운 경성경거장

[그림 3-38] 1930년대 경성역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또한 구보가 3등 대합실(<그림 3-39>)에서 관찰한 다양한 사람들 - 노파, 시골의 작은 백화점 경영주로 보이는 중년 신사, 병자로 보이는 40여세의 노동자,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 무직자, 금광브로커, 재력가가 된 전등포집 둘째 아들이자 열등생이었던 구보의 옛 벗 -에서 식민자본주의 모순인 빈부격차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즉, 경성역은 그 외관에서뿐만 아니라 구보가 관찰했듯이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두 뒤섞이는 장소였다는 점에서 ‘근대성’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했다.



[그림 3-39] 경성역 3등 대합실  
(경성정차장 신축기념사진첩)



[그림 3-40] 경성역 1,2등 대합실  
(경성정차장 신축기념사진첩)

## ■ 경성의 공간적·도시일상의 지표

경성역은 20세기 초 근대적 생활양식을 태동시키는 산파구실을 했을 뿐 아니라 당시 도시 일상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제시간에 맞춰 떠나고 도착하는 열차 시간의 규칙성이 시민들의 일상과 생활을 하나의 질서로 묶어세웠을 뿐 아니라 경성역 들머리 정문 아치에 설치된 커다란 시계판은 시민들의 생활을 나절 단위에서 시간단위, 분 단위로 잘게 썰어주었는데,<sup>117)</sup> 이는 이상(李箱)의 「날개」(1936)에서도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짐작할 수 있다.

경성역 시계가 확실히 자정이 지난 것을 본 뒤에 나는 집을 행하였다 ... 제일 여기 시계가 어느 시계보다도 정확하리라는 것이 좋았다. 설불리 서투른 시계를 보고 그것을 믿고 시간 전에 집에 돌아갔다가 큰코를 다쳐서는 안된다.<sup>118)</sup> [밑줄 연구자]

이상은 ‘여기 시계가 어느 시계보다도 정확’ 하다고 확신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시간을 엄수하자는 정신을 고취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6월 10일마다 ‘시(時)의 기념일’이라는 날이 있었는데, 이날에는 경성역, 부민관, 조선은행, 화신백화점 등 거리의 시계를 검사하고 시계를 무료로 고쳐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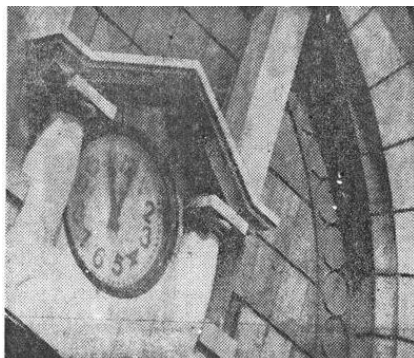
1939년 경성역 시계의 검사결과를 보면, “70만 경성부민의 유일한 표준시계로 되어있는 경성역 시계는 과연 표준시계답게 1분 1초 틀림 없고<sup>119)</sup>” 라고 하였고 1936년~1938년 역시 검사결과 모두 정각으로 4년 연속 정확성을 유지하는 영광을 누렸다.<sup>120)</sup> 이러한 공개적이고 권위적인 검사는 경성역 시계를 더욱 더 사람들의 일상지표로 이용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17) 노형석, 이종학, 전계서, p.44

118) 이상, “날개”, pp.288, 290

119) “오늘이 시(時)의 기념일”, 『동아일보』, 1939년 6월 11일

120) 1936년 이전에는 시(時) 기념일을 맞아 홍보 등으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환기에만 그쳤고 시계 검사를 하지 않았다.



[그림 3-41] 경성역에 걸린 시계  
(동아일보 1938년 8월 31일)



[그림 3-42] 시(時)의 기념일 광경  
(동아일보 1939년 6월 11일)

## ■ 서울의 관문

다음은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 (1933)의 일부분이다.

세 사람(옥순, 노라, 마중나온 혜경)은 밖으로 나왔다 ... 옥순이는 누구나 서울을 처음 오는 사람이 경성역에 내린 때처럼 정신이 휘황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맵시 다르게 차린 자기를 자꾸만 치어다보는 것 같아서 사방이 둘러보였다.<sup>121)</sup>

“맵시 다르게 차린”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옥순이 가장 먼저 발을 내딛는 서울땅은 바로 ‘경성역’ 이듯, 서울을 방문한 시골사람이 역내를 나와 가장 먼저 서울의 경관을 마주하고 서울의 이미지가 결정되는 곳도 경성역이었다. 춘원 이광수의 『흙』 (1932)에서 시골총각 송이 본 경성역 앞 풍경은 다음과 같다.

경성역에 내린 때에는 송은 꿈에서 깬 것 같았다. 바쁜 택시의 떼, 미친년 같은 버스, 장난감 같은 인력거, 얼음가루를 팔팔 날리는 싸늘한 사람들.<sup>122)</sup>

기차에서 내려 역 밖으로 나오자마자 마주한 경성역 앞 풍경은 꿈에서 깬 것 같은 갑작스런 충격이었다. 택시, 버스, 인력거가 뒤엉켜있는 곳에서 본 사람들은 ‘얼음가루’를 날린다고 할 정도로 인간미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전형적인 도시인 이미

121) 채만식, 『인형의 집을 나와서』 (1933), (서울: 창작사, 1987) p.75

122) 이광수, “흙(3)”, 『동아일보』, 1932년 4월 14일

지다. 그러나 반대로, 서울 여자 정선이 농촌에서 서울로 올라와 경성역을 나왔을 때는 송이 본 광경과 거의 같아보이나 그녀는 송과 또 전혀 다르게 보고 느낀다.

신촌역을 지나서, 굴을 지나서 서울의 전기불 바다가 전개될 때에 정선은 마치 지옥 속에서 밝은 천당에 갑자기 뛰어나온듯한 시연악을 깨달았다. 기쁨을 깨달았다. 경성역의 잡담, 역두에 늘어서서 손님을 기다리는 수 없는 택시들, 그들은 손님을 얻어 싣고는 커다란 두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다. 이것이 인생이었다. 살여울, 달내, 초가집, 농부들—그들은 정선에게는 마치 딴 나라 사람들이었다. 도무지 공통된 점을 못 찾을듯한 딴 나라 사람들이었다. 무의미를 지나쳐서 불쾌한 존재였다.<sup>123)</sup>

정선은 경성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기불 바다인 서울을 기차 창밖으로 보고 ‘밝은 천당’ 이라고 표현한다. 경성역 앞의 송이 본 것과 비슷한 번잡한 광경은 ‘이것이 인생’ 이라고 근대 도시화가 된 서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서울로 오기 전 있었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을 서울사람과 공통된 점을 찾을 수 없는 ‘불쾌한 존재’ 라고하고 있다.

이때, 단순히 지방에서 서울로 온 사람들을 위한 관문이 아닌, 여러 관점에서 본 작가가 방인근으로, 그의 연재소설 『마도의 향불』 (1933)에서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지붕이 검으스름하고 납작하든 남대문 정거장은 거대한 건물로 바뀌어지자 이름조차 경성역으로 변개를 한 이 정거장은 서울의 관문이다. 서울의 입(口)이다. 이 관문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문화는 수입이 되고 세계 각국의 물화도 들어온다. 조선의 보배도 이 관문을 통하여 새어나가고 울음도 웃음도 이 마당에서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연출하는 살은 극장이다. 기차란 검은 괴물이 이 서울 앞에 왔다갔다한 후로 별별 괴상한 것을 다 토해놓고 갔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것을 실어오고 실어오고 하며 그 대신 서울에 있는 것을 실어가고 실어가고 하였다. 한달에도 남녀노소가 이 서울을 떠나는 것이 십육만명 가량이요 서울에 들어오는 이가 십오만명 가량이다. 이 정거장이란 항구에 내리는 이가 일년이면 일백팔십만명 가량이요 떠나는 이가 이백만명 가량이다. 그들은 공연히 내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다. 아무 일 없이 이 서울에 들어오고 이 서울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그 속에는 지극히 슬픈 이야기를 지고 가는 이, 지극히 원통한 한숨을 품고 오는 이가 많을지언정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고 가

---

123) 이광수, “흙: 셋쨋권(2)”, 『동아일보』, 1932년 11월 24일

저가는 이는 드물다. 오- 서울의 관문이며! 거기 방황하는 눈에 상혈된 인생들이여!  
서울을 굶게하는 종기의 군도 이 관문을 통하여 들어왔으며 그 종기에서 터지는 검  
붉은 피와 고름 그 독혈도 이 관문을 통하여 삼천리에 퍼지는도다.<sup>124)</sup> [밀줄 연구자]

방인근은 서울의 관문인 경성역을 통해 떠나고 들어오는 이들은 많아도 그들은 대부분이 ‘지극히 슬픈 이야기’를 지고 떠나거나 ‘지극히 원통한 한숨’을 품고 들어오는 이가 많은 반면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고 가져가는 이’는 드물다고 한 부분에서 당시의 힘든 식민지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1930년대의 경제불황은 농촌에도 큰 영향을 미쳐 몰락한 시골의 농인(農人)들이 서울로 몰려든 반면 서울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고학력자이면서 서울에서 직업을 얻지 못한 실업자 톱펜들이 더 이상 비참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낙향(落鄕)함으로써 서울을 떠나는 아이러니한 풍경이 바로 이 경성역에서 펼쳐졌을 것이다.

또한 이 경성역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문화(文化)와 물화(物貨)’, ‘보지도 듣지도 못한 별별 괴상한 것들’이 들어오고, ‘서울에 있는 것’, 즉 서의 자원이 나가는 항구(港口)이기도 하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조선의 보배는 이 관문을 통하여 새어나간다’는 점이다. 조선의 귀중한 보물들이 일제의 수탈로 인해 바로 이 경성역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가가 가장 비판적인 시선으로 경성역을 통과하는 대상은 바로 ‘서울을 굶게하는 종기의 군’이다. 어디서, 왜 들어오는지도 알 수 없는 이 ‘종기’는 심지어 들어온 서울에서 터지기까지 한다. 그 터진 ‘피와 고름, 독혈’은 다시 이 경성역이라는 관문(關門)을 통해 삼천리로 퍼지게끔 하는 막을 수 없는 문(門)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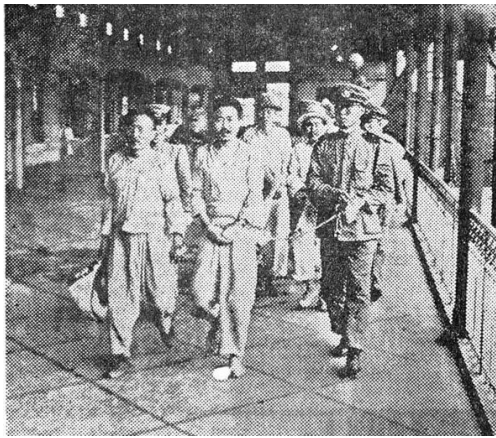
시골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시골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외에 이 관문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또 있다. 바로 다른 지역에서 체포된 중범죄자(重犯罪者)<sup>125)</sup>로,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1933)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신의주에서 잡힌 오병택이 체포되어 경성역으로 호송되는 모습이 나온다.

겨우 시간이 되자 노라는 입장권을 사가지고 플랫폼으로 들어갔다 ... 노라는  
‘뭍여오는 사람’을 찾아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사람의 뭉치가 너무 많고 혼잡하  
여 정신을 가다듬어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앞칸까지 가서도 필경 ‘뭍이어 오는 사

124) 방인근, “마도의 향불(44)”, 『동아일보』, 1933년 1월 8일

125) 일제강점기에는 일제가 식민지 지배를 반대한 사회주의를 탄압하였는데, 사회주의자들은 대부분 독립운동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입장에서는 중범죄자로 취급하였을 것이다.

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도로 돌아서려는데 황하고 요란스런 총소리가 나며 불이 번쩍한다. 이어서 황황 소리가 연해 나며, 그럴 때마다 불이 번쩍거린다. 노라는 혼이 크게 놀라 어리둥절하다가 그것이 자기 앞에 섰는 사람에게 대고 사진을 찍느라고 마그네슘을 터뜨리는 것인줄을 겨우 알았다. 노라의 몇 걸음 앞에는 웬 중국 사람이 순사와 양복 입은 사람의 호위를 받고 섰는 것이다. 자세히 보노라니까 그의 뒤에 섰는 순사가 포승줄을 잡고 있다. 또 더 자세히 보니까 겨우 병택이의 모습이 보는 것 같았다 . . . 노라가 등 뒤를 돌려다보니 신문기자인 듯한 사람의 한떼가 우글우글 모여서서 무어라고 수군거린다... .<sup>126)</sup> [밑줄 연구자]



[그림 3-43] “경성역에 내린  
사건관계자들”  
(동아일보 1937년 8월 20일)

체포된 중범죄자가 경성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일본경찰과 함께 기차를 타고 경성역에서 내려 인계되는 날에는 구경 온 사람들과 신문기자들에 의해 북적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독립운동가 여운형이 체포되어 서울로 호송되었을 때를 잠시 살펴보자.

여운형이 17일 오후 7시 경성역 도착 남행 열차로 호송된다는 소문을 들은 지구 수백명이 정각전부터 입장권을 사가지고 구내로 몰려들어 일시는 대혼잡을 이루었는데 . . . <sup>127)</sup>

즉 노라가 오병택이 체포되어 경성으로 온다는 것은 알았지만, 도착시간을 알 수 없어 신문사까지 찾아가서 신문기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듯이 신문기자들은 미리 도착시간까지 정확히 입수하여 취재차 가는 반면, 노라나 여운형의 지구(知舊)들 처럼 호송되어 오는 이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도착시간을 수소문을 해야 알 수 있었다.

물론 중범죄자만 보러 오는 것은 아니었다. 요즘으로 치면 입국하는 아이돌들을 보러 인천공항으로 팬들과 기자가 몰려가듯 이른바 당시 유명한 ‘연예인’ 들이 경성에 온다는 소식이 돌면, 사람들은 경성역으로 그 유명인을 구경하러 가곤 했다.

126) 채만식, 『인형의 집을 나와서』, pp.267-8

127) “경성역 대혼잡”, 『동아일보』, 1929년 7월 19일

유진오의 『화상보』(1939)의 일부분에서도 그러한 장면이 나온다.

오후 네시 십오분의 급행열차를 맞이하는 경성역은 언제나 일반으로 대혼잡이다. . . . 그 복작거리는 플랫폼 한 모퉁이에 태반은 젊은 여자들로 된 말속말속한 도회인들의 한 덩어리가 뭉키어있다. 사진기를 꺼내든 신문사 사진반, 꽃다발을 든 어린소녀,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면 거기다가 이곡악단 무용계, 사교계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다. 피아니스트의 R여사, K씨, P씨, 소프라노의 C양, P여사, 무용가의 M씨, 소설가의 S씨, 청년실업가의 A씨, 또 누구누구 아무튼 오륙십명이나 되는 출영객들이 누구 하나 만만한 사람이 없다.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동양의 피코리” 김경아의 금의환향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이다.<sup>128)</sup>

경성역은 ‘서울의 관문’으로써 물자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러한 성격은 앞서 언급했듯 ‘도회의 항구’의 성격과도 중첩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3. 다방, 카페

‘남촌의 카페, 북촌의 빙수집’이라고 했던 1920년대 초 일본인들에 의해 남촌에서부터 생겨난 카페의 유행은 1930년대에 북촌에까지 진출하면서 그 수가 천여개에 달하게 된다. 경성 전역으로 확산한 카페와 킥다점은 1930년대 경성의 변화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모던도시의 밤 공간에 쾌락과 네온을 공급하며 완전히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한다.

또한 이들은 1930년대의 새로운 문화이기도 했다. 카페와 킥다점의 번영은 ‘도시속의 휴게소의 증가’이기도 했다. 즉 이들의 존재는 도시를 걷는 사람들 자체의 증가를 의미하고 도시자체가 갖는 자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증가를 의미한다. 카페와 킥다점은 도시변화가의 변화자체를 상징하는 1930년대 도시문화의 상징이었다.<sup>129)</sup>

#### 1) 낙랑파라와 제비다방

본고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구보가 들르는 ‘낙랑파라’와 ‘제비다방’

128) 유진오, “화상보(4)”, 『동아일보』, 1939년 12월 11일

129) 여환진, 본정과 종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10, p.217

을 중심으로 하여 1930년대에 다방이 가지는 장소성을 고찰하려 한다. 이때, 대부분의 다방풍경은 비슷하였기 때문에 다른 다방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표 3-7,8>은 각각 문학작품 속에 나오는 낙랑파라와 제비다방이다.

[표 3-7] 1930년대 문학작품 속의 낙랑파라

장르	작가	작품명	시간	공간	인간
소설	박태원	피로-어느 반일의 기억	1933년 7월 오후 2시~4시	낙랑파라	구보
소설	이무영	지축을 돌리는 사람들	1933년 8월 저녁	낙랑파라	
수필	이선희	다당여인	1933년 겨울	낙랑파라	나
수필	박태원	6월의 우울	1934년 6월 오후	다방	구보
소설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34년 8월 1일 오후 2시	낙랑파라	구보, 다방 안 사람들
소설	이태준	애욕의 금렵구	*1935년 3월	다방 멕시코/ 낙랑파라	완호, 방군(君)
소설	유진오	김강사와 T교수	*1935년 11월	다방	김만필, 다방 안 사람들
소설	이태준	장마	1936년 8월	낙랑파라	나, 점주 이순석
시	이용악	다방	1936년	다방	
수필	박태원	故유정과 나	-	낙랑파라	구보, 김유정
수필	김기림	故이상의 추억	-	낙랑파라	이상
산문	유진오	현대적다방이란	*1938년 6월	다방	
산문	추풍연	야시부근종로야화	1938년 여름	다방	다방 안 청년
산문	채만식	다방찬	*1939년 7월	다방, 낙랑파라	
수필	박태원	결혼 5년	1936년 1월 16일 오후	낙랑파라	구보, 이상

[표 3-8] 1930년대 문학작품 속의 제비다방

장르	작가	작품명	시간	공간	인간
수필	조용만	구인회 만들무렵	1933년 오후 4시경	제비다방	종명, 유영, 상허, 나
소설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34년 8월 1일	제비다방	구보
소설	박태원	애욕	1934년 10월	제비다방	
공트	박태원	제비	-	제비다방	구보, 급사 수영
소설	박태원	방랑장 주인	-	제비다방	-



The map shows the following locations and bus stops:

- 1 정목** (Jeongmok)
- 2 정통** (Jeongtong)
- 3 정목** (Jeongmok)
- 4 남산역** (Namsang-ni)
- 5 애인역** (Ae-in)
- 6 정목** (Jeongmok)
- 7 정목** (Jeongmok)
- 8 정목** (Jeongmok)
- 9 정목** (Jeongmok)
- 10 정목** (Jeongmok)
- 11 정목** (Jeongmok)
- 12 정목** (Jeongmok)

Other landmarks and locations labeled on the map include:

- 정정부청 (Jeongjeubu-cheong)
- 황금정 1정목 (Hwanggumjeong 1jeongmok)
- 조선호텔 (Joseon Hotel)
- 식산은행 (Siksan Bank)
- 총독부도서관 (Chungdokbu Library)
- 상공회의소 (Sanggonghoeuiso)
- 경성부립도서관 (Gyeongseongbu-rim Library)
- 경상대학교 (Gyeongseong University)
- 조선은행 (Joseon Bank)
- 정성우원국 (Jeongseongu-won-guk)
- 미쓰코시 (Mitsukoshi)
- 백화점 (Department Store)
- 조선저축은행 (Joseon Savings Bank)
- 남대문 (Namdaemun)
- 소방서 (Fire Station)
- 중추원 (Jungchuwon)
- 대한문 (Daehanmun)
- 수궁 (Sugung)
- 신사업화관 (Shinsayeuphwagwan)

낙랑파라의 정확한 주소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시의 대중매체나 소설 속에서 그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조선폰로 가는 길의 장곡천정 초입부이면서 경성부청을 마주 서 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림 3-44>처럼 낙랑파라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의 소공동 프라자호텔 부근에 있었던 낙랑파라는 당시 소위 일본인 거리의 길목인 ‘장곡천정’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은 경성 내의 일본인을 위해 조성된 상가지역인 본정의 입구로서 ‘경성의 은좌’라고 불릴 정도로 길 양측에 내지인의 일류상점들이 죽 늘어있었던 곳이다.<sup>134)</sup>

134) 김정동, 『남아있는 역사, 사라지는 건축물』, (서울: 대원사, 2000), p.213



[그림 3-45] 제비다방을 테마로  
한 이상 100주년 기념 전시회

다음은 이상이 경영하였다는 다방 ‘제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방의 차향과 문인 친구들과의 담소를 잊지 못한 이상(1910-1937)이 1933년 7월, 24세의 나이로 집을 팔아 처음 차린 다방으로—그 후 연거푸 ‘쓰루’, ‘무기맥’, ‘69’ 등 총 3개의 다방을 경성에 차릴 정도로 다방에 대해 애착이 깊었지만 모두 경영에 실패한다—실제로도 그의 의도대로 그의 친구들인 문인들과 예술인들의 아지트 역할을 했었다는 데에 의의가 깊다.

건축가이기도 한 이상이 직접 설계하고 꾸민 제비다방은 소설 「날개」에도 나오는 기생 금홍이를 마담으로 앉히고 함께 동거하며 지냈던 곳이다. 비록 극심한 경영난으로 2년만에 문을 닫았지만 많은 사연과 이야기를 담고 있어 지금도 ‘제비다방’을 테마로 한 행사를 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문학가이자 건축가인 이상(李箱)이 직접 경영했다는 ‘제비다방’ 역시 그 흔적은 물론 정확한 위치조차 알 수 없어 현세대의 많은 문인들이 아쉬워하였었다. 그동안 문학 작품과 잡지에 실린 기사로 그 위치를 추측만 해와 여러 의견이 엇갈리던 가운데 여환진(2010)이 朝鮮及滿州(조선및만주)에서 제비다방의 정확한 주소를 찾아내었다.

먼저 그동안 추측해온 이상의 제비다방 위치에 대해 가장 많이 의존해온 글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구보가 이상의 제비다방에 찾아가기까지의 묘사를 보면 “종로경찰서 앞을 지나 하얗고 납작한 조그만 다료(茶寮)엘 들른다.”라고 하였고, 1934년 『삼천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총독부에 건축기사로도 오래 다닌 고등공업 출신의 김해경씨가 경영하는 것으로 종로서 서대문 가느라면 10여 집 가서 우편(右便) 페-부먼트 옆에 나일강반(江畔)의 유객선 같이 운치 있게 빗겨 선 집이다.<sup>135)</sup>

종로경찰서를 지나 서대문 방향으로 가는 길에 10여 집을 지난 오른쪽의 페이브먼트, 즉 포장도로가 끝나는 지점이라 보고 피마골 초입부로 당시 주소로 청진동 127번지로 추측하였었다. 그러나 여환진(2010)이 자료적 성격이 강한 朝鮮及滿州(조선및만주)에서 제비다방의 위치를 종로 1정목 44번지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정리해보면 <그림 3-46>과 같다.



[그림 3-46] 제비다방 입지

그렇다면 이상이 직접 설계하고 인테리어를 했다는 다방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비다방을 묘사한 글들을 종합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이상과 박태원의 친구이자 구인회 멤버이기도 했던 조용만이 회고하며 쓴 글이다.

제비는 이상이 종로네거리에 새로 낸 다방이었다. 남쪽 큰길로 난 창을 뜯어서 바둑판 모양으로 네모진 창틀을 해 박았다. 안에는 사방이 흰벽이고, 아무 장식도 없이 동쪽 벽에다가 커다란 초상화를 덩그랗게 걸어놓았다. 그것은 삼십 호 가량의 누른빛이 짙은 유화인데, 이상이 고등공업 학생 때 자화상을 그려서 선전(鮮展)에 출품하여 입선한 작품이었다. 다방에는 장식으로 큰 촉음기가 놓여 있어야 하는데, 이 다방에는 서쪽 구석에다가 조그만 테이블을 놓고 거기다가 혈어 빠진 포터블 촉음기를 놓았다 . . . 겉으로 보기에는 바둑판 같은 두꺼운 유리창이 근사해서 지나는 사람의 눈을 끌었지만 . . .<sup>135)</sup>

구보 박태원은 이상이 1937년 젊은 나이로 요절한 후 그를 기리며 조선일보에 1939년 2월, 두 번에 걸쳐 연재한 콩트 「제비」를 살펴보면 “『제비』-이층에는 광무소가 있었다 . . . 『제비』-하-아케 발라놓은 안벽에는 실내장식이라고 도

135) “꼭다점 평판기”, 『三千里』, 1934년 5월

136) 조용만, 『구인회 만들무렵』, (서울: 정음사, 1984), p.59

무지 이상의 자화상이 하나 걸려 있을 뿐이었다.” 라고 묘사하고 있고, 역시 제비다방을 무대로 한 박태원의 단편소설 「애욕」에도 “구보는 맞은 편 벽에 걸린 하웅[하웅은 이상을 가리킨다- 연구자 주]의 자화상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거의 남용(濫用)된 황색 계통의 색채.” 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림 3-47] 1931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한 이상의 '자화상'



[그림 3-48] 1935년 친구 구본웅이 그려준 '우인의 초상'

종합해보면, 제비다방의 내관은 하안벽에 황색계통의 이상의 자화상이 하나 달랑 걸려있었던 듯 하다. 그런데 1935년 친구인 화가 구본웅이 이상을 위해 이상의 초상화인 <우인의 초상>을 그려줬는데 이 역시 나란히 함께 걸려 있었다고 한다.

또한 보통 다방에 있어야 할 축음기 하나 없었던 제비다방은 일본인 거리의 길목이라고 불리는 장곡천정에 위치해 인기 있었던 '낙랑과라'와 달리 조선인들이 밀집해 있었던 경성의 북촌, 종로 1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입지가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표 3-9><sup>137)</sup>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비교 기준은 이상이 제비다방을 경영했던 1933년부터 1935년 사이에 영업하였던 다방을 기준으로 삼았다. 일본인들의 거리로 상징되었던 본정은 당시 영업하던 다방이 총 9개이나 조선인들이 많았던 종로에는 불과 4개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이상의 제비다방만이 유일하게 종로 1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입지상 더욱 더 불리했을 것이다.

137) 여환진(2010)도 현재 남아있는 자료 중 '상호명'과 '주소'를 중심으로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p.147 참조



[표 3-9] 본정과 종로의 깃다점

상호	주소	연도	주요출처
미요노시 본점	본정 1-18	35 37	朝鮮消防
모란	본정 1-21	40 41	京城電話番号簿40
짜신	본정 1-33	39 40	京城商工名錄
니코니코 본점	본정 1-49	29 41	朝鮮公論
후지야	본정 1-51	40 41	京城電話番号簿40
혼쵸야과자깃다점	본정 1-51-15	30 41	京城に於ける工場調査37
미스즈깃다점	본정 2-1	38 41	京城電話番号簿38
나카무라상회깃다부	본정 2-3	28	K280629
세이뉴샤	본정 2-3	31 38	朝鮮工場名簿39
카메야깃다부금강산	본정 2-8	28 41	京城電話番号簿38
밀크플랜트세이뉴샤	본정 2-11-1	31 40	京城電話番号簿40
세이코우엔깃다부	본정 2-14	34 41	京城電話番号簿36
모나리자	본정 2-35	36 39	三千里
메이지제과경성매점	본정 2-92	31 41	職業別電話番号簿41
다리아깃다점	본정 2	20	朝鮮公論
소구자오키나	본정 2	21	朝鮮公論
아카다마	본정 2	31 32	朝鮮公論
프라치나	본정 2	30 31	K310101 K310305
오키나깃다점	본정 3-3	34 41	京城電話番号簿34
유타카	본정 3-30	41	職業別電話番号簿41
하이델베르크	본정 3-94	38	朝鮮及滿州
후타미	본정 3	26	朝鮮公論 K260822
빈	본정	38	京城ローカル
투데이	본정	38	京城ローカル
심원	종로 1-28	39	京城商工名錄
경성다방	종로 1-43	40 41	半島の春
제비	종로 1-44	33 35	朝鮮及滿州
바 멕시코	종로 2-14	33 38	京城電話番号簿38
최동근	종로 2-17	38	京城電話番号簿38
밀림다방	종로 2-19	38 41	職業別電話番号簿41
중앙식관	종로 2-22	41	職業別電話番号簿42
낙원별관	종로 2-83	32 38	京城電話番号簿38
뿐아미바	종로 2-98	33 38	京城電話番号簿38
미나토다방	종로 2-99	40 41	職業別電話番号簿41
아세아	종로 2-100	38 41	京城電話番号簿38

이상이 제비다방을 경영하고 있을 때 쓰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34)을 살펴보면 엔젤카페로 가는 구보와 이상의 대화 속에서 “내용증명의 서류우편”, “석 달 밀린 집세”, “이 시대에는 조그만 한 개의 다료를 경영하기도 수월치 않았다”<sup>138)</sup> 등의 대화로 이상의 다방 경영의 어려움을 짐작케 한다.

## ■ 근대거리 관찰소

1934년 『삼천리』에 실린 제비다방의 내부묘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더구나 전면 벽은 전부 유리로 깔았는 것이 이색이다. 이렇게 종로대가(大家)를 옆에 끼고 안젓느니 만치 이 집 독특히 인삼차나 마시면서 바깥을 내이다 보느라면 유리창 너머 페이부먼트 우로 여성들의 구두발이 지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그림을 바라보듯 사람을 황홀케한다.<sup>139)</sup>

“카페는 거리의 예약석이며, 거대한 공중 응접실에 자리 잡은 일종의 안락의자이다.” 라고 한 덴마크 관객이 말했듯이, 근대거리는 마치 무대처럼 볼거리가 많은 장소였고 관찰자는 거리가 잘 보이는 찻집에 들어가 스크린(유리창)을 통해 구경을 할 수 있었다. ‘제비다방’은 근대거리를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다음은 낙랑파라를 무대로 한 박태원의 다른 단편소설 「피로」(1933)이다.

그 창은—6척×1척 5촌 5푼<sup>140)</sup>의 그 창은 동쪽을 향하여 뚫려 있었다. 그 창 밑에 바투이 붙여 쳐놓은 등탁자 위에서 쓰고 있던 소설에 지치면, 나는 곧잘 고개를 들어, 내 머리보다 조금 높은 그 창을 쳐다보았다. 그 창으로는 길 건너편에 서 있는 희멀쭉한 이층 양옥과, 그 집 이층의 창과 창 사이에 걸려 있는 광고등이 보인다. 그 광고등에는 “醫療器械 義手足” 이러한 글자가 써져 있었다……. <sup>141)</sup>

소설 속 묘사에 따르면, 앉아있는 구보의 머리보다 더 높이 달린 낙랑파라의 창문은 ‘6척×1척 5촌 5푼’으로 약 ‘1.8m×0.45m’의 크기로 가로가 길쭉한 모

138)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p.212

139) “꼭다점 평판기”, 『三千里』, 1934년 5월

140) 척(尺)은 약 30.3cm, 촌(寸)은 약 3.03cm, 푼은 약 0.303cm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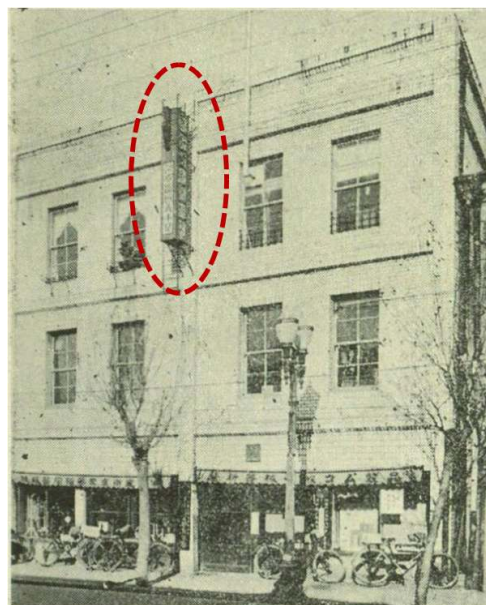
141) 박태원, “피로”. 『박태원 단편선』, (서울: 글누림, 2008), p.81-2

양이었다. 구보가 다방 안에서 바라본 창문은 <그림 3-49>에서 원으로 표시한 창문으로 추측된다.

소설을 쓰다 창밖을 보면 근대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층양옥<sup>142)</sup>과 광고등이 보였다는 구보는, ‘醫療器械 義手足(의료기계 의수족)’이라는 광고등에 적힌 문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낙랑파라로 추측되는 곳의 맞은 편, 장곡천정 103번지에는 ‘고야제작소’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구가 적힌 광고등이 있음을 『대경성사진첩』(1937)에 서 확인할 수 있으며,<sup>143)</sup> 구보는 낙랑파라의 창문을 통해 <그림 3-50>과 같은 풍경을 바라보곤 했을 것이다.



[그림 3-49] 낙랑파라 외관  
(인천일보, 2011년 11월 18일)



[그림 3-50] 낙랑파라 맞은 편의  
고야제작소 (대경성사진첩)

## ■ 시각적으로 근대 이미지를 표상하는 거리의 다방

앞서 제비다방의 묘사에서 “하얗고 납작한 조그만 다료”, “전면 벽은 전부 유리”, “남쪽 큰 길로 난 창을 뜯어서 바둑판 모양의 창틀”이라는 대목에서 그 외관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1930년대 대부분 깃다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42) <그림 3-5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는 3층 건물이지만, 일본에서는 영국식으로 1층을 지층으로 보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는 이러한 층수 계산법을 따라했다.

143) 조이담, 전제서, p.183

구조파적인 지붕과 기하학적인 창 의 교차, 투명체와 같은 하얀 벽, 밝고 세련된 거리의 깍다점은 근대도시의 하나의 매혹의 추가이다 . . . 오늘날 이제 문학청년들의 시에스토프적 동굴에서 소시민들의 살롱에까지 전개되어 버렸다. 향기그득한 홍차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근대적 감각의 향유가 있기 향수가 있기 때문이다.<sup>144)</sup>

1930년대 경성의 깍다점 외관사진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다음 <그림 3-51,52,53,54>에서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전면 유리’ 라는 특징에서 당시 다방은 내부와 외부에서 서로 보이는 상당히 ‘개방적’ 인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림 3-5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1] 깍다점 입구 1  
(영화 ‘반도의 봄’ .1941)



[그림 3-52] 깍다점 입구 2  
(영화 ‘어화’ .1939)



[그림 3-53] 깍다점 입구 3  
(영화 ‘반도의 봄’ .1941)



[그림 3-54] 명동 <다이나>

144) “경성의 깍다점가를 걷다”, 『조선 및 만주』, 347호, 1936. 여환진, 전개서, p.151에서 재인용



## ■ 이국적 정취를 향유하는 곳

1930년대의 다방은 대부분 ‘낙랑파라’와 비슷한 이국적 공간이었다.

서반아(西班牙)에나 온 듯 남국의 파초가 문 밖에 푸르고 있는 3층루다.<실제로는 2층이다> 윗층은 아토리요 아래가 깍다점이다 . . . 널마루 우에 톱밥을 펴서 사하라 사막 우에 고단한 아라비아 려인(旅人)들이 앉아 물 마시듯 한잔의 차라도 마시는 그 정취가 사랑스럽다.<sup>145)</sup> < > 연구자주

입구에는 남양에서 이식하여 온듯이 녹취 흐르는 파초가 놓였고 실내에 들어서면 대패밥과 백사(白沙)로 석근 토질 마루 우에다가 「슈-벨트, 데-도릿지」 등의 예술가 사진을 걸었고 좋은 덧산도 알맞게 걸어 놓아있어 어쩐지 실내 실외가 혼연조화(渾然調和) 되고 그리고 실내에 떠도는 기분이 손님에게 안은한 침정을 준다. 이것이 낙랑파라다 . . . 이 집의 감촉은 마치 파리 「이정(裏町)」에서 청절(淸節)을 지켜가며 전심에도에 정진하는 예술가의 화실같은 느낌을 준다. 명화 「巴里의屋根の下」에 나오는 셋트 속의 한 조각 같기도 하다.<sup>146)</sup>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2층짜리 건물에 윗층은 주인 이순석의 화실이고 아래층이 깍다점이었는데 입구에는 파초가 놓여있는, 그 당시로서는 다소 이국적이면서 세련된 풍경이었을 것이다. 낙랑파라의 내부의 벽에는 슈베르트와 같은 예술가의 사진과 영화배우의 사진, 그리고 덧생을 걸어놓았는데, 실제로 시인이자 건축가인 ‘이상’이 인테리어를 하였다고 한다. 특히 낙랑파라의 입구에 놓여있었던 파초는 대부분의 다방뿐만 아니라 카페에서도 인기 있는 수종이었다.

1938년 발행된 잡지 『삼천리』의 한 수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시 다방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영화 속에 나오는 깍다점 내부모습인 <그림 3-55>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방 탐방객이 어느 집 입구를 들어서면 거기에는 공통된 다방 분위기,—일종의 다방 채취—를 감촉하리라, 남양의 열대식물이 있고 베-토벤의 사안형과 2-3인의 다방 낭 또는 다방 아와 가급적 좁은 지면을 공리적으로 이용해야 벌려진 테-불과 의자, 소란한 레코-드, 예저기 널려져 있는 그날 그날의 신문과 혈어진 그달 그달의 취미잡지 영화잡지, 커-틴, 몇 개의 화폭, 조상, 탁상, 전등 등.<sup>147)</sup>

145) “깍다점 평판기”, 『三千里』, 1934년 5월

146) “인테리 청년 성공직업(1)”, 『三千里』, 1933년 10월

147) 이현구, “보헤미양의 애수의 향구, 일다방 보헤미양의 수기”, 『三千里』, 1938년 5월



[그림 3-55] 낑다점 내부 (‘반도의 봄’, 1941)

그러나 다방의 내관 자체는 비슷하더라도 다방 안의 분위기는 다방마다 달랐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특성도 나뉘어졌다.

다음 소설가 이선희의 수필에서 낙랑파라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어떻게 읽어내고 있는지 살펴보자.

장곡천정으로 가다가 「낙랑파-라」 이 집을 내가 제일 좋아한다. 쪽 들어서면 그 화려하고 경쾌한 맛이라니. 현대인의 미감을 만족시킨다. 맛은 편 벽에 반이체의 여인초상화가 걸렸다. 서양 배우의 「푸로마이드」도 뒤적거려 본다. 「레코드」가 돌아간다.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그 음향.. 케익을 포크로 쿡 찢어 먹었다. 김치를 젓가락으로 먹는 것보다 한층 더 문화적임에 쾌감을 느낀다. 서울은 파리와 같이 생각되고 조그만 차점도 세계에서 제일 큰 사교장 같이 생각된다 . . . 뽕이를 불러 신문을 청했다. 활동사진에 나오는 서양뽕이의 차림새다 . . . 차스집! 이것은 우리에게 현대의 감각을 자극시키는 매개장이 아니야. 이만한 데만 와도 훨씬 명랑한 기분을 맛보는 소득이 있다. 그리하여 그 귀중한 돈 이십전이나 오십전을 아낌없이 내어 놓는 것이다 ... 호주머니의 단 몇십 전이라도 있거든 차스집으로 가거나 식당에라도 가서 「라이프카레」 한 그릇이라도 먹으면 뱃속은 어떻든지 기분 그 놈의 기분만은 백 이십 퍼센트로 유쾌하리라. 차 한잔 또 청했다. 나는 당연히 이 사교장의 여왕이나 된 것 같은 자부심이 생긴다. 148) [밑줄 연구자]

주지하다시피 점주 이순석이 윗층에 화실을 두었던 낙랑파라는 처음부터 차를

148) 이선희, “다당여인”, 『별건곤』, 1934년 1월

파는 공간 이상을 지향하였다. 즉 낙랑파라는 단순히 차를 파는 곳이기보다는 이국적 분위기의 다방 안에서 ‘차를 마시는 기분을 파는 곳’ 이었다.

이선희가 묘사한 낙랑파라의 내부에는 이국적이고 근대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 낙랑파라는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만으로 프랑스 파리의 가장 큰 사교장이 되었고 이선희는 사교장의 여왕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장소였다.



[그림 3-56] 낙랑파라 내부 모습 (이상과 모던뽀이들)

이렇듯 낙랑파라처럼 ‘차를 마시는 기분을 파는 다방’에는 주로 예술가, 길거리의 철학자, 실업자, 유한마담, 여급, 전문대학생들이 즐겨찾는 반면, ‘차만 파는 다방’에는 상인, 관리, 회사원, 가족을 대동한 이들이 주로 출입하였다. 또한 이선희가 다방의 기분을 산 댓가로 “귀중한 돈 이십 전이나 오십 전을 아낌없이 내어 놓”듯이 ‘차를 마시는 기분을 파는 다방’은 귀족적·폐쇄적·고답적인 분위기로 담배연기로 자욱하였고 베토벤, 모차르트 등 클래식을 들려주는 대신 찻값은 비쌌으며 예쁜 모던 걸이 급사를 하였다. 반면 ‘차만 파는 다방’은 대중적·개방적·세속적인 분위기로 좋은 레코드가 없는 대신 찻값이 싸고 <그림 3-57>처럼 사내아이들이 급사를 하였다.<sup>149)</sup>

149) 유진오, “현대적 다방이란”. 『조광』, 1938년 6월



[그림 3-57] 깍다점 내 급사 남자아이 (영화 '어화', 1939)

### ■ 룸펜들의 도피처이자 안식처

조선은행 앞에서 전차에서 내린 구보가 낙랑파라에 들어갔을 때 관찰한 다방 안 풍경이다.

조선은행 앞에서 구보는 전차를 내려, 장곡천정(長谷川町)으로 향한다. 생각에 피로한 그는 이제 마땅히 다방에 들러 한 잔의 홍차를 즐겨야 할 것이다 ... 다방의 오후 두 시, 일을 가지지 못한 그곳 등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담배를 태우고, 이야기를 하고, 또 레코드를 들었다. 그들은 거의 다 젊은이들이었고, 그리고 그 젊은 이들은 그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네들은 인생에 피로한 것 같이 느꼈다.<sup>150)</sup>

직업이 없는 룸펜 구보는 생각에 피로하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지 않고 ‘마땅히’ 다방 낙랑파라에 들른다. 오후 2시에 다방 안으로 들어선 구보는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젊은이들을 발견하는데 보통 직장인이라면 한참 일하고 있을 시간에 다방에는 ‘인생의 피로’를 느끼는 자들로 차있다.

박태원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보다 1년 먼저 썼던 다른 단편소설 「피로—어느 반일의 기억」(1933)에서는 이러한 인생에 피곤한 사람들이 다방 낙랑파라를 찾아오는 이유를 “위안과 안식이 필요”<sup>151)</sup>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한다.

구보가 본 다방은 ‘피로한 자들의 자리’이다. 잠시 들러 차를 마시면서 시간을

150)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pp.175-6

151) 박태원, “피로” (1933), 『박태원 단편선』, (서울: 글누림, 2008), p.81

죽일 수 있는 곳. 결코 피로를 풀어갈 자리가 아니라, 피로를 겹쳐가는 곳. 그의 표현을 따라, ‘인생에 피로한 자’들이 그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 십전이라는 돈으로 향기 있는 ‘고히’와 시간을 살 수 있는 곳. 그러나 그 시간은 세넨 것에 불과하고, 그 위안이라는 것도 세넨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그곳에 머물 수 없으며, 언젠가는 다시 거리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sup>152)</sup> 박태원은 글 속에서 자주 ‘피로하다’는 표현을 자주 쓸 뿐만 아니라 박태원이 관찰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젊은이들도 모두 피로해 보인다. 일종의 ‘시대병’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시대병’을 달랠 수 있었던 장소가 “바다 없는 항해에 피곤한 무리들이 모여드는 거리의 항구”<sup>153)</sup>인 다방이었다.

거리의 항구 다방은 당시 ‘직업 없는 젊은이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식민지 조선이 가지고 있던 ‘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 상황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다방이 실업자의 일종의 안식처이자 피난처로서의 공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유진오’의 소설 「김강사와 T교수」(1935)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피곤하면 뒷골목에 갑자기 많아진 찻집을 찾아 들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앉아 있었다. 찻집에는 아무데를 가도 일상 김강사와 같은 젊은사내들이 그득하였다. 그들은 대개는 김만필과 비슷한 경우에 처해있는 사람들이었다. 학교는 졸업했으나 갈 곳은 없고 학문이나 예술상의 기적적인 사업이 하룻밤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상타파의 마음을 굳게 해서 강철이나 불길을 사양치 않을 만한 용기를 제마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 차를 사먹을 잔돈뿐이 아직 있는 동안에 이렇게 찻집에 와서는 웅덩이에 핀 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활발한 토론의 꽃이 피는 법도 없으며 불길같은 사랑의 피가 타오르는 일도 없고 오직 죽음과 같은 시간이 계속될 뿐이었다.<sup>154)</sup>

즉 다방은 단지 실업자들보다는 구보나 김 강사처럼 당시 지식인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공간이자 “학교는 졸업했으나 갈 곳 없는” 고학력자들이 모여 무기력하게 시간을 죽이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소위 ‘인텔리 위안소’로서 1930년대 지식인들이 겪었던 경제적 불안과 정신적 불안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2) 채호석, “1934년 경성, 행복찾기 『춘향이 살던 집에서, 구보씨 걷던 길까지』, (파주: 창비, 2005), p.191

153) 이용악, “다방”, 『조선중앙일보』, 1936년

154) 유진오, 「김강사와 T교수」(1935), 『한국문학전집 5』, (서울: 학원출판사, 1995), p.320

채만식은 그러한 사람들을 ‘레디메이드 인생’ 이라고 비유하였다.

인텔리……인텔리 중에도 아무런 손끝의 기술이 없이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졸업  
증서 한 장을, 또는 조그마한 보통 상식을 가진 직업 없는 인텔리……해마다 천 여  
명씩 늘어가는 인텔리……. 개밥의 도토리다 . . . 무력한 문화예비군 속에서 푸른  
한숨만 쉬는 초상집의 주인 없는 개들이다. 레디메이드 인생이다.<sup>155)</sup>

채만식은 사설 「다방찬」 (1939)에서 ‘레디메이드 인생’ 을 살고 있는 인텔리들  
이 다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조롱 받는 현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였다.



[그림 3-58] “도회점경”  
(조선일보, 1934년 2월 9일)

어떤 화문잡지(和文雜誌)에서 근일 깍다점풍경  
이라고 제한 다음과 같은 풍자만화를 본 일이 있  
다. 스탠드가 놓이고 액(額)이 걸리고 열대식물의  
분(盆)이 있고 한 것이 배경이요, 그 앞으로 세트  
가 한 벌. 탁(卓)에는 빈 찻잔과 설탕단지와 재떨  
이. 그리고서 걸상에는, 탁 밑에 구두를 가지런히  
벗어놓고, 걸상 앞을 가 무릎을 단정히 꿇  
고 두 손을 마주잡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눈  
을 내려감고 한 인물이 조용히 앉아 있다 . . .이  
러한 만화를 구태여 인용하지 않더라도 진작부터  
이 두레에도 첨구거사(尖口居士)들이 다방인종을  
신랄하게 풍자한 썸 재미있는 어휘가 많이 있다.  
벽화(壁畵)! 반만 마신 찻잔에서는 김도 오르지  
않고 재떨이에만 공초만 그득하니 벌써 두시간이  
되었는지 세시간이 되었는지, 그 두시간 혹은 세시

간을 벽밀의 세트에 가서 그린듯 붙박이로 앉아있는 포즈가 왜 아니 그림 같을꼬! 벽  
화란 참으로 천금 값이 나가는 한마디다. 또 특히 온종일 다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물만  
먹는대서 금붕어라고도 한다.<sup>156)</sup>

채만식이 보았다는 풍자만화는 <그림 3-58>으로 추측되며 ‘벽화’, ‘금붕어’ 등  
으로 조롱 받아야만 했던 룸펜들의 속마음과 다방에서 죽은듯이 시간을 보낼 수 밖

155) 채만식, 「레디메이드 인생」 (1934), 『레디메이드 인생 外』, (서울: 혜원, 2005), pp.17-8

156) 채만식, “다방찬”. 『조광』, 1939년 7월

에 없는 이유를 이 만화작가가 잘 대변해주고 있다.

실업자의 심경은 그가 아니면 모른다. 아침에 뜨는 해도 보기 싫고, 밤에 뜨는 달도 보기 싫고, 모든 색채 모든 움직이는 물체, 아무리 좋은소리라도 다 듣기 싫고, 도 대체 사는 것이 싫다 . . . 어쨌든 그날의 그해는 지내버려야 할터이니 돈 십전만 있으면 찻집이 좋다고 들어가나 커피차 한잔만 먹고 원종일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 길로 헤맨다. 이래서 양복쟁이 림펜이 된다. 그러나 찻집에는 무위도식꾼의 출입도 많다.<sup>157)</sup>

유진오는 사실 「현대적 다방이란」(1938)에서 다방에서 무기력하게 몇 시간이고 앉아있는 림펜들을 ‘~체’ 한다고 비난하였다.

다방이란 존재는 가장 물적으로 현대지식인의 무기력 무의지, 무이상(無理想), 권태, 물질적 결핍, 진퇴유곡된 처지를 나타내는 곳이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서면 다방으로 가서 「みどり」 내지는 「피종」 한 갑을 태우는 동안 즉 적어도 두시간 내지 세시간을 「멍」 하니 앉아— 조금 더 악의로 해석한다면 「체」도 나타낸다. 즉 없어도 있는체 정신적 고민이 없으면서도 있는체 교양이 없으면서도 있는체 등등—어쨌든 멍하니 앉아 무의미한 시간과 생명을 단축한 후에 그곳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가 하면 천만에 그의 발길은 이번에는 B다방으로 향해 그곳에서 또 아까와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한다.<sup>158)</sup> [밑줄 연구자]

구인회 멤버였던 이무영 또한 연재소설 『지축(地軸)을 돌리는 사람들』(1933)에서 박태원처럼 낙랑과라에 앉아있는 림펜들을 묘사하였는데 박태원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본 것과 달리 유진오가 ‘~체’ 하면서 앉아있다고 보는 것과 비슷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들을 ‘돈키호테’ 라고 조롱한다.

차 한잔을 놓고 담화를 하는 것이 가장 진보적이고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축들이 그 안에는 가득하였다. 카페 가는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요, 자기네는 이 시대의 지축이나 돌리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철없는 사람들은 제법 큰 임무나 다하고 온 것처럼 다리 위에 한다리를 올려놓고 이것도 “신사적”으로 차를 후룩후룩 마시고 앉았다. 그들이야 말로 일천구백삼십삼년이 낳은 “돈키호—테”들이다.<sup>159)</sup> [밑줄 연구자]

157) 안석영, “도회점경”, 『조선일보』, 1934년 2월 9일

158) 유진오, “현대적 다방이란”. 『조광』, 1938년 6월

159) 이무영, “지축을 돌리는 사람들(14~16)”, 『동아일보』, 1933년 8월 19일~21일

‘벽화’, ‘금붕어’, ‘돈키호테’ 등으로 정의되는 자들의 다방에서 몇 시간이고 멍하니 보내는 행위는 아무 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행위로써, 근대도시를 돌아다니는 ‘산책자’와 대조되는 행위이다. 발터 벤야민이 말하는 ‘진정한 산책자’가 아닌 ‘뮤자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행위에 대한 선택적 욕망도 없이 빈둥대며 시간을 낭비하는 뮤자르’와 흡사한 것이다. 뮤자르의 유일한 일이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무관심하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귀족역할을 수행하지만 그것은 연극적 실행에 불과한 기만’ 일 뿐<sup>160)</sup>이고, 다방은 그러한 뮤자르를 수용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 ■ 문화활동공간

다음은 ‘문화활동공간’의 관점으로 살펴보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는 낙랑파라에 간 구보가 벽에 붙은 포스터를 발견한다.

구보는 아이에게 가 한 잔의 가배차(珈琲茶)와 담배를 청하고 구석진 등탁자로 갔다. 그의 머리 위에 한 장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어느 화가의 ‘도구유별전(渡歐留別展)<유럽으로 유학을 가면서 마련한 전시회>’<sup>161)</sup> < >는 연구자주, [밀줄 연구자]



[그림 3-59] 낙랑파라에 대한  
동아일보 신문기사  
(동아일보 1936년 3월 15일)

위의 대목에서는 낙랑파라라는 다방에서 어떤 문화활동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 실제로 낙랑파라는 점주의 예술가적 경향으로 전시회, 전람회, 문학의 밤, 연주회 등을 열었다.

<그림 3-59>는 1936년 3월 15일에 실린 낙랑파라에 대한 기사삽화이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길진섭소품전 명십오일부터 낙랑파라에서: 오는 15일 일요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시내 장곡천

160) 장유정, 『다방과 카페, 모던보이의 아지트』, (과주: 살림, 2011), p.34

161)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p.176



정 낙랑파라에서 양화가 길진섭씨의 소품전이 개최되리라 한다.”<sup>162)</sup>

다음은 1933년, 1934년 『삼천리』에 실린 낙랑파라에 대한 기사이다.

주인이 화가인 만치 여기에는 화가가 많이 찾아 온다. 또 일본촌이 가까운 까닭인지 일본인이 많이 모여 란데뷰에 몸이 곤한 청춘남녀들이 가끔 찾아들어 다리를 쉬인다. 금요일마다 벵타-의 신곡연주가 있고 가끔 조그마한 전람회도 열린다.<sup>163)</sup>

서울 안에 잇는 화가, 음악가, 문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그리고 명곡연주회도 매주 두어 번 열리고 문호 「피-터」의 밤 같은 회합도 가끔 열리는 곳이다 . . . 이리로 모여드는 인테리는 점점 많아 간다.<sup>164)</sup>

위의 두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낙랑파라에서는 매주 금요일 밤마다 신곡을 들려주었다. 이 때 낙랑의 주 음악장르는 세레나데, 스코틀랜드, 스페인 무용곡 등이었다. 또한 매주 명곡연주회와 ‘괴테의 밤’ 같은 문호모임도 열어 미술전시회 뿐만 아니라 음악, 문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낙랑파라에서는 영화도 상영<sup>165)</sup>하였으며 『삼천리』에 실린 낙랑파라 마담과의 좌담을 보면 30여 명의 문사가 모여 ‘시성(詩聖) 괴-테’ 백년기념제와, 시인들의 시집출판기념회, 화가 구본웅의 개인전, 경성제대 학생들의 만돌린회 등의 행사도 열린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이선희의 수필 「다당 여인」에서 주지했듯 낙랑파라에서는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고 박태원은 「피로」(1933)에서 낙랑파라가 ‘이백 오십 매’라는 풍부한 레코드 수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양문화에 심취한 젊은이들은 음악을 듣기 위해 다방을 찾았으며 듣고 싶은 음악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것은 야시장 건너편 어느 찻집에서 생긴 일인데 한 청년이 찻집에 들어왔다. 아마 이 청년은 근래 축음기의 발달에 따라 졸지에서 양음악에 취미가 부쩍 생긴 못 ‘음악청년’에 빠지지 않는 청년인 듯하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한참동안 모이면 무슨 음악이 좋다 누구의 무엇을 들어봤느냐 하는 따위가 화제에 올라 못들어본 음악

162) “길진섭소품전 명십오일부터 낙랑파라에서”, 『동아일보』, 1936년 3월 15일

163) “꼭다점 평판기”, 『三千里』, 1934년 5월

164) “인테리청년 성공직업(1)”, 『三千里』, 1933년 10월

165) “춘풍의 밤 개최 삼일밤 낙랑에서”, 『조선중앙일보』, 1935년 12월 3일

의 이름을 외웠다가 찻집에 가서 청하여 듣는 수가 있다. 그 청년도 그런 동기에서 레코오드를 들어볼려고 찻집에 들어온 모양이었다.<sup>166)</sup>

그렇다면 낙랑파라에는 어떤 인물들이 방문했을까? 위의 두 개의 『삼천리』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가, 음악가, 문인들 같은 인테리가 많이 모인다고 하였는데 다음 낙랑파라 마담 김연실과의 좌담 기사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



[그림 3-60] 낙랑파라에서 찍은 사진  
안경 쓴 사람이 안익태의 형인 음악가  
안익조, 그 옆이 이순석(인천시립박물관)

기자: 서울시민 60만 명의 「거리의 공원」이요 또 인테리와 모던남녀의 휴게실인 깍다점에 모이는 손님들은 어떤 분들이 많습니까.

김연실: 우리집에 오는 문사로는 안석영, 최정희, 정지용, 김상용 씨들과 또 저어 함대훈, 이현구, 김항섭 씨 등 해외 문예 파 손님들도 가끔 와요. 춘원(이광수)씨도 간혹 오시고 팔봉도 이하운 씨도 김기림 씨도 그리고 언젠가 여류 문사일파가 오셨더구만. 모운숙, 장덕조, 최정희, 노천명 씨 등

기자: 영화인들은요?

김연실: 금유영, 박기채 씨 같은 감독들이며 문예 봉 같은 여우며 이명우, 나운규 씨들이 많이 와요.

기자: 레-코드 방면에 가수로 계시니만치 그 방면 손님이 많을걸요.

김연실: 우리 홀에는 빅타-컬롬비아가 가까운 탓인지 가수도 여러분 오셔요.

기자: 청년들이 많은가요.

김연실: 스물한둘부터 삼십칠팔까지가 가장 많지요. 직업으론 신문 기자, 배우, 문사, 화가, 음악가 같은 인테리층, 또 은행회 사원과 교사들까지.<sup>167)</sup> [밀줄 연구자]

166) 추풍연, “야시부근-종로야화”, 『여성』, 1938년 10월

167) “깍다점 연애평경”, 『三千里』, 1936년 12월

이처럼 당시 낙랑파라에는 화가, 음악가, 문인들(문사), 해외 문예파, 영화인, 가수, 22살~37,8세의 청년들, 신문기자, 은행회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즐겨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문화·예술인들의 아지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구보는 14시간 동안 경성을 배회하면서 다방 ‘낙랑파라’에만 네 번 들를 정도로 구보에게 다방출입은 일과 중 하나였다. 같은 해에 쓰인 박태원의 수필 「6월의 우울」(1934)에서는 “창작을 위하여 낯은 대학 노트를 들고 거리에 나가도 십 분의 ‘도보노정’을 못 다가서 나의 찾아드는 곳은 다방입니다”<sup>168)</sup>라고 했듯이 고현학을 위해 거리로 산책을 나가도 그의 발길은 곧잘 다방으로 향했다.

‘다방 예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방은 문화예술인, 학생들의 안식처이자 일탈의 장소이기도 했다. 또한 ‘체병 환자’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차 한잔을 시키고 예술가인척 몽상적인 표정을 짓는 풍경을 자아내기도 했다.

다음 1935년 동아일보의 “다방과 예술가”라는 칼럼에서 당시 이러한 다방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근래 각도시에는 주로 유한자, 인테리군의 휴게소, 대합실, 한담처로 다방이란 것이 많이 생겨났다. 그런데 지방도시는 모르거니와 중앙에 있어 보건대 이 다방과 예술과의 간에는 특이한 현상이 간취된다. 우선 경영자를 보면 화가, 극작가, 영화인, 시인, 배우, 음악가 등 거의 예술의 각 부문에 공하여 있고 따라서 그 다방의 내부장식, 비품, 기분기타가 역시 각각 그 부문의 인사의 취미와 기호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부문의 예술가들은 마치 자기집 사랑이나 되는듯 자주들 다니게 된다. 시하야 그 어느 하나를 찾아가보면 거기서는 적요, 권태, 우울에 잠긴 예술가가 한 잔 차를 앞에 놓고 명상에 빠졌음인지 시간가기를 기다림인지 분변키 어려운 망연한 자세로 앉아있음을 적어도 하나들은 반드시 보게 된다.<sup>169)</sup> [밑줄 연구자]

예술가가 다방을 경영하는 것은 모더니즘의 유행이라는 영향도 있었겠지만 다방이 이들 인텔리들에게는 근대화가 가속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도시로부터 잠시나마

168) 박태원, “6월의 우울”, 『중앙』, 1934년 6월

169) “다방과 예술가”, 『동아일보』, 1935년 6월 6일

일탈이 가능한 안식처였을 것이다.

다방은 모더니즘을 경험하는 동시에 흡수하는 창구였다. 또한 작품을 위해 사색을 하거나 창작활동을 하던 곳이면서 자기들끼리 담소를 나누면서 예술가적 자각을 갖게 하는 아지트였던 것이다. 그러나 위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에 대한 시각은 다소 부정적이었고 앞서 고찰한 다방을 찾아와 시간을 보내는 직업없는 룸펜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눈초리를 받았다.

그러나 기사에서도 기술하듯 ‘화가, 극작가, 영화인, 시인, 배우, 음악가 등’ 다양한 예술분야의 예술가가 다방을 경영하였기 때문에 다방마다 추구하는 분위기와 문화활동은 달랐고, 이는 다방을 찾는 손님들의 특색도 규정지었다.

낙랑파라는 화가 이순석이 운영할 때는 화가, 음악가, 문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였지만, 영화배우 김연실이 낙랑파라를 인수 받은 후 김연실과의 좌담을 살펴보면 ‘영화배우’가 추가되어 있다.

영화배우 복혜숙이 운영한 ‘비너스’에는 복혜숙의 동료배우들이 주로 드나들었고 배우이자 가수로 활동한 강석연이 운영한 ‘모나리자’에는 인기가수들이 출입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다방 운영자가 누구인가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상이 경영한 ‘제비다방’의 개업 취지는 이상을 주인공으로 한 박태원의 단편 소설 「방랑장 주인」(1938)에 잘 나타나있다.

무어 찻집답게 꾸며 보려야 꾸며질 턱도 없이, 차탁과 의자와 그러한 다방에서의 필수품들까지도 전혀 소박한 것을 취지로, 축음기는 자작(子爵)이 기부한 포터블을 사용하기로 하는 등 모든 것이 그러하였으므로, 물론 그러한 간략한 장치로 무어 어떻게 한밀천 잡아 보겠단든지 하는 그러한 엉뚱한 생각은 꿈에도 먹어본 일 없었고, 한 동리에 사는 같은 불우한 예술가들에게도, 장사로 하느니보다는 오히려 우리들의 구락부와 같이 이용하고 싶다고 그러한 말을 하여, 그들을 감격시켜 주었던 것이요,<sup>170)</sup>

이상은 다방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보다는 자신과 같은 예술가들을 위한 아지트로서 이용되기를 바랐다. 구인회 멤버였던 조용만의 회고를 잠시 살펴보자.

다섯시에 종로에 새로 생긴 <다방·제비>에서 종명, 유영과 상허가 만나기로 되어

---

170) 박태원, “방랑장주인” (1938), 『박태원 단편선』, (서울: 글누림, 2008), p.285

있어서, 나는 세 사람을 인사시키기 위해 조금 일찍이 제비로 갔다. 유영은 영화관계자이므로 상허하고 인사가 없는 것이 이상한 것 없었지만, 종명과 상허는 그때까지 인사가 없었다 . . . 좋은작품을 쓰도록 서로 격려하는 회합을 갖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오늘 아무 거리낌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합시다.<sup>171)</sup>

‘제비다방’ 뿐만 아니라 ‘낙랑과라’ 처럼 애초에 문인들이 다방을 찾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다방 경영자가 문인 혹은 예술가였다는 특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다방은 ‘사랑방 문화’를 대신하는 유일한 공공영역의 역할을 하였다. 즉 사적 개인들이 모여 공적 만남을 할 수 있는 사교장의 기능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용만의 글에서 영화관계자와 문인, 문인과 문인을 서로 소개 시켜주는 대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방은 다양한 성향의 문인이나 여타 장르의 예술가들과도 교류할 수 있게끔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다방 운영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이상은 다방을 어린 급사 수영에게 맡기고 톡하면 다방을 비웠고 주인 없는 다방에는 이상의 친구들이 오고가며 들르며 사랑방 역할을 하였다.



[그림 3-61] 풍트 「제비」 삽화  
구보와 급사 수영  
(조선일보, 1939년 2월 23일)

이상의 친구들이나 들르고 다방은 늘 비어 있었다 . . . 다방은 소년에게 맡기고 차가 팔리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었다. 손님이 어쩌다가 들어와서 커피를 찾으려면, 소년은 두 손을 비비면서 황송해서 ...(중략)<sup>172)</sup>

그러나 주인은 없었다. 구보가 다시 문으로 향하여 나오면서, 왜 자기는 그와 미리 맞추어 두지 않았던가, 뉘우칠 때, 아이가 생각난 듯이 말했다. 참, 곧 돌아오신다구요, 누구 오시거든 기다리시라구요.<sup>173)</sup>

171) 조용만, 전계서, pp.58-62

172) 상계서, p.60

173)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p.197

사랑방 역할을 한 다방은 전화가 귀했던 당시 급사 등을 통해 전언을 남기거나 전해들을 수 있는 연락장소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제비다방 근처에 있었던 다방 ‘멕시코’도 이상과 비슷한 취지로 1933년 다방을 열었다.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외상을 잘 쥐서 적자를 보면서까지 ‘살롱문화’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멕시코’는 종로에서 몇 안되는 다방이었고 밤 늦게까지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낙랑파라’와 함께 예술인들의 중심아지트 역할을 해왔다.

이태준의 단편소설 「애욕의 금렵구」(1935)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완호는 가까이 있는 찻집 ‘멕시코’로 나와서 새로 끓인 진한 커피를 두어 잔 거푸 마시면서 세레나데 레코드 소리에 묵묵히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다.

“요! 심군 아냐? 허! 이런 수도 있더람.....”

“난.....누구라구. 역시 이런 델 와야 시인 방군을 만나겠군 그래.”

... 완호는 돌아오는 길에 낮에 방협을 만났던 ‘멕시코’로 들어갔다. ‘방군이나 만났으면!’ 했는데 방군은 있지 않았다. 완호는 차 나르는 아이를 붙들고 물었다.

“여기 아까 낮에 왔던 방협 씨라고 너 짐작하겠니?”

“네, 여기 밤낮 오시는 손님인덱쇼.”

“오늘밤에두 그럼 오실까?”

“글쎄요. 그분은 여기 없으면 저 낙랑이라구 부청 앞에 있습쇼. 거기 있다구 늘 친구들과 약조하시더군요.”

완호는 곧 일어나 ‘낙랑’으로 갔다. 그러나 거기도 방협의 풍경은 보이지 않았다. 들어선 길이라 차를 주문하고 피준 한 개를 거의 다 태울 때인데 아닌게 아니라 낮에 ‘멕시코’에서와 같이 터부룩한 맨머리에 단추 떨어진 외투를 걸친 보헤미안 넥타이의 주인공이 나타났다.<sup>174)</sup> [밑줄 연구자]

소설 속 주인공 완호가 다방 ‘멕시코’에서 우연히 만난 방협은 밤낮 그곳에 드나든다는 ‘시인’이다. 완호가 “역시 이런 델 와야 시인 방군을 만나겠”다는 대사에서 다방 멕시코는 많은 문인들이 주 이용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방의 급사아이가 ‘멕시코’ 아니면 ‘낙랑’에 방협이 있다고 알 정도로 당시 이 두 다방은 대표적 아지트였고, 행동반경은 좁았다. 약속도 하지 않고 ‘낙랑’으로 무작정 간 완호가 담배 한 대를 다 태우기도 전에 또 다시 ‘우연히’ 방협을 마주칠 정도로 당시 문화 예술가들이 갈만한 곳은 한정되어 있었다.

174) 이태준, “애욕의 금렵구” (1935), 『이태준 단편전집』, (서울: 가람기획, 2005), pp.394-9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처럼 자전적소설 성격의 이태준의 단편소설 「장마」(1936)에서도 ‘나’는 아는 이가 한명 쯤은 있을거라는 기대를 품고 낙랑파라에 들른다.

아직 열 한점 그러나 낙랑이나 명치제과 쯤 가면 사무적 소속을 가지지 않은 이상(李箱)이나 구보(仇甫) 같은 이는 혹 나보다 더 무성한 수염으로 커피잔을 앞에 놓고 무료히 앉았을런지 모른다. 그러다가 내가 들어서면 마치 나를 기다려 나하고 있었던 것처럼 반가히 맞아줄런지도 모른다. 그리고 요즘 자기들이 읽은 작품중에서 어느 하나를 나에게 읽기를 권하는 것을 비롯하여 나의 곱팡이 쓴 창작욕을 자극해주는 이야기까지 해줄런지도 모른다. . . . 그러나 문만 밀고 들어서면 누구나 한사람 쯤은 아는 얼굴이 앉았다. 가반가히 눈짓을 해줄 것만 같다. 긴장해 들어서서는 앉 아있는 사람부터 둘러보았다. 그러나 원체 손님도 적거니와 모두 나를 쳐다보고는 이내 시치미를 따고 돌려버리는 얼굴 뿐이다. 들어가 구석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앉는다. 불쾌하다. 내가 들어설 때 쳐다보던 사람들은 모두 낙랑때가 묻은 사람들이다. 인사는 서로 하지 않아도 낙랑에 오면 흔히 만나는 얼굴들이다..<sup>175)</sup> [밑줄 연구자]

오전 11시 밖에 되지 않았지만 ‘낙랑파라’에 이상이나 구보가 앉아있고, 그리고 자신이 다방에 들어서면 그들이 반가이 맞아주기를 바라는 이태준의 기대심리는 그저 상상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으레 있었던 일들을 예상하는 행동으로 이상과 구보가 평상시에도 얼마나 자주 ‘낙랑파라’에서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케 한다. 실제로 박태원은 첫째 딸 ‘설영’이 태어나던 날에도 아내가 있는 병원이 아닌 낙랑파라에서 이상과 함께 차를 마시며 소식을 기다릴 정도로 낙랑파라는 집보다 마음의 안정을 주는 곳이기도 했다.

더구나 설영이 경우에 있어서 나는 내가 이미 한 생명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다방 ‘낙랑’에서 이상(李箱)이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기가 ‘낙랑’으로 가기 전에 들린 조선일보사 학예부에서 전화를 빌어 집에다 병원에서 무슨 기별이나 없었느냐고 물어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가 오후 네시 십분—. 아직 아무 소식이 없다고 알고 나는 다방으로 갔던 것이나 . . .<sup>176)</sup>

한편, 인사조차 나뉘본 적 없으면서 낙랑파라에만 오면 보이는 얼굴들을 ‘낙랑 때’가 묻어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자주 오는 사람들을 알아볼 정도로 이태준 역시

175) 이태준, “장마”, 『조광』, 1936년 10월, pp.315, 321-2

176) 박태원, “결혼 5년”, 『여성』, 1939년 12월

낙랑파라 단골 손님이었다.

이태준이 기술했듯 이들은 낙랑파라에서 모이면 서로의 작품에 대해 토론을 하며 창작욕을 키우곤 했다.

많은 문인, 예술가들의 중심 아지트였던 낙랑파라는 많은 이들에게 기억을 재생시켜주는 추억과 회상의 장소이기도 했다.

김기림은 이상(李箱)이 일본에서 요절한 후 수필 「故이상의 추억」(1937)에서 “다방 N, 등의자에 기대 앉아 흐릿한 담배연기 저편에 만나마 취해서 몽롱한 상(箱)의 얼굴에서 나는 언제나 ‘현대의 비극’을 느끼고 소름쳤다”<sup>177)</sup>고 낙랑파라에 앉아있던 이상을 떠올렸고, 한국근대시와 민요·동요의 일본어 번역으로 유명한 김소운(1907~81)은 이상(李箱)을 알게 된 곳이 낙랑파라였다고 『하늘 끝에 살아도』(1977)에서 회고했다.

김소운은 그 후 다방 ‘낙랑’에서 매일같이 이상이나 그의 친구들 즉 구본웅, 변동욱, 박태원 등을 만나게 되었고 급속도로 친해졌음을 적고 있다. ‘낙랑’ 주인인 이순석을 포함해서 거기에 모이는 젊은 문학과 미술가들은 다 친구 사이였으며 다방 ‘낙랑’은 그들의 모임장소였다.<sup>178)</sup>

박태원 역시 요절한 소설가 김유정을 떠올릴 때 낙랑파라를 빼놓지 않았다.

우리는 한동안 곧잘 낙랑에서 차를 같이 먹었다. 그리고 세 시간씩, 네 시간씩 잡담을 하였다. 그는 분명히 다섯 시간씩, 여섯 시간씩이라도 그곳에 있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내게 말한다.

“박형, 그만 나가실까요?”

그래 나와서 광교에까지 이르면

“그럼 인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또 뵙죠”

그리고 그는 종로쪽으로 향하는 것이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는 얼마를 망설거리다가 다시 한바퀴를 휘돌아 낙랑을 찾는 것이었다.<sup>179)</sup>

이렇게 다방 ‘낙랑’은 문화 예술인들에게 주로 토론과 교류의 장, 사랑방 역할

---

177) 김기림, “故이상의 추억”, 『조광』, 1937년 6월

178)가와무라 미나토, 요시카와 나기(역), 『한양·경성·서울을 걷다』, (인천: 다인아트, 2004), p.85

179) 박태원, “유정과 나”, 『조광』, 1937년 5월



등을 하였지만 「피로」(1933),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34)에서 나타나듯 문인들이 사색하며 원고를 쓰는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이후 본래 살롱문화를 지향했던 다방들의 성격은 점차 퇴색되며 ‘카페화’가 되어갔고, 다방만이 지니고 있었던 특징들을 잃어갔다.

1939년에 쓰인 채만식의 「다방찬」에서 그러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요새날 다방에서 원고를 쓰자면 웬만한 강심한(強心漢)이 아니고는 못할 것이겠지만, 적이나 서울에도 한 곳쯤 원고쓰는 사람이 전문으로 이용할 수 있게 풍도가 꽤 다방이 생겼으면 한다.. . . 장곡천정에 모 다방이 한때는 문단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구보씨는 거기서 원고도 쓰고 했던 모양인데, 요즘 주인이 갈리고 나서는 그렇지도 않은 성부르다.<sup>180)</sup>

## 2) 엔젤카페

1932년이 되면 ‘카페에 한번이라도 가보지 않은 남성은 없을 정도’로 카페는 경성인의 일상 속에 자리를 잡는다. ‘밝고 가벼운 느낌’으로 울리며 ‘유혹적이기도 한 것 같은 기분 좋은 음’이 카페라는 단어에서 흘러나온다는 한 필자의 표현처럼 카페는 세련된 신문명의 이미지와 여급들에 의한 밝고 가벼운 〈에로〉를 제공하여 인기를 끌었다. 〈카페〉 부문에 관한 방대한 기사들은 당시의 이런 카페문화가 소비사회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그 수요층은 남성이고 소비된 것은 음식과 주류뿐 아니라 여성의 신체성이었음을 드러낸다. 경제 및 정치기사가 많이 다루어진 월간지에서 공공연히 카페와 요정의 밤문화나 여급들의 평판을 다룬 기사가 다수 실리고, 많은 경우 연재형식으로 게재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장소들이 당시의 문화적 이슈의 중심무대였으며 그러한 사적유흥에 관한 관심이 공적담론으로 당당히 등장하기 시작한 시대상을 나타내고 있다.<sup>181)</sup>

“조선인 에로거리의 뭐니뭐니 해도 종로를 중심으로 한 일대”<sup>182)</sup>라고 할만큼

180) 채만식, “다방찬”, 『조광』, 1939년 7월

181) 채숙향, 이선운, 신주혜(편역), 『조선 속 일본인의 에로경성 조감도』, (서울: 문, 2012), p.116

182) 본지 기자, “수도 경성의 에로거리 풍경”, 『조선 및 만주』, 1934년 4월, 채숙향, 이선운, 신주혜(편역), 『조선 속 일본인의 에로경성 조감도』, (서울: 문, 2012), p.99에서 재인용

밤이 되면 종로는 조선인들을 위한 퇴폐와 환락의 거리가 되었다. 퇴폐와 환락의 전당으로 대표되었던 카페는 일본인들의 거점지 본정에 그 수가 더 많았지만 당시 카페를 특집으로 다룬 대중매체 기사나 카페가 배경으로 나오는 문학작품 속에는 대부분 조선인들의 거점지인 종로의 카페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36년을 기준으로 종로에는 약 15여개의 카페<sup>183)</sup>와 약 300여 명의 카페 여급<sup>184)</sup>이 있었는데 한 카페 당 보통 20여 명의 여급이 일을 하고 있었고 낙원회관 같이 규모가 큰 곳은 50여 명 이상의 여급이 손님을 맞았다.

본고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오는 종로의 카페 ‘엔젤’ 만으로는 카페가 지니고 있었던 다양한 장소적 특징을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당시 종로에 있었던 다른 카페들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 <표 3-10>은 연구자가 찾은 문학작품 속의 종로에 있었던 카페이다.

[표 3-10] 1930년대 문학작품 속의 엔젤카페 및 카페

장르	작가	작품명	시간	공간	인간
소설	방인근	마도의 향불	*1932년 성탄절	낙원카페	운향,이달
			*1933년 5월	카페 킨	운향,이달
소설	채만식	인형의 집을 나와서	1933년	카페 사탄	학생들,여급
소설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34년 8월 1일	엔젤카페	구보,이상,여급들
소설	박태원	천변풍경	1936년	카페 평화	-
소설	김소엽	서울	*1936년 8월	-	카페 여급
소설	박태원	골목안	1939년	카페	카페 여급

종로 2정목에 위치한 엔젤(エンゼル)카페는 조선인들의 거주지역, 북촌의 대표적인 카페였다. 앞의 ‘낙랑파라’, ‘제비다방’과 달리 일본인이 경영하는 카페였는데 특히 동일은행 점장 민대식의 일본 며느리가 경영<sup>185)</sup>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지만 상류계층이 카페를 높게 평가했다는 일면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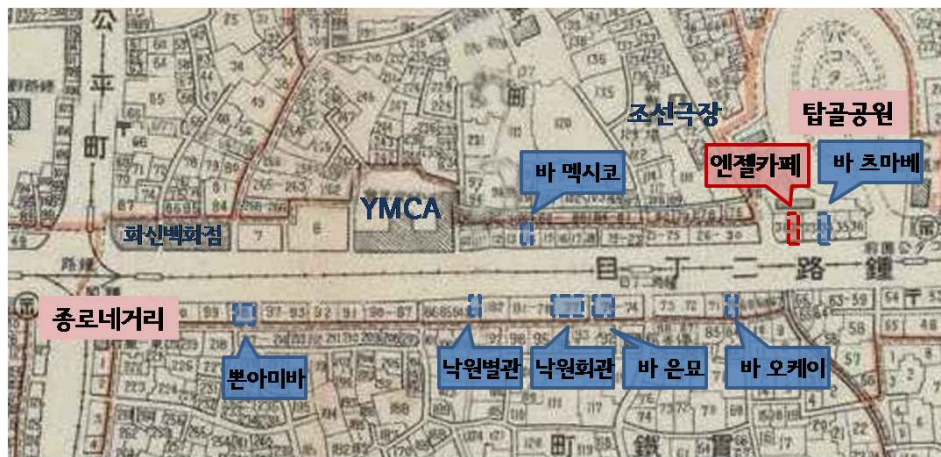
183) 본지 기자, “수도 경성의 예로거리 풍경”, 『조선 및 만주』, 1934년 4월, 채숙향, 이선운, 신주혜(편역), 『조선 속 일본인의 예로경성 조감도』, (서울: 문, 2012), p.99에서 재인용

184) 矢野干城・森川清人, 『新版大京城案内』, 1936, p.188, 김백영, 『지배와공간』, p.514에서 재인용

185) “만화경”, 『별건곤』, 1932년 11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34)에서는 구보가 이상이 ‘낙원정의 어느 카페’로 향한다. 이 때, ‘낙원정의 어느 카페’란 탑골공원 앞에 있던 ‘엔젤카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으로는 탑골공원 앞 종로 대로변(종로 2정목 32번지)에 위치했으나 배후의 동이름을 따서 ‘낙원동 엔젤카페’라고 불렀다.<sup>186)</sup>

<그림 3-62>는 1930년대 중반 종로 2가에 있던 주소가 확인된 카페들이다. 일본인들 지역 남촌에 비해서는 적은 수이나 조선인들 지역 북촌에서는 종로 2가의 카페 수가 종로 1,3,4가에 비해 비교적 많은 카페 밀집 지역이었고 구보와 이상이 찾은 ‘엔젤카페’도 그 중 하나였다.



[그림 3-62] 엔젤카페 입지

엔젤카페는 3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1층과 2층은 홀(Hall)이었고 3층은 약 15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연회장의 설비를 갖춘 곳이었다. 엔젤카페 뿐만 아니라 당시 카페의 건물은 보통 2,3층이었는데, 그것은 <표 3-11>에서 알 수 있듯이 1930년대 건축물에 비하면 높은 건물이었다.

[표 3-11] 1930년 경성부 건축물 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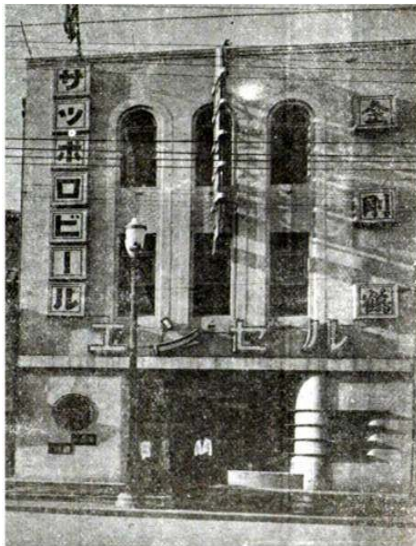
단층	2층	3층	4층	5층	합계
36,944	4,752	103	18	1	41,809

출처:서울건축사(1999), pp.592-9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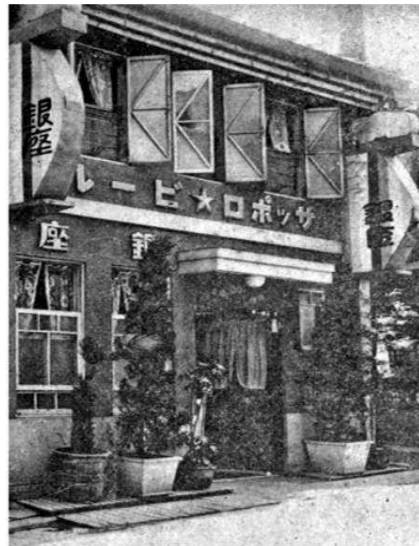
186) 조이담, 전게서, p.254

## ■ 카페 입면이 표상하는 근대 이미지

건축의장적인 면에도 카페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새로운 스타일을 정립하였는데, 카페는 입면자체가 ‘광고이자 포스터’였기 때문에 매우 의장적인 모습을 띄었다.<sup>187)</sup> 또한 간판 역시 외형적 특징 중 하나인데, 당시 ‘모던한’ 풍조는 간판이라는 물리적 실체를 통해 거리의 이미지로 전환되었는데, 간판은 식민지적, 현대적, 도시성을 구체적인 체험의 대상으로 외화시키는 매개체였다.<sup>188)</sup> 간판의 글자는 주로 한자였지만, 가타카나와 영어도 상당 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당시 경성의 가로에서 이국적인 느낌을 주었는데, <그림 3-63> ‘엔젤카페’의 입면과 <그림 3-64> 카페 ‘긴자’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새벽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외관에 건 네온사인은 야간광고매체로서 소비자를 점포내에 들어오게끔 유도하는 장치이자 1930년대 경성의 밤거리에 있어서 새로운 가로경관을 만들어주는 요소이기도 하였다.



[그림 3-63] 엔젤카페 1(대경성사진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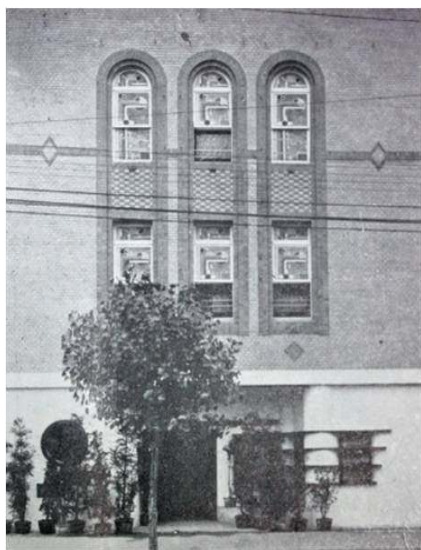


[그림 3-64] 본정카페 긴자(대경성사진첩)

또 다른 특징은 ‘창문의 크기’이다. <그림 3-65> ‘엔젤카페’의 외관과 <그림 3-66> 카페 ‘왕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창문은 장식적인 요소로만 기능하여 개방적인 다방(깍다점)에 비해 ‘폐쇄적인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급의 존재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87) 여환진, 전게서, p.145

188) 허영란, 류준범, 김제정, “한국 근현대사 속의 거리광고물과 가로경관”, 『서울 20세기 생활문화 변천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그림 3-65] 엔젤카페 2(대경성사진첩)



[그림 3-66] 관철정카페 왕관(대경성사진첩)

이러한 카페외관의 특징들을 박태원은 『천변풍경』(1936)에서 청계천변 다옥정에 있었던 카페 ‘평화’의 외관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밤이 완전히 이르기 전, 이 ‘평화’라는 옥호를 가진 카페의 외관은 대부분의 카페가 그러하듯이, 보기에 언짢고, 또 불결하였다. 그나마 안에서 내비치는 전등불이 없을 때, 그 붉고 푸른 유리창은 더구나 속되었고, 창밖 좁은 터전에는, 명색만으로 웅색하게 옮겨다 심은 두어 그루 침엽송은, 게으르게 먼지와 티끌을 그 위에 가졌다.<sup>189)</sup>

박태원이 언급하고 있는 ‘침엽송’은 실제로 거리에 옮겨심은 가로수가 아니라 <그림 3-63,64,65,66>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듯이 화분으로 보여지며, 카페 또한 다방처럼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 화분을 문 입구에 배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다방의 그것보다 더 화려하고 근대적이었던 카페의 외관은 그 장소적 특징 때문에 보는 이에 따라서 이국적이고 근대적인 가로경관요소가 아니라 ‘보기에 언짢고 또 불결’한 것이기도 하였다. 카페는 당시 경성의 도시인들에게 어떤 장소로 인식되었는지 살펴보자.

189) 박태원, 『천변풍경』, p.42

## ■ 밤의 근대 유흥공간

다음은 구보와 이상이 ‘엔젤카페’에 갔을 때의 이야기이다.

여급이 세 명, 그리고 다음에 두 명, 그들의 탁자로 왔다 . . . “어서 맥주 드세요.” 이 탁자를 맡은 계집이, 특히 벗에게 권하였다. 사실, 맥주를 세 병째 가져오도록 벗이 마신 술은 모두 한 곱뿌나 그밖에 안되었던 것임에 틀림없었다.<sup>190)</sup>

구보가 집에 가기 전 새벽 두시까지 있는 마지막 장소는 ‘카페’이다. 1930년대 경성의 밤의 유흥문화가 발달했다는 점과 카페가 그 유흥문화의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카페는 구보가 낮에 들른 다방 두 곳과 다른 점이 눈에 띄는데 그것은 ‘여급’과 ‘맥주’이다. 당시 카페에서는 양주와 샷쵸르, 아사히 맥주 등이 잘 팔렸고 칸막이 사이로 의자와 테이블이 있었다. 또한 기모노복장과 양장을 한 여급들이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하었는데, 홀에는 가요와 재즈음악이 흘러나왔다.<sup>191)</sup>

당시 ‘판스 홀’은 경성의 금지품목으로써 카페에서 춤추는 것을 규제하였으나 공공연하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판스’가 성행했던 카페의 풍경을 방인근의 『마도의 향불』(1933)에 나오는 ‘카페낙원’에서 살펴보자.

그들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후끈 더워지면서 거기에는 노래물결이 요란히 일렁거렸다 . . . 이층에는 아래층의 몇 갑절 크고도 더 북적거렸다. 정면 무대 위에는 벽돌집을 만들었는데 지붕에는 솜으로 만든 눈이 하얗게 덮히고 조그만 뜰에는 잣나무가 여기저기 섰는데 역시 눈이 소복소복 고였다. 그 옆에는 수염이 허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붉은 옷에 흰 모자를 쓰고 . . . 그리고 무대 아래는 굉장히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고 거기에는 별, 달, 해, 장난감, 인형, 십자가, 종, 은실, 금실, 색실을 찬란하게 달아놓았다. 그리고 무대 앞에는 각국 나라 사람으로 가장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악기를 들고 앉았다. 이 사람들은 전부가 조선사람인데 오늘 저녁을 위해 임시로 조직한 악대들이다. 카페에 크리스마스 장식도 괴상하거니와 거기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는 것도 괴상한 일이다 . . . 일반 손님에게도 종이로 만든 눈 가리는 것, 모자, 여러 가지를 갖다주었다. 악대는 판스곡을 알외었다. 손님들은 남녀가 짝을

190)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p.214

191) 우정권, 전계서, p.345 참조



지어 춤을 추었다.<sup>192)</sup> [밑줄 연구자]



[그림 3-67] 오늘날의 클럽에서  
주최한 가면무도회

소설 속 배경시간은 크리스마스 밤으로, 카페에서 종이로 만든 눈 가리는 것, 모자 등을 손님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보아 가면무도회가 열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소설 속 등장인물들인 달과 운향, 즉 남녀가 함께 카페에 출입했다는 점에서 에로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급이 있는 카페라도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민 카페 내부의 풍경은 오늘날 크리스마스 시즌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주목할 점은 소설 속 묘사된 카페의 크리스마스 밤의 파티 풍경 역시 오늘날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이

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장소’ 다. 크리스마스 밤, 임의로 조직된 악대가 연주를 하고 가면을 쓴 남녀들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광경을 연출하는 1930년대의 카페는 오늘날 젊은 층들의 밤의 유흥공간인 ‘클럽’ 과 매우 비슷하다.

다음은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1933)에서의 탐골공원 옆 카페 ‘사탄’의 밤의 모습이다.

탐골공원 옆 카페 ‘사탄’에 새 손님 한패가 들어왔다. 세 사람인데 모두 얼큰하게 취했다-느니 보다 취한 체를 한다. 한 사람은 전문학교 교복에 비 맞아 오글오글해진 파나마를 비투로 썼고, 한 사람은 저고리가 없이 맥고모자만 들어엮었고, 또 한 사람은 시간이 밤 열한 시가 아니면 학교에 가는 길로 여길만큼 교복 정모에 책가방까지 손에 든 전문학교 학생이다. 문 안에 척척 들어서면 요란한 소프라노의 환영소리와 아울러 여급이 사오인이나 세 사람의 손님을 포위한다.

“아라, 김 상. 시바라꾸네.(어라, 김 주사, 오랜만이서요)”

192) 방인근, “마도의 향불(42)”, 『동아일보』, 1933년 1월 6일

물려든 여급 가운데 파르스름한 양장을 한 여급이 파나마 쓴 전문학교 학생을 보고 친숙한 말씨로 인사를 한다.<sup>193)</sup>

밤 열 한시에 카페를 찾아온 이들은 교복까지 갖춰입은 전문학교 학생들로서 그들을 맞이하는 여급들 중 한 명이 친숙하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학생들도 카페를 즐겨 찾아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카페 출입은 당연히 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었으며 이른바 불량학생들의 탈선행위를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동아일보』에서는 카페를 출입하는 학생들에 대한 기사를 여러 번 실었으며 1939년 12월 9일의 기사 「탈선했던 학생풍기, 정복정모(正服正帽)로 환락가 출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정복정모로써 학생의 신분으로서는 금단의 구역인 카페, 빠 등에 기탄없이 출입을 하는 불량분자가 격증” 하고 있어 단속을 한다고 했듯이 학생들의 카페출입은 큰 사회적 문제였다. 특히 정복정모 차림으로 카페에 출입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 ■ 퇴폐와 환락의 전당

카페는 다방이나 요리집과 달리 퇴폐성으로 인해 1920년대 말부터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결국 1931년 당국은 11가지의 카페 단속 규칙<sup>194)</sup>을 제시하게 된다. 조항 대부분이 에로틱하고 퇴폐적인 카페의 분위기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5가지가 카페 내·외부에 대한 항목이고 나머지 6가지가 여급에 대한 항목이었다. 과반수가 여급에 대한 규제인 것처럼 여급으로 인한 카페의 퇴폐성은 컸다.

여급이 제공하는 에로서비스를 통해 카페는 식민지 당대 도시남성의 새로운 기호와 성적 욕망을 채워주는 ‘환락의 전당’으로 기능하였지만, 이때 카페 안의 욕망이나 환락이라는 용어 역시 돈을 통한 성욕의 충족 욕구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구보 박태원과 이상이 ‘2차’를 위해 카페에 갔듯이 당대 카페는 지식인 문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남성들이 젊은 여급들을 대상으로 자유연애를 즐기는 ‘청춘의 위안지’로 기능하기도 하였다.<sup>195)</sup> 그러나 돈만 주면 여급들의 성(性)을

193) 채만식, 『인형의 집을 나와서』, pp.218-9

194) 고마츠, “카페業者と其取締”, 『경무회보』, (조선경찰협회, 1931)

195) S. S 生(1932), p.60, 장영순(1933), “내가 여급으로 되기까지~”, 『신여성』, 3월, p.80-5, 상계서, p.38에서 재인용한 것을 참고



쉽게 살 수 있었던 카페는 사회적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투쟁을 잊고 이런 카페에 은신하여 에로를 찾는 그들의 생활은 그 얼마나 퇴폐적이며 환락적이며 도피적이며 환멸적인가? 조선사회의 장래를 두 어깨에 짊어진 조선의 젊은이들이 현실의 모든 것을 도피하려는 듯이 카페의 푸른 등 아래에서 화이트 리스의 웃음에 빠져 귀한 시간을 낭비하며 아까운 돈을 뿌리고 있고 그들의 의식이 혼돈되어감이 이미 한심한 현상인데 . . .<sup>196)</sup> [밑줄 연구자]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카페가 지니고 있었던 문화적 성격은 퇴폐적·환락적·도피적·환멸적이었다. 식민지 조선청년들이 카페로 도피하여 현실을 외면한다고 비난하듯이 방인근은 『마도의 향불』(1933)에서 카페 ‘낙원’을 찾는 사람들을 ‘아편중독자’라고 비유하였다.

월급 받은 것, 노동한 것, 학비, 장사한 것, 땅 팔은 것, 이 모든 돈을 이 카페라는 커다란 병어리 궤에 집어넣으며 거기에서 웃고 노래하는 어여쁜 악마들에게 그 돈 값으로 정신의 마취주사를 맞고 나오는 것이다. 그 주사를 맞고 나온 청년들은 그 이튿날 회사에 가서는 졸고 일터에 가서는 비틀거리고 상점에서는 주판질을 헛하고 학생을 책상 밑으로 끌고 앉았다. 그러나 그 주사가 저녁 때가 되면 풀려서 다시 전당을 잡히고 주인을 속이고 부모를 달래어 카페로 달음질치니 이는 곧 아편중독자와 같은 것이다.<sup>197)</sup>

방인근은 카페를 아주 퇴폐적인 장소로 묘사하고 있다. 접대하는 여급들은 ‘어여쁜 악마들’이고, 그 여급들에게 접대받은 남자들은 ‘마취주사를 맞고 나오는 아편중독자들’이다. 밤마다 카페를 찾아와 환락을 즐기는 청년들은 낮에는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즉, 그들은 ‘생산’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소비’만 할 뿐이다. 특히 식민지 조선의 소비자들에게는 그러한 환락과 욕망의 대가를 지불할 능력은 낮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소비란 늘 자신의 지불가능한 능력을 넘어 ‘과잉소비’를 하고 마는 것이다. 그 결과 ‘다시 전당을 잡히’거나 ‘월급 받은 것, 노동한 것, 학비, 장사한 것, 땅 팔은 것’ 등을 탕진해버리는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다.

196) 「실생활」, 1932년 7월, 장유정, 전제서, p.36-7에서 재인용

197) 방인근, “마도의 향불(42)”, 『동아일보』, 1933년 1월 6일

## ■ 조선여성들의 희망과 설움이 뒤섞인 장소

박태원은 많은 문학작품에서 카페여급의 애환이 담긴 삶을 다루었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언니와 동생이 차례로 카페여급이 되는 내용인 「성탄제」이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도 엔젤카페에 간 구보가 문득 광고 모퉁이 카페 앞에서 마주쳤던 마흔이 넘었을 한 여인을 회상한다. 카페 창에 “女給大募集 여급대모집”이라고 쓰여진 종이를 가리키며 무엇을 모집하는 거냐고 구보에게 물어본 여인은 ‘여급’이라는 말에 “혐오”와 “절망”을 얼굴에 나타낸다. 구보는 그 여인을 떠올리며 엔젤카페 안의 여급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좀더 불행하고, 누구의 삶이 좀더 괴로운지 생각한다. 한글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여인조차 경멸할만큼 여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좋지 않았다.

‘딸이 아들 외딴치게 돈을 곤잘 벌어들인다’는 말에, 그의 얼굴은 쉽사리 붉어지고, 또한 마음은 비감하였던 까닭이다. 늙은 내외가 막내아들 학교까지 보내며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카페 여급으로 다니는 큰딸 정이의 덕이다.<sup>198)</sup>

그러나 1930년대의 경성은 직업을 얻지 못한 조선의 인텔리 청년들이 넘쳐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았다. 돈을 벌지 못하는 남편, 아버지 대신 아내와 딸은 직접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으나 식민지 조선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신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여성들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에로서비스를 해야하는 카페의 ‘여급’ 자리였고 적지 않은 액수의 팁은 웬만한 다른 직업의 월급보다 높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여급생활로 뛰어들었다.

<표 3-12>에서 알 수 있듯이 1936년 경성에는 카페여급 수만 천 명에 달하게 되었고 여급이 존재하는 카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근대 유흥공간이 되었다. 이렇듯 카페여급은 표면적으로는 인기있는 직종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조선 여성들이 말 못할 사연을 담고 활동하는 곳이 밤에 가장 화려한 근대공간인 카페였다.

---

198) 박태원, “골목 안” (1939), 『박태원 단편선』, (서울: 글누림, 2008), p.411

[표 3-12] 1936년 경성부 내 각 지역별 업소의 여급 수

종류	카페		바		음식점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본정	531	11	4	6	24	29
종로	122	162	2	2	10	135
동대문	8	14	—	—	3	411
서대문	12	84	—	—	12	416
용산	46	15	—	—	42	296
합계	719	286	6	8	91	1,287

출처: 『新版大京城案内』, 1936, p.188, 김백영, 『지배와공간』, p.514에서 재인용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1933)에서는 여주인공 ‘노라’를 통해 어떻게 조선여성들이 카페여급이 되고, 그 여급생활은 어떠한지를 잘 보여준다.

남편과 가정을 박차고 나와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며 푼돈을 꾸준히 모아 삼년만에 사천 원을 만드는데 꿈이었던 노라는 우연히 만난 카페여급에게서 여급자리를 제안받게 된다.

카페라는 것이 남자들의 환락경이요, 그곳에 있는 웨이트레스들이 타락된 여자들이라는 것을 노라는 막연하게 있을 따름이었었다. 마치 그것은 노라에게 판 세상과 같이 인연이 멀었다. 따라서 그곳이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보거나 알아볼 일도 없었던 것이다.

“월급은 주나요?”

“아니요. 손님이 깃뿌를 주어요……잘 하면 하루밤에도 몇 십원씩 생기는 때가 있는데요. 그런건 예외라구 허더라두 인물만 좋구 서비스가 우바이 해서 인기만 있으면 하룻밤에 평균 십 원은 돼요. 세월이 좋으면 이십 원 평균은 되는 걸……”

이 말에는 노라도 구미가 당기었다.

“들어가자면 시험을 보나요?”

“시험이 다 무어유? 그저 아무라두 되는데.”

“가서 하기는 무얼 하나요?”

“손님하구 이야기 허구, 술 따러 주구 그것뿐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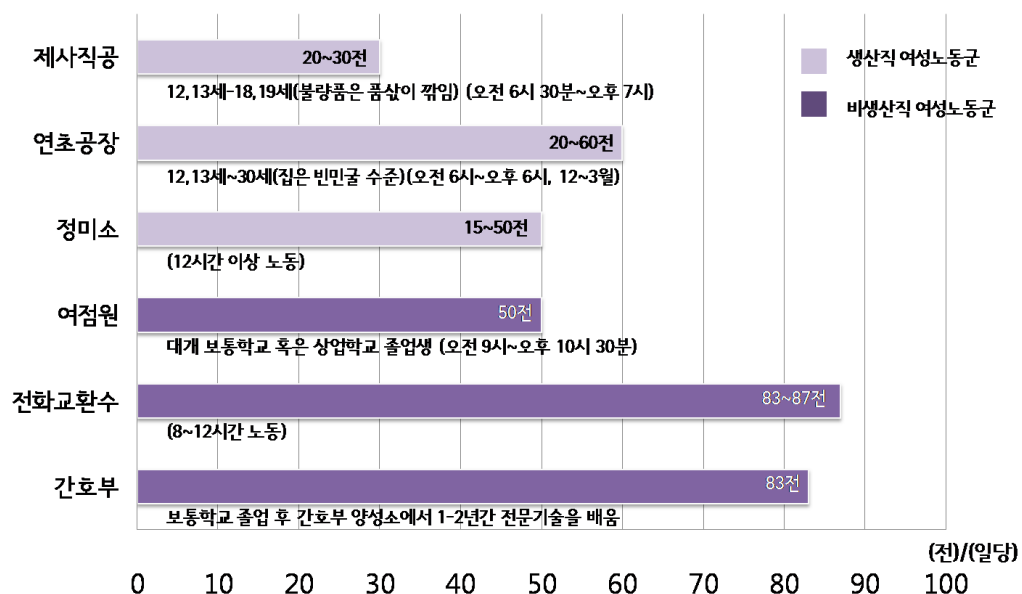
그것쯤이면 아무 것도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타락여부가 없을 것이다. 세상에 그렇게 좋은 별이가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카페가 나쁘고 여급이 나쁘다고 하는가? 199) [밑줄 연구자]

199) 채만식, 『인형의 집을 나와서』, pp.216-7

돈을 벌기 위해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는 노라는 힘든 벌이에도 카페여급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여급이 된다는건 상상조차 해본적이 없었지만 우연히 만난 카페여급의 ‘괜찮은 벌이’ 유혹에 넘어간다.

마땅한 기술도 없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는데다가 스물 여섯이라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백화점 여점원은 지원조차 못해본 노라에게 하루에 평균 십 원, 많게는 이 십원도 벌 수 있는데다가 시험도 없이 당장 할 수 있다는 카페여급은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자리였을 것이다. 이것은 소설 속 노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식민지 조선여성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그림 3-68>은 소설이 쓰인 같은 해인 1933년 여성 노동군의 일당과 근무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하루에 가장 많이 받는 직업이 전화교환수와 간호부인데 두 직업 모두 1원을 넘게 받진 못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팁 만으로 하루에 평균 십원은 벌 수 있다는 카페여급은 많은 조선여성들을 카페로 끌어들였다.



[그림 3-68] 1933년 여성노동군의 일당과 근무시간  
(매체론 본 근대여성 풍속사, 한겨레신문사, 2005, p.265,  
moderncafe.culturecontent.com에서 재인용)

그러나 카페여급의 생활은 생각처럼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직업은 결코 아니었다. 소설 속 노라처럼 많은 조선여성들이 카페여급으로 뛰어들면서 여급들끼리 경쟁이 생겼고 대부분 월급제가 아닌 팁만으로 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벌이는 불안정했다. 또한 다른 여급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치장하는데 돈을 써야했던 이들은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지면서 상황은 더욱 더 악화되었다.

카페여급이 된 소설 속 노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카페 지배인이 소개시켜준 사채업자에게서 삼십 원을 빌린 바로 그날 백화점에서 옷감과 화장품, 구두 등으로 하루만에 모두 다 씌으로써 순식간에 빚쟁이로 전락하고 만다. 또한 ‘하루 평균 십 원’이라는 허황된 꿈 역시 곧 깨지고 만다.

닷새, 열흘, 그리고 한달 되었다. 수입은 에미꼬가 십 원 어찌고 품치던 것은 꿈 이야기요, 매일 사오 원씩 되던 것도 처음 며칠 뿐이지 그 뒤로는 하루에 이 원이 들 어오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삼년 동안에 사천 원을 잡겠다는 꿈도 화장품 장사로 이천 원을 모으겠단 꿈과 한가지로 깨어지고 말았다 . . . 그들의 대부분은 남자가 있다. 맞아들이고 배움함이 무상하기는 하나 그래도 팁의 수입 이외에 남자에게서 들어오는 부수입이 있다. 에미꼬나 그 밖에 가까워진 동무들은 노라더러 최 주사나 이 주사를 맞으라고 권고를 한다 . . .<sup>200)</sup> [밀줄 연구자]

노라는 비록 하루에 십 원까진 아니더라도 못해도 하루에 이 원씩 벌어 한달 동안 육십 원을 벌었지만 오히려 빚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매일 육십 전의 일수 찍은 것 십팔 원과 밥값 십오 원을 주었고, 새로이 옷 두벌과 구두 한 켤레를 또 산 것까지 합하면 칠십 원이나 된다. 그 초과되는 이십 원은 갈 데없이 빚으로 처졌다”<sup>201)</sup>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타락만은 하지 않겠다’는 노라는 자신의 소신을 점차 꺾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은 당시 카페에서 일어나는 매우 일반적인 일이었다.

일류카페에서는 잇(it: 여성의 성적매력)을 발산하는 대가로 한달에 80~90원 정도를 번다. 그러나 실크 옷이라도 하나 사면 돈을 몽땅 날리게 된다. 때문에 항상 주인에게 빚이 있다. 주인은 여급이 어떤가에 따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빚이 늘어나기를 빌며 그 빚을 이유로 여급을 잡아두는 것이다.<sup>202)</sup>

200) 채만식, 『인형의 집을 나와서』, p.238

201) 상계서, p.239

또한 소설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급들 대부분은 카페에서 받는 주수입인 팁 외에 따로 남자가 주는 부수입이 있어야만 생활이 되었다. 카페는 자유연애를 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카페를 찾아와 여급들과 연애를 하는 댓가로 돈을 지불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여급들은 남자들의 자유연애 제안을 거절하기란 어려웠다.

주지하다시피 땃땃하지 못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카페여급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온갖 수모와 경멸을 받기도 했지만 인기 많은 여급은 그 대우가 달랐고, 당시 여자 영화 배우들도 카페여급이 되어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잡지에는 「카페여급 언파레드」<sup>203)</sup>, 「카페여급 일기 김정자」<sup>204)</sup>, 「인테리 여급 애사」<sup>205)</sup> 등의 제목으로 여배우나 인기 많은 여급이 있는 카페는 상세히 소개 되었다. 그러나 그녀들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대부분 돈과 관련된 사연 때문에 카페여급이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영화배우들(김명순, 김보신, 김정숙, 조경희)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음은 김정숙의 인터뷰 중 일부분이다.

왜 웨트레스가 되었느냐고요? 생각해 보시면 알 일이 아닙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못사나이들을 상대로하고 아양 떨어가며 술을 권하며 웃기 싫은 웃음을 웃게 되는 것이 무엇이 좋겠습니까? . . . 몇 살까지 이런 일을 해먹을란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싫으면 말지요. 그러나 지금 당장에 싫어서 그만둔다면 그 대신으로 할 일이 있어야지요. 아직은 이 생활 이외에 더 고상하고 괴롭지 않은 생활의 길이 보이지지 않습니다 . . .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입니다. 내가 왜 영화배우로서 카페의 웨트레스가 되었는가? 말할 것도 없이 그때 형편으로 웨트레스라는 직업이 가장 손 쉽게 걸려든 것입니다.<sup>206)</sup>

그러나 구보와 이상이 카페에 가서 여급들과 단순히 수작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수준있는 대화를 나누듯 수준 높은 여급들이 많았다. 「매일신보」 1932년 2월 5일자 기사에 의하면, 당시 조선인 여급의 학력은 대개 보통학교 졸업생이고, 무학

202) 이치이 산지, “가두백면상”, 『조선 및 만주』, 1931년 1월, 채숙향, 이선윤, 신주혜(편역), 『조선 속 일본인의 에로경성 조감도』, (서울: 문, 2012), p.253에서 재인용

203) “카페여급 언파레드”, 『별건곤』, 1932년 11월

204) “카페여급일기 김정자”, 『별건곤』, 1933년 3월

205) “인테리 여급 애사”, 『삼천리』, 1932년 9월

206) “나는 왜 이렇게 됐나, 나는 왜 여급이 되었나”, 『별건곤』, 1932년 1월

(無學)은 고작 3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조선내 일본인여급의 경우는 거의 소학교 출신이고,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여급이 된 경우는 당시에 특수하게 받아들여졌다. 카페에서 자유연애가 가능하였던 것도 카페걸들 중에는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나 배우 등의 직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회를 경험한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다.<sup>207)</sup> 김소엽의 『서울』 (1936)에서도 수준 높은 카페여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이란 과연 문인들이 살 만한 곳이다. 어쩌면 카페 같은 데에도 문학을 이해하는 여급들이 그렇게 많을까?<sup>208)</sup>

방인근의 『마도의 향불』 (1933)에서도 당시 여배우들과 고학력의 조선여성들이 카페여급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말야. 카페걸들이 맨기생 여학생 퇴물 여배우들이니 카페가 항상 한섭인가 여자들이 타락한 썸인가”

“기생보다 여학생이 많아요. 여배우들도 상당히 많지만 아마 모두 경제문제이겠지요. 기생도 상당한 기생 외에야 어디 수입이 그만합니까. 또 요리집보다는 카페에 손님이 많이 가게 되니까 자연 인과관계로 그렇지 않겠어요.”

“카페걸의 수입은 상당한가?”

“어디가요. 그것도 한때지요. 손님이 주는 팁이 수입 전부인데 하루에 이삼원 내지 오원 이상될 때도 있고 하루에 일원도 못되는 때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인물과 서비스문제가 붙기도 하고 또 운수에도 달린 모양이에요.”

“그런데 기생이나 여배우는 그렇다해도 고등여학교나 그 이상 학교를 졸업한 여자들은 왜 카페걸이 되는거야”

“그야 타락해서 오는 여자도 있겠지만 취직은 안되고 먹을 것은 없고 하니까 그중 쉬운 것이 그것이니까 하는 것이지요. 참말 눈물 겨운 이야기가 많답니다. 기생보다도 훨씬훨씬 불쌍해요.”<sup>209)</sup>

---

207) 장유정, 전계서, p.49

208) 김소엽, 『서울』 (1936), (서울: 인크리션, 2003) p.20

209) 방인근, “마도의 향불(41)”, 『동아일보』, 1933년 1월 5일

#### 4. 탑골공원

본 연구의 대상지인 탑골공원은 연구의 대상지 영역 내에 위치한 탑골공원으로 공원 앞에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구보와 이상(李箱)이 술을 마시러 간 엔젤카페가 위치하고 있었다. 이 소설 속에서는 탑골공원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지 영역 안에 위치하고 있고, 당시로서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공원’이었으며,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던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1930년대에는 어떻게 이용되었고, 문학작품 속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찰해보려 한다.

개원 당시 왕실의 소유로써 일반 시민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이 공원은 한일 합방 후에야 조선총독부의 관리하에 수목을 심고 화단, 원로 등을 조성하여 벤치 등을 설치한 후 1913년 7월, 일반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일제에 의해 비로소 공원다운 면모를 갖추고 제 기능을 하게 된 탑골공원은 1930년대의 경성인들에게는 어떤 장소였는지 문학작품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3-13〉)

[표 3-13] 1930년대 문학작품 속의 탑골공원

장르	작가	작품명	시간	공간	인간
소설	채만식	그뒤로	1929년 5월 오후	탑골공원	M과 출옥한 P
소설	이태준	고향	1931년 4월	탑골공원	윤건, 관상쟁이, 공원 안 사람들
소설	이태준	점경	1934년 가을	탑골공원	가난한 아이, 장사꾼들, 걸인들, 외국인관광객들
소설	김말봉	밀림	1935년 11월 늦은 밤	탑골공원	상민, 인애
시	김기림	시민행렬	1936년 7월	공원	실업자들
시	김기림	파고다공원	(1939년)	탑골공원	

동아일보 1928년 7월 23일자 기사를 보면 당시 경성에 있었던 공원에 대한 인식과 파고다공원의 현황을 알 수 있다.

원래 공원이라는 것은 주기지(主基地)가 협착한 도회인으로 하여금 수시로 출입하게 하여 정원과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요 둘째 불의(不意)의 재변이 있을 때에 손쉽게



게 피난할 곳이라야 한다. 경성에는 사직단과 장충단 등 2,3처의 공원이 있기는 있으나 모두 시가의 일우(一隅)에 있어서 일반부민으로 보아서는 원거리임으로 미면(未免)하는 현상이 오직 “파고다”공원일처(公園一處)가 시가의 중앙에 개재하여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제일 편리한 곳임에 따라 부민보건상으로 보나 장래 대경성의 도시계획으로 보나 제일 중요성을 띄우고 있는터이니 현재보다 더욱 개선하여야 할 것은 물론 사정이 허락한다면 오히려 확장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소규모의 것이라도 남북부를 통해서 더 만들어야 하겠다. 경성은 인구가 조밀하고 면적이 좁은 까닭에 시가중앙에다 공원을 더 설비할 수 없다는 당국자의 말도 있으나 인구가 조밀하고 면적이 협착할수록 소정원을 각처에 두는 것이 도시계획상 원칙이라 할 것이다.<sup>210)</sup>

경성부에 있었던 공원 장충단·남산한양·사직단·효창원·파고다 공원 중 파고다공원만이 유일하게 시가중심에 있었고, 그 규모는 작지만 ‘도시공원’이었다. 그러나 1919년 3.1 운동 이후 공원 내 설치된 요리집이 1932년 철회되기까지 파고다 공원은 “요리집의 정원”이 되어 공원으로서는 완전하게 기능하지 못하였었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연구자가 찾은 문학작품 속에서의 탑골공원은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사람들은 ‘공원’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 ■ 탑골 ‘점집’

다음은 이태준의 「고향」(1931)에 나오는 탑골공원 풍경이다.

그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운동 큰 한길을 내려오든 길에 빠고다 공원으로 들어섰다. 공원 안에는 양지쪽마다 사람들이 한 무대기씩 둘러 앉았다. “무슨 구경일까?” 윤건은 모조리 돌아가며 들여다 보았다. 하나같이 영양부족에 걸린 골동품 같은 중노인들이 토정비결과 마의 상서 따위를 펼쳐놓고 갑자을 축에 꼽고 앉은 사주쟁이 관상쟁이들이었다. “노형 신수 안보시려우? 요즘은 학생들도 취직 때문에 신수 보러 많이 오는데—”<sup>211)</sup> 윤건은 대답도 않고 팔각정으로 올라갔다. 팔각정 층대에도 그따위 한패가 모여 앉았다. “잘 좀 보아주시우. 집 떠나온지가 벌써 일년인데 여태 두 별이를 못잡았어요. 올해나 어떻게...” 윤건은 뒤에서 이런 소리를 모두 들었다. . . “알뜰하게도 좋은 꼴만 보인다—빠고다 공원도 오늘은—”<sup>212)</sup> [밑줄 연구자]

210) “파고다 공원 부민보건상대문제”, 『동아일보』, 1928년 7월 23일

211) 이태준, “고향(6)”, 『동아일보』, 1931년 4월 26일



◊ 古談 怪談 漫談에 썼듯했듯 :  
塔洞公園에서

[그림 3-69] 탑골공원 팔각정 위 풍경  
(동아일보 1933년 9월 6일)

1931년에 쓰인 이 소설에는 등장인물 ‘윤건’이라는 사람이 탑골공원 안에 들어가 사람들이 둘러 앉아 모인 곳을 ‘모조리 돌아가며 들여다’ 본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사주쟁이, 관상쟁이들이다. 심지어 팔각정 위까지 점령하고 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법이다. 점을 보러 오는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사주쟁이들이 팔각정 위까지 올라가서 판을 벌일만큼 당시 탑골공원은 사주쟁이들이 많았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일까. 소설 속 대화를 살펴보면 어떤 사

람들이 점을 보러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이 안되는 학생들, 집 떠나 타관객지(他官客地)인 경성으로 돈을 벌러왔는데 1년째 벌이가 안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의 어두운 사회상을 반영하는 이들이다. “요즘은 학생들도” 취업이 안되기 때문에 이 탑골 ‘점집’을 찾는다는 말로 미루어보아 그 전부터 탑골공원에는 사주쟁이들이 ‘취업이 안되는’ 사람들의 사주를 봐주며 꾸준히 있었던 것 같다. 1927년 10월에 나온 잡지 『별건곤』을 보면 사주쟁이가 등장한다.

빠고다공원 안에는 그런 사주쟁이 친구들이 반드시 모였을 것을 예기하고 그날 오후 1시쯤 하여 그곳을 찾아갔다. 아닌게 아니라 팔각정 돌자리에는 이쪽 기둥을 의지하여 한 친구, 저쪽 기둥을 의지하여 또 한 친구, 두 사람이 앉아서 . . .<sup>213)</sup>

그러나 이 글에서는 사주쟁이가 반드시 있을거라 ‘예기(豫期)’에 그친 점과 실제로 공원으로 갔을 때는 두 명만 언급한 것을 봐서는 1927년까지만 해도 본격적으로 사주쟁이들이 몰려들기 전인 것 같으며, 1928~9년에 본격적으로 몰린 것 같다. 탑골공원 안 사주쟁이에 관해서는 1929~31년 사이에 기자들 칼럼에 종종 등장하기도 하였다.

212) 이태준, “고향(7)”, 『동아일보』, 1931년 4월 28일

213) D기자, “변장출동 임시OO되어보기, 사주쟁이가 되어 늙은이 젊은이의 신수를 보아”, 『별건곤』, 1927년 10월

...대부분은 사주쟁이를 둘러싸고 다 낡은 정자 밑에 모여있다. 온실 가까운 정자에는 6, 70명 둘러 섰다. 보니까 한 노인이 안자서 각테 안경을 비껴쓰고 아조 소리 청으로 「화용도 실기」를 멋드러지게 읽고 있다. 눈이 그느스름한 노인들은 얼이 빠져 근청을 하고 실직자의 무리도 옆에 모여 앉아서 듣고 있다... 고속도의 도회생활이 었만은 여기만은 딴 세상 같다. 후문 나가는데 13층 석탑도 3층이 목이 부러졌다. 그 밑에는 사주쟁이가 앉아있다. 웬 낙화생장수 하는 사람이 사주를 본다 . . 당책 보는 사람이 이 작은 공원안에도 7, 8인이나 된다.<sup>214)</sup> [밀줄 연구자]

이 글을 쓴 기자는 오후 2시에 탑골공원을 방문했을 때 200여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중 6,70여명의 사람들이 사주쟁이 한명을 구경하는 사람들이다. 일종의 구경거리인 셈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탑골공원 안에는 7,8인의 사주쟁이가 있었으나 이태준의 「고향」이 쓰인 1931년에는 급격히 늘어나 곧 탑골공원은 ‘탑골점집’이 되버리고 말았는데 다음 칼럼을 살펴보면 사주쟁이들은 단속대상이 될 정도로 골칫거리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서울에 점쟁이란 점쟁이는 모조리 이 공원에 집중되어 大 미신O화하였다. 사주쟁이, 관상쟁이, 손금쟁이, 작명쟁이 등등의 어두귀면(魚頭鬼面)들이 많으면 사오십명 적어도 삼십내외는 언제든지 출현하는 것이다. 문전(門前)에 검은 O자 붉은 테두리가 얼는만하면 수많은 점쟁이는 상혼실백(喪魂失魄)하여 앞에 있는 미신기구를 함부로 앗아가지고 산보하는 사람들 틈으로 줄행랑을 부리는 것이다. 그중에도 약지 못하고 수습에 익숙치 못한 점쟁이는 뒤에서 어름어름하다가 그만 . . 십분동안 파출소 신세를 지고는 그래도 황금에 미련이 남고 배운 도적질이라 하는 수 없었든지 또다시 제자리를 찾아와서 한 시간전 그 노름을 되풀이한다. 모든 점쟁이의 좌상은 또다시 정O 되었다. 상투 양복 등등 쟁이들도 또다시 모여서선다 . . .적어도 요학문명이 OO 된 오늘에 있어서 여사(如斯)한 장면은 조선이 아니고는 아니 대경성의 한복판인 빠고다공원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기현상일 것이다.<sup>215)</sup> [O는 판독불가, 밀줄 연구자]

1930년대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달한 21세기인 지금도 불경기에는 점집이 잘 되는 것처럼 그 당시 식민지 조선인으로써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보여주

214) “기자 대출동 1시간 탐방 대경성 백주 암행기, 3월 29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별건곤』, 1929년 4월

215) "대경성 한복판에 미궁화한 빠고다", 『비판』, 1931년 9월

는 대목이다. 특히 조선인들의 근거지 북촌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그러한 ‘기현상’이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 ■ 실업자·노숙자들의 수용소

앞서 ‘다방’은 ‘로맨들의 도피처이자 안식처’라고 다방의 장소성을 규명하였다. 반면 ‘탑골공원’을 ‘실업자·노숙인들의 수용소’라고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로 규명한 이유를 살펴보자.

다음은 채만식의 「그 뒤로」(1930)에 나오는 탑골공원 풍경이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오는 사이에 탑골공원 앞까지 이르렀다.

“오랫만이니 들어가 보라나?”

“들어가 보지...지금두 천냥만냥 판인가?”

“언제라구 없겠나...그렇지만 자네 너무 피곤하지 않은가?”

. . . 이 구석 저 구석 앓을 만한 곳으로 벤치에 잔디 위에는 금시 돈뎀이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이 소곤소곤 천냥만냥을 하는 친구들과 로단이 보았으면 『생각하는 사람』 대신 『게으른 사람』이라는 조각을 새겼을 모델스감들이 방금 겨드랑이 속에서 이(슬)라도 더듬어내일 듯이 느리차분하게 안저 햇볕을 쬔고 있다. P와 M은 서편 온실 옆으로 가서 겨우 벤치 하나를 찾아 나란히 앉아 담배를 피어 물었다.<sup>2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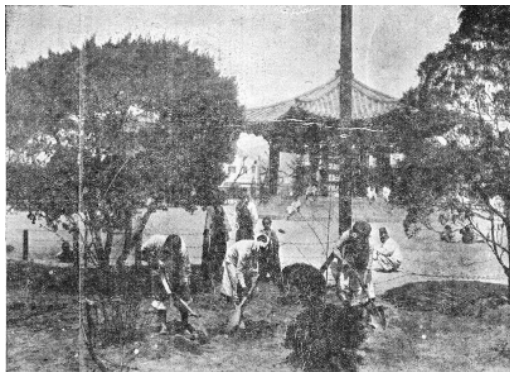
이 소설에 등장하는 P는 4년만에 출옥한 인물이다. 탑골공원에 들어가기 전 친구인 M에게 ‘아직도 천냥만냥 판이나’라는 질문에 M은 부정하지 않는다. 즉 1920년대 중반부터 탑골공원에서는 노름판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공원에 들어간 그들은 벤치나 심지어 잔디 위에도 노름꾼들과 게으른 사람들, 즉 실업자들 때문에 앓을 곳을 얼른 찾지 못하고 온실 옆으로 가서 겨우 벤치 하나를 찾는다. 실업자들이 공원으로 몰려드는 광경은 매우 부정적인 시선이었다. “유독 탑골공원은 공원답지도 아니 하려니와 이곳에 모이는 사람을 보면 심신을 쉬이기는커녕 할 일 없고 갈데 없어 낮잠이나 자러 모여든다.”<sup>217)</sup>라고 비판하며 이들 때문에 사주쟁이들이 더욱 모여들어 “사주쟁이 공원”이 되었다고 비난한다. 한 칼럼에서는 이들을 ‘청소해야 할 대상’인 공원 안 쓰레기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216) 채만식, 「그 뒤로」, 『별건곤』, 1930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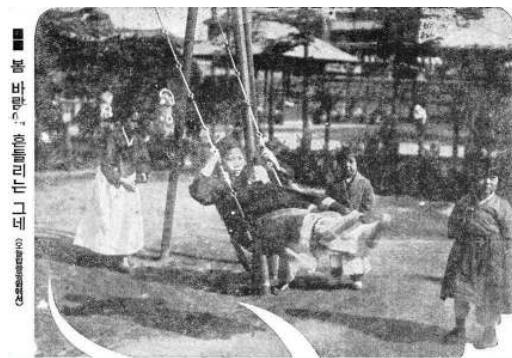
217) “경성의 다섯 마굴(魔窟)”, 『별건곤』, 1929년 9월 27일

돈을 드려 고쳐 논 만치 전에 비해서는 없던 꽃풀도 심어놓고 잔디풀도 늘었는지 줄었는지 좀 변작이 된 듯하다. 그리고 제법 아희들이 와서 마음 부처 놀만한 기계들(?)도 장만해 논게 전보다야 제법 나아졌다. 그러나 이 소제부의 눈에는 그래도 여전히 보이는 것은 복데기 뿐이다 . . . 명색이 공원이라고 좀 더 널찍하고 나무 그늘이 그윽하다면 이런 복데기가 그리 눈에 띄지 않을 것이나 과시 콧구녕만한데니 공원 안에 심어 놓은 나무의 수보다도 낮잠 자는 림펜의 수효가 더 많으니 누가 이곳을 들어와 보고 공원다웁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더구나 역사로도 건축으로도 이 탑골공원으로서는 과연 자랑될 만한 팔모정이 이 공원의 대표적 림펜의 낮잠터로 마치 심한 때는 발하나 들어 놀 수 없게 뽁뽁하게 드러 누워서 . . . 이래 가지고야 공원이랄 수가 있는가 . . . 끌어버리고 말자. 그리고 이 비끝에 한꺼번에 끌어버릴 것이 이놈의 사주쟁이들이다. 끌어서 멀찍하고 널찍한 남산공원으로나 보내버리자.<sup>218)</sup>

먼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탑골공원이 정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1 만세운동이 있던 1919년에 총독부는 요리집 ‘승리’ 를 공원 내 설치토록 허가하여 많은 면적이 훼손되는 등 전반적으로 공원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부실하게 관리되었다. 이는 시설의 노후화, 훼손된 시설의 방치 등으로 경성부 의회나 당시 언론의 비판과 시설개선요구 등이 여러번 있었음에서 알 수 있다. 이런 시설개선 요구 등이 있는 후 1932년에는 요리집 ‘승리’ 가 철회되고, 총독부로부터 관리권이 경성부로 이관되면서 공원에 대해 우선 5백원의 예산으로 응급수리를 실시하였다.<sup>219)</sup> 1933년에 실린 이 기사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기계들’ 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조경에 신경썼을 뿐만 아니라 아동시설물도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70] 공사중인 탑골공원  
(동아일보 1933년 4월 19일)



[그림 3-71] 탑골공원 안 그네  
(동아일보 1935년 2월 22일)

218) 소제부, “추기지상대청결”, 『별건곤』, 1933년 9월

219) 한정훈, 탑골공원 조성과 이용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2004. p.78

탑골공원의 조성이전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물리적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 3-14>와 같으며 문학작품 속의 탑골공원 풍경을 뒷받침해준다.

[표 3-14] 탑골공원의 물리적 변화과정

시기	주요시설 및 조형물	녹지형태	비고
공원조성 이전 (1897년 이전)	원각사지10층석탑, 원각사비(계속존치)	-	초기: 원각사 중기: 폐사(장락원,연방원) 후기: 민가로 채워짐
공원조성 및 개항기 (1897-1910)	팔각정(계속 존치), 벤치, 동문, 북문	몇 십 그루의 수목	서남측: 군악대 건물
일제강점기 (1910-1945)	화단, 연못, 회유로, 전등, 수도, 음악당, 정자, 온실, 공원사무실	벚꽃과 상록수, 일부 집단화된 녹지	중기: 요리집, 군악대건물 도서관으로 사용 후기: 아동공원시설

출처: 한정훈(2004), 탑골공원 조성과 이용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p.70



[그림 3-72] 조선명소 탑골공원  
(경성엽서 사진첩)

또한 탑골공원에 있는 팔모정을 자랑스러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팔모정 뿐만 아니라 석탑이 있었던 탑골공원은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경성을 찾는 조선인들에게도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자부심으로 작용한 공원 안에는 실업자, 사주쟁이들로 인해 항상 부끄러운 풍경만을 보여주었다.

이 산문에서도 역시 좁은 공원 안을 얼마나 많은 실업자들과 사주쟁이들이 점령하고 있었는지 짐작케 하는 글인데, 다른 공원들 역시 일제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그중에서도 일본신사로 있어 가장 일본을 상징화했던 ‘남산공원으로 보내버리자’ 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그들을 혐오했는지 알 수 있다.

김기림은 역시 「파고다공원」(1939)이라는 시(詩)에서 노골적으로 공원 내 실업자들을 ‘쓰레기’로 비유하였다.

...오후가 되면 하느님은/ 절대로 필요치 않은 제6일의 남조물(濫造物)들을/  
이 쓰레기통에 모아놓고는/ 탄식을 되풀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sup>220)</sup>

역사적인 유물이 있어 외국인들에게는 관광명소로서, 또한 1919년 만세운동으로 인해 민족적으로서도 의미가 컸기 때문에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애정이 남달랐을 탑골공원에 노숙자들과 사주쟁이들은 부끄러운 존재였다. 또한 자신들의 근거지인 ‘북촌’에, 그것도 경성 내 공원 중 유일하게 일제에 의해 조성된 공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원 안의 그런 ‘북대기’ 들은 식민지 조선인들, 즉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서글픈 자신들의 모습이 투영된 장소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태준은 「고향」(1931)에서 탑골공원 안 사주쟁이들을 묘사했었는데 3년 후 쓴 「점경」(1934)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 인용문에 나오는 아이는 앞의 글 화신백화점 앞에서 게이트보이에게 정강이를 차여 쫓겨났던 아이이며, 그 후 이야기가 계속 이어짐을 밝혀두는 바이다.

아이는 향방없이 길 생긴대로 따라 걸은 것이 탑동공원까지 갔다 ... 먼저 눈에 띄는 건 실과(實果) 장사들이다. 광주리마다 새로 따서 과분(果粉)이보얀 포도와 배와 사과들이 수북수북 담긴 것들이다 ... 그리고 웬 양복한 사람이 그 옆에 돌아서서 기다랗게 껍질을 늘어뜨리며 사과를 벗기는 것과, 그 밑에서 자기보다도 더 험뎨운 아이가 손을 벌리고 서서 그 껍질이 어서 떨어지기를, 그리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으려 눈과 입을 뻥뻥하게 해가지고 서있는 것을 보고야 ... 웬 키가 장승 같은 서양사람 남자가 섰는데, 남편인 듯한 사람이 벤또만한 새까만 가죽 갑을 안고 거기 붙은 안경만한 유리알을 나한테 향하고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였다. 아이는 얼른 일어서 옆을 보았다. 옆에는 아까 그 아이, 저보다도 험뎨운 아이가 역시 어디선지 사과 껍질을 한 움큼 들고 와 징걸거린다. 가만히 보니 그 서양사람의 알지 못할 기계의 유리알은 자기와 그 애를 번갈아 향하면서 소리를 낸다. 아이들은 크게 활동사진 기계인 줄은, 그리고 그 서양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행복된 가족을 모여 앉히고 돌릴 것인 줄은 알 리가 없다 ... 그날 밤, 아이는 자정이나 된 때 어느 벤치 위에서 곤히 자다가 공원지기에게 들켰다 ... 공원지기는 대답이 없이 아이의 머리를 한번 더 쥐어박으며 팔을 질질 끌어들 행길로 밀어내고 무거운 쇠문을 닫았다.<sup>221)</sup>

220) 김기림, 『태양의 풍속』(1939), (서울: 열린책들, 2004), p.151

221) 이태준, “점경”, pp.365-9

이 소설에서는 아이의 눈을 빌려 탑골공원 안에서 헐벗은 아이가 과일껍질을 주워 먹을 정도로 비참한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관광으로 왔을 법한 외국인은 원각사탑 같은 유적이 아닌, 그런 가난한 조선아이들을 사진에 담는다. 계속 살펴보면, 아이는 자정 쯤 벤치 위에서 노숙을 하려다 공원지기에게 쫓겨날 뿐만 아니라 ‘공원의 문’을 닫기까지 한다.

위 소설을 보면 당시 탑골공원은 24시간 항상 열려 있었던 공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19년 3.1 운동 이후 줄곧 닫혀 있었던 후문은 1928년 6월, 10여 년만에 열리게 되지만 여전히 이용시간에는 하루 평균 12~14시간 개방<sup>222)</sup>이라는 제약이 있었다.

이처럼 공원에 밤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폐쇄하기도 하였지만 노숙자들은 몰래 들어와 자기도 하였음을 짐작케 하는 소설이 김말봉의 『밀림』(1935)이다.

...그들이 내린 곳은 파고다공원 앞이었다. 컴컴한 밤에 속되고 야비스러운 이곳  
예를 더구나 젊은 남녀가—그들은 조롱과 의심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저벽  
저벽 발소리를 내어가면서 공원 안으로 들어섰다 . . . 육모정이 눈에 띄이자 상만은  
성큼성큼 총계를 올라간다 ... 호떡 한 개씩 사서 먹고 이 육모정에 와서 자던 일,  
그나마 호떡도 못먹고 생으로 굶으면서 이곳으로 와서 자던 일, 상만은 비가 줄줄  
내리는 밤 올을 떨리는 몸을 기둥에 기대여 앉았던 밤일도 잊을 수가 없다. “자, 나  
잡시다. 육모정에 와서 인사를 드렸으니까요. 아무튼 (삼년 전) 두 주일 동안이나 거  
저 재워준 곳은 서울천지에 이 육모정 뿐이었으니까요 . . . 밤 열두시쯤 들어와서  
자고 아침 네시쯤 일어나 나가면 순사라도 몰랐거든요. 하하” <sup>223)</sup> [밑줄 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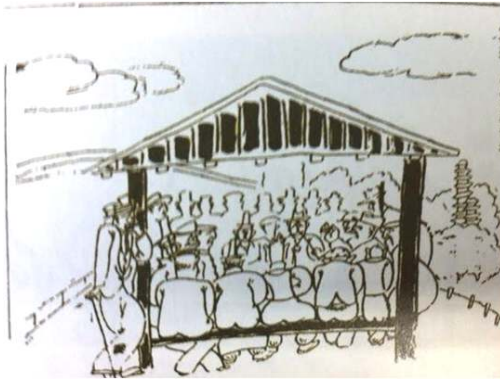
밤 열두시 쯤 들어와서 새벽 네시에 나갔다는 것으로 보아 보통 심야시간에는 확실히 폐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작가는 또한 탑골공원을 ‘속되고 야비스러운’이라고 표현하며 특히 밤에 젊은 남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지만 당시 탑골공원은 젊은 남녀들의 밤의 데이트 장소로도 이용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1930년의 탑골공원을 묘사한 만문만화를 살펴보면 문학작품 속에 줄곧 등장했던 사주쟁이와 젊은 룸펜들이 아닌 노인들이 대부분 그려져 있다. 이러한 풍경은 오늘날에도 노인들이 모여드는 탑골공원의 풍경과 비슷하다.

222) “10년만에 열린 탑동공원 후문”, 『동아일보』, 1928년 6월 6일 참조

223) 김말봉, “밀림(43)”, 『동아일보』, 1935년 11월 17일





[그림 3-73] 1930년 파고다공원  
(조선일보 1930년 4월 13일)



[그림 3-74] 오늘날 파고다공원

## 5. 가로

### 1) 종로

종로는 오랜 세월동안 서울의 중심거리라는 지위를 유지해 왔다. 시전(市廛)의 기능으로써 운중가(雲從街)라는 별칭이 붙을만큼 조선왕조에는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곤 했던 이곳은 일제강점기에도 다른 거리가 모두 ‘~정(町)’ , ‘~통(通)’ 으로 일제에 의해 일본식으로 바뀔 때 유일하게 ‘종로(鐘路)’ 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특별한 곳이기도 하다.

종로는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조선왕조와는 다르게 새로운 양상을 나타나게 된다. 지금의 명동과 충무로(明治町과 本町)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일본 상인들이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그곳이 새로운 경제적 중심지로 떠오르는 한편, 종로 일대는 조선상인들의 중심 거점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일본 자본으로 세워진 대표적인 백화점이 당시 본정 입구에 있었던 미쓰코시 백화점이었던 반면 조선인의 손에 의해 세워진 대표적인 백화점이 종로에 있었던 화신백화점이었다는 사실은 그 두 공간 사이의 대조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sup>224)</sup>

당시 청계천을 경계로 북촌은 조선인의 공간, 남촌은 일본인의 공간으로써 분리되었는데 북촌의 대표지역이었던 조선인들의 거리, 종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224) 이동하, 전계서, P.63-4

<표 3-15>는 연구자가 찾아 분류한 1930년대 문학작품 속의 종로이다.

[표 3-15] 1930년대 문학작품 속의 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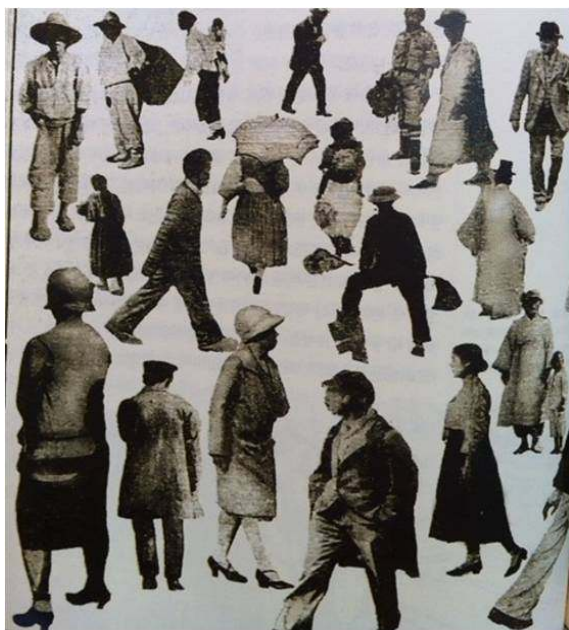
장르	작가	작품명	시간	공간	인간
수필	김기림	바다의 유혹	1931년 8월 해질녘	종로거리	나, 아내
소설	방인근	마도의 향불	*1933년 3월	종로	-
			*1933년 5월 밤	종로	운향, 이달
산문	채만식	여름도시밤 ETC	1934년 7월 밤	종로야시	나
소설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34년 8월 1일 해질 녘/새벽2시	종로네거리	구보
시	임화	다시 네거리에서	*1935년 7월	종로네거리	나
소설	한설야	황혼	*1936년 밤	종로야시	
소설	채만식	명일	*1936년 10월 오후4시경	종로네거리	범수, 어린결인
소설	채만식	탁류	*1937년 5월 밤 9시	종로	승재, 계봉
소설	이무영	명일의 포도	1937년 가을저녁	종로	한승
소설	박태원	우맹	*1938년 밤	종로 야시	맹서방
수필	추풍연	야시부근 종로야화	1938년 여름 저녁	종로 야시	나
소설	한설야	마음의 향촌	*1939년 저녁/새벽	종로네거리	초향
소설	김남천	T일보사	1936년 1월 오전 10시	종로	김광세
시	박팔양	도회정조	*1939년	-	-
산문	김래성	종로의 범종	*1939년	종로	-

## ■ 근대거리 전시회

도시가 근대화가 되면서 산책자가 생기기도 하고 구경꾼이 생기기도 한다. 근대 도시를 구경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보는 것이다. 그것은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거리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도시로 할 일 없이 나와 산책을 하기도 하였

고 거리는 일종의 전시회장이 되었다.

전차가 들어서고 포장도로가 깔리고 전기가 들어와 밤에도 환해진 종로거리를 관찰자는 긍정적으로도, 혹은 부정적,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고 생각하기도 한다. 일제강점기라는 현실 속에서 ‘조선인의 거리’인 상징적인 종로가 외세에 의해 근대화되는 모습을 조선인들은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았다. 특히 근대문명 혜택으로 인해 화려하게 변모해가는 종로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다양하였고, 관찰자는 종로 거리의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도시경관 등을 포착하여 그들만의 관점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림 3-75] 경성거리의 다양한 사람들  
(별건곤, 1929년 9월)

종로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자주 묘사되는데, 1920년대 막바지에도 다르지 않다.

종로사가-다리만 아프지 않으면 여기 한 시간만 서있으면 지나다니는 가지각색 사람의 꼴을 보고 경성의 살림을 알 수 있는 것일세. 전차 기다리고 섰는 사람들의 복색. 걸어가는 사람들의 걸음거리. 인력거타고 가는 기생. 책보끼고 가는 여학생. 여학생복하고 자동차 타고 가는 은군자. 형사, 기자, 교원, 협잡군, 부랑자, 단발낭, 아편장이 모두가 이리로 지나 다닌다네....<sup>225)</sup>

종로에서 한 시간만 서 있으면 경성의 살림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림 3-75>와 같은 가지각색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말은 마치 ‘파리에서 한 시간만 서 있으면 다양한 인종의 모든 국적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말과 상응한다.

225) 日기자, “2일동안에 서울구경 골고로 하는 법”, 『별건곤』, 1929년 9월

그러나 열거한 사람들 중에는 일본인은 찾을 수 없다. 한 시간만 서 있으면 경성의 가지각색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종로는 ‘조선인’에게만 해당되는 경성의 중심지였다.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의 거리인 종로에 보이지 않는 이유를 경성 태생의 일본인 작가 가지야마 도시유키(梶山季之)는 소설 『무지개 속』에서 짐작할 수 있다.

경성에 살면서도 가지(梶)는 종로 부근에 거의 다가가지 않는다. 그곳은 순수한 조선인 거리로 혼자 걸어가면 왠지 몹시 불안한 느낌이 든다. 극단적인 말을 한다면, 무서웠다. 조선인들이 일본인에게 적의를 드러내는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가지는 한 없이 차가운 무엇인가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처럼 느꼈다.<sup>226)</sup>

물론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이유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의 거리로 오지 못하는 심리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일본인들의 거점지인 남촌에 비해 1930년대 중반까지 근대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던 북촌은 비위생적인 환경이었기 때문에 꺼렸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 다른 일본인은 조선인들의 비위생적인 환경을 지적하였다.

어느 여름 해질 무렵 조선인 거리에 사는 내지인이 심하게 고함을 치고 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옆으로 가려고 하니 분노의 악취가 코를 찌른다. 불쾌한 오물이 눈 앞에서 도랑 안을 조금씩 천천히 흘러가는 게 아닌가 . . . 아무리 비위생적이라고 해도 분노를 도랑에 흘려보내는 놈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근처 조선인들은 특별히 이상해 하지도 않는다. 당연한 일처럼 바라보고 있다 . . . 지금은 경성의 조선인 거리도 많이 청결해졌지만 아직 때때로 노상에 인분과 견분이 줄지어 있으니 여름밤 조선인 거리에서는 발뭇을 조심하는 게 제일이다.<sup>227)</sup> [밈줄 연구자]

『조선일보』에서도 1934년 7월 11일에 실린 「인간표정」이라는 만문만화에서 “대도시라면서 북촌에는 하수구가 말 아니고...”<sup>228)</sup>라고 했듯이 1930년대 중반까지도 하수구가 발달하지 않았던 북촌은 거리마다 악취가 났고, 비위생적이었기 때문에 ‘더러운 조선인 거리’로 인식되었다.

226) 가와무라 미나토, 『한양·경성·서울을 걷다』, (인천: 다인아트, 2004), p.96

227) 이치유, “여름의 조선인 거리”, 『조선밋만주』, (1930년 8월), 채숙향, 이선운, 신주혜(공역), 『조선 속 일본인의 예로경성 조감도』, (서울: 문, 2012), p.18에서 재인용

228) “인간표정” (4), 『조선일보』, 1934년 7월 11일

종로로 저녁 산책을 나선 내용의 김기림의 수필 「바다의 유혹」 中(1931)에서도 종로거리는 온갖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거리거리마다, 길바닥에 반향하는 사람들의 발자국소리로 가득차 있다 . . .

애인을 끌고 정부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혹은 “파트너” 도 없이 외로운 발자국을 들으면서, 젊은이 늙은이 있는 놈 없는 놈 할 것 없이 시민의 모—든 계급과 종류가 거리에 넘쳐 흐른다.<sup>229)</sup>

김기림이 저녁의 종로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다소 덤덤히 말하고 있다면 박태원과 한설야는 자신들만의 시선을 개입하여 묘사하였다. 먼저 박태원의 작품부터 살펴보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34)에서 구보는 해가 지는 저녁, 그리고 새벽 두시에 각각 종로네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한다.

구보는 먼저 황혼을 타서 밤거리로 흘러나온 ‘지혜가 없는 노는 계집’ 들을 바라보다 포장도로 위의 무수히 많은 다리를 본다. 그리고 그들이 신은 숙녀화를 보며 ‘익숙하지 못한 서투르고 부자연한 걸음걸이’ 라고 생각한다. 즉 포장된 도로 위에는 고무신이 아닌 근대문명인 숙녀화나 구두를 신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다니지만 그들은 아직 완전히 그런 환경이 어울리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구보는 ‘지혜가 없는 노는 계집’ 들에서 온갖 사람들로 시선을 확대한다. 종로네거리를 채운 부자연한 걸음걸이를 가진 사람들은 조선인들일 것이다. 보통 저녁에 ‘밤을 즐기기 위해’ 도시의 거리를 가득 메운 군중들의 모습은 활동적이고 흥분된 모습이다. 그러나 구보는 종로네거리에서 관찰한 그들의 모습에서 ‘위태롭고 불안정함’ 을 보고 있는 것이다.

카페에서 새벽 두시에 나온 구보가 종로네거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할 때도 비관적인 시선이다.

종로네거리—가는 비 내리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끊임없다. 그들은 그렇게도 밤을 사랑하여 마지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렇게도 용이하게 이 밤에 즐거움을

---

229) 김기림, “바다의 유혹(中)”, 『동아일보』, 1931년 8월 28일

구하여 얻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일순, 자기가 가장 행복된 것 같이 느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 그들의 걸음걸이에 역시 피로가 있었다. 그들은 결코 위안받지 못한 슬픔을, 고달픔을 그대로 지닌채, 그들이 잠시 잊었던 혹은 잊으려 노력하였던 그들의 집으로 그들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sup>230)</sup>

늦은 밤까지 사람들로 가득찬 거리는 ‘도시의 거리’ 이다. 구보는 그들을 바라보며 밤에 즐거움과 행복을 구하기 위해 밤거리로 나왔지만 결국 위안받지 못한 슬픔과 고달픔을 지니고 ‘잊으려고 노력하였던 그들의 집’ 으로, 즉 ‘식민지 조선’ 이라는 슬픈 현실로 결국 돌아갈 것이라고 본다. 번잡한 밤의 종로네거리의 거리 위 사람들의 모습에서 어두운 이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구보 자신처럼 새벽 두시까지 밤거리를 헤맬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한설야의 『마음의 향촌』 (1939)에서 기생 초향은 우연히 새벽의 종로네거리에서 관찰한 일터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찾기도 한다.

하나 한 사람 두 사람 보아가는 사이 그는 자기가 생각하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들인 것을 깨달았다. 시방 나다니는 사람은 거의 다 노동복 입은 사람, 변포를 낀 사람들이다. 젊은 여인도 있고 십륙칠세의 소녀들도 있다 . . . 그는 문득 여태 보지 못하던 서울을 오늘 아침에 처음 발견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금 이만 때의 서울은 오합난민이 뒤섞여사는 서울이 아니라 단순한 근로의 거리 같다 . . . 참으로 이만 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가 날마다 보고 또 어디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 세상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얼굴에는 사실 아무 불행도 있는 것 같지 않다. 불행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그리고 보니 참말 누가 행복한지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또 구태여 알려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았다. 날이 밝았다. 그 언제와 같이 온갖 형형색색의 인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차차 복잡한 서울의 얼굴이 들어 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남의 일이다. 초향이는 자기 자신을 다시 보았다. 오늘에 있어서 초향이에게는 세상이 너무 널르다. 서울도 그렇다. 오늘 같아서는 이 거리에 맘을 붙이고 살아갈상 싶지 않다.<sup>231)</sup>

방인근은 『마도의 향불』 (1933)에서 종로와 본정을 비교하였다.

---

230)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p.221

231) 한설야, “마음의 향촌(86)”, 『동아일보』, 1939년 10월 12일

서울의 종로는 겨울이라 하면 진고개는 봄이다. 종로는 광막하고 쓸쓸하지만 진고개는 찬란하고 변화하다. . . 거기 오락가락하는 군중들도 얼굴과 의복이 물질의 풍족으로 살찌고 윤택하여져서 그 거리와 사람은 훌륭하게 조화된 것이 마치 소조한 종로와 흰 옷을 철드럭거리고 가는 사람과 조화되는 것과 같다.<sup>232)</sup>

작가는 조선인의 거리로 상징되는 종로를 겨울, 일본인의 거리로 상징되는 진고개, 즉 본정(本町)을 봄으로 비유하고 있다. 종로는 광막하고 쓸쓸한 반면, 진고개는 찬란하고 변화한 이미지다.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비교대상이다. 마치 종로는 조용한 죽은 거리 같고 본정은 생기가 넘치는 번잡한 거리 같이 묘사된다. 이 묘사된 부분만 보면 관찰자는 마치 근대화가 발달된 본정을 부러워하고 도시화된 거리를 매우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그래서 광막하고 쓸쓸하다는 종로는 아직 근대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비교하고 있는 본정처럼 찬란하고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같은 소설에서 종로의 밤을 묘사한 부분을 살펴보자.

종로에서는 악악하는 군중의 비명과 자동차의 울음소리와 전차바퀴가 쇠길을 물어뜯는 소리가 몹서리나게 들리었다. 그것은 악마의 뒤끓는 소리였다.

종로의 거리는 변화하고 전기불은 휘황한데 그 사이를 시름없이 걸어가는 자기 신세가 외로웠다. 자기는 광막한 광야를 방랑하는 것 같았다. 눈물이 핑—돌려고 하는 것을 운향은 입술을 꼭 깨물어 눈물이 못나오도록 하였다.<sup>233)</sup>

불과 두 달 후 연재한 같은 소설에서 이번에는 종로가 변화하다고 말하고 있다. 소설 속에서 묘사했듯이 거리의 사람들, 종로 대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전차로 인해 1933년의 밤의 종로는 매우 활동적이고 변화한 공간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악마의 뒤끓는 소리’ 라고 표현할만큼 종로에서 들리는 ‘도시의 소리’ 를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본정과 종로를 비교하며 묘사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으로 도시의 근대화를 이중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등장인물이 변화한 종로거리를 걸으면서도 마치 ‘광막한 광야를 방랑하는 것’ 같이 느끼는 부분에서도 작가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데 방인근이 도시의 소리를 ‘악마의 뒤끓는 소리’ 라고 표현했던 반면, 춘원

232) 방인근, “마도의 향불(90)”, 『동아일보』, 1933년 3월 21일

233) 방인근, “마도의 향불(126-7)”, 『동아일보』, 1933년 5월 6일, 8일

이광수는 『무정』(1917)에서 기차, 전차 등의 소리를 “도회의 소리” 이자 “문명의 소리” 라고 하였으며 “그 소리가 요란할수록 그 나라가 잘된다 . . . 이러한 소리가 합하여 비로소 찬란한 문명을 낳는다.”<sup>234)</sup>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관점도 있었다.

석달동안 큰 병을 앓다 병원에서 퇴원한 한 모던보이가 본 종로거리의 인상을 보자.

그는 종로로 발길을 내딛었다. 그렇게 더럽고 보기싫던 종로거리가 몹시도 변창해 보이고 아름다웠다. 모든 것이 자기의 재생에 대하여서 기뻐하는 것 같았다. 색채, 음향! 화신상회의 집보다 더 큰 여름철 『대매출』 광고 간판도 신기하였다. 악기점의 레코-드 소리도 듣기 좋았다. 팔다리를 벌겋게 드러내고 『강가루』 걸음을 걷는 시체여자들. 그 외에 모든 것이 참 아름다워 보였다.<sup>235)</sup>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보다 불과 일주일 먼저 쓰인 이 글에서 주목할 점은 ‘그렇게 더럽고 보기 싫던 종로거리’라는 평소에 생각해왔던 종로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종로는 변창해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예찬하고 있지만 병원에 있었던 기간은 불과 석 달이므로 그 짧은 기간동안 종로에는 괄목할만한 큰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큰 병을 앓다 퇴원했기 때문에 평소에 소음으로 생각했던 거리의 레코드 소리는 듣기가 좋고, 보기 싫던 거리의 쾅거루 걸음을 걷는 여자들과 거리의 광고간판들은 근대거리의 시각적 즐거움을 요소가 된 것이다.



[그림 3-76] 1934년경 종로거리 (경성업서사진첩)

234) 이광수, 『이광수 선집』, (서울: 어문각, 1978), p.188

235) 안석영, “병실에서 병실에(上)”, 『조선일보』, 1934년 7월 26일



임화는 「다시 네거리에서」(1935)라는 시(詩)에서 근대문명으로 인해 종로의 변모한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있다.

네거리 복판엔 문명의 신식 기계가/ 불고 푸른 예전 깃발 대신에/ 이리저리 고개를 돌린다/ 스톱-주의-꼬-/ 사람, 차, 동물이 똑 기에 배우듯 한다/ 거리엔 이것밖엔 변함이 없는가?// 낮선 건물들이 보신각을 저 위에서 굽어본다/ 옛날의 점잖은 간판들은 다 어디를 갔는지?/ 그다지도 몹시 바람은 거리를 찢어갔는가?/ 불고 푸른 ‘네온’이 지렁이처럼/ 지붕 위 벽돌담에 가고 있구나//... 고향의 거리여.....나는 지금/ 네 우에서 한 사람의 낮익은 얼굴도 찾을 수가 없다//불쌍한 도시! 종로네거리여!<sup>236)</sup>

임화는 너무나 많이 변한 종로네거리를 바라보고 이제는 더 이상 낮익은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얼굴’이라는 것은 사람의 얼굴이나 종로네 거리에 있었던 건물 입면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때, 사람을 의미한다면 근대화 후의 종로는 이제 익명의 군중들로 가득 찼음을 의미할 것이다. ‘스톱-주의-꼬’는 신호등을 뜻하는데, 종로네 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된 것은 그만큼 교통량이 증가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근대화 된 도시문명의 일상에 이제 사람들이 ‘기에 배우듯’ 길들여져 가는 도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임화는 특히 <그림 3-77>과 같은 전통(보신각)과 근대(보신각을 굽어보는 낮선 건물)가 뒤섞인 종로네거리를 바라보며 자신이 알던 종로의 정체성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그림 3-77] 보신각과 근대건물들 (경성엽서사진첩)

236) 임화, 『임화 시선, 다시 네거리에서』, (서울: 미래사, 1995), pp.50-4

이무영의 『명일(明日)의 포도(鋪道)』(1937)에서도 화신백화점 옥상에서 근대화 된 종로거리를 내려다본 한 남자가 그 풍경이 어색하다고 느낀다.

가로등은 마치 꼭지가 짓무른 황감 같았다. 머리가 무거워 그런지 족족 그은 전차선로도 수직을 그은 고층빌딩의 선(線)도 가끔 얼그러져 보인다. 전차, 자전거, 자동차. 현대 과학을 응용한 온갖 이기(利器)가 오고가고 대각선도 그으며 포물선도 그어 본다. 그새로 사람과 사람이 빈대처럼 기어다닌다. 지금까지는 평범하니 보아오던 그 정경도 한승에게는 무슨 꿈나라 풍경처럼 순간순간에 느끼어졌다.<sup>237)</sup> [밑줄 연구자]

근대화 된 거리의 가장 큰 특징은 ‘직선’의 집합이다. 수직의 고층빌딩과 가로등, 포장된 직선의 도로 등은 근대화 된 거리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림 3-78] 1930년대 활동한 작가 주경의 표현파그림, ‘파란’ (대구신문)

박팔양의 시(詩) 「도회정조」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묘사를 볼 수 있는데 그는 직선, 곡선, 평행선. 반원과 타원의 선 등으로 이루어진 근대도시의 모습이 마치 표현파의 그림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다.

불규칙한 직선의 나열, 곡선의 배회/ 아아 표현파의 그림 같은 도회의 기분이어! . . .  
// 전차가 그 거대한 몸을/ 평행선의 궤도 위로 달릴 때/ 차 안에 앉은 수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제자는/ 평행선의 궤도가 모한의 종국(終局)에 가서 교차될 것은/ 몹시 근심하고 앉아 있다.// 직선과 사선, 반원과 타원의 선과 선/ 도회의 건물들은 아래에서 위로 불규칙하게 발전한다.<sup>238)</sup>

이무영의 소설 속에서 근대거리 위에는 사람보다 전차, 자전거, 자동차 같은 빠르게 이동하는 기구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거리의 걷는 사람들은 ‘빈대’가 기어가는 것처럼 느리다. 또한 근대거리의 모습을 웬만큼 갖춘 1930년대 후반에 접어

237) 이무영, “명일의 포도(52)”, 『동아일보』, 1937년 8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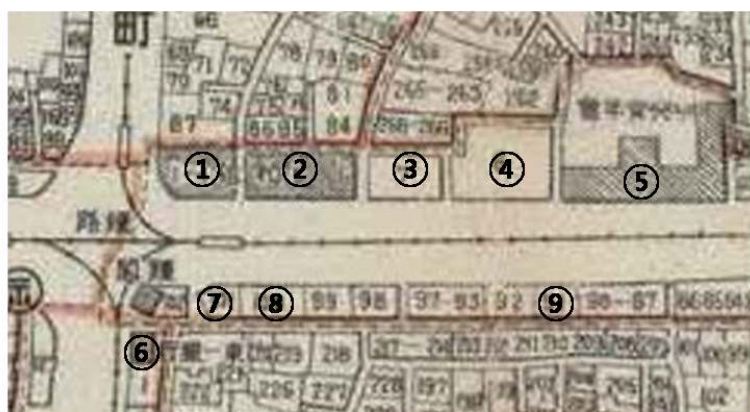
238) 박팔양, 『박팔양 시선집』, (서울: 현대문학, 2009), pp.125-7

든 종로는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여전히 순간순간 꿈나라처럼 어색하게 느낄 만큼 근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종로는 1920년대까지만 해도 일제하에서도 조선인의 상업중심지로서 그 명맥을 이어나갔다. 과거 시전행랑이었던 목조기와집 지붕에 커다란 간판을 내건 상점들과 간혹 보이는 2,3층 벽돌 양옥건물이 뒤섞인 가운데 나름의 독특한 색깔을 연출 하던 거리가 1920년대의 종로거리였다. 그런데 여기서 전통과 근대의 공존은 전통에 뿌리를 내린 정상적인 근대화의 지향이라기보다는,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왜곡 굴절된 엇물림의 관계로 특징지어진다.

조선사람과는 상관없는 근대화, 문명의 실질이 충실치 못한 도회, 이것이 당시 종로의 자화상이었다. 이러한 종로의 모습은 전통과 왜곡된 근대 사이에서 겪게 되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으로 연결되었다.<sup>239)</sup>

채만식은 『탁류』(1937)에서 종로네거리의 모습을 “제법 박력있게 창공으로 검게 솟은 빌딩의 압기를 즐기면서, 레일을 으깨는 철의 포효와 도회지다운 온갖 소음으로 정신 아득한 거리”<sup>240)</sup>라고 묘사하였다. 빌딩이 ‘검게’ 솟았다는 것은 1930년대 사람들에게 종로네거리에 있었던 건물들은 고층 건물로 인식되었음을 짐작케 하는데, 『탁류』가 쓰인 1937년도에 종로네거리에 있었던 건축물들을 살펴보자.



- ① ② 화신백화점    ③ 양품백화점    ④ 한미전기회사    ⑤ YMCA  
⑥ 동일은행    ⑦ 유창상회    ⑧ 유창상회    ⑨ 조선야소교서회

[그림 3-79] 1937년의 종로네거리의 주요건축물들

239) 장규식, 『서울, 공간으로 본 역사』, (서울: 혜안, 2004), pp.70-1

240) 채만식, 『탁류』, pp.631-2

[표 3-16] 종로네거리의 주요건축물들

구분	건물명	주소	기공	준공	구조
①,②	화신백화점	2-3,5	35.05.05	37.10.30	콘크리트 6층
③	양품백화점	2-7		36.12	콘크리트 3층
④	한미전기회사	2-8		01.	벽돌 2층
⑤	YMCA	2-9	07.05	08.12.03	벽돌 3층
⑥	동일은행	남1-1		31	3층
⑦	유창상회	2-101		28	3층
⑧	한정빌딩	2-100	34.03.26	35.06.10	콘크리트 4층
⑨	조선야소교서회	2-91	30.04	31.06.01	콘크리트 4층

〈출처: 여환진, 본정과 종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10, p.83 참조〉

종로의 주요 건축물들은 1926년 이전까지 서양인들이 세운 건물이었고 한옥이나 한옥 2층 상가가 거리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1920년대 중반까지 큰 경관 변화는 없었다.<sup>241)</sup> 1930년대 이전까지는 <표 3-16>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전기회사, YMCA, 유창상회가 종로네거리의 랜드마크였을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1931년 12월에 화신백화점의 전신인 동아백화점이 박길룡의 설계로 콘크리트 4층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서양인이 아닌 조선인 최남이 세웠다는 사실은 조선인들에게 자랑거리였다. 이같은 사실은 1932년 6월에 발행된 잡지의 한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

A: 자, 저것 보게. 종로네거리 사충양옥에 높이 앉아 내려다 보는 맛이 어떠한가. 저 맞은 집이 본래는 ‘골부란’의 전기회사로 지은 집일세. 삼십년전 그 당시에는 조선 제일의 굉장한 집이라고 상투쟁이 구경꾼이 혀를 뱉어 내저었다데마는 오늘 보아도 집이 그리 크지는 못하나 꽤 이쁘고 튼튼하게 생기지 않았나.

B: 골부란의 회사집의 명성이 바로 그 옆 청년회관 삼충양옥 때문에 놀리우더니 인제 우리가 앉은 이집, 즉 예수교서회 빌딩이 콘크리트 사충에 엘리베이터를 모셨으니 인제 골부란의 유적도 그 권위가 매우 손상된 셈일세 그려.

A: 자, 그리고 보니까 우리 조선의 중심인 서울. 또 그 북판이라 할 종로 바닥에 큰집이라고는 코큰 사람이 선편을 죄다한 셈인가. 골부란의 전기회사, 그 다음은 와 나메커가 돈주어 지은 청년회관, 그리고는 이 예수교서회, 이로 구야 조선사람의 얼굴이 뜨뜻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동화백화점의 건축물이, 그러니까 단연 종로네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되면 안된다. 건방은 적을망정 지충양이요, 엘리베이터에 스팀히팅에

241) 여환진, 전게서, p.85

식당과 옥상정원까지 백화점 모형 모양으로 잔잔하게 차려 놓은 것이 누가 무어라 하더라도 조선인을 위해 만장의 기쁨을 토하는 것이겠지.<sup>242)</sup> [밀줄 연구자]

1932년에 발행 된 잡지의 이와 같은 이야기에서는 종로네거리의 랜드마크가 당시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30년 전, 즉 1901년에는 벽돌 2층의 구조로 된 한미전기회사 건축물이 구경꾼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주요 건축물이었지만 1908년 바로 옆에 벽돌 3층 높이의 YMCA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그 명성이 이동하게 된다.(〈그림 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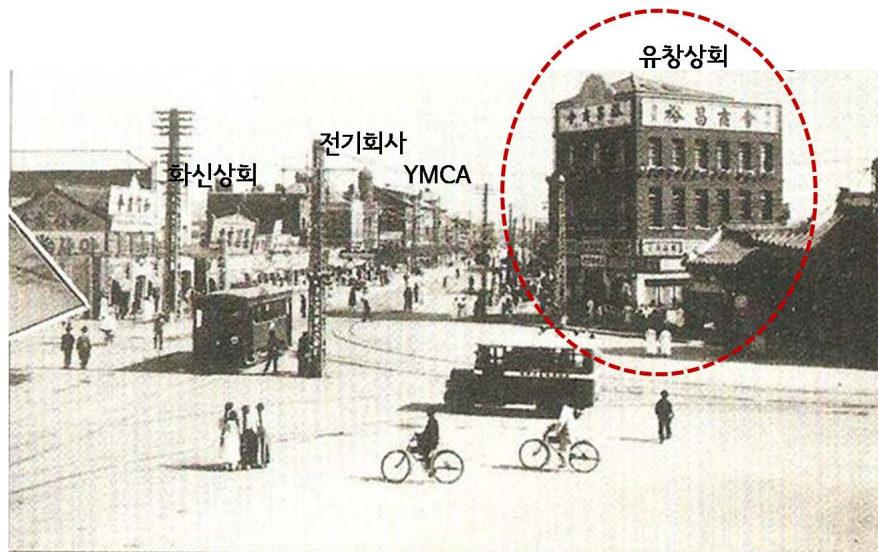


[그림 3-80] 한미전기회사(1901)와 YMCA(1908) (경성엽서사진첩)

그로부터 이 이야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림 3-81>과 같이 종로네거리에는 1928년 3층 높이의 유창상회가 들어서게 되는데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아백화점이 들어서기 전까지 종로네거리의 랜드마크는 유창상회였다.

242) 벽이자(壁耳子), "종로야화", 『동광』, 1932년 6월





[그림 3-81] 1928~1930년경 종로네거리

1931년에는 이야기 속 인물들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인 4층 높이의 조선야소교서회와 동아백화점, 그리고 3층 높이의 동일은행이 차례로 들어서는 것을 시작으로 1930년대 종로네거리의 경관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고, 『탁류』(1937)가 쓰인 해에는 종로네거리의 지배적인 랜드마크가 되는 화신백화점이 새로 신축된 해로, ‘빌딩의 압기’가 느껴질 정도로 당시로서는 고층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림 3-82] 1938년 종로네거리

1936년 경성도시문화연구소에서 일본인이 간행한 『신판 대경성 안내』에서는 종로의 이러한 가로경관 변화를 ‘근대적인 화장’을 하고 있다고 비유하면서 경성의 근대화발전의 상징 중 하나로써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던 일본인의 관점으로, 당시 종로가 지니고 있었던 장소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우리 경성에 있어서 조선인 상점가도 약진하는 경성의 발걸음에 맞추어 점차 근대적인 화장을 하고 있다. 조선의 은좌인 종로에서부터 하루가 다르게 낮고 낮은 조선식 건물의 상점이 사라지고 이를 대신해서 양관 건물이 하늘을 향해 입체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것은 신흥 경성의 가장 큰 심볼 가운데 하나이다.<sup>243)</sup>

반대로 추리소설작가 김래성은 1939년의 종로거리를 바라보며 사라져가는 종로의 장소성을 염려하고 있으며, 조선인의 거리로써 종로의 장소성을 규명할 수 있는 남아있는 유일한 요소는 ‘흰 옷차림의 조선인’이라고 하였다.

종로는 경성의 심장으로서 순수 조선인 거리이다. 관광객들은 우선 경성역 앞 남대문의 웅장한 모습을 보며 조선을 느끼고 다음으로는 이 종로통 사거리에 서서 흰 물고기처럼 굽이치며 걸어가는 흰 옷차림의 조선인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만약 이 종로통의 페이브먼트에서 흰 옷차림을 없애버린다면 과연 이국인들은 거기에서 얼마나 조선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일으킬 정도로 거기에는 조선의 전통을 자랑할만한 오래된 옛 점포의 그림자는 점차 사라지고 어느 나라의 도회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벽돌이나 콘크리트의 소위 근대적 빌딩이 숲처럼 서 있다.<sup>244)</sup>

근대화가 되면서 화려한 양장을 입은 모던보이, 모던걸 등이 거리에 출연하기도 했지만 조선인의 거리인 종로에는 1930년대 후반까지 여전히 조선인의 상징인 흰 옷차림을 입은 조선사람들이 거리의 특별한 경관요소로서 작용함으로써 그 거리의 성격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변화한 근대적인 거리에서 여전히 전근대적인 옷차림의 사람들은 분명 특별한 경관요소이긴 했지만 이질적이고 어색하기도 했다.

한설야의 『마음의 향촌』(1939)에도 그러한 이가 종로네거리에 등장한다.

243) 야노 타테키, “일본인의 눈에 비친 1930년대의 경성-야노 타테키의 신판대경성안내로부터”, 한동수(역), 『이방인의 순간포착, 경성 1930』, (서울: 청계천문화관, 2011), p.251에서 재인용

244) 김래성, “종로의 범종”,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39』, (서울: 어문학사, 2007), pp.259-60

전기불이 반짝어리기 시작한 종로네거리로, 아래 위를 하이야케 차린 여인을 실은 한 대의 인력거가 미글어지듯 가볍게 달린다. 초향이는 도회인에게 완전히 버림 받은 달을 실로 오래간만에 발견한 듯 달리는 인력거 위에서 머얼리 미소를 던져본다. . . 번잡한 도심지대인 종로네거리의 드높고 으리으리한 이 삼층 벽돌집이 맛팩이에는 유행가 레코-드와 영화광고 같은 간판이 지저분하게 나붙어 있다. 그리고 밤을 기다리는 환락향의 찬란한 네온싸인은 불을 따르는 벌레의 심리를 가진 일련(一聯)의 인간 군(群)을 철학자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 거리의 인간들은 나를 웃게하고 거룩하게 하는 애교 있는 못난이와도 같다. 가가앞 라디오 아가리에서는 막걸리 같이 탁한 소리가 지금 한창 신이 나서 무엇을 떠버리고 있다. 사람들은 턱을 들고 그것들을 쳐다보고 있다. 빛과 소리가 현대와 같이 사람을 우롱해 본일은 아마 일즉 없을 것이다 ...그는 머리를 쪽지고 갓신을 신고 인력거를 탄 자기의 근경이 현대에서 뒤떨어진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마음만은 이른바 현대를 한번 주물러주고 유혹해보고 싶은 충동에 뛰고 있다.<sup>245)</sup> [밑줄 연구자]

‘도회인에게 완전히 버림 받은 달’은 밤거리가 밝음을 뜻함과 동시에 더 이상 도시의 밤에는 필요없음을 의미한다. 소설 속 초향은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그런 달을 마치 소중한 존재인듯 미소를 던져주지만 달과 대조되는 네온싸인은 벌레들이 달려드는 불에 비유한다. 빛과 소리가 사람들을 우롱한다고 회의적인 관점을 보이면서도, 머리를 쪽지고 갓신을 신은 자신이 현대를 유혹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김남천의 「T일보사」(1939)에 나오는 전차 창밖으로 본 종로의 가로풍경이다.

우편소, 유기점, 갓신방, 보료와 혼인예물, 간장과 청주, 양화점, 여관, 피혁상, 식료품가게의 간판들이 따분하게 움직이고, 까마 짹짹한 낡은 관사건물이 지낸 곳에 담배가게가 나타나곤, 똑 떨어져서 허접한 골목, 이어서 식료품 상점의 붉은 벽돌이 눈앞에 휘끈 지나갈 때, 그는 지붕 위에서 펄럭거리는 T일보사의 깃발을 발견하였다. 엇비듬히나마 차안에서 지붕의 깃발이 보일만큼 사육은 나지막한 이층 양옥.<sup>246)</sup>

산간지대의 작은 마을에서 상경한지 닷새 밖에 되지 않은 김광세는 종로에서 전차를 타서 바깥 풍경을 관찰한다. 그런데 단순히 근대거리가 신기해서 보는 것이

245) 한설야, “마음의 향촌(1)”, 『동아일보』, 1939년 7월 19일

246) 김남천, “T일보사”, 『人文評論』, 1939년 11월, pp.132-4



아니다. T일보사에 처음 찾아가는 그는 전차 창밖으로 스쳐지나가는 거리의 간판을 ‘구경’이 아니라 ‘관찰’하여 목적지의 지표를 발견하고 전차에서 내린다.

<그림 3-83,84>과 같이 근대거리는 이제 ‘간판’이라는 지표가 붙어있는 건물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갓 올라온 사람도 헤매지 않고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게끔 하였다.



[그림 3-83] 종로 한경선양화점



[그림 3-84] 종로 조선축음기상회

## ■ 화려한 근대문명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거리

1930년대 종로는 화신백화점을 중심으로 ‘높은 빨당’이 생겨나고 ‘스톱-고’라는 신호등이 종로네거리에 생길 정도로 교통량이 늘어났으며, 밤에는 현란한 네온사인 등으로 종로거리를 채우며 외관상 근대도시거리를 형성해가고 있었던 반면 그 바로 뒷골목인 피맛골·행랑뒷골에는 그러한 현란한 종로거리는 ‘딴 나라 별 세상 이야기’ 처럼 여겼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종로 뒷골목에는 맥주나 양주를 파는 화려한 카페가 아닌 선술집이, 백화점 식당이 아닌 설렁탕집이 밀집해 있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조선인들이 고된 일상을 씻어내는 장소이자 그들의 보금자리가 있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였다.

행랑뒷골의 풍경은 채만식의 「여름 도시밤 ETC」(1934)에 잘 묘사되어 있다.

행랑뒷골에 사람이 늘비하게 넘어져 있다. 단 풍진(風陣)의 자취가 아니라 빈대군에 쫓겨난 사람들이다. 거적자기 한뼘 토막 한 개로 땅을 요로 삼고 별문(紋)을 반자지(紙) 삼아 코를 들들 곤다. 그중에는 더블베드도 있다. 아기까지 데린 일가족동반도 있다. 이런 광경을 하느님이 내려다 본다면 쓸데없는 생물 빈대를 창조한 당신의 실수를 후회할 것이다.<sup>247)</sup>

반면 같은 풍경을 일본인이 묘사한 글을 보면 그들에게는 이색적인 풍경이었다.

여름 밤 9시인가 10시쯤 전차길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 들어가니 어시장에서 참치를 넘어뜨린 것처럼 때가 낀 백의의 인간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다. 경성에 온지 얼마 안됐을 때는 행려병자인가 싶어 무서운 것을 보고 싶은 마음에 몰래 엿보곤 했다. 하지만 병자도 아니거니와 광인도 아니다. 당당한 남자가 돛자리를 한 장 깔고 푸른 하늘을 천장 삼아 여유롭게 코를 골고 있다. 거지인가 의심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한 집의 어엿한 가장이 실내의 심한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거리 위에서 밤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곳은 가로등도 없어서 어두컴컴한지라 움직이더라도 하면 밟히거나 채일 수도 있다.<sup>248)</sup>

피마골에는 대가집 문간 행랑살이를 하는 행랑아범, 행랑어멈들의 고단한 일상 또한 배어 있었다. 인사동에서 북촌에 이르는 지역에는 전통적인 명문 대가집들과 상공업으로 돈을 번 전날의 중인계급, 그리고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부담금을 피해, 돈 투기를 하거나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는 지방부호들의 소위 문화주택이 여럿 있었다. 피마골은 이러한 상류층 고급주택에서 행랑살이를 하며 모진 삶을 살던 행랑아범, 행랑어멈들의 ‘해방’의 공간이었다.<sup>249)</sup>

다음은 채만식의 『명일』(1936)에 나오는 종로네거리의 풍경이다.

그는 점원의 멸시하는 시선을 뒤통수에 받으면서 금은상을 나와 화신 앞으로 건너왔다 ... 새까만 거지아이놈이 조그맣게 두손을 내밀면서

247) 채만식, “여름도시밤ETC”, 『中央』, 1934년 7월, pp.129-30

248) 이치유, “여름의 조선인 거리”, 『조선빛만주』, (1930년 8월), 채숙향, 이선운, 신주혜(공역), 『조선 속 일본인의 예로경성 조감도』, (서울: 문, 2012), p.19에서 재인용

249) 장규식, 전계서, p.82

“나리, 나 동전 한푼만” 한다 ...

“부모없니?”

“없어요.”

“돈 시방 없다. 이담에 주마.”

“흥, 한푼만 줘쇼.”

거지아이들은 범수가 상냥하게 말을 하니가 어리광하듯 떼를 쓰고 달라붙는다.<sup>250)</sup>



[그림 3-85] 종로의 걸인들  
(조선일보, 1933년 2월 16일)

근대화의 상징인 화신백화점 앞에서 거지 아이가 구걸하는 장면이다. 종로 대로에는 특히 걸인이 많았고 노숙하는 이들도 많았다. 종로 뒷골목이 아닌 대로, 특히 종로네거리에서는 어린 걸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는 그들만의 치열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귀찮을 정도로 따라오며 구걸하는 어린 걸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박태원이 친구에게 알려준 ‘어린걸인 퇴치법’<sup>251)</sup>에서도 엿 볼 수 있다.

1936년 10월에 ‘천안자(千眼子)’라는 기자는 새벽 2시의 종로거리를 탐방하며 노숙하고 있는 어린 두 걸인을 취재한다.

마침 민중의원 정문개에 왔을지음 기자의 눈에는 언제든지 종로를 밤중에 거닐적마다 눈에 띄는 존재! 그것은 바로 민중의원이 단쳐버린 철문 아래 주린 안식(安息)을 찾고 있는 어린 두 걸인이었다 ... 서울 종로의 거리엔 걸인이 많다 ... 지나다니는 사람도 그러한 것인가 보지만 당국자(當局者)들까지도 이 어그러진 존재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조차 없는듯이 보여지는 것이다.<sup>252)</sup> [밑줄 연구자]

기자가 본 어린 두 걸인이 노숙하고 있는 민중의원은 당시 종로2가 13번지인 종로네거리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다. 나이가 15세, 12세인 아이들은 사춘지간으로

250) 채만식, “명일” (1936), 『채만식전집』 7,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9), pp.158-19

251) 추풍연, “야시부근-종로야화”, 『여성』, 1938년 10월

252) 천안자, “서울판 심경(深更) 주간 오후2시의 종로”, 『사해공론』, 1936년 10월

두 명 모두 부모가 사망 후 공주에서 서울로 와 구걸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아이들이라는 것으로 보아, 종로의 걸인들은 전국에서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올라온 이들로 형성되었던 것 같다.

조선인들의 거리로 모여든 수많은 걸인들은 같은 조선인들에게조차 성가신 취급을 받고 일제당국에서도 심각성은 알지만 이들을 구제해주지 않았다. 화려한 근대문명의 거리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울리지는 못하는 이중적인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그림 3-86] “선술집 시대”  
(조선일보, 1933년 10월 24일)

종로뒷골목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던 것은 무엇보다도 선술집이었다. 선 자리에서 단돈 5전에 간단한 안주를 곁들여 약주나 막걸리 한 사발을 해결할 수 있는 선술집은 값싸고 간편한 데다 누구나 손쉽게 드나들 수 있어 크게 각광을 받았다. 당시 조선인의 생활에 걸맞는 서민적 술집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날에는 하층민들이나 드나들던 것이 1920년대 무렵부터는 말쑥한 신사, 모던 보이족들도 요리집이나 앓은 술집 다니듯이 보통으로 출입하였다. 1930년대 중반에는 종로 1정목에서 동대문까지 뒷골목을 따라 약 220개 정도의 선술집이 성업하였다.<sup>253)</sup>

이러한 선술집은 주로 돈 없는 조선인들이 갔는데, 당시 만문만화에서 묘사한 선술집 풍경을 살펴보자.

월급은 쥐꼬리만 해도, 빛은 해변같이 불어가고, 뒷사람에 붙여지내고 집에 들어가면 있어도 밤낮 없다고 짹알대며 바가지를 긁는 아내의 외마디 소리도 듣기 싫고, 그러니 화를 풀 도리가 없으니 선술집으로 들어간다. 이리하여 선술집은 나릿짜리 서방님짜리 행랑아범들이 여러 사람의 침에 찍어가는 젓가락에 안주를 피여가지고 복적거린다.<sup>254)</sup>

253) 장규식, 전계서, p.81

254) 안석영, “선술집 시대”, 『조선일보』, 1933년 10월 24일

## ■ 종로의 밤을 밝혀주는 야시장

종로에 야시가 개설된 것은 1916년부터로, 당초 종각 앞 전차 교차점에서 탑골 공원까지 큰길 남쪽으로 236칸을 계획했던 것이 신청자가 몰려 단성사 부근까지 확장되었다. 종로야시는 매년 200~400명이 개점 허가를 신청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는데, 포장으로 천막을 치거나 하고 전등으로 불을 밝힌 다음 땅에 좌판이나 돛자리를 깔고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은 밤거리의 장관이었다. 길거리 빙수집 앞에서 구수하게 ‘싸구려’를 외치며 손님을 끄는 상인, 대나무 막대기에 수건을 걸어놓고 파는 상인, 물건값 흥정하는 사람, 여름밤 소풍 겸해서 길거리로 나온 사람, 점쟁이 관상쟁이 지게꾼 거지에 이르기까지 각인각층의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개방적이고 대중적인 거리문화를 연출하였다.<sup>255)</sup> 1930년대 종로 야시장의 모습을 문학작품을 통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박태원의 연재소설 『우맹』(1938)의 일부분이다.

그는 그래 야시장으로 가 본다. 여름철의 야시장은 가뜩이나 사람이 들끓는다. 젊은이, 늙은이, 사내며, 아낙네며....., 더욱이 이곳에는 아낙네가 대부분이다... 다시 우미관 편을 바라고 되내려오려니까 사람들이 몰려서서 들여다보는 것은 ‘두 가지에 십오전짜리’ 싸구려 판이다. 맹 서방은 한껏 피로한 다리를 그 앞에 멈추어 본다. 세 숯비누가 있다. 지푸가 있다. 거울이 있다. 빗이 있다. 대체 지갑에, 주머니칼에, 별의 별 잡동사니가 산같이 쌓인 것이, 그것이 모두, “어느 것이든지 골라잡어 두 가지에 십오 전씩!” 이라 한다. ‘필시 물건이 낮은 게지.’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하여튼 무엇이고 골라서 두 가지에 십오 전씩이면 정녕 짠 것같이 맹 서방은 느꼈다. 사람들이 다투어서 물건들을 고른다.<sup>256)</sup> [밀줄 연구자]

‘두 가지에 십 오전’이라는 가격이 농촌에서 올라온 가난한 맹 서방에게조차 싸게 느껴져 결국 필요도 없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고르지만, 맹 서방도 그 가격에 물건이 안 좋을거라고 예상했듯이 실제로도 야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대부분 품질이 뛰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숯비누, 거울, 빗 등 대부분 생활용품으로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실용적이었다.

255) 장규식, “일제하 종로의 문화공간”, 『종로: 시간,장소,사람』, (서울: 서울학연구소, 2002), p.177

256) 박태원, 『금은탑』 1, (서울: 깊은샘, 1997), pp.276-8



다음 <그림 87~92>에서 당시 종로 야시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현재 재래시장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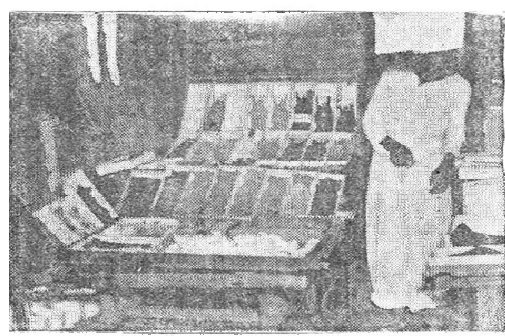
[그림 3-87] 종로 야시장 1  
(동아일보 1938년 7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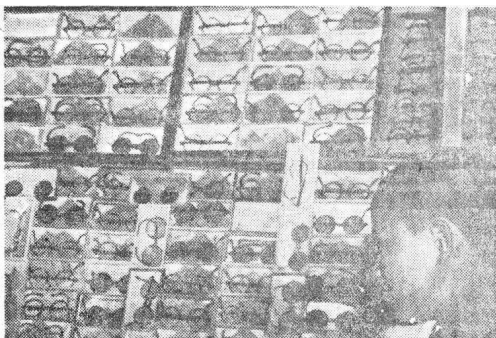
[그림 3-88] 종로 야시장 2  
(동아일보 1938년 7월 16일)



[그림 3-89] 종로 야시장 3  
(동아일보 1938년 7월 17일)



[그림 3-90] 종로 야시장 4  
(동아일보 1938년 7월 22일)



[그림 3-91] 종로 야시장 5  
(동아일보 1938년 7월 28일)



[그림 3-92] 종로 야시장 6  
(동아일보 1938년 8월 7일)

그러나 야시장은 꼭 물건만 사기 위해 가는 곳은 아니었다.

나는 요즈음 저녁을 먹고나면 야시장 근처를 거니는 것이 일과인양 되어버렸다 ... 밤이 오면 거리에 나가도 우선 덥지가 않을뿐더러 나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듯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까닭에 번거러워 좋다 ... 야시를 걷는 때의 마음은 훨씬 가볍다. 첫째 야시는 집속이 아니므로 백화점과는 달리 무척 자유롭고 모든 것이 만만하다. 야시의 역사란 진실로 밤에 지어지는 점만으로도 우리들에게 적절하여 다뭇 사랑스러운 정조차 스민다. 내가 야시를 거닐 때는 거저 구경만하고 돌아다니지 않고 이따금 내어놓은 물건을 만져보거나, 값을 물어보거나 하여 어쩌면 그들 장사아치와 마소라도 교섭이 있는 때문에 요새와서는 몇몇 사람과 사귀게 되어서 나만 가면 변연히 내가 아무것도 흥정을 안하는 사람인줄 알면서 친절히 인사를 하는 사람까지 생겼다.<sup>257)</sup>

야시는 사람들을 집에서 밤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다. 야시장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은 그저 야시장의 분위기를 즐길 뿐이다. 혹은 밤에 종로의 화신백화점에 갔다가 ‘건물 안’ 이라는 공간적 한계에서 복직한 사람들에 질려 백화점을 나와 다시 거리로 나섰을 때 마주치는게 ‘건물 밖’ 야시이기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야시장은 백화점과 대조되는 공간이었다.



[그림 3-93] 종로 야시장 풍경 (동아일보 1935년 8월 15일)

... (백화점을 나와) 건너편 야시장 속으로 들어서니 어쩐지 시원한 맛이 났다. 늘 어놓은 물건이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실용적, 구수하게 ‘짜구려’ 부르는 가지각색의 외이는 소리도 대중적 음조가 띄워있고 오고가는 사람도 각인각층, 아모려나 길거리의 야시장은 백화점의 땀냄새 속에 비하면 확실히 해방적이지요, 대중적이다.<sup>258)</sup>

257) 추풍연, “야시부근-종로야화”, 『여성』, 1938년 10월

전반적으로 진고개 미쓰코시백화점과 일본상인의 북진 공세에 밀려 퇴각을 거듭하는 속에서도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가지며 종로상가의 옛 명성을 이어간 것은 야시였다. 종로밤거리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야시는 전통과 근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대중적인 열린 마당으로서 일제하 종로의 첫째 가는 명물이었다.<sup>259)</sup>

그러나 1940년에 일본잡지의 한 탐방기를 보면 야시장의 풍경은 조금 퇴색되어진 것 같다.

종로의 밤거리는 노점상으로 즐비하다. 경성의 야시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물건을 사지 않고 값만 물어보고 다녔는데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선 바나나 가게이다. 위세가 당당하여 싼 값으로 판매하는 일은 없다. 턱수염을 기른 아저씨가 유유히 곰방대를 물고 사고 싶으면 사라는 식의 태도이다. 콩가게에는 남경콩이 잔뜩 쌓여 있다. 사과와 굴 가게가 있고, 셔츠가게는 이미 여름 물건을 팔고 있다. 아이스크림 가게는 아사쿠사를 떠올리게 한다. 지갑이나 넥타이 가게는 손님을 부르지 않으니 그냥 지나친다. 잉크 지우개 가게만이 조선어로 소리치고 있었다. 옷감 가게와 골동품 가게를 훑어져라 쳐다보았지만 대단한 물건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조선 바둑이 있는데 오목은 아니다. 이렇게 구경하며 다니는 동안 이들 가게에 멀쩡히 서서 바보처럼 물건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자뿐이고, 다른 손님들은 쭈그리고 앉아서 꼼꼼히 물건을 살펴보고 다닌다.<sup>260)</sup>

## ■ 물건을 사지 않는 종로 상점가

본고는 종로가 나오는 1930년대 문학작품을 살펴봤을 때 ‘조선인 상점의 거리’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종로 상점가에서 물건을 사는 장면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일본인의 거리인 본정(진고개)<sup>261)</sup>으로 가거나 단지 물건을 구경하는 윈도우 쇼핑(window-shopping)을 하러 갈 때조차 본정으로 가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였다. 종로에서는 소비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살 때 화신백화점을 이용하였고 가난한 이들은 야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그

258) “기자총출 일시간 밤거리 탐방”, 『별건곤』, 1932년 7월

259) 장규식, 전계서, p.105

260) A기자, “경성 변화가 탐방기”,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서울: 어문학사, 2009), p.291

261) 진고개를 바꿔부른 명칭이 본정이다.



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이유를 고찰하려 한다.

일본인이 점차 북부로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이 북촌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해도, 남촌과 북촌 지역의 차이는 너무나 컸고, 식민지적 근대화가 진행되는 한 그 차이는 좁혀지기 어려웠다. 그런데 경성 안에 일본인 밀집 거주 구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단지 지리적인 수준의 공간분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도시공간의 이중성과 두 지역에 대한 개발정책의 차별성은 두 지역의 사회·문화를 다르게 만들었고, 결국 경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과 정서까지도 이중성을 띠게 만들었다. 특히 일본인 지역의 대표적인 ‘본정’은 가장 변화한, 즉 근대를 상징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도시공간의 분화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이중성은 근대성과 식민지성에 대한 이중적인 경험과 다름이 없었다.<sup>262)</sup>

앞서 방인근이 『마도의 향불』(1933)에서 종로와 본정을 겨울과 봄으로 비교한 것을 언급하였는데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이중성이 드러난다.

종로는 광막하고 쓸쓸하지만 진고개는 찬란하고 변화하다. 오붓하게 상품을 버려 놓고 유리창 하나라도 깨끗하게 닦아놓고 진열장도 미술적으로 꾸며놓아 신선미도 있거니와 . . . 진고개는 사람사는 곳과 같고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레코—드 소리에 발맞추어 청춘남녀가 웃으며 걸어간다. 꽃모양으로 갓을 짠 수천개 전기등이 꽃처럼 피어서 더욱 찬란하다. 그 물결 속에 조선학생 십여명이 떼를 지어 가다가 몇 명은 모자점으로 들어가고 몇 명은 음식점 에도가와(江戸川)로 쭉 들어간다.<sup>263)</sup> [밀줄 연구자]

소설 속 주목할 부분은 ‘미술적으로 꾸며놓은 진열장’과 일본인 거리인 본정에 떼를 지어 가는 ‘조선인 학생 10여 명’이다. 먼저 조선인 학생들이 본정을 찾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본정을 찾아간 일본 기자의 「경성 변화가 탐방기」를 살펴보자.

기자와 같은 테이블에 모던한 조선학생이 라이스카페를 먹고 있길래 무심코 거리 풍경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 학생은 웃으면서, “본정을 걸으면서 조선의 젊은 아베크족들이 많은 걸 모르셨나요.” 라고 한다.

“종로 쪽을 걸으면 조선인이 많아서 남의 눈에 띄기 쉬우니 조선인 아베크족들은 대개 본정으로 온답니다. 종로는 조선인끼리 서로 편하게 다니기 때문에 여자를 데리고 걸

262) 김영근. “도시계획과 도시공간의 변화”,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서울: 혜안, 2004), p.65

263) 방인근, “마도의 향불(90)”, 『동아일보』, 1933년 3월 21일

으면 이런 놈을 봤나, 건방지군 하며 덤벼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베크족들은 모두 본정으로 몰리지요.” 이런 얘기를 듣고 거리를 보니 정말 아베크족들의 러브퍼레이드다.<sup>264)</sup>

조선인과 일본인의 중심 근거지가 본정이 있는 남촌, 종로가 있는 북촌으로 분명히 구분되었고 그들의 활동무대가 공간적으로 달랐듯이 경성내의 남촌과 북촌은 모든 방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른바 근대적 도시계획의 영향으로 새로이 남촌 지역이 경성의 중심지로 되면서, 이 지역의 토지 가격이 월등히 비싸졌음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시개발에 따른 여러 사회시설의 보급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경성에서 전등이 가장 먼저 가설된 곳이 진고개였고,<sup>265)</sup> 방울꽃 모양의 아름다운 가로등이 설치되어 진열창의 불빛과 어우러져 불야성을 이룬 곳도 그곳이었다. 경성을 관광할 때 진고개는 “전등이 켜진 후 보아야 할” 곳, 밤에 남산에서 내려다보면 금가루를 뿌려 놓은 것 같은 곳이었지만, 북촌의 심장인 종로에는 1930년대 중반에야 가로등 설치가 본격화 되었다.

또한 경성의 토지소유 관계를 보아도 일제 초기에 이미 진고개는 완전히 일본인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은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다름 없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内地(일본 본토) 이상으로 도시적”인 느낌까지 주는 곳이 되었다. 특히 연말연시가 되면 남촌은 다른 세상이 되어, 남촌과 북촌의 문화가 다름을 분명히 느끼게 해주었다.<sup>266)</sup>

이러한 단서를 바탕으로 왜 조선인들이 종로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본정으로 가는 것인지 1936년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한 「물건 사실 때 본정쪽으로 가십니까 종로쪽으로 가십니까」라는 기사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Q. 물건사실 때 본정쪽으로 많이 가십니까 종로쪽으로 많이 가십니까.

A1. 본정으로 갑니다. 이유는 신용이 될 것 같고, 가격도 싸고, 종로쪽으로 가서 조선사람에게서 산대야 근본을 캐면 그게 그거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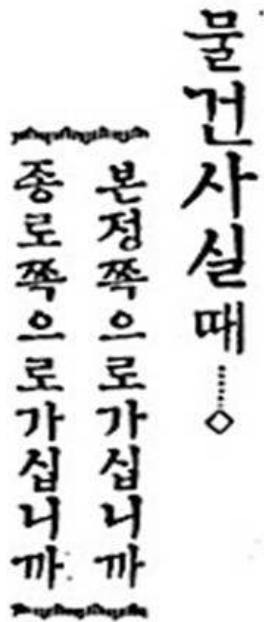
A2. 종로쪽으로 갑니다.

A3. 자연히 종로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264) A기자, “경성변화가 탐방기”,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40』, (서울: 어문학사, 2009), p.289

265) 경성에서 일반 민간인 전등시설은 1901년 6월 진고개의 상가에 점등된 약 6백여 등이 처음이었다. (경성전기회사, 『경성전기회사 60년 沿革史』, 1958, p127)

266) 김영근. “도시계획과 도시공간의 변화”,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서울: 혜안, 2004), p.64



[그림 3-94] 물건사실 때...  
(조선일보 1936년 1월 4일)

A4. 종로에는 조선사람에게 적당한 물건이 많으므로 가게 되고, 또한 이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니까요.

A5. 본정으로 많이 갑니다. 종로보다 무엇이든지 잘 구비되었고 가격도 좀 낮고 친절하고, 물건을 안사더라도 마음대로 볼 수 있어서요.

A6. 나도 본정으로 갑니다. 갑세도 상관이 되고, 친절미가 있습니다. 종로쪽 소매상들은 갑세 외누리를 하니까 안심이 안됩니다. 첫째 이 외누리가 없어야지요.

A7. 나도 본정입니다. 물품이 있어서요.

A8. 다 같은 물건이나 본정쪽이 싼 것 같아서요.

A9. 가참고 값싼데로 갑니다. 종로쪽에서는 좀 더 친절했으면 합니다.

A10. 잘못인줄 알면서도 습관이 되어서 본정으로 갑니다. 원인은 종로쪽이 불친절하고 물건구경을 좀 할래도 점원 네댓씩 모여 감시를 하고 섰으니 불안해서 못견디겠어요.

A11. 본정으로 갑니다. 상점이 많으니 물건이 많고 점원들 써-비스도 그럴듯해서 말하기도 뽀뽀하지 않고 편한 점이 있습니다.

A12. 나도 본정입니다. 까닭은 본점편이 물품이 많고 또 싼타이지요.

A13. 조선상점에 가면 어쩐지 서먹서먹해서 발길이 잘 들어서지 않아서 본정으로 많이 갑니다.

A14. 본정쪽이 자유로워 좋습니다.

A15. 종로쪽 상점은 마음먹고 가도 통명스럽고, 점원들이 히야까시 기분으로 대하는 듯 합니다. 우리가 여자들이라서 그런지.

A16. 나는 종로쪽으로 많이 갑니다. 본정으로 간대야 값이 별로 틀릴 것 같지 않고 또 선불리 전차까지 탄다면 결국은 더 비싸게 사는 셈이 되니까요.

A17. 친절함 품은 암만해도 본정인 것 같아요.<sup>267)</sup>

조선인 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명이 본정으로, 4명이 종로로 간다고 답하였다. 본정을 택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덧붙였지만 종로를 택한 4명의 사람 중 2명이 ‘가까워서’를 들었고 1명은 조선사람은 종로로 가서

267) "물건 사실 때 본정쪽으로 가십니까 종로쪽으로 가십니까", 『조선일보』, 1936년 1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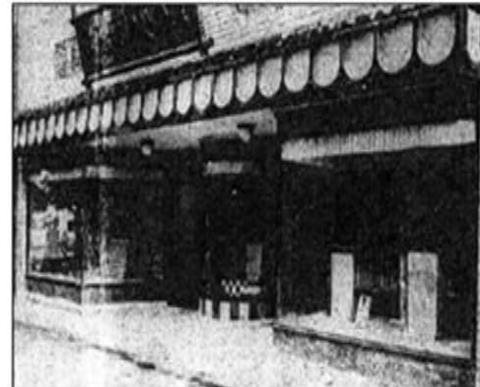
물건을 사는 것이 ‘의무’ 라는 이유를 들었다.

상점이 많고, 물품이 많으며, 친절한 점원, 싼 가격 등은 자본주의화 된 상점모습이며, 현재의 상점가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불친절하고, 물건을 사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안에 선뜻 들어가기가 불편하며, 흥정이 가능한 가격은 근대적인 상점가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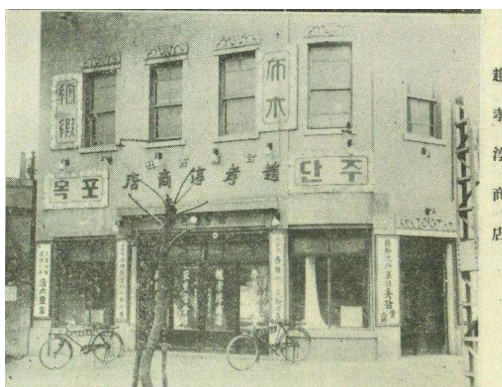
소설에서 언급한 본정의 미술적인 진열장, 즉 쇼윈도우는 종로의 그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본정의 경우 <그림 3-95,96>과 같이 양쪽에 쇼윈도를 배치하거나 정면에 하나를 추가해 3개의 쇼윈도를 갖는 것이 1930년대의 전형이고 또한 양쪽의 쇼윈도가 안쪽으로 기울어져 삼각형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종로의 경우 <그림 3-97,98>처럼 쇼윈도가 전체적으로 하나인 경우가 많았으며 평면적인 것이 일반적이라 본정에서의 삼각형태의 쇼윈도는 극히 드물었다.<sup>26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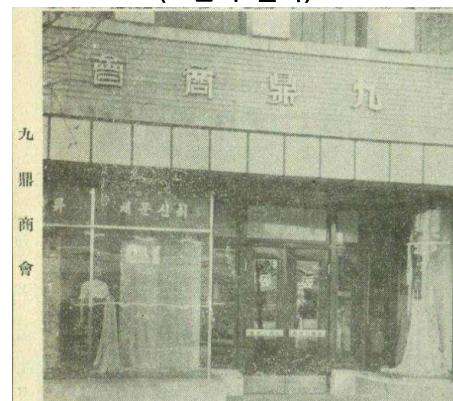
[그림 3-95] 키타무라 모자점(본정)  
(조선과 건축)



[그림 3-96] 미노야 오복점(본정)  
(조선과 건축)



[그림 3-97] 조효순 상점(종로 1-52)  
(대경성사진첩)



[그림 3-98] 구정상회(종로 1-54)  
(대경성사진첩)

268) 여환진, 전게서, p.181

쇼윈도우의 세련됨도 경쟁력이 되었겠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무엇이 특화된 상점가인가’ 일 것이다. 상점가의 성격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여환진(2011)은 1920~30년에 있었던 본정 1,403개, 종로 1,303개, 총 2,706개의 상점을 조사한 결과 본정은 문화품<sup>269)</sup>의 거리였고 종로는 의류품<sup>270)</sup>의 거리였다고 결론지었다.

각 품목별 특징으로 보면 결국 본정은 가족이나 친구, 혹은 연인과 데이트하러 가기 좋은 변화가의 특징을 보여준다. 즉 굳이 물건을 사러 갈 목적이 아니더라도 쇼윈도우에 진열된 물품을 걸어가며 구경을 하거나 또는 앞의 조선일보 설문조사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본정으로 주로 간다고 했듯이 부담없이 여러 상점 안을 들어갔다 나오며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의류품의 거리인 종로는 마음먹고 사러 가야하는 특징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본정의 가로처럼 다양한 품목이 진열된 쇼윈도우가 아니라 의류품이라는 제한된 품목으로 구성된 쇼윈도우로 단조로운 가로 경관을 형성하였다.

## 2) 남대문통

1840년대에 제작된 수선전도(首善全圖)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그림 1-9> 참조) 종로와 함께 주 간선도로였던 남대문통은 종로와 같이 시전(市廛)이 조성되어 조선시대 서울의 전통적인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곳이기도 하였다.

전통적인 상업가로였던 남대문통의 변화는 1894년 일본인 점포의 개설로 인한 ‘새로운’ 상권의 등장이 그 시발점이 된다. 이후 일본인 거주지의 확대와 함께 늘어나기 시작한 일본인 상권은 남대문통을 근대적 소비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남대문통의 변화는 황금정, 본정, 명치정(현재의 을지로, 충무로, 명동) 등 남촌의 발달과 더불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남대문통이 당시 남촌의 일본인 거주지 지역에 근접해 있음으로 인해 남촌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상업화, 도시화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다.<sup>271)</sup> 또한 황금정과 교차하고

269) 여환진(2011)은 문화품을 (1)약, 서적, 문방구, 전기기구, 시계, 꽃 (2)안경, 악기, 레코드, 운동용품, 가구, 어린이 탈것, 실내장식용품 (3)동물, 새, 금붕어, 미술골동, 낚시, 회화재료, 브로마이드, 귀금속, 식목, 종묘, 불교용품, 진주, 취미품, 만년필, 인형, 가스기구, 토산물, 고급금속제품, 상아, 게임용품으로 분류하였다.

270) 의류품은 (1)종합의류, 실용의류 (2)오복, 양품, 침구 (3)직물, 주문복, 양장, 면류, 모직류, 작업복, 바지, 우비, 넥타이, 메리야스, 여자속옷, 브라우스, 세타로 분류하였다.

271) 조은주, 전계서, p.104

본정의 입구와 맞닿아 있었던 남대문통 1정목과 2정목은 조선은행, 식산은행, 한성은행, 저축은행, 상업은행 등 당시 경성의 주요금융기관은 이 지역에 집중되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가로경관의 변화상도 이곳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림 3-99] 가가(假家)를 정비하기 전(1898년)과 정비한 후(1904년)의 남대문로 (서울풍광)

그러나 1896년 대한제국정부의 도로정비사업에서 종로일대와 함께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정도로—그만큼 당시 조선의 중심공간이기도 하였으나—‘정비’를 해야 할 가가(假家)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그림 3-99>에서 보는 것처럼 가가를 정비한 후인 1904년에도 여전히 높이가 낮은 전통적 초가·기와집이 남대문로 일대를 뒤덮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전통적 공간이 불과 30년도 안되어 근대건축물이 가장 많이 늘어선 화려한 금융의 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연구자가 찾은 1930년대 문학작품 속의 남대문로는 주로 ‘미쓰코시백화점 앞’과 백화점 앞의 ‘조선은행 앞’이라는 공간적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표 3-17>과 같다.

[표 3-17] 1930년대 문학작품 속의 남대문통

장르	작가	작품명	시간	공간	인간
수필	김기림	바다의 유혹	1931년 8월 오후 퇴근시간	광장	월급쟁이들, 모던걸들
소설	방인근	마도의 향불	1932년 11월 늦은 밤	미쓰코시백화점 앞	영철, 숙경
소설	이무영	지축을 돌리는 사람들	1933년 8월 저녁 6시	미쓰코시백화점 앞	—
소설	현경준	마음의 태양	1934년 밤	미쓰코시 식당에서 내려다본 거리	경호, (인숙)
소설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34년 8월 1일 오후	경성우편국	구보, 이상

소설	이상	날개	1936년 9월 정오	미쓰코시 옥상에서 내려다본 거리	나
소설	채만식	명일	1936년 10월	남대문통	범수
수필	김남천	가로	1938년 5월	조선은행 앞 광장	
소설	박태원	우맹	1938년 5월 토요일 오후5시	본정 입구	동오, 신곰보
소설	김남천	T일보사	1936년 1월		김광세

### ■ 일상적이면서 비일상적인 장소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구보는 경성을 배회하며 남대문통 1정목에서 5정목까지 모두 3번을 거쳐가지만 ‘경성우편국’, ‘조선은행’이라는 명칭만 잠시 언급할 뿐(경성우편국도 엄밀히 말하면 미쓰코시 백화점과 함께 본정 입구에 있었다), 그 경관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하지 않는다. 특히 근대건축물들이 양옆으로 가장 많이 있었을 남대문통 1,2정목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

남대문로는 일제가 침략하기 전까지 조선시대부터 오랫동안 시전(市廛)이자 남쪽 교외로 나가는 국도로써 북촌·남촌이라는 공간적 분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조선인들의 일상적 공간이었을 것이다. 일제에 의해 경성역에서 조선총독부까지 직선의 태평통이 만들어지면서 남대문통의 국도로써의 기능은 태평통으로 옮겨갔지만 조선인들에게는 여전히 종로와 경성역, 그리고 모던 보이들이 즐겨 찾았던 본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나가야 했던 중심도로였다.

소설 속 구보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인들도 일상적으로 지나다녔던 남대문로는 종로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근대적 경관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근대를 체험하는 곳이었을 것이다. 남대문통의 근대 은행 건축물들이 만들어내는 스펙터클(spectacle)은 지나갈 때마다 조선인들의 시선을 무의식적으로 끌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그랬듯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제한된 공간이었고 결과적으로 남대문통은—특히 은행들이 밀집한 1,2정목과 조선은행 앞 광장—은 일상적이면서 비일상적인 장소였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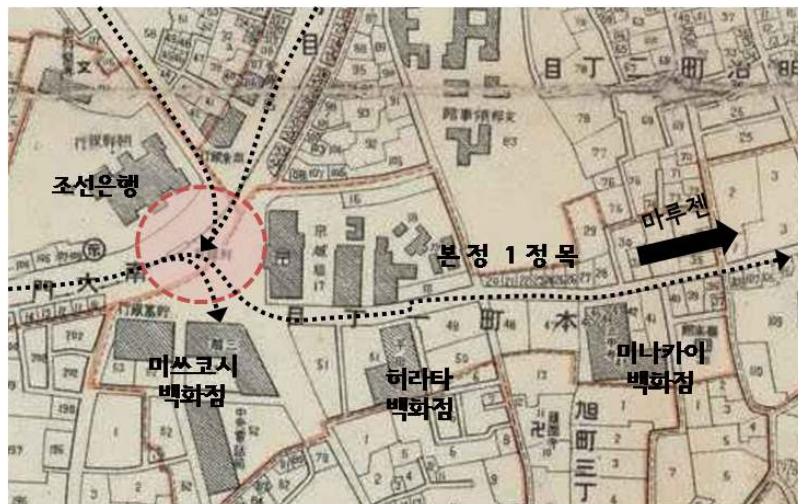
김남천은 수필 「가로(街路)」(1938)에서 소설을 쓰기 전 등장인물들의 동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래 생각 끝에 조선은행 앞을 잡아본다.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작중 인물의 청년 남녀는 이곳을 여러 번 내왕하게 된다. 지드 권이나 펄 벅 권이나 읽히려면 마루젠으로 보내야 할게고, 코티나 맥스맥터 곱이나 사재도 백화점으로 끌고가야 할테고, 커피잔이나 소다수잔을 빨린다든가 극장 파한 뒤에 페데니 투비비에니 콜다니 하고 잔수작을 시키재도, 한번은 이 광장을 통과시켜야 한다.<sup>272)</sup> [지드(Andre Gide)와 펄 벅(Pearl Buck)은 작가 이름이고 ‘마루젠(丸善)’은 충무로 1가와 3가 사이에 있었던 서점이다. 코티는 향수이고, 맥스맥터는 화장품으로 추측된다. 페데, 투비비에, 콜다는 영화감독 이름이다. - 연구자 주]

작가가 언급하듯 청춘남녀를 등장인물로 소설을 쓰려고 해도 조선은행 앞 광장은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 번 지나갈 수 밖에 없는 공간이다.



[그림 3-100] 김남천의 「가로」에서 등장인물들의 가상 동선

그림 <3-100>을 보면 김남천이 말한 마루젠을 가려면 조선은행 앞에서 본정 입구로 들어가야 하고 백화점에 가려고 해도 경성의 5대 백화점 중 3개가 본정 1 정목을 따라 나란히 있기 때문에 역시 조선은행 앞을 지나가야 한다.

무의식적으로 자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곳, 특히 조선은행 앞 광장에서 관찰한 모습을 묘사한 작품을 살펴보자.

272) 김남천, “가로” (1938), 『김남천 전집』 2, (서울: 박이정, 2000), p.66



## ■ 상업·금융의 중심지, 조선은행 앞 광장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은행 앞 광장을 ‘선은전광장(鮮銀前廣場)’이라고 불렀는데, 이 부근을 일본인이 쓴 『경성명소이야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2천 평쯤 될까, 아니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삼각형에 가까운 광장이었다. 정면의 한 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나가면서도 보이는데, 메이지색(明治色)이 풍부한 빨간 벽돌의 중앙우체국이다. 좌측의 한 끝은 커다란 화강암을 쌓아올린 장중한 영국풍의 조선은행 본점이다. 우측의 한 끝에는 마찬가지로 화강암 외장(外裝)이 호장(豪壯)한 감을 주는 조선저축은행과 고딕 르네상스조의 장식을 입힌 미쓰코시 경성지점이 줄을 잇고 있다.<sup>273)</sup> [밑줄 연구자]

조선은행 앞 광장은 <그림 3-101, 102, 103, 104>과 같은 중앙우체국, 조선은행, 조선저축은행, 미쓰코시백화점, 그리고 글 속에는 나오지 않지만 붉은 벽돌의 상업은행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림 3-101] 경성우편국



[그림 3-102] 조선은행



[그림 3-103] 미쓰코시백화점,저축은행



[그림 3-104] 상업은행

273) 정재정, 염인호, 장규식(공저), 『서울 근현대 역사기행』,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6), p.165

웅장한 양식건축물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조선은행 앞 광장은 가장 이국적인 경관을 보여주는 곳이자 경성에서는 가장 대도시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였다.

1936년 경성도시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신판 대경성 안내』에서는 “1.경성우편국에서의 출발”이라는 글로 시작할만큼 조선은행 앞 광장은 경성의 실질적 중심 공간이었다. 뒤이어 나오는 “2.조선은행, 삼월(三越)앞”을 살펴보면 일본인이 바라본 조선은행 앞 광장을 바라본 시선을 엿볼 수 있다.

본정을 어슬렁거리려고 하는 자는 정석대로라면 전차든 자동차든 조선은행과 삼월(三越)과 우체국으로 둘러싸인 광장에서 우선 내린다. 이 주변은 경성의 중심이다. 빌딩이 즐비하게 늘어서 남대문동의 거리를 만들고, 근대적 문화도시다운 향기를 발산한다. 남대문 방면에서 온 전차는 황금정과 종로에서 동대문행과 뒤섞여 뿔을 칭칭 울려댄다. 북으로는 장곡천정이 태평통으로 빠져나간다.<sup>274)</sup>

본정입구가 있었던 조선은행 앞 광장은 일본인들의 거점지인 본정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 특히 경성에 거주하였던 일본인들에게도 실질적인 경성의 중심지였다.

<그림 3-105>과 같이 붉은 벽돌의 경성우편국 바로 옆에 있었던 화려한 본정입구는 일본인들 뿐만 아니라 앞서 가로의 “1)종로”에서 밝혔듯이 많은 조선인들의 발길까지 이끌었기 때문에 늘 번잡했다.



[그림 3-105] 본정 입구

274) 야노 타테키, “일본인의 눈에 비친 1930년대의 경성-야노 타테키의 신판대경성안내로부터”, 한동수(역), 『이방인의 순간포착, 경성 1930』, (서울: 청계천문화관, 2011), p.246에서 재인용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조선은행 앞 광장은 ‘본정으로 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남대문통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 모이기도 했다.

김기림의 수필 「바다의 유혹」 上(1931)에서는 조선은행 앞 광장이라고 추측되는 곳을 묘사하고 있다.

오후—하루의 고달픈 노역에서 풀린 노란 월급쟁이들이 넓은 “아스팔트”의 광장에 배설되었다. “페이부먼트”에 몸부림치는 오후의 반사열과 노—란 먼지의 물결을 헤엄쳐가는 흰 “제루” 바지의 모던걸의 미끈한 다리들—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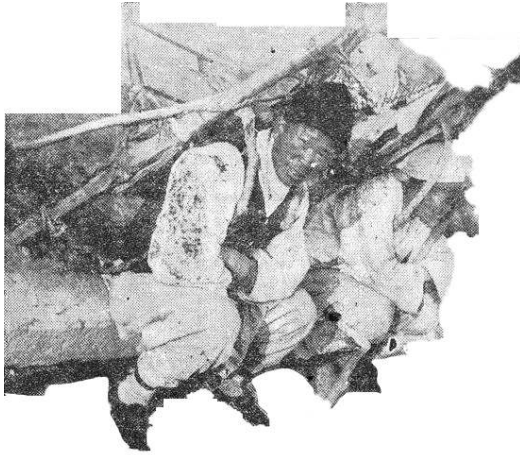
남대문통에는 은행, 금융기관, 회사 등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퇴근시간 뿐만 아니라 출근시간에도 교통의 중심지인 이 광장으로 전차를 타러 오거나 하는 이유 등으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광장을 중심으로 뻗은 가로들은 ‘샐러리 맨의 거리’ 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깔끔한 양장의 샐러리 맨들만 이 광장에서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새벽에는 조선은행 앞 광장은 조선의 자유노동자들이 일감을 얻기 위해 모여 기다리는 곳이었다. 조선은행 앞 광장은 ‘노동의 중심지’ 이기도 하였다.

오전 8시부터 9시에 걸쳐 샐러리맨들의 인파가 전차 교차점으로 몰려오기 한참 전인 겨우 동이 틀 무렵 경성의 길거리에는 자유노동자 시장이 30군데 정도 형성된다. 그 광경은 황폐한 인생 그 자체이다. 주된 시장은 조선은행 앞 약초정(현재의 중구 초동) 파출소 앞인데 이 시장에 모여드는 자유노동자는 운반인부, 청소인부, 건축 보조 등이다 . . . 그러나 시장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성부청의 조사에 의하면 조선은행 앞에 모이는 인부 47명 중 청소인부 6명, 운반인부 7명, 토관 보조 2명, 건축 보조 6명, 미장이 2명, 합계 23명이 고용되고 나머지 24명은 일을 공치게 되니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지계’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일을 얻을 수 있지만 지계도 없는 사람이 가장 곤란하다. 이들 자유노동자는 대부분 조선인들로 . . . 276)

275) 김기림, “바다의 유혹(上)”, 『동아일보』, 1931년 8월 27일

276) 본지 기자, “경성의 고아원과 노동자숙박소”, 『조선 및 만주』, 1928년 12월, 채숙향, 이선운, 신주혜(편역), 『조선 속 일본인의 에로경성 조감도』, (서울: 문, 2012), pp.228-9에서 재인용



[그림 3-106] 경성의 지게꾼들  
(동아일보 1934년 12월 8일)

금융, 상업의 중심지이자 가장 근대도시적인 면모를 갖춘 조선은행 앞 광장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조선의 노동자들이 해가 뜨기 직전에 잠시 ‘이용’ 하는 장소였다. <그림 3-106>과 같이 근대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지게’를 지고 그날 일감을 얻기 위해 대기해야 했던 대기소였던 셈이다.

이무영의 연재소설 『지축(地軸)을 돌리는 사람들』(1933)에서 묘사한 조선은행 앞 광장은 다음과 같다.

대통만한 골목에서 뱅뱅해진 배를 안고 어깨로 숨을 쉬든 “삼월(三越)”이 널따란 광장에 털떡하니 앉고는 거리를 향하여 그 커다란 입을 딱 벌리고 못마땅한듯이 다른 백화점을 건너다보고 있다. 그 앞에는 조선은행이 마치 “뒤는 내 봐줄게!” 하는 듯이 엮드렸다.<sup>27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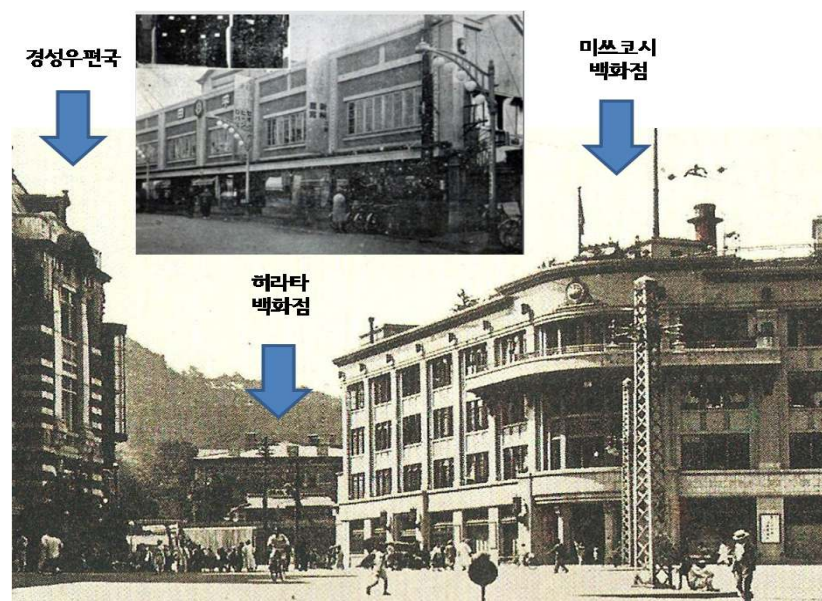
[그림 3-107] 조선은행, 미쓰코시 백화점, 히라타 백화점

<그림 3-107>처럼 미쓰코시 백화점의 출입구는 총 3개였는데 그 중 동쪽 출입구 맞은 편에는 히라타(平田) 백화점이 있었고, 소설 속에서 언급하듯 바로 앞으로는 조선은행이 마주하고 있었다.

277) 이무영, “지축을 돌리는 사람들(14)”, 『동아일보』, 1933년 8월 19일



조선은행 앞 광장에서 본정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백화점이 3개가 모여있었기 때문에 경쟁이 꽤 치열했을 것으로 보인다. 소설에서 경쟁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위치한 미쓰코시 백화점과 히라타 백화점을 언급한 것은 역동적인 ‘상업’의 중심지라는 것을 상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뒤는 내가 봐준다’고 앞드린 조선은행은 백화점과 관련된 자본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선은행 앞 광장을 둘러싸고 있었던 대표건축물로써 ‘조선은행-미쓰코시 백화점’은 마치 바늘과 실 같은 관계로 봤을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다.



[그림 3-108] 히라타 백화점과 미쓰코시 백화점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이번에는 방인근의 연재소설 『마도의 향불』 (1932)에서 미쓰코시 백화점 앞에서 바라본 밤의 모습을 묘사한 것을 보자.

농촌의 밤은 별의 밤이라 하면 서울의 밤은 전기불로 만든 별의 밤이다. 시골의 밤은 별이 고요히 잠자는 밤이라 하면 서울의 밤은 전기별이 춤추는 어지러운 밤새 잠 아니자는 밤이다. 미쓰코시 상점 앞으로 영철이와 숙경은 양복을 마치고 나왔다. 멀리 인단(仁丹)이라고 쓴 전기불이 공중에서 뽀적거린다. 바른편에는 “レートクレーム”라는 것이 연지 찍고 분을 바르며 춤을 춘다. 왼편 청목당에는 전기불 술잔을 들고 “サシポロピール”를 실새없이 마시고 있다.<sup>278)</sup>

278) 방인근, “마도의 향불(9)”, 『동아일보』, 1932년 11월 15일



[그림 3-109] 미쓰코시백화점 앞 좌우 시선

다음 <그림 3-109>처럼 미쓰코시 백화점 앞에서 좌,우를 바라보고 있다.

오른쪽에서 본 ‘레토クレーム(레토 쿠레무)’는 화장품으로 경성우편국 옆에 있었던 세로광고탑이고 왼쪽에서 본 ‘사시포로비ール(삿뽀로비루)’는 남대문통 3정목 10번지에 있었던 청목당의 간판이다. 다음 <그림 3-110,111>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있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10] 미쓰코시백화점 오른쪽 광고탑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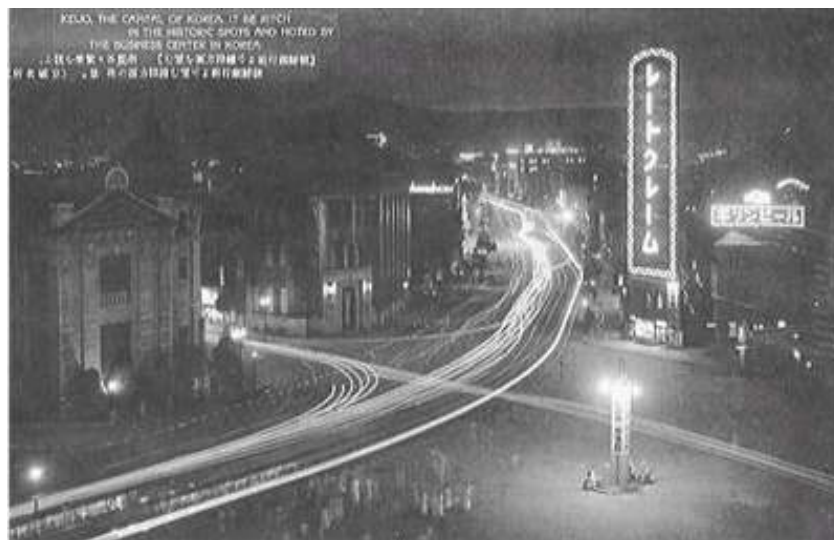


[그림 3-111] 미쓰코시백화점 왼쪽 가게 청목당 (대경성사진첩)

방인근은 미쓰코시 백화점 앞에서 서울의 밤은 ‘전기불로 만든 별의 밤’ 이고, ‘전기별이 춤추는 밤새 잠을 자지않는 밤’ 이라고 묘사하였듯이, 이 광장에서 보는 밤의 도시 야경은 전깃불로 환했음을 암시한다. 또한 밤늦게까지 거리를 밝히는 가게들이 많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방인근은 이 광장에서 금융과 관련된 은행, 특히 광장의 이름이기도 한 ‘조선은행’ 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 이는 밤에는 ‘금융’ 이 아닌 ‘상업’ 이 그 중심지가 되기 때문이다.

현경준의 연재소설 『마음의 태양』(1934)에서는 등장인물이 미쓰코시백화점 4층 식당에서 이러한 밤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소설 속 경호가 백화점 식당에서 내려다봤을 야경은 <그림 3-112>과 같을 것이다.

경호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창문 곁에 가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높은데서 내려다보니 아름다운 도시였다. 꽃의 도시! 웃음과 노래의 도시 밤의 경성은 더 한층 아름다웠다. 경호는 그냥 그대로 바깥에 뛰어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러한 아름다움 속에서 모든 죄악이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였을 때 그는 침을 탁 뱉고 싶었다. 더러운 도시! 무서운 도시! 밤의 경성은 분칠한 요녀의 얼굴과도 같았다.<sup>279)</sup>



[그림 3-112] 조선은행 앞 광장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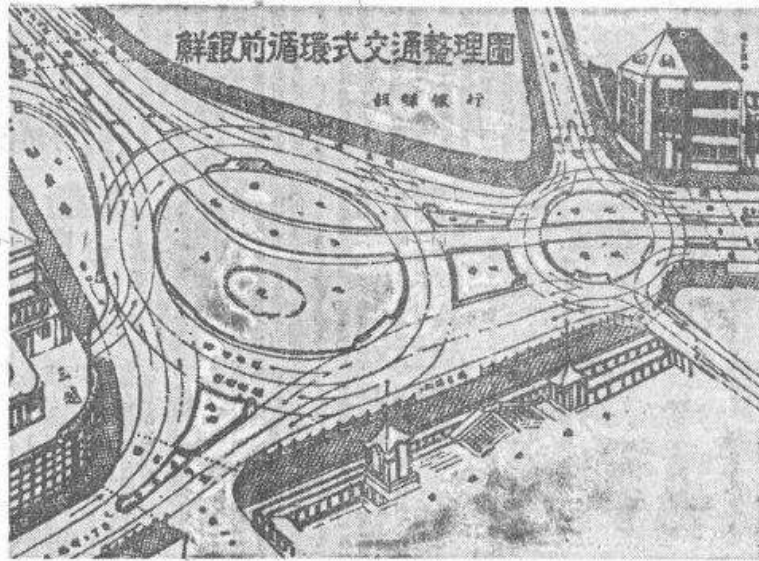
다시 김남천의 「가로(街路)」(1938)의 뒷부분을 살펴보자.

. . . 이 광장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광고주(廣告柱)가 서고 새끼줄을 가꿈 늘어 놓고 흰 펑키루다 차도 인도를 갈라 놓은 이 광장을 우리 사랑하는 도련님이라든가 아가씨를 거닐게 하기는 매우 위태하다. 전차에 앉칠라 자동차를 피하라 자전거를 비키라 여러 번 핸드백을 낀 채 땀을 뒹든가, 모자를 쥐고 허둥지둥해야만 한다. 연인끼리 담화를 시킬 경향은 물론 없고 간혹 혼자라고 하여도 도무지 유쾌한 보행이 될 수는 없다. 교통사고의 주인공이 되어 사회면의 한 귀퉁이 ‘우메구사’(うめくさ: 여백을

279) 현경준, “마음의 태양” (1934), 『原本 新聞連載小説全集』 1, (서울: 깊은샘, 1987), p.179

매울 짧은 기사의 원고)가 될 생각하고 상쾌해 할 청년 남녀는 대단 드물게다..<sup>280)</sup>

이 글로 미루어보아 조선은행 앞 광장은 교통이 굉장히 혼잡했고 교통사고로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남천이 이 문제를 지적한지 1년 후 교통사고 및 혼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광장에 로타리를 설치하게 되는데 설계도는 다음 <그림 3-113>와 같다.



[그림 3-113] 조선은행 앞 광장 로타리 설계도 (동아일보 1939년 1월 9일)

작년 여름부터 공사를 시작한 조선은행 앞 로타리 공사는 그동안 공사장에 있어서 철도국과 경전과 경성부 사이에 의견상위로 공사가 천연되었었는데 작년 11월 상순에 의견이 일치되어 조선은행 앞에 있는 전차정류장을 상업은행 앞과 청목당 앞으로 옮기는 동시에 로타리는 부내 판곳에 기설된 것보다 교통중심대에 있는만큼 중앙지에 분수탑을 세우고 그 주위에 나무를 심고 상업은행 앞 네거리에 설치될 작은 로타리에는 화초를 심어 녹화지대를 만들려 하는 것으로 걸어다니는 사람은 좌측 인도로, 전차를 타는 사람은 가고오는 정류장이 동남으로 나누어 있는 관계로. .<sup>281)</sup>

1월에 이러한 기사가 나간 후 5월에 잔디를 심는 등 녹지를 만들고 8월에는 분수탑까지 설치하면서 경성 사람들에게 공공녹지공간을 제공한다.

280) 김남천, “가로”, p.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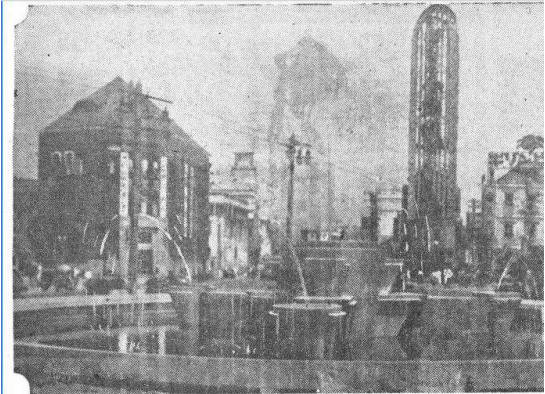
281) “조은전 로타리 설계”, 『동아일보』, 1939년 1월 8일



박태원은 연재소설 『우맹』(1938)에서 “조선은행 앞, 넓은 터전에 사람들은 언제나 한가지로 북작거렸다.”<sup>282)</sup>라고 하였는데, 1930년대 후반까지도 그 중심성은 계속 유지되었던 것 같다.



[그림 3-114] 조선은행 앞 광장 로타리  
(동아일보 1939년 5월 7일)



김=입=을=가=는=기=풍=에=口=水

[그림 3-115] 조선은행 앞 광장 로타리의  
분수탑 (동아일보 1939년 8월 23일)

## ■ 우울한 (금융의, 권력의, 상업의) 거리

다음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이상과 구보가 낙랑파라에서 나와 장곡천 정을 걸어가는 장면이다.

참 요사이 무슨 좋은 일 있소. 맞은 편의 경성우편국 3층 건물을 바라보며 구보는 생각난 듯이 물었다. 좋은 일이라니—돌아보는 벗의 눈에 피로가 있었다. “갓구말 구.” 벗은 서슴지 않고 대답하였다. 노형 같이 변변치 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받아보지 못할 편지를. 그리고 벗은 허허 웃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허한 음향이였다. 내용증명의 서류우편. 이 시대에는 조그만 한 개의 다로를 경영하기도 수월치 않았다. 석 달 밀린 집세 . . . 가난한 소설가와, 가난한 시인과.....어느 틈엔가 구보는 그렇게도 구차한 내 나라를 생각하고 마음이 어두웠다.<sup>283)</sup> [밑줄 연구자]

구보는 경성우편국을 바라보다 이상에게 ‘좋은 일’ 없냐고 물어보는 것을 봐서

282) 박태원, 『금은탑』 2, (서울: 깊은샘, 1997), p.141

283)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p.212

처음에는 반가운 편지나 소식 등을 떠올렸던 것 같다. 이상은 반어법으로 그런 좋은 편지를 받았다고 대답하지만 그 편지는 ‘내용증명의 서류우편’이다. 석 달 밀린 집세로 곧 경영하던 다방 ‘제비’에서 쫓겨날 것을 암시하는데, 박태원의 꿈트 「제비」에도 이러한 사실이 나온다.

그 빈약한 2층 건물은 그나마도 이상의 소유가 아니고 엄연히 사무소의 것으로 <제비>는 그 아래층을 세 얻었을 뿐. 그 셋돈이나마 또박또박 치르지 못하여 이상은 주인에게 무수히 시달림을 받고 내용증명의 서류우편 다음에 그는 마침내 그곳을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니까.<sup>284)</sup>

경성우편국은 구보가 생각했던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조그만 기쁨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하는게 아님을 깨닫고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구차한 내 나라’를 생각하고 우울해한다. 긍정적 이미지였던 경성우편국에 대한 장소성이 바뀐 것이다.



[그림 3-116] 구보가 장곡천정을 걸어가며 경성우편국을 바라보았을 시점



[그림 3-117] 구보가 장곡천정을 걸어가며 바라보았을 경성우편국

다음은 채만식의 「명일(明日)」(1936)에서 제대로 먹지 못해 갈빗대가 툭툭 불거질 정도로 가난하고 직업 없는 인텔리인 범수가 아내의 잔소리에 집을 나와 경성을 배회하는 장면이다.

그는 경성역 앞에 우두커니 서서 오늘 그 시간까지 차표를 판 돈이 꽤 되리라고 생각해 보았다. 조선은행 앞을 지나면서는 어느 다른 은행의 행원인 듯 싶은 매초롬한 양

284) 박태원, “제비”, 『조선중앙일보』, 1939년 2월 22일

복장이가 불룩한 손가방을 안고 인력거를 타는 것을 보고 몇만 원 찾아가나 보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참이나 서서 그 인력거 뒤를 바라다보았다. 종각 뒤 동일은행 앞에서는 문 앞 돌출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십원짜리를 흘리고 가지는 아니했다. 285)

소설 속 범수가 걸어간 행로를 살펴보면 경성역에서부터 종로네거리, 즉 남대문통 5정목 끝에서 1정목까지이다. 당시 남대문통에는 조선은행, 상업은행, 동일은행, 조선식산은행, 저축은행, 안전은행 등 많은 은행이 밀집해 있었는데, 대부분 붉은 벽돌로 지어지면서 남대문통은 새로운 가로 경관을 만들었다. 이러한 풍경은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상징화 되었다.

가난한 범수는 경성역, 조선은행, 동일은행을 지나가며 끊임없이 돈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동일은행 앞에서는 누가 흘리고 간 돈은 없는지 살피기까지 할 정도로 가난한 범수에게는 이 남대문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우울한 거리였을 것이다. 특히 은행은 어찌면 평생 발도 들여놓지 못할 수도 있는 허황된 꿈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러한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록 구보가 그랬듯 우울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3-118] 남대문통 1정목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

285) 채만식, “명일”, pp.155-6

## 제4장 결론

### 제1절. 1930년대 경성중심부의 공간적 의미

1930년대 경성중심부의 장소성해석 결과 몇 가지 공통되는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대부분의 도시공간은 이중성을 띄고 있었고

둘째, 근대화에 따른 도시여가와 소비문화가 발달했으며

셋째, 근대도시가 만들어내는 스펙터클(spectacle)은 구경꾼과 산책자를 만들었고

넷째, 이 모든 것들은 가로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1930년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근대적(현대적) 삶을 누렸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0년대의 경성의 도시경관은 ‘생산하는 도시’가 아닌 ‘소비하는 도시’의 결과로 형성되었다.

특히 백화점이 가장 복잡한 메카니즘을 보였는데 물건을 사지 않아도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는 대중화된 일상공간으로서의 백화점 안에서도 돈에 의해 보이지 않는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백화점 밖에서 진열창을 보고만 있어도 쫓겨나는 근대문화에 소외된 계층도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민족자본에 의해 설립된 화신백화점을 시골사람들에게 관광명소지로 여겨질 정도로 조선인들의 자량으로 여기는 반면, 화재 후 다시 신축한 6층 높이의 거대한 백화점을 보고 오히려 자신의 가난한 현실을 느끼고 씁쓸해하는 이도 있었다.

미쓰코시백화점 옥상의 경우, ‘입장료 없는 도심 속 유원지’로서 도시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스펙터클(spectacle)을 만들어 주었지만 조선인들에게는 오히려 식민지 조선이라는 현실을 파노라마로 확인할 수 있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거리의 사람들의 눈을 끄는 누구나 구경할 수 있는 백화점 쇼윈도우 역시 시각적 즐거움을 주면서 동시에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질 수 없는 계층도 있었다.

경성역은 ‘도회의 항구’라는 익명성이 강한 공간으로 규명했는데, 구보는 경성역 안의 ‘약동하는 무리들’ 속에서 고독을 더 느끼고 나가는 반면, 이상(李箱)은 오히려 그러한 군중들 속에서 자신을 숨기고 고독을 찾기 위해 ‘차에 치일 뻔 하

면서' 까지 일부러 찾는 곳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역' 을 본래의 기능으로써 이용하기 위해 경성역을 찾은게 아니라는 점이다. 즉, 경성역은 구보나 이상처럼 당대의 지식인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찾는 장소였다.

근대화에 따른 다방문화는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살롱문화공간을 제공하기도 하였지만 갈 데 없는 그들에게 도피처이자 안식처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카페 같은 경우는 에로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급의 영향으로 다방과는 전혀 다른 퇴폐적인 분위기의 밤의 환락경이었지만 돈에 의해 여급으로 전락한 조선인 여성의 어두운 면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다방과 카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이며, 그것은 창문의 크기로 인해 나타난다. 즉 다방은 대부분 전면 유리로 다방 안에서 거리를 관찰할 수도 있고 거리에서 다방 안을 볼 수도 있는 시각적으로 개방된 곳이었다. 그러나 카페 같은 경우는 퇴폐적인 분위기의 영향으로 창문이 아예 없거나 장식용으로서만 기능하였고, 대신 입면 자체가 '광고이자 포스터' 로 가로경관을 변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네온간판으로 밤의 야경을 만들기도 하였다.

도시공원은 근대도시의 또 하나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데 경성 도심 한복판에 있었던 탑골공원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고, 실업자나 관상쟁이들이 주로 공원을 점령하였으며 공원에서 여가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창경원으로 주로 많이 갔다. 당시 유일하게 일제에 의해 조성된 공원이 아니었고, 1919년 만세운동으로 민족적으로도 의미가 컸으며, 북촌에 위치하여 접근성도 높았던 공원이라는 사실이 무색해질 정도로 탑골공원의 이미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문학작품 속에 묘사된 종로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번잡한 이미지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근대문명의 결과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반면, 회의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다. 종로, 특히 종로네거리에서 관찰한 다양한 관점의 경관 이미지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만큼 가장 대표성을 띄고 있고, 문학작품을 쓴 작가 역시 그 가로를 유심히 관찰하였거나 일상적인 공간(거리)이었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번잡하고 화려한 종로거리에는 근대문명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종종 등장하는 이중성을 띠기도 한다.

특히 종로에서 보이는 가장 큰 이중성은 ‘조선인들의 상점가’ 라는 상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문학작품 속에서는 종로 상점가가 아닌 주로 본정으로 가는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중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대문통은 조선시대부터 대로로 이용되던 곳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태평통이 만들어지면서 그 기능이 태평통으로 전가되지만 주로 북촌 종로에 사는 조선인들은 여전히 남대문통이 일상적인 거리였다. 그러나 종로 입구라 할 수 있는 남대문통 1정목에서 조선은행이 있는 2정목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밀집하게 되면서 당시 은행을 상징하는 붉은 벽돌 건축물들이 가로경관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백화점처럼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곳이 아니라는 특징으로 은행 등은 비일상적인 공간이었고, 남대문통을 자주 지나다니는 조선인들에게는 그 거리가 일상적이면서 비일상적인 공간이 되었다.

특히 조선은행 앞 광장은 사실상 경성의 중심지로 자주 지나칠 수 밖에 없는 공간이었는데 그 광장에서는 금융, 상업의 일면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구보는 14시간 동안이나 경성 안을 배회하면서 거의 같은 곳을 맴돌며 ‘서울은 너무 좁다’ 라고 말한다. 그 의미는 정말로 경성이 좁은게 아니라 식민지배하에 조선인인 구보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성을 돌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고독을 느낄 뿐만 아니라 소외된 도시인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들에게서 또 다시 소외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1930년대의 경성중심부는 일제에 의한 왜곡된 근대와, 그와 함께 유입된 자본주의, 그리고 식민지배하라는 3가지 요소에 의해 도시경관이 만들어졌고 특히 남촌과 북촌의 경관은 차별화 되었다.



## 제2절. 경성중심부 도시경관의 1930년대와 현재

근대 서울의 도시공간에는 1876년 조선의 개항 이후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울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가 담겨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근대 건축물들과 함께 자본주의의 유입으로 인해 변모한 가로변 상점들이 근대 도시경관의 주요 구성요소를 이룬다. 이러한 가로의 근대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근대적 삶을 살았고, 소비문화가 싹트었으며, 도시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즉, 근대적 특징을 담은 ‘장소’가 만들어진 것이다.

소설 속 구보 역시 이 가로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14시간동안 경성을 산책하였다. 본고는 구보 박태원이 산책하면서 보았을 1930년대의 가로경관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경관은 어떤지 비교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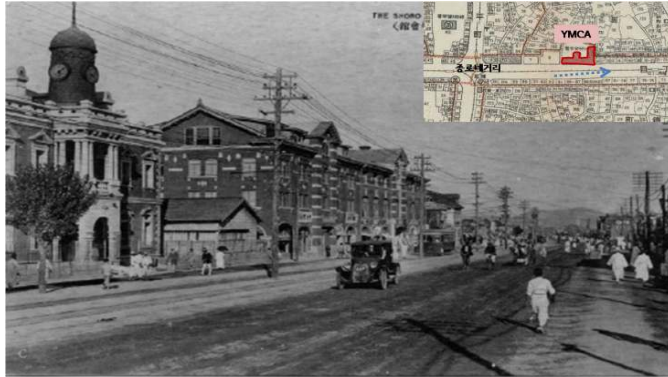
이를 토대로 당시 근대 가로경관을 형성하였던 주요 건축물들의 장소성 상실 현황을 파악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1930년대와 현재의 가로경관을 고찰할 대상 가로는 앞서 미리 고찰한 ‘종로’와 ‘남대문동’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현존하는 1930년대의 사진엽서를 이용하여 당시 사진을 찍은 시점을 스트리트 뷰(Street View)를 통해 최대한 근접한 시점을 찾아낸다. 스트리트 뷰(Street View)는 업데이트를 가장 최근에 한 다음(Daum)을 일순위로 두고, 자동차, 나무 등 장애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질 경우 네이버(Naver)를 선택한다.



## 1. 종로 가로경관의 1930년대와 현재

### ■ 종로 2정목, YMCA



[그림 4-1] 1930년대 종로 2정목



[그림 4-2] 현재 종로 2정목

### ■ 종로네거리, 화신백화점



[그림 4-3] 1930년 말 종로네거리



[그림 4-4] 현재 종로네거리





■ 남대문통 1정목, 광통관, 대동보험, 한성은행



[그림 4-9] 1930년대 남대문통 1정목(2)

■ 남대문통 2정목, 경성전기회사



[그림 4-11] 1930년대 남대문통 2정목(1)



[그림 4-10] 현재 남대문통 1정목(2)



[그림 4-12] 현재 남대문통 2정목(2)

■ 남대문통, 조선은행 앞 광장



[그림 4-13] 1930년대 조선은행 앞 광장



[그림 4-14] 현재 조선은행 앞 광장

■ 장곡천정에서 바라본 경성우편국



[그림 4-15] 1930년대 경성우편국



[그림 4-16] 현재 경성우편국



■ 미쓰코시백화점, 저축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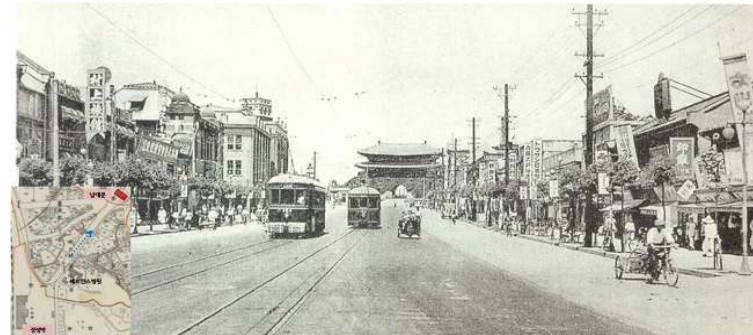


[그림 4-17] 1930년대 미쓰코시백화점, 저축은행



[그림 4-18] 현재 미쓰코시백화점, 저축은행

■ 경성역 앞에서 바라본 남대문



[그림 4-19] 1930년대 남대문통 5정목



[그림 4-20] 현재 남대문통 5정목

## ■ 경성역



[그림 4-21] 1930년대 경성역 전경



[그림 4-22] 현재 경성역 전경

### 3. 소결

종로와 남대문동의 1930년대와 현재의 경관을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근대건축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 또는 활용하는 경우

둘째, 당시 장소의 성격과 위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외관을 현대적 건축물로 리노베이션(renovation)한 경우

셋째, 철거 또는 이전되어 완전히 새로운 장소가 만들어진 경우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앞서 살펴본 종로와 남대문동의 주요건축물들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4-1] 종로와 남대문동의 주요 건축물들 현황

위 치	년도	건물명	현황	비고
종 로	1908	YMCA	리노베이션	
	1937	화신백화점	철거/ 현재 종로타워 입지	
남 대 문 동	1909	광통관	원형 보존, 현재 우리은행 종로지점	시도기념물 19호
	1911	제일은행	철거	
	1912	한성은행	철거/ 현재 신한은행 빌딩	
	1912	조선은행	원형 보존, 현재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사적 제280호
	1915	경성우편국	철거 후 포스트타워 입지	
	1918	조선식산은행	철거/ 현재 롯데백화점	
	1924	조선상업은행	철거/ 현재 한국은행 소공별관	
	1925	경성역	원형 보존, 문화역 서울284로 전시실로 이용	사적 제284호
	1928	경성전기주식회사	원형 보존, 현재 한국전력사옥으로 이용	
	1931	동일은행	철거	
	1934	미쓰코시 백화점	외관 유지, 현재 신세계백화점	
	1935	조선저축은행	외관 보존, 현재 SC제일은행	유형문화재 제71호
	1938	조지야백화점	리노베이션, 현재 롯데영플라자	



가장 많이 변한 가로경관은 남대문통 5정목이었는데, 이는 5정목에는 다른 구간에 비해 특히 상징적인 근대 건축물의 부재가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료된다.

비록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거대한 건축물들 틈에 간신히 자리하고 있지만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근대건축물들이 주로 남아있는 가로는 남대문통 1,2정목과 조선은행 앞 광장이었다.

남대문통 2정목에 위치하고 있는 조지아백화점은 리노베이션으로 인해 현대적 건축물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형태와 본 건물용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림 4-23] 조지아백화점



[그림 4-24] 롯데 영플라자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을 우울하게 만들었던 ‘고층의’ 건물이 늘어서 있었던 금융의 거리 남대문통 1,2정목은 이제 초고층 건물 사이로 사라져가고 있다. 소설 「날개」 속 이상(李箱)이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에서 내려다본 ‘회택의 거리’ 조선은행 앞 광장은 상업은행과 경성우편국이 철거 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신축되면서 어색한 경관을 만들고 있다. 특히 주변 근대건축물들에 위압적인 21층짜리 포스트타워는 1910년대부터 다양한 양식의 근대건축물로 구성된 남대문통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포스트타워는 단지 독자적으로 우체국을 새로 짓는다는 관념보다는 공간의 흐름면에서 주변 경관과의 조화부터 고려했어야 한다.

경관으로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물리적 형태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문화가 담겨있다. ‘경관은 그 경관의 형성에 영향을 준 인간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성질은 도시경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sup>286)</sup> 따라서 현재의 경관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남아있는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방안으로 상투적인 전시관, 박물관 등의 용도보다는 그 공간에 담겨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발굴하여 그 공간의 장소성에 부합될 수 있는 용도로 이용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경성역, 경성부청, 조선은행 등 지정문화재 등으로 보호되는 상징적인 근대건축물 외에는 대부분이 철거되거나 아예 새로운 공간이 덧씌워짐으로써 장소성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그 전에 존재했던 장소의 흔적이 물리적으로 남아있지 않은 대표적인 예가 1930년대 경성의 대표 문화공간 다방과 카페이다. 특히 다방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낙랑파라’는 그 명성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외관사진조차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고찰했듯이 ‘낙랑파라’나 이상(李箱)이 경영했던 다방 ‘제비’ 같은 경우 다방의 내부와 외부가 상세히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현이 가능하겠다. 이러한 ‘현재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으나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소’를 발굴하는 것은 그 지역의 장소성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정원이나 탑골공원처럼 당시의 제대로 된 도면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문학작품을 통해 그 공간을 상상하여 설계해볼 수도 있고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공간을 이용하였는지도 추측할 수 있다.

문학작품의 기능은 바로 이렇게 현재 소멸된 장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장소 만들기’ 또는 ‘도시 만들기’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

286) 이규목, 『한국의 도시경관』, (서울: 열화당미술책방, 2004), p.123

## ◆ 참고문헌

### ■ 단행본

- 모던日本, 윤소영외 3인(공역)(2007),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39: 완역 <모던일본> 조선판 1939년』. 서울: 어문학사
- 모던日本, 홍선영외 3인(공역)(2009),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40: 완역 <모던일본> 조선판 1940년』. 서울: 어문학사
- A. Giddens,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이윤희, 이현희(공역)(1991), 『포스트 모더니티』. 서울: 민영사
- Assmann, Aleida, *Erinnerungsräume(4th edition)*, 변학수, 채연숙(공역)(2011), 『기억의 공간』, 개정판. 서울: 그린비
- Christian Mikunda, *Brand Lands, Hot Spots & Cool Spaces*, 최기철, 박성신(공역)(2005), 『제3의 공간』. 서울: 미래의 창
- E.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공역)(2005),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 Mike Savage, *Urban sociology, Capitalism and Modernity*, 김왕배, 박세훈(공역)(1996),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서울: 한울
- Schroer, Markus, *Raume, Orte, Grenzen*, 정인모, 배정희(공역)(2010), 『공간, 장소, 경계』. 서울: 에코리브르
- Yi-Fu Tuan, *Space and Place*, 구동회, 심승희(공역)(2011), 『공간과 장소』, 개정판. 서울: 대운
- 가와무라 미나토(2004), 『한양경성·서울을 걷다』. 인천: 다인아트
- 고마즈, “カフエ業者と其取締”, 『경무회보』. 조선경찰협회(1931)
- 아마무라 히토시, 이수정(역)(1999), 『근대성의 구조』. 서울: 민음사
- 강명관(2009), 『사라진 서울: 20세기 초 서울사람들의 서울회상기』. 서울: 푸른역사
- 김기림(1996), 『김기림』. 서울: 문학세계사
- 김기림(2004), 『김기림』. 파주: 돌베개
- 김기림(2004), 『태양의 풍속』. 서울: 열린책들
- 김남천(2000), 『김남천 전집』 2. 서울: 박이정
- 김말봉(1978), 『찔레꽃』. 서울: 대일출판사
- 김백영(2009), 『지배와 공간: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일본』.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소엽(2003), 『서울』. 서울: 인크리션
- 김수복(2005), 『한국문학공간과 문화 콘텐츠』. 서울: 청동거울
- 김왕배, “공간정치경제학의 기본개념과 분석틀”, 『공간의 정치경제학』, 한국공간환경학회(2000). 서울: 아카넷
- 김인호(2006), 『백화점의 문화사: 근대의 탄생과 욕망의 시공간』. 서울: 살림
- 김정동(2000), 『남아있는 역사, 사라지는 건축물』. 서울: 대원사
- 김태수(2005), 『꽃가치 피어 매혹케 하라』. 서울: 황소자리
- 깊은샘자료실(편)(1987), 『原本 新聞連載小説全集』 1~5. 서울: 깊은샘
- 나은진(2010), 『구보 박태원 소설 다시 읽기』.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노형석(2005), 『한국 근대사의 풍경』. 서울: 생각의 나무
- 노형석, 이종학(2004), 『모던의 유혹 모던의 눈물』. 서울: 생각의 나무
- \_\_\_\_\_(2005), 『한국근대사의 풍경: 모던조선을 거닐다』. 서울: 생각의 나무
- 동국대문화학술원(2011), 『문화지리와 도시공간의 표상』.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 민족문화사연구소(2005), 『춘향이 살던 집에서, 구보씨 걷던 길까지』. 파주: 창비
- 박상하(2008), 『경성상계』. 서울: 생각의 나무
- 박태원(1994), 『박태원 소설집』. 서울: 깊은샘
- \_\_\_\_\_(1997), 『금은탑』 1, 2. 서울: 깊은샘
- \_\_\_\_\_(2008), 『박태원 단편선』. 서울: 글누림
- \_\_\_\_\_(2009), 『천변풍경』. 파주: 열림원
- 박천형(2010),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 서울: 산처럼
- 박팔양(2009), 『박팔양 시선집』. 서울: 현대문학
- 박현숙(1987), 『原本 新聞連載小説全集』 1-5. 서울: 깊은샘
- 방민호(2010), 『박태원 문학연구의 재인식』. 서울: 예옥
- 서울과 노동시 기획위원회(2010), 『서울과 노동시』. 서울: 실천문학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1),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1), 『서울 20세기 생활문화 변천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학연구소(2002), 『종로: 시간, 장소, 사람』. 서울: 서울시립대부설 서울학연구소
- 서울학연구소(2009), 『보이지 않는 용산, 보이는 용산』. 서울: 마티
- 심승희(2004), 『서울: 시간을 기억하는 공간』. 서울: 나노미디어
- 연세대 국학연구원(2004),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서울: 혜안
- 염상섭(1987), 『염상섭 전집』. 서울: 민음사
- 이광수(1978), 『이광수 선집』. 서울: 어문각
- 이규목(2002), 『한국의 도시경관』. 서울: 열화당
- 이상(2007), 『날개』.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이태준(2005), 『이태준 단편전집』. 서울: 가람기획
- 임승빈(2010), 『경관분석론』, 개정판.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임화(1995), 『임화 시선, 다시 네거리에서』. 서울: 미래사
- 장규식(2004), 『서울, 공간으로 본 역사』. 서울: 혜안
- 장석주(2011), 『이상과 모던뿐이들: 산책자 이상 씨와 그의 명랑한 벗들』. 서울: 현암사
- 장수익, “근대적 일상성의 부정과 자립적 공간”, 『박태원의 천변풍경』, 조윤정(2005). 서울: 문학과 지성
- 장유정(2011), 『다방과 카페, 모던보이의 아지트』. 파주: 살림
- 장희권, “근대의 도시공간과 사유방식”, 『로컬의 문화지형』, 오일주(2010). 서울: 혜안
- 전우용, “일제하 서울남촌상가의 형성과 변천”, 『서울 남촌: 시간, 장소, 사람』. 김기호(2003). 서울: 서울시립대 부설 서울학연구소
- 전우용(2008), 『서울은 깊다』. 파주: 돌베개

- 정재정, 염인호, 장규식(1996), 『서울 근현대역사 기행』. 서울: 서울시립대 부설 서울학연구소
- 조이담, 박태원(2009), 『구보씨와 더불어 경성을 가다』, 개정판. 서울: 바람구두
- 조용만(1984), 『구인회 만들무렵』. 서울: 정음사
- \_\_\_\_\_(1992), 『경성야화』. 서울: 도서출판 썬
- 중앙문화재연구원 ·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8), 『덕수궁』
- 채만식(1987), 『인형의 집을 나와서』. 서울: 창작사
- \_\_\_\_\_(1989), 『채만식 전집』 7. 서울: 창작과 비평사
- \_\_\_\_\_(2005), 『레디메이드 인생 外』. 서울: 혜원
- \_\_\_\_\_(2005), 『금의 정열』 上, 下. 서울: 인크리션
- \_\_\_\_\_(2006), 『타류』. 서울: 신원문화사
- 채숙향, 이선운, 신주혜(편역)(2012), 『조선 속 일본인의 에로경성 조감도』. 서울: 문
- 철학아카데미(2004), 『공간과 도시의 의미들』. 서울: 소명
- 최병두(2002), 『근대적 공간의 한계』. 서울: 삼인
- 최병택, 예지숙(2009), 『경성리포트: 식민지 일상에서 오늘의 우리를 보다』. 서울: 시공사
- 조연근(1995), 『한국문학전집5』. 서울: 학원출판사
- 한금윤(2011), 『모던의 욕망, 일상의 비애』. 파주: 웅진씽크빅
- 홍순민(2009), 『서울풍광』. 파주: 청년사

## ■ 학위논문

- 김진영(2011), 인간주의 지리학관점에서의 장소성 프로세스를 적용한 문학지리학 연구: 소설 『토지』 속 평사리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 민도정(2008), 1950년대 명동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이봉구의 수필 『명동백작』을 기초로 하여. 동국대 석사논문
- 백선희(2004), 장소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서울대 박사논문
- 송은영(2008), 현대도시 서울의 형성과 1960-70년대 소설의 문화지리학. 연세대 박사논문
- 양옥희(1991), 서울의 인구 및 거주지 변화: 1394-1934. 이화여대 박사논문
- 여환진(2010), 본정과 종로 : 재현을 통해본 1930년대 경성 "변화가"의 형성과 변용. 연세대 석사논문
- 이석환(1998), 도시가로의 장소성 연구: 대학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 이성임(2006), 1960년대 이후 대중소설에 나타난 아파트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 이순이(2005), 박태원 소설의 근대성 고찰, 선문대 석사논문
- 이유남(2006), 1930년대 모더니즘소설에 나타난 도시공간연구: 「날개」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대상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 이주연(2008), 염상섭 장편소설의 도시공간연구: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중심

으로. 국민대 석사논문

- 차지연(2011), 이상 소설의 인문지리학적 연구: 장소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 하미혜(2004), 소설에 나타난 부산항의 장소이미지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 한정훈(2004), 탑골공원 조성과 이용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 ■ 학술지

- M. Arefi, (1999), “ *Non-place and placelessness as narratives of loss: rethinking the notion of place*”, 『Journal of Urban Design』, 4(2): 179-193
- 권윤구, 정윤희, 임승빈(2011), “인사동 가로의 장소성 구조모형”, 『국토계획』, 46(2): 139-151
- 김기범, 김태영(1997), “근대문학작품의 자연묘사에 나타난 시·공간의 체험적 인식에 관한 연구: 「메밀 꽃 필무렵」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7(2): 493-497
- \_\_\_\_\_(2000), “근대문학작품의 도시풍경구도에 나타난 시·공간적 체험적 인식에 관한 연구: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중심으로”, 『도시·지역개발연구』, 8(2): 187-203
- 김기호(1995), “일제시대 초기의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서울학연구』, -(6): 41-66
- 김경은(2010), “김광균 시(詩)에 나타난 장소성 연구”, 『인문사회논총』, -(17): 23-40
- 김소연(2009), “1930년대 잡지에 나타난 근대백화점의 사회문화적 의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3): 131-138
- 김외곤(2004), “박태원의 『천변풍경』과 근대도시 경성”, 『성심어문논집』, 25(-): 35-60
- 김정동(2000), “이상의 「날개」에 나타난 건축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1930년대 경성거리를 중심으로”, 『건축도시지역연구』, 8(-): 65-71
- 김정현, 김태영(2007), “소설 『천변풍경』 속에 나타난 1930년대 청계천주변 서민생활공간”,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7(1): 625-628
- 김중현(2004), “덕수궁의 보존과 복원”, 『건축역사연구』, 13(1): 111-117
- 김해경(2010), “효창공원의 장소성 형성과 변화 해석”, 『서울학연구』, -(39): 79-117
- 문재원(2009), “요산소설에 나타난 장소성”, 『현대문학이론학회』, 36(-): 121-148
- 서귀숙(2000), “문학적표현으로 묘사된 주거의 건축적공간 연구: 문학 『토지』를 통해서 본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6): 83-93
- 서지영(2003), “식민지 시대 카페 여급 연구”, 『한국여성학』, 19(3): 31-73
- 송기섭(2010), “박태원 소설의 도시풍경과 그 내부”, 『한국문학총론』, 56(-): 421-449

- 신성환(2011), “편혜영 소설에 나타난 장소상실과 그 의미: 집, 일터, 길의 공간구조 및 인문지리학적 인식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55(-): 353-391
- 안미영(2000),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여급 고찰”, 『여성문학연구』, - (3): 289-311
- 엄숙희(2011), “『모란봉』에 나타난 근대도시의 표상”, 『국어문학』, 50(-): 117-136
- 우정권(2008), “30년대 경성과 동경의 카페유흥문화 비교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26(-): 337-356
- 이석환, 황기원(1997),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2(5): 168-184
- 이상원(2011), “소설에 나타난 피난지 부산의 다방: 장소성 고찰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31(-): 129-150
- 이승연, 구영민(2007), “문학적 알레고리를 통한 도시의 장소성 발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7(1): 421-426
- 이은숙, 정희선, 장은미(2005), “문학공간을 활용한 장소마케팅 방안: 종로지역을 사례로”, 『국토지리학회』, 4(1): 53-65
- \_\_\_\_\_, 김희순(2008), “1950년 이후 도시소설에 투영된 수도권의 도시화에 의한 공간변화”, 『지리학연구』, 42(4): 602-620
- 정영호(2011), “김기림의 「광화문통」, 소멸과 신생의 거리”, 『한국어문학회』, 111(-): 389-414
- 정현숙(2006), “1930년대 도시공간과 박태원 소설”, 『현대소설연구』, - (31): 53-72
- 조은주(2008), “경성부 남대문통과 태평통의 이층한옥상가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 1(30): 99-138
- 최막중, 김미옥(2001), “장소성의 형성요인과 경제적 가치에 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36(2): 153-162
- 최병두(2002),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도시연구』, - (8): 253-278

## ■ 잡지

- D기자, “변장출동 임시OO되어보기, 사주쟁이가 되어 늙은이 젊은이의 신수를 보아”, 『별건곤』, 1927년 10월
- 본지 기자, “경성의 고아원과 노동자숙박소”, 『조선 및 만주』, 1928년 12월
- “대경성광무곡”, 『별건곤』, 1929년 1월
- “기자 대출동 1시간 탐방 대경성 백주 암행기, 3월 29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별건곤』, 1929년 4월
- 日기자, “2일동안에 서울구경 골고로 하는 법”, 『별건곤』, 1929년 9월
- “경성의 다섯 마굴”, 『별건곤』, 1929년 9월
- 채만식, “그뒤로”, 『별건곤』, 1930년 1월



- 이치유, “여름의 조선인 거리”, 『조선및만주』, 1930년 8월
- 이치이 산시, “가두백면상”, 『조선 및 만주』, 1931년 1월
- “대경성 한복판에 미궁화한 빠고다”, 『비판』, 1931년 9월
- “나는 왜 이렇게 됐나, 나는 왜 여급이 되었나”, 『별건곤』, 1932년 1월
- “소대가리 경성시골학생이 처음 본 서울, 재경초읽기”, 『별건곤』, 1932년 4월
- 벽이자(壁耳子), “종로야화”, 『동광』, 1932년 6월
- “기자총출 일시간 밤거리 탐방”, 『별건곤』, 1932년 7월
- “인테리 여급 애사”, 『三千里』, 1932년 9월
- “만화경(萬華鏡)” 『별건곤』, 1932년 11월
- “백화점 견학” 『별건곤』, 1932년 11월
- “카페여급 언파레-드”, 『별건곤』, 1932년 11월
- “카페여급일기 김정자”, 『별건곤』, 1933년 3월
- 소제부, “추기지상대칭결”, 『별건곤』, 1933년 9월
- “인테리청년 성공직업” 『三千里』, 1933년 10월
- 무영당主 이근무, “젊은 상가일지” 『三千里』, 1933년 10월
- “아아, 청춘이 아까워라!” 『三千里』, 1933년 10월
- 이선희, “다당여인”, 『별건곤』, 1934년 1월
- 본지 기자, “수도 경성의 에로거리 풍경”, 『조선 및 만주』, 1934년 4월
- “결혼시장을 찾아서, 백화점의 미인시장” 『三千里』, 1934년 5월
- “깍다점 평판기” 『三千里』, 1934년 5월
- 박태원, “6월의 우울”, 『중앙』, 1934년 6월
- 채만식, “여름도시밤 ETC”, 『중앙』, 1934년 7월
- “깍다점 연애풍경”, 『三千里』, 1934년 12월
- 유진오, “김강사와 T교수”, 『신동아』, 1935년 1월
- “새로 낙성된 오층루 화신백화점 구경기”. 『三千里』, 1935년 10월
- “경성의 깍다점가를 걷다”. 『조선및만주』 347호, 1936년
- 천안자, “서울관 심경(深更) 주간 오후2시의 종로”, 『사해공론』, 1936년 10월
- 이태준, “장마”, 『조광』, 1936년 10월
- “백화점풍경”, 『조광』, 1937년 4월
- 박태원, “유정과 나”, 『조광』, 1937년 5월
- 김기림, “故이상의 추억”, 『조광』, 1937년 6월
- “서울종로의 옛 시전”, 『조광』, 1937년 12월
- 채만식, “봄의 현미경적 검사(早春의 街頭에서)”, 『조광』, 1938년 4월
- 이현구, “보헤미앙의 애수의 항구”, 『三千里』, 1938년 5월
- 유진오, “현대적 다방이란”, 『조광』, 1938년 6월
- 추풍연, “야시부근-종로야화”, 『여성』, 1938년 10월
- 채만식, “다방찬”, 『조광』, 1939년 7월
- 김남천, “T일보사”, 『人文評論』, 1939년 11월
- 박태원, “결혼 5년”, 『여성』, 1939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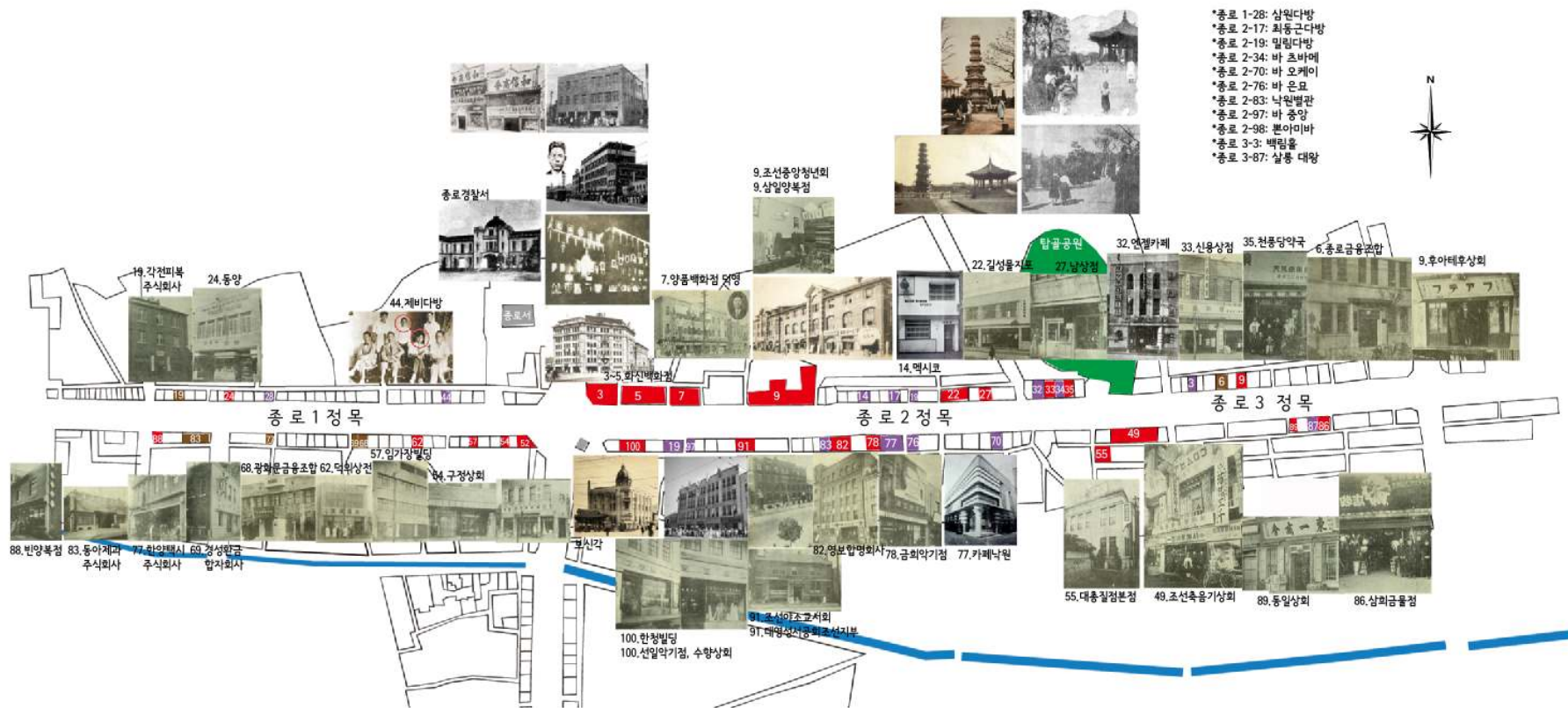
## ■ 신문

- “10년만에 열린 탑동공원 후문”, 『동아일보』, 1928년 6월 6일
- “과고다 공원 부민보건상대문제”, 『동아일보』, 1928년 7월 23일
- “경성역 대혼잡”, 『동아일보』, 1929년 7월 19일
- 이태준, “고향”, 『동아일보』, 1931년 4월 21일~4월 29일
- 김기림, “바다의 유혹”, 『동아일보』, 1931년 8월 27일~8월 29일
- 이광수, “흙(1부~4부)”, 『동아일보』, 1932년 4월 12일~1933년 7월 10일
- 이무영, “지축(地軸)을 돌리는 사람들”, 『동아일보』, 1933년 8월 5일~9월 22일(전 43회)
- 방인근, “마도의 향불”, 『동아일보』, 1932년 11월 5일~1933년 6월 12일
- 안석영, “언론자유는 빠고다공원에만”, 『조선일보』, 1930년 4월 13일
- \_\_\_\_\_, “선술집 시대”, 『조선일보』, 1933년 10월 24일
- \_\_\_\_\_, “승강기의 매력”, 『조선일보』, 1933년 10월 29일
- \_\_\_\_\_, “도회점경”, 『조선일보』, 1934년 2월 9일
- \_\_\_\_\_, “폭로주의의 상가가”, 『조선일보』, 1934년 5월 14일
- \_\_\_\_\_, “병실에서 병실에 上”, 『조선일보』, 1934년 7월 26일
- “인간표정(4)”, 『조선일보』, 1934년 7월 11일
- 박태원, “청춘송”, 『조선중앙일보』, 1935년 2월 7일~5월 18일(전78회)
- 김기림, “그 봄의 戰利品”, 『조선일보』, 1935년 3월 17일
- “다방과 예술가”, 『동아일보』, 1935년 6월 6일
- 이무영, “먼동이 틀때”, 『동아일보』, 1935년 8월 6일~12월 30일(전 133회)
- “춘풍의 밤 개최 삼일밤 낙랑에서”, 『조선중앙일보』, 1935년 12월 3일
- 김말봉, “밀림”, 『동아일보』, 1935년 9월 26일~1938년 2월 7일
- 이용악, “다방”, 『조선중앙일보』, 1936년
- “물건 사실때 본정쪽으로 가십니까 종로쪽으로 가십니까”, 『조선일보』, 1936년 1월 4일
- “길진섭소품전 명십오일부터 낙랑파라에서”, 『동아일보』, 1936년 3월 15일
- 이무영, “명일의 포도”, 『동아일보』, 1937년 6월 3일~12월 25일(전145회)
- “상공 쇼윈도 순례”, 『동아일보』, 1938년 4월 24일~5월 5일
- “조은전 로타리 설계”, 『동아일보』, 1939년 1월 8일
- 박태원, “제비 上, 下”, 『조선일보』, 1939년 2월 22일, 23일
- “맥고모자-쇼윈도에 가두로 탈출했다”, 『동아일보』, 1939년 5월 18일
- “오늘이 시(時)의 기념일”, 『동아일보』, 1939년 6월 11일
- 한설야, “마음의 향촌”, 『동아일보』, 1939년 7월 19일~12월 7일
- 유진오, “화상보”, 『동아일보』, 1939년 12월 8일~1940년 5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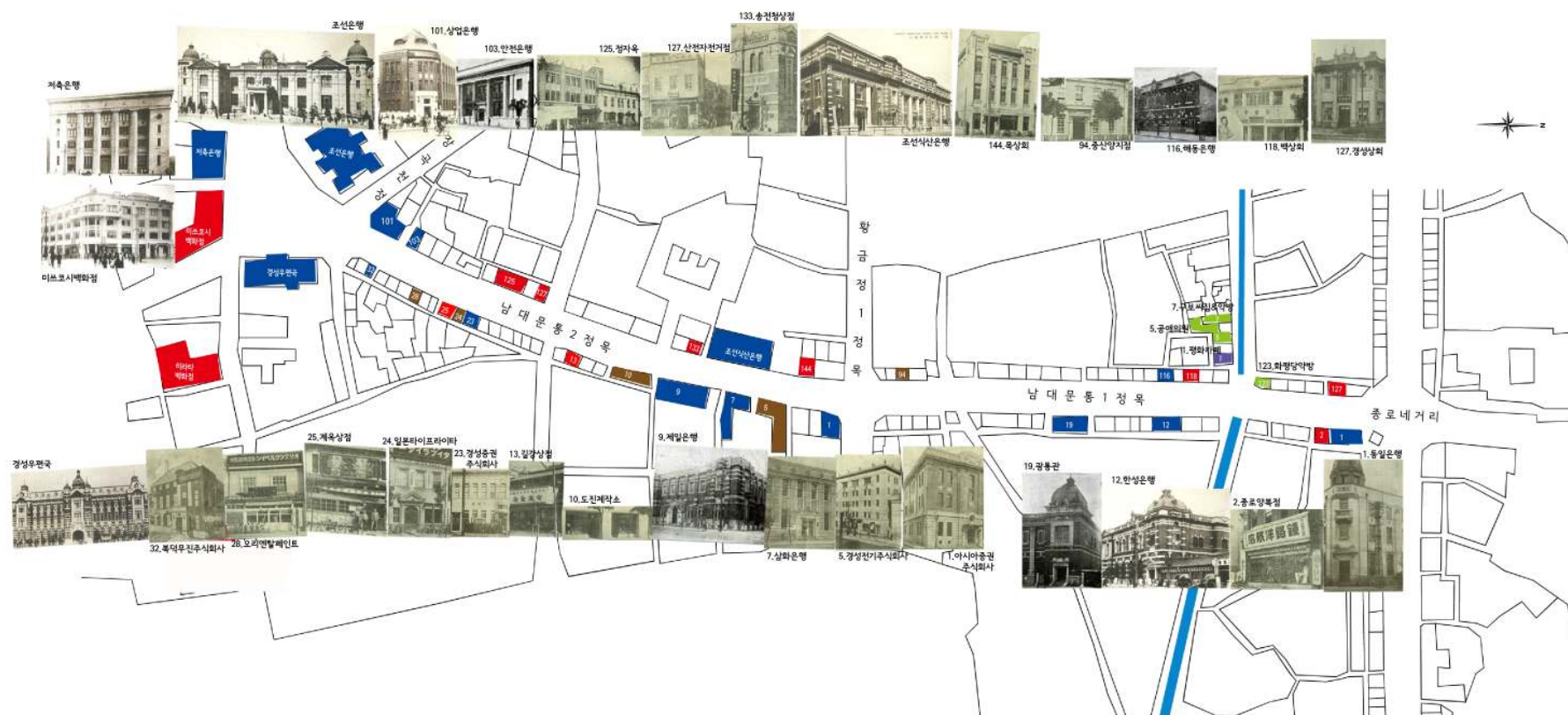
## ■ 영화

- 미몽(1936)
- 어화(1939)
- 반도의 봄(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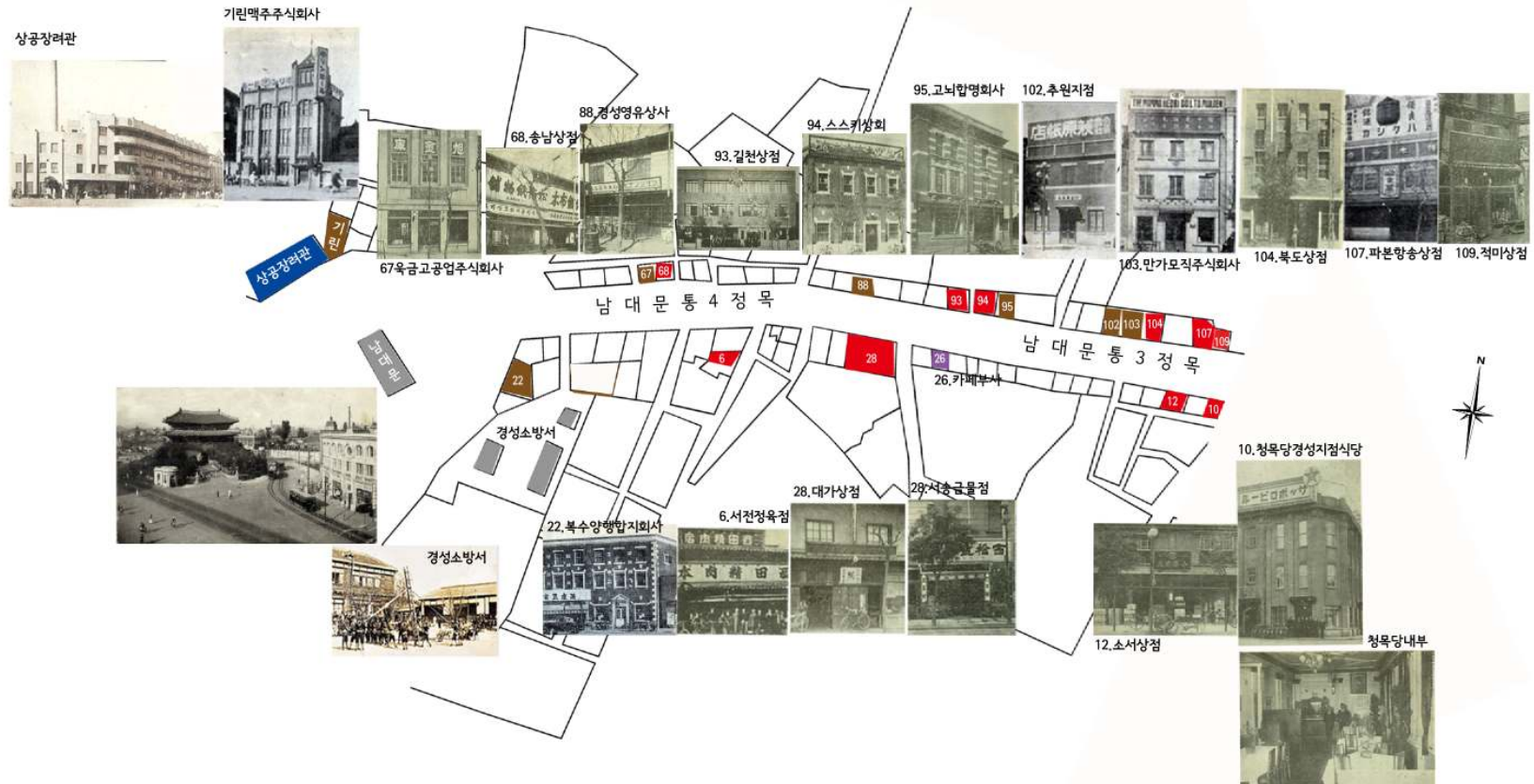
## 부록 1&gt; 1930년대 종로 가로경관



## 부록 2&gt; 1930년대 남대문통 1,2정목 가로경관



부록 3> 1930년대 남대문동 3,4정목 가로경관





부록 4> 1930년대 남대문동 5정목 가로경관



## (The) Analysis of Placeness in 1930s Central Kyungsung through Literary Works

: Based on Tae-won Park's novel, 「A Day of the Novelist Gubo」

Jeong-eun Jeon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Kee-won Hwang

---

Nowadays, many modern structures in Seoul has been torn down without any concern, because they are considered legacy of Japanese colonial era. And a few structures which were preserved as cultural assets are losing their 'placeness', too. If you want to grasp the city space of Seoul, you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Kyungsung' in Japanese colonial era, which links between 'Hanyang' of Chosun dynasty which has history of 500years and 'Seoul' of present-day Korea.

Up to the present, study on these modern structures of Japanese colonial era was largely about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odern structures in terms of architecture.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many modern structures that are considered as colonial era and being torn down, in spite of those efforts.

We have to approach this topic from a new viewpoint. That is, you should not only consider the viewpoint of 'structure itself' such as architecture and physical side, but also consider 'placeness', by



organic view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of the structure and reclaim the memory of the place.

That is, you should not insist unconditional preservation of modern structures. Instead you should recover 'placeness' by collective memory, which contains how people communicated each other and which action was performed in the place of the structure.

It is often said that every single place in a city contains both personal memory and sentiment of the era. This study is focused on interpreting 'placeness' of Seoul by researching about literature works of Japanese colonial era which contains different places of the city. A background place in a literature contains various information about the era and legion. Therefore it can be used as a good source to understand modern structures in Seoul.

This study was focused on "A Day of the Novelist Gubo" by Tae-won Park, which contains detail description and place names of Seoul in the 1930s. Insufficient parts were supplemented by other works of Tae-won Park and works of other writers of 1930s. To get objectivity and concreteness, the reasercher also referred mass medea of this era.

The five subjects of this research contain "Department store, Kyungsung Station, Cafe, Park, and Road" which represents modern city. The researcher adopted the concept of 'Place', 'Time', 'People' to interpret 'placeness' in literature works, and the 'meaningfulness' was added by the researcher.

By these methods, the researcher interpreted how people of 1930s had lived, perceived and enjoyed culture in the city space of Kyungsung.

Conclusion from the analysis on 'placeness' of Kyungsung center in the 1930s through literature are as follows :

i) Most of the urban space have a duplicity of complex mechanism.

ii) Urban leisure and consumption culture due to modernization was the beginning of present urban culture.

iii) 'Spectacle' points from modern city brought the viewers and walking people.

iv) All of these things has happened around the architecture on the main road, and the city people of the 1930s enjoyed modern life around them.

v) Kyungsung 's urban landscape in the 1930's was formed as a result of 'consumption city' rather than 'production city' and it had considerable impact on the landscape of present Seoul.

---

Keywords : 1930s Kyungsung, Placeness, Literary Works, Tae-won Park,  
A Day of the Novelist Gubo  
Student Number : 2010-22366